

정기간행물 ISSN 2092-6499

2013 · 제16호

위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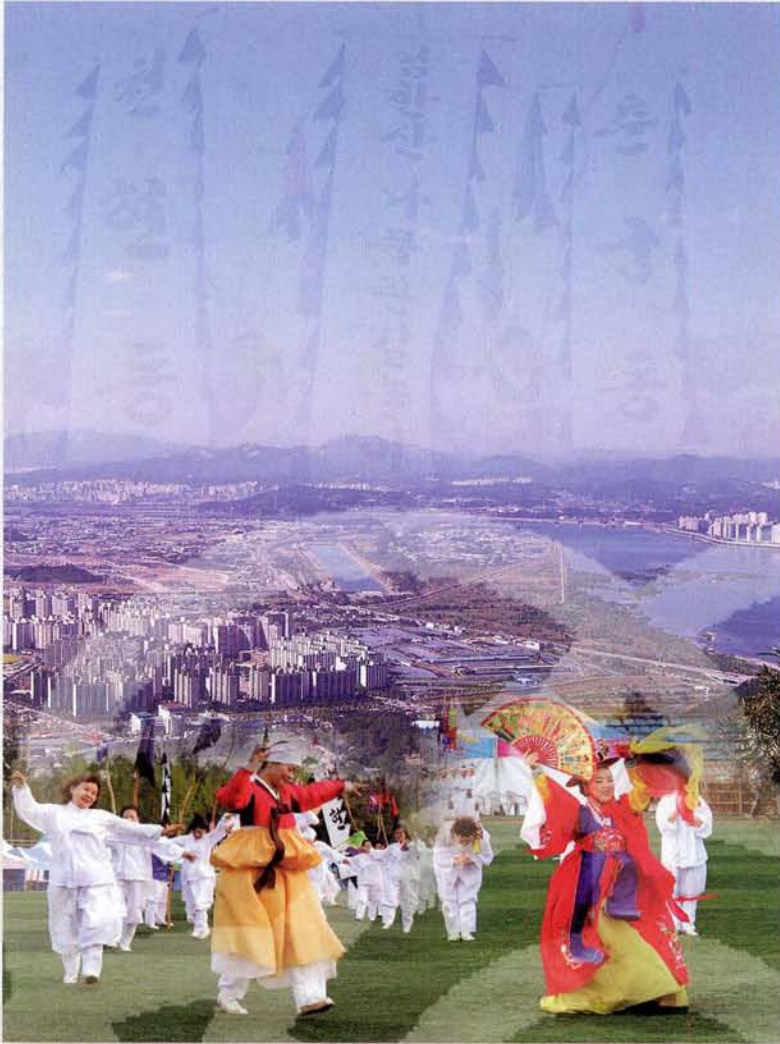
하남문화원

Hanam Cultural Center



2013 · 제16호

위례문화



하남문화원

권두시



하남의 눈부신 날에

시인 김 여 정

여름내 불타는 열정으로 푸른 꿈을 하늘에 새기던
위례강변 들녘의 갈대들이
빛나는 은발의 머리칼을 휘날리며
꿈의 완성을 학의 흰 나래로 춤추는
하남의 눈부신 시월에
그대들에게 황금빛 은행잎 편지를 띄우네

팔당대교 아래로 녹슬지 않는
희망의 시간을 휘감고 달리는 자전거 바퀴들
강물도 반짝 반짝 환호의 손뼉을 치네

뚝방길에 화사하게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연정(戀情)에
숫대 위의 기러기들도 가슴 설레이네

하남의 눈부신 시월에
눈부신 햇살이 된
투명한 하늘의 눈동자가 된
하남 사람들이
갈대밭을 지나 코스모스 꽃길을 지나
가벼운 바람의 발길로 영원을 걷네



하남문화원 원장
유 병 기

하남의 역사와 문화원 년 간 행사에 대한 기록을 해오고 있는 위례문화가 올해로 16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남문화원이 설립된 후 당년을 제외하고 매해 위례문화를 발간하고 있어 책자의 짜임새와 내용을 차치하고 스스로 대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록 지난 회 차들의 원고내용에 있어 하남문화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으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이 또한 우리문화원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위안이 됩니다.

저희 하남문화원은 지난 2008년 지역역사와 문화의 연구를 위하여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나 2014년 신년부터는 향토문화연구소의 체계가 확립되어 향토사의 조사사업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매우 기대되는 바가 커집니다. 지난시간 지역민들에 의해 연구되거나 조사되어진 우리 향토문화의 내용이 위례문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지지 못했음이 아

쉬어 더욱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남은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대부분 갖추어지고 있어 이와 발맞춰 역사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학술 토론회, 그리고 발굴을 통한 하남의 고대 사람들의 문화의식 등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고고학의 전문가들과는 별개로 하남에 산재한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활발히 하여 자료화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토애와 자긍심을 발현하는 기구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2014년에 발간될 위례문화의 내용에도 한층 다채로운 내용의 변화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하남시민 및 회원들께서 문화원에 더 많은 애착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례문화 16집 발간을 위하여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자선생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모두가 건승 하시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 002 ■ 권두시 - 시인 김여정
- 004 ■ 발간사 - 하남문화원 원장 유병기
- 009 ■ 하남문화원 소식
- 023 ■ 역사문화 論壇 - 도수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035 ■ 향토문화 論壇 - 이강범 (하남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
- 069 **특집 1 하남문화원 제5회 학술대회 - 백제 하남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기조발표 | 考古學으로 본 하남시의 歷史와 文化
최몽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사고고학)
- 발표자 1 | 하남지역의 고대인들은 어디서 살았을까?
양정석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발표자 2 | 界線으로서 韓國史 속 百濟人들의 頭髮과 服飾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학 학장)
- 발표자 3 | 하남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김상보 (대전보건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 발표자 4 | 漢城百濟의 하이테크 기술
오순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
-
- 162 ■ 하남문화원 지상강의
명리학 교실 - 황용수
- 165 ■ 문화산책 - 청년의 자기와 만나 다시 꿈꾸게 하는 '글쓰기' - 이해선
장미산성에서 - 우재정

171 **특집 2 하남문예 창작교실 - 영혼의 모음 2013**

불이不二, 매꽃 - 이해선 (문예창작교실 강사)

긴 의자 - 류정호

해녀의 터전 - 박옥임

제왕 절개 - 신찬옥

공동묘지 - 송 희

마늘심기 - 서병국

사랑의 영월 소나무 - 정순왕후 - 안인자

아! 난 설현 - 양길자

마지막 여행 - 양승종

이팝 꽃이 피면 - 백창희

수필 | 동해의 서정을 따라 - 남궁복실

수필 | 바닷가에서 - 오세영

187 **■ 하남문화원 문화 사업 활동기**

-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 활동기 :

하남문화원 전문 강사 파견 어르신문화학교 '나도 플로리스트!' 사업을 마치고

- 최진연 (영락경로원 사회복지사)

어르신! 살아 있는 고티에 취하고 즐겨 보세요 - 조혜정

- 어르신 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 : k-pop silver dencer!!! - 이미옥

- 답사 활동기 : 춘계답사기 - 차영섭 (시인, 하남문화원 해금교실 반대표)

추계답사기 - 강신숙 (하남한성백제연구회 회원)

204 **■ 원고모집 - 2014년 위례문화 원고 모집 안내**

205 **■ 수강생회원 모집 - 2014년 하남문화원 수강생 회원 모집 안내**

207 **■ 하남문화원 주요 사업 및 강좌 안내**

Hanam Cultural Center



2013
하남문화원 소식

하남문화원장 취임식 제6대 유병기 원장 취임



2013년 10월 22일 오후 3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남문화원 제6대 원장 취임식이 개최됐다. 1년 6개월의 긴 기간동안의 공백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하남문화원 제 6대 유병기 원장이 취임을 하게됨으로서 하남문화원이 행정의 공백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유병기 하남문화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남문화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문화 거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활동 공공성의 역량 증대',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문화대학 강좌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남시민들이 17년 동안이나 존립해 온 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하남문화원이 지역활동 공공성의 역량을 키워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며, 문화원이 하남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회원들로 하여금 하남문화원이 금번 취임식과 함께 가일층 성숙되고 발전하는 문화원이 될 것이라 기대를 걸고 있다.

하남문화원 이전 기념식



지난 2013년 9월 6일, 하남문화원은 새집들이 기념식을 가졌다.

하남문화원은 이전 구시청 자리에 위치했던 하남문화원 원사를 구 덕풍3동 주민센터였던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단장한 건물로 8월 29일에 이전을 하고 이날 9월 6일에 새집들이 기념식을 갖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많은 문화계 인사와 시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교범 하남시장은 “역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과 연계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와 문화원이 소통하고 협의하여 예술인과 수강생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하남문화원을 “하남시민의 삶을 풍부하게하면서 여유와 정서를 가꾸고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 소개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였으니 앞으로 새로운 하남을 넓히고 키우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해 주었다. 하남시가 지난 201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번에 준공 이전한 하남문화원은 사업비 16억 3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267㎡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문화나눔실, 창작실, 강의실, 세미나실,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제9회 하남문화원 문화대학 수료식 진행!



제 9회 하남문화원 문화대학 수료식이 2013년 2월 25일 (월)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남문화원 문화관람실에서 이사들과 회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다. 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작된 하남문화대학은 지난해 22개 강좌를 통해 지역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회원들의 문화 충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매년 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수료식은 22개의 강좌를 1년간 성실히 수행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금년에는 70명의 회원이 수료하였다.

또한 수료식에 즈음하여 연간 문화대학 각 반별 활성을 위하여 노력한 회원들에겐 상장 수여를 함께함으로써 문화대학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금년 공로상 수상자는 수지침반의 이자영 님, 우수상은 사군자반의 김소애 님, 남도민요반의 김순남 님, 하모니카반의 김이순 님, 문인화반의 김진동 님, 문예창작반의 류정호 님, 서양화A반의 문동수 님, 꽃꽂이반의 박순자 님, 풍수지리반의 박장인 님, 명리학반의 원경희 님, 한문서예반의 이해군 님, 사물놀이반의 이희선 님, 디카&포토샵반의 최병배 님, 한국화반의 현숙인 님, 서양화B반의 정소희 님, 가요교실반의 안숙례 님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강회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수료를 축하해 주기위해 강사분들 또한 참여하여 수료식을 빛내주었다.

하남문화원 새집들이 기념

- 제8회 작은 음악회를 열다!



하남문화원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6일 금요일에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에서 제8회 새집들이 기념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작은 음악회에서 하남문화원 원사 이전을 기념해 새집들이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남문화원 경기민요반의 강사이자 경기민요 명창이신 박윤정 선생님의 무대로 막을 열었다.

이어서 Quartet Coamorous 팀의 연주로 클래식 선율을 아름답게 들려주었으며 소프라노 원주는 님과의 합동 공연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 다음 공연으로는 현대무용 공연이 펼쳐져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으며 요들송팀, 김홍철과 친구들의 공연 때에는 신바람 나는 요들송의 향연으로 빠져들었다. 마지막 무대는 남도민요 반의 김경희 선생님과 제자들이 펼치는 판소리 공연으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날 작은 음악회 공연에는 약간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하남문화원 춘추계 답사



하남문화원에서는 2013년 춘·추계 답사를 4월 26일과 10월 25일 두 번에 걸쳐 시행하였다. 춘계 답사로는 충주의 장미산성, 누암리 고분군, 중원고구려비, 중앙탑평리 칠층석탑, 탄금대, 충주댐을 답사함으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을 함께 돌아보는 계기를 통하여 삼국시대 수상교통의 요지인 충주가 삼국 쟁탈의 접전지로서 얼마나 중요했던 지역인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우륵의 설화가 깃든 탄금대의 경치에 취하면서 동시에 임진왜란으로 신립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왜놈들의 조총에 쓰러져 탄금대 아래 강물에 수몰되어진 현장은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현재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심란한 마음이 교차하는 현장이었다. 다음 답사지인 충주댐의 웅장함은 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고대에서 조선에 이르기 까지 상흔 깊은 충주 역사에 있어 어지러웠던 머릿속을 시원히 청정시켜주는 일정으로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충주를 한눈에 들여다본 것 같은 흥미있는 답사였다.

추계답사는 전주 일대를 답사하였다.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선대들이 살았던 곳으로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풍패지향이 되어 조선시대 내내 그 위상이 대단하였던 지역이다. 더욱이 전주는 호남지역의 내륙으로서 곡창지대의 한 중심에 있으므로 예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두루 갖춘 곳의 의미인 온 고을로 불려져 왔다.

문화원 답사가 늘 그러하듯 이른 시간에 출발이라 회원들 모두 피곤한 모습 이었지만 답사여행의 호기심 가득한 들뜬 기분은 전주의 푸근한 풍광에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에 충분했다. 처음으로 도착한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태조 이성계의 위패를 모신 경기전, 조선시대 천주교도 순교 터에 그 뜻을 기리고자 1908년 프랑스신부 보두네가 착공을 시작하여 1914년에 완공한 성당으로 포근하면서 웅장하고 화려한 로마네스크 복고양식의 전통성당을 답사하고, 강암서예관, 전주향교, 한옥마을을 돌아 답사를 마쳤는데 해설을 하여주신 전주 어른신의 입담이 너무나 재미있고 열정이 가득하여 어느 것 하나 빠지 않고 전주의 역사를 두루살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전주는 비빔밥 축제와 맞물려 여러 가지 행사와 문화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풍성한 답사가 되었다.



2013 하남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하남문화원에서는 2013년 올 한 해 동안 한국문화원 연합회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 사업을 주제가 서로 다른 4가지의 사업으로 진행 하였다. 첫 번째로 2012년에 이어 올 2013년에도 고연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치매 예방 및 여가활용의 기회를 드리고자 관내에 위치한 영락경로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나도 플로리스트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연간 진행되었던 나도 플로리스트 사업 말미에는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꽃꽂이 작품을 전시하고 일반인 및 가족들에게 공개하여 행사를 함께 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 및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다음으로 진행한 - 우리는야! 찾아가는 약손봉사대야!! 라는 사업으로 하모니카와 수지침 수업을 듣는 하남문화원 회원들을 중심으로 봉사대를 구성하여 영락경로원과 청담요양원 등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매주 의료와 음악 봉사활동을 갖는 뜻 깊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 번째 사업으로 어르신 동아리 사업으로 진행된 We Are 'K-POP' Silver Dancer! 를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 뿔어나가는 K-POP댄스를 어르신들이 배우며 즐기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고 연령의 어르신들에게 춤을 통한 자심감과 열정의 표현을 갖게하는 기회가 되면서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큰 활력소가 되어준 사업이었다.

끝으로 웃다리 어르신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경기 지역에 전통 가락인 웃다리 풍물을 배우는 신명나는 사업으로 우리 전통가락을 어르신들이 직접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며, 발표회를 통해서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신명나는 시간도 마련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민족문화의 얼을 고취시키고 정체성 함양의 기회로 삼은



제4회 하남 단오축제



2013년 6월 12일(수),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에서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중 하나인 단오절 행사를 개최하였다. 관내 초등학교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단오행사는 오후 2시부터 체험행사를 비롯한 각종 단오놀이를 다양하게 펼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면서 유쾌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행사 축하공연인 웃다리농악팀의 신명 나는 연주를 시작으로 하남 단오축제의 막을 올렸으며, 예전에 없었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회화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놀이와 함께 다방면으로 단오절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번 4회 단오축제로 하남문화원에서는 잊혀가는 전통 놀이문화의 재현과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대동단결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하남의 지역색을 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축하공연으로 나률초등학교 민요반 어린이들의 강강수월래 공연, 마술공연이 펼쳐졌고, 어울마당 한 곳에 마련된 씨름장에서는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나누어져 펼쳐진 경기가 손에 땀을 쥐며 응원하는 모습에 참가자 모두 하나가 된 잔치 분위기였다. 체험행사로 투호하기, 제기차기, 단오부채 만들기, 단오 기념 클레이 만들기, 굴렁쇠 굴리기, 단오명절 퀴즈 맞추기가 있어 풍성한 놀이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먹거리 부스로 떡 메치기, 수리취떡 떡살 찌기, 다식 만들기, 국수 장터가 있어 체험을 하면서 심심한 배를 채우는 시식이 펼쳐졌다.

특히 국수장터 시식은 대한적십자사 하남시 연합봉사회에서 전날부터 직접 육수를 내고 반찬을 만들어 정성스러운 시식 자리가 되었다. 제4회 하남 단오축제는 애항심 고취와 향토애를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속놀이를 통한 시민 상호 간 친목이 높아져 해를 거듭 할 수록 하남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5회 학술대회 개최

- '백제 하남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남문화원은 지난 10월 11일 '백제 하남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남시의 역사적 근원과 자취를 찾아보는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최몽룡 교수는 '고고학으로 본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신석기 시대부터 고대 하남의 지역적 환경과 삼국의 각축장으로서의 중요 입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남시가 가지는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앞으로 계속 발굴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하남의 정체성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수원대학의 양정석 교수는 하남의 중요한 유적인 미사리를 중심으로 한 초기백제부터 신라에 이르기까지의 집자리 유적을 통하여 고대 하남사람들이 어떠한 주거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발표하였고, 세 번째 발표자로 참가한 이도학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界線으로서 韓國史 속 百濟人들의 頭髮과 服飾'이라는 주제로 고대 백제인들의 두발문화와 복식문화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네 번째로 발표한 김상보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는 '하남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김치의 원류에 대한 내용과 염장문화, 식혜 등 농농사와 관계되어 만들어진 화식문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에 따른 반찬의 변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다섯 번째로 발표한 오순제 한국고대사연구소장은 '漢城百濟의 하이테크 기술'이란 주제로 고대 백제인들의 건축기술과 제련기술, 석조가공술 및 토기제작의 우수성 및 공예미술에 있어서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하여 발표함으로써 고대하남인들의 의식주 삶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옛사람들과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남의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자긍심을 발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제19회 경기민속제

- 민속놀이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 놀이'로 참가



제19회를 맞은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포천시, 포천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우리 하남시는 하남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민속놀이 중 고골의 내밋길 마을에 전승되는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 놀이'를 선택하여 2월말부터 연습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신명나는 풍물 놀이와 함께 벌이는 연회는 어깨춤이 들썩이게 하였고 참여자 모두가 대동단결하는 전통문화의 시연이었다.

매주 어르신들이 모여 하남문화원에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기나긴 8개월여 동안의 연습은 당일 넓은 운동장에 우렁찬 사물놀이패의 웃다리 풍물을 시작으로 꽃을 피워 하남의 전통민속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3 문화대학 특강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배우다!



해마다 하남문화원은 하남역사와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하면서 회원 및 시민들에게 하남문화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발현시키고 있다. 금년에 시행한 특강은 4월 11일(목)과 9월 5일(목), 12일(목) 2차에 걸쳐 특강을 진행하면서, 춘계는 “삼국시대 산성을 통해서 본 이성산성의 특징”이란 주제로, 추계는 “재미있는 논어이야기”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4월에 진행된 특강은 한밭대학교 심정보 교수께서 우리지역의 고대사와 관계된 정체성 확인을 위하여 다년간 연구한 「삼국시대 산성을 통해서 본 이성산성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강의로 3시간 동안의 열정적인 강의가 펼쳐져 회원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성산성’의 역사에 대하여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하반기 추계 특강은 9월 5일과 12일 2일에 걸쳐 「재미있는 논어 이야기」라는 주제로 김선숙 선생님을 모시고 논어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주제 자체가 다소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이 없지 않았으나, 강사님의 편안한 언변과 재미있는 주변의 이야기를 곁들여 주제를 조금더 쉽고 편하게 다가설 수 있게 강의함으로써 회원들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문이란 언어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던 것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14회 하남문화대학 회원작품 발표, 전시회



하남문화원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5일간) 하남문화대학 회원작품 발표회를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원작품 발표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정기행사이며 일년간 수업한 내용을 총 점검하는, 문화원 회원들로서는 가장 큰 행사로서 금번에 참여한 강좌는 서예를 비롯한 평면작품반 7개 강좌와 꽃꽂이와 한지공예 2개 강좌의 전시가 이루어 졌으며, 8일에는 구성지고 정겨운 남도소리를 시작으로 영남사물가락, 경기민요, 스포츠댄스, 하모니카, 공연을 비롯한 10개 강좌의 발표회가 문예회관 아랑홀에서 발표되어 다채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서 금번 발표회를 찾은 회원 가족 및 내빈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는 행사가 되었다.

해마다 수준이 높아지는 수강생들의 실력으로 하남문화대학이 평생교육의 자리가 마련되는 기틀이 되어가고 있다.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 교육하여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남시민들과 함께 격려와 칭찬을 보내 드리면서, 하남문화대학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질적이나 양적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설을 갖추어 문화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마을별 민속제

- '샘재군웅제' 등 8개 마을 민속제례 지원, 지역 화합 다져



우리 하남의 마을별 민속제는 지역 특성상 삼면의 산과 한강을 중심으로한 지류의 개울물이 어우러져 우리 조상들이 생활하는 근간이 되면서 예부터 산과 강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동리들을 중심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질병의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과 직면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공존을 위해 옛날부터 행해져온 행사로서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으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동리의 안녕을 위하여 제례를 행하고 있는 8개동에 대하여 민속제 지원사업을 매해 진행하고 있다.

하남의 민속제는 샘재군웅제, 검단산산신제, 양곡단오제, 미사동성황제, 향동산신제, 궁안마을 산신제, 선산동산신제, 버구리목신제 등 8개의 마을이 제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제례기일을 정하고 제관을 정하여 주변을 정갈히 한 후 제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민속 문화는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뿐 아니라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포함되며 그런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색을 살려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역사문화 論壇

소부리(所夫里)와 성왕(聖王)

도 수 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소부리(所夫里)와 성왕(聖王)

도 수 희

1

‘소부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의 이름이다. 이 ‘소부리’는 백제가 서기 660년에 멸망한 뒤에도 거의 100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다가 서기 757년(경덕왕 16년)에 현재의 ‘부여’ (扶餘)로 개정되었다. 그러니까 현 扶餘는 신라 경덕왕이 개정한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이곳을 오로지 ‘소부리’라 불렀다. 이 지명은 백제의 지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뿌리가 마한에 박혀 있다. ‘소부리’의 ‘-부리’(夫里)가 마한 지명의 -비리(卑離)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 ‘-비리’를 승계한 백제 지명이 古良夫里(◊靑陽), 未冬夫里(◊南平), 毛良夫里(◊高敞), 古沙夫里(◊古阜), 夫夫里(◊澮尾), 半奈夫里(◊潘南), 余陵夫里(◊陵城), 波夫里(◊福城) 등의 ‘-夫里’와 같이 일반적으로 씌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부리’의 뿌리가 마한에 박혀 있는 아주 오래 묵은 군·현(郡·縣) 단위의 큰 지명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부리’는 마한 54 국명 중에서 어느 것을 계승한 것인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마한의 ‘사로국’(駟廬國)을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속로국’(速廬國)에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어느 하나를 승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부리’는 마한 시대에는 어엿한 국명(부족명)이었다. 마한이 망한 이후에 백제 치하에서 郡 단위 이름으로 오랜 동안 씌었다. 드디어 성왕이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자 일약 새 서울의 이름으로 승격되어 122년간의 눈부신 각광(脚光)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성왕이 웅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찾아낸 곳이 하필이면 ‘소부리’이었는가? 그 택지의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광활한 한벌(大原)이란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부리’의 -夫里는 ‘드넓은 벌판(大原=한벌)’이란 뜻이다. ‘-부리’가 말 모음 ‘ㅣ’를 잃고 ‘벌’로 변하였다. 현 경주와 상주의 옛 이름 徐伐(서벌)과 沙伐(사벌)의 ‘-벌’이 ‘-부리’의 준 말이다. 모두가 광활한 벌판을 의미한다. 부여의 부소산에 올라 남쪽을 바라다보면 가마득히 보일만큼 드넓은 벌판이 펼쳐진

다. 사벌국(沙伐國)尙州의 수도 '사벌'과 신라의 수도 '서벌'(徐伐)보다 더 광활한 한 벌(大原)이었다. 그래서 천도하기에 충분한 넓이의 새 터전이라 여겼을 것이다. 게다가 지형이 요새(要塞)인 임시 수도 '고마늑르'(熊津公州)와 '소부리'의 지세가 거의 비슷하였다. 우선 배산(鎭山)인 부여의 '부소산'과 공주의 '공산'의 위치가 비슷하였고, 그 뒤로 감돌아 흐르는 금강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자연적 방어조건이 같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 요새의 지리적 환경은 백제 전기의 수도 한훔(廣州)과도 비슷하였다. 동북쪽의 김단산 기슭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는 등 자연적 요새를 이룬 환경이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언제 재침할지 모르는 고구려를 주적으로 삼았던 백제로서는 우선 북방(北防)의 자연 요새부터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자연의 지세가 한훔(廣州)·고마늑르(公州)·소부리(扶餘)가 거의 같았던 것이다.

실로 '소부리'는 신라의 '서벌' 못지않게 광활한 벌판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부소산에 올라가 남쪽을 조망(眺望)하면 그 광활(廣闊)함이 까마득히 멀고 넓다. 그리고 오른쪽(서편)으로는 금강 건너편에 서남부의 들녘이 펼쳐져 있고, 왼 쪽(동편) 또한 동남부의 벌판이 펼쳐져 있어서 오히려 '서라벌' 보다 넓은 편이다. 만월성 북쪽을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과 서북으로 감돌아 흐르는 사비강은 수도를 방어할 자연 요새를 이루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금강의 풍부한 수량은 수도의 많은 인구가 흡족하게 쓸 수 있는 급수원이요 문화 창달의 젖줄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금강은 백강구(白江口)군산포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비강의 양안에 포구가 있어서 외국(일본과 중국)을 왕래하는 수로(통로)가 되었다. 특히 지금의 '구드래 나루'는 당시에는 항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포구이었다. 아마도 외국의 사절과 상선이 이 '구드래 나루'를 통하여 '소부리'에 드나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수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백강(금강)은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이는 신라의 '서벌' 보다 훨씬 우월한 지리적 조건이었다. 이처럼 '소부리'는 지형과 지세가 천도의 조건을 충족하였던 것이다.

둘째; 지명 '소부리'의 전통성과 의미가 사벌국의 '사벌' 및 신라의 '서벌'과 동일 어원에다 동일한 의미라는 점이었다. 필자는 '소부리'가 '사벌' 또는 '서벌'로 변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1) '소부리' > '사비'의 약사

마한의 나라 이름인 '사로국' 또는 '속로국'에 소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부리'는 마한 시대에는 어엿한 국명(엄격히 말해서 부족명)이었던 것인데 마한이 망한 이후 오랜 동안의 백제 치하에서 郡名으로 격하되었던 것이다. 백제 후기에 천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122년간의 백제 마지막 서울이 된 것이다. 백제가 망하자 '소부리주' > 소부리군'과 같이 州가 郡으로 격하되었다. 백제가 망한 후 거의 100년만인 서기 757년에 신라 경덕왕(16년)이 '소부리'를 현 부여로 개정하였다. 경덕왕은 성왕이 새로 개정한 국호 南扶餘에서 扶餘만 절취하여

새 지명으로 삼았다. '소부리'를 새 국호의 일부를 따다가 개정하므로 현지의 민심을 달래면서 실속은 '소부리'(백제의 흔적)를 지우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려는 흥계였다. 백제의 수도명인 '소부리'는 애석하게도 이렇게 공식 명칭에서 맥이 끊기고 말았다. 이 점이 신라 수도명인 '서벌'과 다르다. '서벌'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1000년간이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망한 뒤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2) 소부리·서벌·사벌의 관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어원이 신라의 '서벌'(徐伐)에서 출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서벌'>서블>서블>서울>서울'로 변천한 것으로 주지하고 있다. 이 지식은 『삼국유사』 권1의 “徐伐 今俗訓京字云徐伐也 以此故也-지금 속세에서 京자를 '서벌'(徐伐)이라 새기는 것도 이 까닭이다”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어원은 훨씬 이른 시기로 소급된다. 물론 사벌국의 '사벌'만은 '서벌'(徐伐)과 동일 시기의 어원이었겠지만 '소부리'의 어원은 보다 이른 시기에 출발한 것이었다.

우선 所夫里、徐伐、沙伐에서 '所、徐、沙'는 '새'(東)를 추상적으로 음차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두 東의 뜻이다. 동풍을 고유어로 '새바람'이라고 한다. 이 '새'(東)와 같은 말이다. 남은 문제는 '-부리:-불'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한 시대의 지명소 '-비리'가 '-부리'로 이어져 백제 시대에 씌었다. 중세 국어 이후 오늘날까지 남아서 지명소로 쓰이고 있는 '벌'에 대한 보다 이른 시기의 말이다. 그렇다면 '-부리'(夫里)는 '-벌'(伐)보다 이른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고대 국어의 음운탈락 규칙 중에 말 모음 탈락 규칙이 있다. 그 예로 '고마'>곰(熊、北), '니마'>남(南), '고리'>골(舊), '드르'>돌(山、高), '서마'>섬(島) 등을 들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부리'가 말모음 'ㅣ'를 잃고 '-부리'>부리>벌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비리'>부리>부리>벌로 변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벌'의 전 단계가 '-부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부리'가 '서벌·사벌' 보다 이른 형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에서 재론하겠지만 '소부리·서벌·사벌'의 어원이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말의 변천 과정은 '所夫里'>徐伐、沙伐>서블>서블>서울>서울(京)'과 같이 발달 순서에 따라서 정리된다. 그렇다면 현 서울의 어원이 '서벌'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은 '소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벌'이 신라의 천년 수도 명으로 씌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통명사로 굳어져 '신라어'>고려어>조선어>현대어'로 맥이 이어져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서벌'이 최초의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현대어 '서울'은 '서벌' 보다 이른 시기의 어형인 '소부

1) 이 문제는 廣州의 한울(漢城), 公州의 고마누르(熊津), 扶餘의 所夫里에 대한 도읍지의 지세와 입지조건을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비교 고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그 詳論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리'에서 기원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소+부리, 서+별, 사+별'과 같이 두 지명소의 합성어이었다. '소, 서, 사'는 '東、曉、新、光明'의 뜻이었다. '부리'별'은 평원의 뜻이었다. 그런데 두 지명소가 합성하여 東原의 뜻인 '새부리'새별'로 씌웠던 것인데 후대에 거기가 각각 수도가 되자 본래의 뜻(고유지명)이 수도(京)의 의미로 전의된 것이라 하겠다.

(3) '소부리'와 '사비'는 어떤 관계인가?

먼저 '사비(泗沘)'와 '사자(泗泚)'의 문제부터 풀기로 하겠다. 필자는 사비(泗沘)가 정통인 것으로 추정한다. '사자'의 '泚'는 '사비'의 '沘'에 획을 하나 잘못 그은 오기 또는 오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례는 고문헌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런 잘 못은 옮겨 적거나, 판각 과정에서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하여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다 근본적인 까닭은 '沘'와 '泚'가 닮은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泗沘'를 일단 버리고 '泗泚'를 중심으로 所夫里와의 관계를 비교 고찰기로 하겠다.

만일 사비를 '사+비'로 분석할 수 있다면 '소+부리'와의 대비에서 '소=사', '부리=비'의 등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지명소 '-부리'가 '-부리>-부 0 이>-뷔>-비'로 변하여 '소부리'가 '소비>사비'로 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동일 지명인 부여를 아직도 '소부리' 또는 '사비'라 부르는 사실을 바탕으로 앞의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강을 '소부리강' 또는 '사비강'으로 부르는 것도 뒷받침이 된다.

다음은 '소부리', '사비', '백강(白江)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에서 '소부리'와 '사비'는 동일 어원의 변형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면 '백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백강'을 일명 '소부리강', '사비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白'의 새김이 공교롭게도 '숯~술비'이다. 白江은 고유어(백제어) '숯~술비~스비+江'에 대한 한역명(漢譯名)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소부리'의 별칭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옛 지명은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여 그 명맥을 이어간다. 삼국 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지명이었던 것들이 후대로 오면서 격하되어 면단위 또는 마을의 이름으로 살아남은 사례가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웅진(熊津)의 이름인 '고마나루'가 현재 '고마나루'로 남아 있는 예이다. 또한 백제 시대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을 경덕왕이 덕진현(德津縣)으로 개정하였는데 지금도 '덕진리'로 남아 있다. 또한 '소부리' 역시 경덕왕 16년(757)에 지금의 부여로 개칭된 이후 점점 세력을 잃고 결국은 구석으로 밀려나 한 마을 이름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부소산 자락에 위치한 구 부여박물관 앞마을의 '소부리'(부락)가 바로 백제의 수도명이었던 옛 '소부리'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부리 부락'의 전면에 광활하게 펼쳐진 드넓은 터전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 '소부리'이었다.

(4) ‘소부리’는 영구 수도의 길지(吉地)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침으로 수도(한홀)廣州가 함락되자 백제 개로왕(제21대)은 전사하고 아들 문주왕이 황급히 남하하여 정착한 곳이 피난 수도인 ‘고마늑르’(熊津)이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으로는 최적의 도읍지로 자연 요새인 웅진(公州)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마늑르’(熊津)은 창졸간에 선정한 전시용 임시 수도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영구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협소한 터전이었다. 그래서 수도 이전(移轉)의 필요성이 날로 익어 갈 수밖에 없었다.

국난으로 부득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후 48년이 지난 서기 523년에 무령왕의 뒤를 이어 성왕이 즉위하였다. 성왕은 15년 동안 국정을 펴면서 수도인 웅진(公州)이 너무나 협소하여 백제 대국의 꿈을 이루려는 서울로서는 적합한 곳이 아님을 수시로 깨달았을 것이다. 결국 성왕은 16년(538)에 ‘소부리 천도’라는 국운을 건 거대한 영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백제의 발전사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결단이었다.

실로 거의 500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수도로서 손색이 없었던 ‘한홀’(廣州)을 회복하기 위한 웅진 시대 백제의 염원은 오로지 부단한 ‘북진 정책’뿐이었다. 그리하여 수시로 신라와 연합하여 빼앗긴 옛 영토를 찾으려고 북벌을 도모했지만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다. 드디어 성왕은 그 꿈을 접고 63년의 웅진 시대를 마감하고 수도를 ‘소부리’로 옮긴 것이었다. 이렇게 천도를 단행한 사실은 북진책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우선 새롭게 중흥을 꾀하려는 국책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왕은 옛 서울이었던 ‘한홀’(廣州)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명승지를 찾았을 것이다. 그곳이 곧 ‘소부리’인 것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여기서 다시 한성 백제의 ‘한홀’(廣州)과 ‘소부리’의 비교를 요약하면 천도의 이유가 극명하게 들어날 것이다. 우선 광활함이 비슷하다. 거기에는 ‘한홀’은 북으로 한강이 흐르고 ‘소부리’는 북으로 금강이 흐른다. 이 점은 임시 수도였던 웅진(公州)도 비슷하다. 고구려의 남침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차 방어선으로 한강과 금강을 선택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성왕이 억울하게 강탈당한 500년 도읍지 ‘한홀’(광주)과 동일한 지세와 지형을 발견하여 결정한 곳이 바로 ‘소부리’였다. 그 위치만 남쪽에 있었을 뿐 내용으로 보면 결국 백제 전기 시대의 수도 모습을 복원한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국호의 개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5) 새 국호 남부여(南扶餘)는 백제의 근원(根源)을 밝힌 것이다.

성왕은 만세흥국(萬歲興國)의 최적지로 ‘소부리’를 택지(擇地)하여 영구적인 수도로 확정하고 서울을 현 공주에서 부여로 옮기면서 국호 백제를 ‘남부여’와 ‘웅준’(鷹準)으로 바꾸었다. 성왕

이 수도를 옮기면서 500여 년 동안이나 사용하여 온 국호(百濟)까지 아울러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의 남침으로 졸지에 당한 참담한 과거에서 벗어나 국가를 재건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도약과 중흥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위에서 일차 설명한 바와 같이 임시 수도 웅진 시대에는 고구려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영토(황해도,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지역)를 도로 찾기 위해 여러 번 북벌을 도모하였지만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서울 한훤(廣州)의 탈환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여 최적지를 찾아 '소부리'로 천도한 것이었다.

둘째; 수도를 옮기면서 성왕이 500년이나 사용해 온 국호 '백제'를 '남부여'로 바꾼 것은 백제의 뿌리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백제가 비록 고구려에서 분파하여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실은 그 뿌리는 '북부여'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방에 있는 부여란 뜻으로 北자를 南자로만 바꾸어 北扶餘가 남쪽에 내려와 있다는 의미를 담아 南扶餘라 새로 지은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鷹準(웅준)이란 국호를 따로 제정기도 하였다. 모두가 새로운 중흥을 다짐하는 색신의 의미이었을 것이다.

실은 국호 百濟의 百을 '온'으로 추독할 수 있다. 그리고 濟는 음차자로 보고 '제'로 추독할 수 있다. 그렇다면 百濟는 '온제'로 풀어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온제'는 이른바 시조 이름으로 알려져 온 '온조, 은조, 은조'(溫祚, 殷祚, 恩祖)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웅준'(鷹準)은 '온조'의 변화형을 한자의 음을 빌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를 종합하건대 溫祚는 시조의 이름이 아니라 '온조, 온제(百濟), 응주(鷹準)'와 더불어 국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성왕은 북부에 그 뿌리(母國)가 있음을 새 국호로 나타내었고, 전통적인 고유어 국호인 '오조, 온제'가 오랜 세월을 많이 변화하였을 터인데 그 변한 국호(전래 국호)를 음차 표기한 것이 '웅준'이었다면 이 고유국호 또한 길이 보전하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셋째;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왕의 아명을 『삼국사기』는 明儂(명농)이라 하였고, 『삼국유사』는 明이라 하였고, 일본의 고문헌인 『신찬성씨록』은 明王이라 하였고, 중국사서인 『양서』, 『진서』는 餘明이라 하였다. 고구려 시조 東明聖王에서 성왕의 이름자와 동일한 明자를 발견하며, 그 아들 琉璃明王에서도 明자를 발견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동일함에는 반드시 의도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聖王의 시호인 聖자를 東明聖王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東明을 제거하면 결국 동일한 聖王이 된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나 시호로 보아서도 백제의 뿌리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흔적이 매우 뚜렷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2.

백제 성왕(제26대)의 이름은 명농(明儂(穰·穰))([『삼국사기』, 『삼국유사』) 또는 明이었다(중국 『양서』). 그리고 明王 또는 聖明王이라 적혀 있기도 하다.([『일본서기』) 탄신 년 월 일은 알 수 없지만 승하하신 년 월은 서기 553년 7월이다.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로 32년간(523-554) 왕위에 있었다. 성왕의 아명은 한자로 明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부를 때는 고유어(백제어)로 호칭하였을 것이다. 그 고유어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성왕은 태어나면서 총명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明이라 지었을 것이다. 고구려 시조와 그 아들의 이름이 동명(東明)과 유리명(琉璃明)이다. 신라 시조의 이름도 혁거세(赫居世=불그누리) 또는 불구내(弗矩內)라 불렀다. ‘불구내’는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 신라 말이었다. 赫居를 고유어(신라어)로 표기한 것이 ‘불구(弗矩)’이다. 赫居의 居는 赫居를 반드시 ‘불구(>불그)’로 부르라는 표시로 赫의 새김인 ‘불그’의 ‘그’를 받쳐적은 것이다. 그리고 內가 世와 대응하니 ‘내’(內=nay)는 世의 새김 ‘누리’(>뉘)와 같은 말이다. ‘누리’(世)는 고구려 유리명왕과 신라 유리(노례)왕의 이름이 ‘누리불가(琉璃明)’, ‘누리(儒理·弩禮)’인 데서 확인된다. 琉·儒·弩의 고대 음은 ‘누·뉴’이었고, 璃·理·禮의 고대 음은 ‘리’이었기 때문에 ‘누리’로 해독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자(明, 赫)를 차용하여 고유어 ‘불그’를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와 신라는 초기 왕명을 ‘불그’ (明)로 지었던 것이니 백제의 성왕은 光明理世(밝게 세상을 다스린다)의 자질을 갖춘 왕재(王才)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시호인 聖王에 이름 明을 접두하면 明聖王인데 이는 東明聖王에서 東을 빼면 같은 이름이 된다. 아마도 성왕의 이름과 시호는 고구려 시조의 시호(또는 이름)에서 나온 듯하다. 선왕인 무령왕의 뒤를 이어 등극한 성왕은 그의 이름과 시호에 걸맞게 지혜와 도량이 뛰어났고 나라 일을 결단력 있게 다스린 성군이였다. 그래서 ‘성명왕’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의 아명인 明도 백제말로 ‘불그’라 불렀을 것이다.

성왕이 왕위에 오른 첫해인 8월에 고구려의 군사가 남침하여 왔다. 좌장 지충으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출전케 하여 적병을 물리쳤다. 성왕 3년에는 신라와 사신을 교류하여 서로의 우의를 다졌다. 동왕 4년에는 공주 웅진성을 보수하고 사정책(沙井柵)을 세웠다. 특히 『미륵불광사적』에서 알아 보면 이 해에 백제의 스님 겸익이 율(律)을 구하기 위하여 인도로 출발하였다. 그는 인도의 상가야대율사에 도착하여 5년간 고대 인도어인 범문(Sanskrit어)을 배웠기 때문에 고대 인도어에 능통하여 율부(律部)를 깊이 연구하고 범승(梵僧) 배달다삼장과 함께 『오부율문』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때에 성왕은 잔치를 크게 베풀며 이 두 사람을 환영하였고 나라 안의 유명한 스님 18인을 초대하여 겸익과 함께 율부 72권을 번역케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담옥과 혜인이 함께 율소(律疏) 36권을 지어 바치게 하였고, 성왕 자신도 『비담신율서』를 지었다고 전한다.

성왕 7년(서기 529) 10월에 고구려의 안장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남침하여 북쪽 변방의 혈성(穴城)이 함락되었다. 성왕은 좌평 연모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오곡원(五谷原)에서 항전케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패전하여 2000여 인이나 전사하였다.

성왕이 나라를 다스린 32년 동안에 성취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임시 수도였던 웅진(고마나루 > 公州)의 피난 생활 63년을 청산하고 인근의 소부리(> 부여)로 서울을 옮긴 결단이었다. 성왕 16년(538)에 신라의 서울 서라벌(> 경주)보다 광활한 대지인 소부리를 택지하여 이곳을 길지로 삼아 새 서울을 건설하고 백년대계의 백제 중흥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3

성왕은 서기 554년(32년) 7월에 신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고리산성' (古尸山城) > 沃川) 부근에 위치한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이때에 잠복하였던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불행히도 생포되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초와 모욕을 당하며 생을 처참하게 마쳤다고 전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신라 진흥왕 15년(서기 554)의 기사는 다르다. 백제의 성왕이 가라와 더불어 지금의 옥천에 위치한 고리산성(菅山城)을 침공하므로 처음에는 신라군의 전세가 불리하였으나 新州(현 廣州)의 軍主인 김무력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主兵으로써 내전하자 비장 삼남산군(> 보은군)의 고간 도도의 기습공격으로 성왕이 살해되었다고 적혀 있다. 절치부심 염원했던 영토 확장과 백제 중흥의 꿈은 소부리 천도의 보람도 없이 이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 실로 신라가 백제의 성명왕을 얼마나 두려워 했는지의 이면사(裏面史)를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한 그 내용 중 특히 “만일 公의 一門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흥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술회한 문무왕의 고백은 참으로 의미심장(意味深長)하기 때문이다.

문무대왕이 英公(李勣)과 함께 平壤을 격파한 다음 南漢州(漢山州)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옛날 백제의 明禮王(明聖王)이 고리산 > 菅山) > 沃州) > 沃川)에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꾀하였을 때 유신의 할아버지 武力(김무력) 각간이 장수가 되어 적을 요격(邀擊)하고 대승하여 성왕 및 재상(좌평) 4인과 사졸들을 사로잡아 그 세력을 꺾었다. 또한 아버지 서현(김서현)은 양주 > 梁山) 총관이 되어 여러 번 백제와 싸워 그 예봉(銳鋒)을 꺾어 변경을 침범치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변방 백성들은 농업과 상업(桑業)을 편안히 하고, 군신은 宵旰(소한) > 宵衣旱食의 준 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 옷 입고 밤늦게 식사하면서 국사에 골몰한다는 뜻)의 근심을 없게 하였다. 지금 유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하여 사직의 신하가 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그 공적이 많았다. 만일 公의 一門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흥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의 직위와 상사(賞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참으로 대왕의

생각하심과 같습니다”고 하였다.

참으로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다. 백제 후기의 위대한 성명왕이 전사하지 않고 10년만 더 통치하였더라면 백제는 대국으로 중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운이 여기서부터 기울기 시자가여 불과 100여년 만에 드디어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



향토문화 論壇

하남의 도미나루가 시사(示唆)하는 백제도성(百濟都城)

이 강 범

(하남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하남의 도미나루가 시사(示唆)하는 백제도성(百濟都城)

이 강 범

I. 서 언

도미나루는 삼국사기 권제48 열전 제8에 실려 있는 ‘도미전(都彌傳)’의 설화에서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나루터의 이름이다. 도미전설은 삼국사기 원전의 기록내용에서 조금씩 다르게 각색되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왔으며 소설 잡지 영화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근래에는 도미전설을 테마로 한 연극 뮤지컬의 분야에서도 공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도미나루가 지금의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주장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별로 ‘하남 도미나루 전설’ ‘김해 웅천 도미전설’ ‘보령 도미전설’ ‘서울 송파나루 도미전설’ 등 지역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나루의 전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성백제 시대의 지배권역과 각종 문헌의 기록 및 학술대회 등의 토론내용으로 보아 하남 도미나루 전설 이외의 전설은 지역설정이 삼국사기의 설화내용과 배치되거나 문헌기록의 빈약성 및 지역 전설내용에만 의존한 장소설정에 기인하는바 크며 어떤 지역의 전설은 아예 근세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의 도미설화 내용을 살펴본 후 하남 도미나루가 도미설화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밝혀주는 각종 문헌 및 지도의 기록표시와 하남 도미나루를 대상으로 기록한 개인문헌 자료를 종합하여 현재의 도미나루 위치를 알아본 다음 다른 지역의 도미나루와 장소적 사실관계의 비교우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삼국사기 도미설화 원문내용에서 하남 도미나루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이제 도미나루에 대한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할 때 하남의 도미나루가 역사성을 내포한 도미설화 내용상의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천성도로 향하였던 그 나루터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필자는 삼국사기의 도미전이 한성백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전승 되어온 설화라고 한다면 하남에 도미나루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또 다른 역사의 숙제를 풀어주는 열쇠의 기능에 착안하였다. 그것은 한성백제의 도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하남의 춘궁동소재설(春宮洞所在說)과 서울의 풍납토성소재설(風納土城所在說)이 그것이다. 춘궁동소재설은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춘궁동소재설을 믿어오고 있었지만 현재 사학계의 주류는 88서울 올림픽을 전후한 몽촌토성발굴로 몽촌토성소재설로 돌아서더니 이어서 행하여진 풍납토성발굴에서는 다시 풍납토성소재설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바뀌어진 이유는 백제 초기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도성의 실재를 밝혀줄 결정적 유물도 아니고 그냥 유물이 좀 나왔을 뿐이었다. 따라서 춘궁동소재설은 또 다른 사학자들로부터 여전히 그 주장의 일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논점은 하남 도미나루의 존재가 한성백제의 춘궁동 소재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도미부인이 도성에서 왕에게 재치와 기지에 찬 핑계로 도성을 빠져나와 도피하려고 택하였던 하남의 도미나루는 당시 도성으로 추정되는 춘궁동과 풍납토성을 비교할 때 거리가 가까운 춘궁동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풍납토성에서는 대부분 주변의 나루나 한강하류 쪽을 선택함이 상식인데 반하여 상류인 하남의 도미나루까지 걸어 나와 배를 타고 다시 하류인 풍납동 주변 강변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피자의 심리 속성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안전하게 멀리 이탈하려는 것인데 도미나루 관점에서의 풍납토성은 이러한 심리속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미부인은 당시도성인 하남의 춘궁동 도성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성백제의 도성이 풍납토성이라는 주장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한성백제 도성의 위치 연구에서 도미나루가 전향적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I. 도미설화의 내용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의 도미설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미(都彌)는 백제 사람이다. 그는 비록 범속한 평민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으며 그의 아내도 아름답고 고왔을 뿐만 아니라 행실에 절조가 있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개루왕(蓋婁王)이 이를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였다.

“무릇 부인네의 덕성으로는 비록 정조가 곧고 깨끗한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만약 아무도 없는 으스스하고 어두운 곳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자는 드물 것이니라.” 도미가 대답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지만 제 아내 같은 이는 비록 죽더라도 변함없을 사람입니다.” 왕이 시험해보고자 하여 도미에게 일을 주어 머물게 하고 가까운 한 신하를 시켜서 거짓으로 왕의 옷과 말과 시종을 갖추어 밤에 도미의 집으로 가게 했으며 미리 사람을 보내 왕이 온다고 알렸다. 왕으로 가장한 이가 도미의 아내를 보고 말하였다.

“내가 오랫동안 너의 아리따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를 해 너를 차지하게 되었다. 내일 너를 들어 궁녀로 삼을 것인즉 지금부터 너의 몸은 나의 것이다”

드디어 음행하려 덤벼들자 도미의 아내가 말하였다.

“국왕께서 망령된 말씀을 하실 리 없사오니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에 드소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물러나와 여중 하나를 갖가지로 꾸며 들여보냈다. 왕이 뒤에 숨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죄를 들씩워 두 눈을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 작은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버린 다음 마침내 그의 아내를 끌어들여 강제로 음행하려 하였다. 그녀가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저는 이미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다가 하물며 왕의 사랑을 입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월경중이라 온몸이 더러워져 있사오니 다른 날에 깨끗이 목욕한 뒤에 다시 오겠사오니 기다려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왕이 그 말을 믿고 허락하였다. 그녀는 곧바로 달아나 강구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 없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자 홀연히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오는지라 그녀가 이를 잡아타고 천성도(泉城島)에 도착해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남편을 만나 풀뿌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보존하다가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蒜山)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은 종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를 떠돌다가 일생을 마쳤다.

1. 原文(원문)

都彌百濟人也(도미백제인야) 雖編戶小民(수편호소민) 而頗知義理(이파지의리) 其妻美麗(기치미려) 亦有節行(역유절행) 爲時人所稱(위시인소칭) 蓋妻王聞之(개루왕문지) 召都彌與語曰(소도미어어왈) 凡婦人之德(범부인지덕) 雖以貞潔爲先(수이정결위선) 若在幽昏無人之處(약재유혼무인지처) 誘之以巧言(유지이교언) 則能不動心者鮮矣乎(칙능부동심자선의호) 對曰(대왈) 人之情不可測也(인지정불가측야) 而若臣之妻者(이약신지처자) 雖死無貳者也(수사무이자야) 王欲試之(왕욕시지) 留都彌以事(유도미이사) 使一近臣(사일근신) 假王衣服馬從(가왕의복마종) 夜抵其家(야저기가) 使人先報王來(사인선보왕래) 謂其婦曰(위기부왈) 我久聞爾好(아구문이호) 與都彌博得之(여도미박득지) 來日入爾爲宮人(내일입이위궁인) 自此後爾身吾所有也(자차후이신오소유야) 遂將亂之(수장란지) 婦曰(부왈) 國王無妄語(국왕무망어) 吾敢不順(오감불순) 請大王先入室(청대왕선입실) 吾更衣乃進(오갱의내진) 退以雜飾一婢子薦之(퇴이잡식일비자천지) 王後知見欺(왕후지견기) 大怒(대노) 誣都彌以罪(무도미이죄) 矐其兩眸子(획기양모자) 使人牽出之(사인견출

지) 置小船泛之河上(치소선범지하상) 遂引其婦(수인기부) 强欲淫之(강욕음지) 婦曰(부왈) 今良人已失(금양인이실) 單獨一身(단독일신) 不能自持(불능자지) 況爲王御(황위왕어) 豈敢相違(기감상위) 今以月經(금이월경) 渾身汗穢(혼신한예) 請俟他日薰浴以後來(청사타일훈욕이후래) 王信而許之(왕신이허지) 婦便逃至江口(부편도지강구) 不能渡(부능도) 呼天慟哭(호천통곡) 忽見孤舟隨波而至(홀견고주수파이지) 乘至泉城島(승지천성도) 遇其夫未死(우기부미사) 掘草根以喫(굴초근이끼) 遂與同舟(수여동주) 至高句麗蒜山之下(지고구려산산지하) 麗人哀之(여인애지) 丐以衣食(갈이의식) 遂苟活(수구활) 終於羈旅(종어기려)

III. 설화의 의문점

1. 백제 개루왕 시대

설화 내용에서 시대의 배경을 제4대 개루왕(蓋婁王:재위128-166)으로 설정하였는데 마지막에 도미부인이 백제를 탈출하여 고구려 천성도로 갔다고 하였는데 한강에서 작은 배로 고구려 땅으로 들어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에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낙랑이나 대방이 있었기¹⁾ 때문이며 천성도(泉城島)나 산산(蒜山)이라는 지명도 당시에는 어을매곶(於乙買串:泉井口)매시달(買尸達:蒜山) 등으로 쓰였기 때문이다.²⁾

한편 삼국사기 개루왕의 기록에서는 성품이 공순하고 바른 몸가짐의 왕이었다고 하고 있어 설화의 내용과 맞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21대 개로왕(蓋鹵王:재위:455-475)의 시대였다고 본다. 개로왕은 근개루왕(近蓋婁王)으로도 불리었기 때문에 근개루왕을 개루왕으로 잘못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개로왕시대라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하였고 475년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백제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개로왕이 바둑을 즐겼으며 고구려의 첩자 도림의 꼬임에 넘어가 성곽을 보수하고 호화로운 궁실을 다시 짓고 영하수언(緣河樹堰) 등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등 현저한 실정을 범하였으며 호방하고 과격한 성격과도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도미의 신분과 주거지

도미의 신분을 편호소민(編戶小民)으로 설정하여 호적에 등재된 범속한 평민이라고 하였으나 도미는 몇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사는 부유계층 이었다. 도미부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가짜 왕에게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여보낸 것으로 보아도 일반평민은 아니고 왕실과의 연이 있는 실권한 권력가로 왕과도 알고 지낼만한 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1729년(영조5) 중간(重刊)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서는 '도미라 하는 사람은 백제나라 벼슬하는 조사(朝士)라'하여 도미의 신분을 격상시킨 경우도 있었다. 거주지는 도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는 가짜 왕이 하룻밤에 도착할 거리였기 때문이다.

3. 도미의 두 눈을 빼고 작은 배로 물위에 띄워(置小船泛之河上) 보내고

도미부인이 도망하였던 강구(婦便逃之江口)는 어느 강인가?

어느 강이라는 기록은 없으나 한성백제 도성 인근의 강이 분명하므로 이는 한강임에는 틀림 없다. 도미부인이 도망하여 도착한 강구(江口)를 강어귀로 보아 바닷가를 연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강가에 이르는 곳을 말하며 하남의 덕풍천이나 산곡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근처 나루터 부근을 강구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천성도(泉城島)와 산산(蒜山)의 현재 지명

1) 천성도(泉城島)

도미부인이 탈출하여 도미나루에서 배를 타고 고구려 천성도에 이르러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편 도미를 상봉하였는데 그러면 지금의 어느 지역이며 문헌의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천성도는 도미부부가 각자 시차를 두고 떠내려가다가 우연히 배가 멈추어 섬으로 상륙한 곳으로 고구려 지역이었던 한강하류의 어느 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도수희 교수는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지점인 교하와 파주지역에 천성도와 산산에 비유할 지역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²⁾

즉 삼국사기 권제37 잡지 제6 지리4 고구려 백제 조(條)에 지명이 열거되고 있는데 한산주(漢山州) 기록에서 천정구현(泉井口縣)을 어을매곶(於乙買串)이라고도 한다.(泉井口縣 一云 於乙買串)라는 기록이 있으며, 천성도는 천(泉)자를 접두하고 있는데 한강하류의 지명가운데 천(泉)자를 접두하고 있는 천정구(泉井口)라는 지역이 있다.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은 백제와 고구려의 고유지명이 어을매곶(於乙買串)인데 오늘날의 파주 교하(交河)지역이다.

삼국사기 권제35 잡지 제4 지리2 신라 조(條)에서 정천군(井泉郡)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泉井郡)인데 문무왕21년(681)에 빼앗고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았으니 지금의 용주(湧州)이고 거느린 현은 셋이다.(井泉郡 本高句麗 泉井郡 文武王21年 取之 景德王 改名 築 炭項關門 今湧州 領縣三)라고 하였고 거느린 세 개의 현은 산산현(蒜山縣) 송산현(松山縣) 유거현(幽居縣)으로 열거하면서 산산현(蒜山縣)은 본래 고구려 매시달현(買尸達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였고, 송산현(松山縣)은 본래 고구려의 부사달현(夫斯達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였고 유거현(幽居縣)은 본래 고구려의 동허현(東墟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고하였다.

교하군(交河郡)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거느리는 현은 둘이다.(交河郡 本高句麗 泉井口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領縣二)하고 거느린 현이 이번에는 두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봉성현(峯城縣)과 고풍현(高峰縣)이다.

봉성현(峯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술이홀현(述尔忽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고풍현(高峰縣)은 본래 고구려 달을성현(達乙省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

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그런데 봉성현(峯城縣)은 지금의 파주시 주내면일원의 옛 파주목(坡州牧)을 이르며,³⁾ 고봉현(高峰縣)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봉산(高峰山) 일원으로⁴⁾ 고봉산은 비교적 크진 않지만 신라 때부터 부터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교하군(交河郡)은 인근에 있는 현재의 파주시지역과 고양시지역을 관할하는 군(郡)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어을매곶(於乙買串:고구려) = 천정구현(泉井口縣:고구려) = 천정군(泉井郡:고구려) = 정천군(井泉郡: 신라) = 교하군(交河郡:신라) 으로 바뀌어 갔으며 현재의 파주시 교하면 주변지역이다.

신라 때의 정천군(井泉郡)은 영현(領縣) 즉 속현(屬縣)으로 산산현(蒜山縣=買尸達縣) 송산현(松山縣=夫斯達縣) 유거현(幽居縣=東墟縣)의 3개의 현을 관할하였는데 현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고 신라 때의 교하현(交河縣)은 영현(속현)으로 봉성현(峯城縣=述尔忽縣) 고봉현(高峰縣=達乙省縣)의 2개의 현을 관할하였는데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면 봉성현은 파주시 주내면의 옛 파주목(坡州牧) 부근지역이며 고봉현은 고양시 일산의 고봉산(高峰山) 주변지역이다.

어을매곶(於乙買串)의 어원을 풀이하면 어을(於乙:얼)의 뜻은 천(泉)이고 매(買)의 뜻은 물(水, 河)이며 곶(串:고지)은 구(口)의 뜻이므로 고구려에서 천정구(泉井口)로 1차 한역(漢譯)하였고 신라경덕왕이 교하(交河)로 다시 2차 한역(漢譯)한 것인데 교(交)의 옛 새김이 '얼'로 어우러짐의 뜻이고 하(河)는 물이니 결국 본래의 얼매(於乙買)를 다른 한자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곳의 지세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물이 '어르는 곳'(交流處)이라는 뜻의 교하(交河)가 된 것이다.

그러면 천성도(泉城島)는 교하지역에 성(城)이 있는 섬(島)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현재 천성도로 추정하는 두개의 지역이 있는데 오두산(鰲頭山)과 일미도(一眉島)가 있다. 먼저 교하지역에는 탄현면 성동리에 오두산(鰲頭山:해발110m)이 있는데 통일전망대가 들어선 그 산이다.

오두산(鰲頭山:자라머리 산)은 북, 서, 남 삼면이 해구로 둘러쳐진 성산(城山)⁵⁾으로 조선전기 지리지인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오도산(烏島山)으로 동국여지승람과 17세기 동국여지지에는 오도산성(烏島山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8세기 여지도서에는 오두산(鰲頭山)으로 개칭된 이후 19세기 대동지지에 오두산(烏頭山)으로 표시되기도 하면서 현재는 오두산(鰲頭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예전에는 오도(烏島:까마귀 섬)라는 말처럼 사방이 해수로 둘러쳐진 섬이거나 홍수 때에만 물이 차올라 섬이 되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오두산성을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 그것은 도미설화에서 천성도(泉城島)를 섬으로 칭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리지에서도 오도산(烏島山) 오도산성(烏島山城) 등으로 섬으로 부르고 있는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즉위 원년 신묘년(391년) 10월에 백제의 관미성을 함락시켰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관미성을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바닷물이 둘러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20일 동안 공격해서야 함락시

켰다.’⁴⁻¹⁾ 하였으니 당시에도 섬으로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76년(문무왕 15년)에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는데 675년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3번에 걸친 승리로 전쟁을 종결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니 9월에 있었던 천성(泉城:오두산성)과 매초성(買肖城:연천 대전리 토성)의 2번의 전투와 11월에 있었던 기벌포(伎伐浦:서천 장항읍 장암포구)전투이다.

먼저 설인귀가 숙위학생(宿衛學生) 풍훈(風訓)의 아버지 김진주(金眞珠)가 신라에서 처형된 것을 기화로 풍훈을 길잡이 삼아 천성(泉城)4-2)에 쳐 들어 왔는데 신라 장군 문훈 등이 맞받아 싸워 승리하여 당군 1,400여명을 목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다. 여기서 천성(泉城)이라고 기록한 것인데 천성은 당시 교하군의 성(城)으로 한강과 임진강의 교차지점에 있는데 먼저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취한 관미성(關彌城)이며 다시 신라가 빼앗아 천성(泉城)이라 하였으니 이곳 지형이 섬인관계로 천성도(泉城島)라고도 자연스레 불리었을 것이다. 그 섬에 도미부부가 우연히 상륙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기선(機先)을 잡아 임진강으로의 보급선을 완전 차단한 후 다시 9월 29일 이근행의 20만 대군이 진주하고 있는 매초성을 5만 정예병으로 공격 전투마(戰鬪馬) 3만 3백 80필을 노획하는 등 손쉽게 탈환하게 된다. 다음해(676) 11월에 설인귀는 전열을 가다듬고 기벌포에서 마지막 일전을 노려 일차 승리하였으나 사찬(沙飡:신라의 17등 관제 중 8등 관계의 관등) 시득(施得)이 다시 진군하여 22번의 작은 싸움에서 적 4천여 명을 목 베는 성과로 신라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는 1992년 통일전망대가 들어서기 이전 8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산의 삼면은 해수로 둘러져 있었을 뿐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동쪽 부분도 잘록하니 지형이 낮게 겨우 연결되어 있을 정도였고 오두산과 남쪽 검단산 사이의 오두산 쪽에 작골(갯골)의 논둑이 있었는데 해수가 논 동쪽지역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 물이 불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오두산 동쪽지역 전체가 잠기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오도(烏島)로 불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며 관미성(關彌城)의 지형설명과도 일치하고 천성(泉城)은 신라시대에 있었던 성(城)으로 지형이 섬(島)이니 천성도(泉城島)라고도 한 것이다.

실제 완전한 섬은 아니더라도 삼면이 물로 둘러 치져있고 일면이 연속되어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장마 홍수 때에는 섬으로 되는 지역도 여의도, 당정섬, 미사섬처럼 섬으로 부르는 경우는 많이 있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에서 교하현(交河縣) 옛 치소에서 서쪽7리에 오도산성(烏島山城)이 있고 북쪽 10리에 일미도(一眉島)가 있는데 도수희 교수는 일미도를 도미설화에 나오는 천성도(泉城島)로 추정하였다. 그것은 교하현의 한강하류에 유일한 섬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 일미도는 천성도로 추정하는데 결정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일미도가 한강하류의 섬이 아니고 지금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서쪽의 임진강 하류의 섬이기 때문이다.

그 섬은 성(城)이 없으며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서쪽의 합수지점(合水地點)에서 임진강 상류방향으로 4km 상류지점에 위치하는 관계로 자연적인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던 도미부부의 상황에 맞추어 한강에서 방향을 바꾸어 임진강 상류 쪽으로 거슬러 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한편 홍수 때에는 물에 잠기는 섬이므로 무인도일가능성이 높는데 그렇다면 도미부부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한동안 연명하기도 적절치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오두산(鰲頭山)은 도미부부가 상륙하였던 천성도(泉城島)로 지목한다.

한편 교하지역이 천성도와 연결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천정구 지역이 오늘날의 교하지역으로서 천성도와와의 언어적 연관성이 크며 한강하류의 오두산이라는 천성도로 추정되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연관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교하지역 인근에 도미부부가 망명하였던 산산(蒜山)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하현의 전신인 정천군(井泉郡)에 두었던 영현(領縣:속현)에 산산(蒜山), 송산(松山), 유거(幽居)의 세 개의 속현(屬縣)을 두었는데 산산현(蒜山縣)이 그것이다.

속현이라는 것은 타군(他郡)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군(自郡)과 연접(連接)한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도미부부가 망명한 지역이 교하의 인근에 있었던 속현(屬縣)인 산산현(蒜山縣)으로 가서 산산(蒜山:마늘산)이라는 산 아래 마을에 망명하였다는 설화내용을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실재적 지명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산산(蒜山)

산산은(蒜山)은 도미부부가 천성도에서 다시 만나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함께 배를 타고 산산 아래 마을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주한 마을에 있는 산 이름이다. 삼국사기 권제35 잡지제4 지리2 신라조(新羅條)에서는 산산현(蒜山縣)이 교하군(交河郡)의 전신인 정천군(井泉郡)의 영현이며 고구려의 매시달현(買尸達縣)이었음을 밝히면서 현재는 당시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하군에 딸린 속현임이 밝혀진 이상 그 위치의 범위는 매우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하에서 멀어봤자 주변에 있는 군보다 멀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며 교하에서 반드시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천군은 다음에 교하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당시에는 두개의 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으니 지금의 파주시 주내면 파주리에 소재하였던 봉성현(峯城縣)과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하였던 고봉현(高峰縣)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산산현(蒜山縣)역시 교하의 속현이었음으로 주변인 현재의 파주시와 고양시구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자 대부분이 고구려 매시달현이라는 지명에 매달려 전국의 같은 지명만을 열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영현의 필요성이 지역의

지배와 통솔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된 인근의 지역을 영현으로 하여야 명령 하달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몇 백리 밖에 있는 지역을 영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지역 통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따라서 교하군의 속현을 함경도 덕원지방에 두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령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등에서 산산(蒜山)이라는 땅이름이 함경도 덕원, 평안도 상원, 전라도 화순, 경상도 김해, 황해도 황주와 봉산 등 전국 여러 곳에 아무리 많이 분포한다 하여도 도미부부와 관련이 있는 산산은 아닌 것이다. 단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대부분 지역의 산산(蒜山)이 거의가 바다와 인접한 강의 하구에 있는 땅 이름으로 고구려 때의 매시달(賈尸達:매리달)은 수산(水山) 즉 물과 산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물달”의 기본형 ‘므리달’의 원형표기가 아닐까 생각되며⁷⁾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교하에서 멀지 않은 문산(汶山)지역이 있는데 ‘문산’은 글자 그대로 ‘물산’이라는 의미이고 배로 이동이 가능하며 거리상으로도 교하군의 속현이 될 만한 지역이므로 검토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하겠다.

그리고 도미부부는 배를 타고 산산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산산현(매시달)은 파주시와 고양시(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시계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지역의 한강과 임진강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반드시 있다고 할 것이니 파주시의 탄현면과 문산을 일원, 고양시 일산구 송산면 일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수희 교수가 유력지로 지목한 대동지지 권3 파주 조에 산봉(蒜峯)⁸⁾도 파주지역에 있는 산산(蒜山)이라는 의미 이므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지명사전에서는 정천군(井泉郡:어울매곶)과 산산현(蒜山縣:매시달현) 송산현(松山縣:부사달현) 유거현(幽居縣:동허현)이 모두 북한의 원산부근 지역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옳은가 이다. 먼저 도미부부가 성치 않은 몸으로 육지를 횡단하여 원산부근까지 갔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울매곶의 뜻이 교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문헌으로 보나 어원으로 보아 확실하다. 다만 속현의 위치의 근거가 교하부근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하지역에 속현의 이름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삼국사기 편집당시 정천군(井泉郡)이 동명이치(同名異處)로 교하와 원산부근에 있었던 것인데 속현을 기록할 때 착오로 교하의 정천군에 속현이 없었거나 다른 속현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원산부근에 있었던 정천군의 속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의 마음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그러나 먼저 교하부근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순서이므로 교하부근을 생각하여 본다. 교하부근에도 송산현(松山縣)으로 지목이 가능한 고양시 일산구에 송산(松山)이라는 오래된 지명이 있으며 전술한 파주시 문산(汶山)의 뜻이 산산(蒜山:賈尸達)의 어원인 수산(水山)과 같고 정천군에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았다 하였는데 교하북쪽에 연접(連接)한 지역이 탄현면(炭縣面)으로 탄현면은 원래 교하군(정천군)의 탄포면(炭浦面)과 현내면(縣內面)이 1914년 행정구역 변경

시 한자씩을 따서 탄현면이 되었으므로 탄향관문과 탄포면이 숯(炭)과 관계되는 포구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 사기(史記)를 잘못 기록하였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IV. 지역별 도미설화

1. 하남의 도미나루

1) 하남 도미나루의 위치

하남 도미나루 전설은 그 배경지역을 한강에 두고 있다. 그리고 한성 백제 도성이 있었다고 거론되고 있는 하남시의 창우리 강가에 있다. 여기에는 백제 도미설화에서 근원된 도미(都彌)와 관련되는 이름이 많은데 도미나루(渡迷津)를 비롯하여 도미원(渡迷院) 도미천(渡迷遷) 도미강(渡迷江) 도미협(渡迷峽) 도미사(渡迷寺) 도미 기우제단(渡迷 祈雨祭壇) 등이 있었으며 파생어로서 도미(渡迷) 도미(度迷) 도미(都迷) 도미(道迷) 두미(斗迷) 두미(斗尾) 두미(豆尾) 두미(豆美) 두미(頭彌) 두미(豆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렇듯 도미나루는 한자는 다르지만 도미라는 이름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었고 각종 문헌기록이나 지도 그리고 개인적시문집에서 하남의 도미나루를 두고 기록한 문헌이 거의 전부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도미설화와 관련된 지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역 도미전설이 삼국사기의 도미설화 내용과 동일하며 1656년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광주목(廣州牧) 열여조(烈女條)에는 도미설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는 이미 도읍이 남한(南漢)일 때의 일이므로 도미설화의 이야기는 도미원과 도미천이 있는 도미나루 부근의 이야기 일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미 17세기 중반에도 도미나루 지역이 도미와 관련되어 생긴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같은 문헌의 우역조(郵驛條)에는 ‘두미원(斗迷院)이 두미천(斗迷遷)에 있다하고 관량조(關梁條)에는 두미천(斗迷遷)은 도미천(渡迷遷)이라고도 하며 주 북쪽 23리에 있다. 동서 양쪽에 산이 강을 끼고 마주보며 서있고 울퉁불퉁한 돌길이 산허리를 돌아 동쪽으로 봉안역(奉安驛)을 가리키며 험준하게 십여 리를 뻗었는데 옛날에는 도미원(渡迷院)이 있었다. 곧 서울의 목이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속칭 도미천(渡迷遷)이라 하였으며 신라방언으로 강이나 바닷가 벼랑의 돌길을 천(遷)9)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광주의 치소가 하남의 춘궁동에 있다가 1626년 남한산성으로 옮겨갔는데 남한산성에서 도미나루까지의 거리가 23리라는 뜻이며 강(江:漢江, 도미강, 두미강) 양쪽으로 좁은 협곡을 이루고 있어 이 좁은 강 협곡을 두미협(斗迷峽)이라고도 하였으며 강의 하류인 창우리 나루터부터 상류 배알미리까지 남쪽 강안의 절벽을 따라 약 10여리를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돌길이 벼랑을 끼고 이어졌었는데 이 돌길을 도미천(渡迷遷)이라고 한 것이다. 그 돌길은 도미의 이야기와 함께 신라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아지는데 천(遷)이라는 용어가 신라의 방언이었

기 때문이다.⁹⁻¹⁾

한편 도미천에 도미진과 도미원이 있었는데 현재 까지도 그 터와 유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도미나루 터에는 근자에 설치된 도미나루라는 나무 표지판과 함께 네 개로 구성된 삽화를 곁들인 별도의 나무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이라 하여 도미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도미나루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의 약 20m 상류에 도미원과 도미진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되는 유구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문헌의 기록에 도미원과 도미진이 검단산 아래 도미천(벼랑에 있는 돌길)의 하류지점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다.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검단산은 주 동쪽에 있으니 고을사람들이 진산이라 일컫는다. 도미진은 주 동북쪽에 있으니 나룻배가 있다. 그리고 그 서쪽을 진촌진(미음진, 독진)이라 하며 주 북쪽에 있으니 나룻머리에 수참을 두었고 참선이 15척이다. 또 그 서쪽에 광진도(광나루)가 있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검단산이 주 동쪽에 있고 도미진은 주 동북쪽이라 하였으니 검단산 중심에서 약간 북쪽(강의 하류 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의 읍치가 있던 하남의 춘궁동에서 동북쪽이라는 말은 도미천이 하남의 창우리에서 배알미리까지 협곡을 이루면서 약 10여리를 이루고 있는데 창우리 쪽으로 치우쳐 도미진(渡迷津)과 도미원(渡迷院)이 위치한다는 내용의 기록이며 현재 도미나루 표식이 있는 위치와 같은 곳이다.

현재 도미나루 추정지에서 창우리 방향으로는 도미나루와 비슷한 지형이 약 200m에 걸쳐 두 개가 더 있다. 나루터는 항구와 반대로 강변의 돌무지가 모래톱처럼 강 쪽으로 튀어나온 곳에 자리한다. 따라서 도미나루 표지가 있는 도미진과 도미원의 추정지에서 팔당대교 방면인 하류 쪽으로 보면 두 곳이 더 있는데 창우리 마을(팔당대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창모루 나루터가 하나이고, 창모루 나루터와 도미나루 중간에 또 하나의 모래톱 형 강변돌무지가 하나 있어 있는데 모두 세 곳으로 그 중에서 제일 상류 쪽의 나루터가 도미나루인 것이다.

그 곳은 예전부터 도미나루로 전승되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도미나루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도선하는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비교적 넓은 평탄지가 있어 창고나 건물을 지었던 유구를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비교하여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하역작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일한 곳이며 또 도미진 위쪽에 있었던 돌길(도미천)도 도미진에서 가까워 도미원이 자리하기도 수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은 이 세 곳 중의 한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미부인은 왕의 탐욕을 기지(機智)로 넘긴 후 바로 강구로 달려 왔다고 하였는데 배가 없어 건널 수 없게 되자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였고 그때 홀연히 배가 나타나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강구 근처에 있는 나루터에서 승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창우리 쪽에서 가까운 창모루 나루터나 조금 상류인 나루터 예상지역에서 통곡하였다면 주변에 있던 나룻배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뱃사공이 이동하

여 태워 주었거나 예상치 않은 빈 배가 떠 내려와 승선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미나루 부근에서 배를 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강구(江口)라고 되어 있어 바닷가 강어귀를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바닷가가 아니고 큰 냇물이 강과 만나는 지역도 강구로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큰 냇물이란 하남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덕풍천이나 산곡천이 한강과 만나는 주변지역을 강구로 표현한 것이니 바깥 창우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

그리고 동국여지지 열여조를 통하여 도미설화가 도미진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음은 전술하였고 1956년 하남(당시 광주군 서부면)에 거주하던 중암(重庵) 구민회(具敏會) 선생이 집필한 남한비사(南漢秘史)¹⁰⁾에서 '개로왕이 도미(陶彌)의 아내를 사귀고자하여 도미의 두 눈을 찔러 멀게 하고 강에 던지니 도미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여 고구려 땅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보면 후에 도미를 던진 강을 도미나루라 부르니 지금의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앞에 두미나루라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도미나루가 도미와연관된 전설임을 명확히 하였고 도미나루를 창모루나루터로 지칭한 것이다.

한편 '광주부지'와 '중정남한지'에서도 도미나루가 동부면에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도미나루가 하남시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도미나루의 위치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편찬한 '한강사'에서는 당정섬 바로 위쪽을 도미진으로 표시하였고¹¹⁾ 경기도 박물관에서 편찬한 '한강'에는 배알미나루를 도미나루라고 하였으며¹²⁾ '남양주시지'에는 도미진이 팔당근처라고 적고 있다.¹³⁾ 이들 자료가 모두 하남시에 있다고는 하지만 위치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도미진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주 동쪽 10리, '세종실록 지리지'의 주 동북쪽 등으로 표시한 것은 광주의 치소가 하남의 춘궁동에 있을 때를 기준 한 것이며 '동국여지지'와 '중정남한지'가 주 북쪽 23리, 그리고 '대동지지'에 두미천이 주 북쪽 20리, 두미진이 동쪽으로 20리라고 하고 그 북쪽 언덕이 두미천이라고 한 것은 1626년(인조4) 광주치소를 남한산성으로 옮긴 이후의 기록이므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동지지에서 두미진을 동쪽으로 20리라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기록으로 본다. 당시 지도기록을 보아도 검단산이 너무 서쪽으로 그려있고 망월이 검단산 서쪽에 있어야 하나 검단산 동쪽으로 표시하여 잘못 그려진 지도가 여러 곳에서 산견됨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한강사에서 표시한 당정섬 위의 도미진은 당시 나루터가 강폭이 좁은 도미협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당정섬 부근에서는 이미 강폭이 많이 넓어진 지점이므로 나루터로서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배알미 나루를 도미나루로 표시한 것은 잘못 그려진 지도를 참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며 또 이를 근거로 하여 배알미나루를 도미나루로 단정하여 쌀과 관련 있는 나루라고 한다면 두물머리(양평 양수리)에 연관한 지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미나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기록하였듯이 창우리 쪽에 치우친 나루이다.

한편 배알미 나루의 근원을 쌀에서 찾는 것도 잘못이다. 굳이 쌀을 많이 수송한 나루는 창우

리 쪽의 나루로서 세미(稅米)는 창우리 두미진에서 다시 세미길¹⁴⁾을 따라 환곡을 저장하는 사창(社倉)이었던 상사창동이나 하사창동으로 이송하였는데 배알미 나루에서 세미를 창우리 쪽으로 이동하였다면 변변한 마차 길도 없는 돌길을 따라 10여리를 역(逆) 방향으로 이동하였거나 다시 배에 태워 창우리로 이동하였다는 이야기 인데 공연히 시간과 물자와 노력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남한산성 치소로 직접 운송할 물자를 도마치고개를 넘어 광지원을 통하여 수송하고자 하였다면 배알미 나루터를 더 진행하여 팔당발전소를 지나 이석리나 삼성리 부근의 선착장을 이용하여야 타당한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배알미리는 도미진과 도미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며 쌀과 연관 지으려는 설명도 광주의 사창이 어디에 있었는지 세미길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단견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도미진과 도미원은 거의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도미천 길에서 창우리에 치우친 광주부 동북쪽 10리 거리에 있었다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한 것이고 배알미동에 있었다면 주 동쪽 20리라고 하였어야 할 것이니 배알미나루와 과 쌀과는 애초부터 상관없는 지역임을 밝혀둔다.

배알미리(拜謁尾里) 마을의 배알(拜謁)은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는다는 뜻으로 고상한 이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배알과는 상관이 없는데서 출발한 이름이다. 일설에는 한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곳을 지나면 한양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을 향하여 절을 올리는 곳이라고 끌어다 붙이지만 배알미리에서는 서울은커녕 하류의 약 10리 인 창우리도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임금에게 절을 올리는 곳이면 망배리(望拜里)나 주배리(主拜里) 등으로 해야지 왜 만나지도 않으면서 배알이라고 하였겠는가?

배알미리에서 약 10여리 동쪽으로 더 올라가면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망주(望主)고개 라는 지명이 있다. 조선 초에 조영무(趙英茂)가 낙향하여 임금이 생각나고 걱정될 때면 고개에 올라 한양 땅을 향하여 절하였다는 곳이다. 그러나 배알미리는 그런 전설 또한 없는 곳이다.

따라서 배알미리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즉 우리 원래의 말 ‘비알미’에서 왔다고 보아야 한다. ‘비알미’라는 말은 ‘비알’은 원래 중부지방의 방언으로 ‘비탈’이라는 뜻으로 미는 ‘밑, 아래’라는 우리말인데 즉 “산비탈 아래의 마을”이란 뜻으로 한자로 표시하자니 인심 써서 고상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전술한 도미천(渡彌遷)이 창우리에서 배알미리까지 이어지는데 강비탈 돌길의 끝자락이요 검단산의 북 동편 경사진 벼랑 아래의 지형이니 자연 산천의 모양에 따라 지명을 부르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도 맞는 해석이다. 그리고 남양주시지에서 도미나루를 팔당 근처라고 하였음은 남양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원래의 의미는 팔당의 한강과 접한 맞은편 강안에 있는 나루로서 근처의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다른 지도에서는 팔도군현지도(1760년), 팔도지도(1785-1789)에는 두미(豆迷)라고 기록하고 각기 검단산 동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망월(望月)도 검단산 동쪽에 표시하고 있어 정확

도에서는 떨어지며 해동지도(1750) 광주부에는 도미진(渡迷津)을 검단산 아래 기우제단 상류 쪽에 표시하고 동국여도(1800)에서는 도미천을 검단산 남쪽에 표시하여 잘못표기 하고 있으며 태호 상류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태호(太湖)는 지금의 미사동 조정경기장 부근이다.

대동여지도(1861)에는 두미(斗迷)라고 표시하였으나 표시위치는 검단산과 예봉산 사이에 바르게 하였으나 검단산을 사실보다 서쪽에 배치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도록 표시하고 있다. 광주부(1871)지도에는 당정도(堂亭島)위에 도미진(渡迷津)이 있고 그 상류 쪽으로 가면서 검단산 아래에 요해처(要害處)와 도미천(渡迷遷)을 차례로 표시하고 있는데 요해처란 군사적으로 자기편에는 꼭 필요한 반면 적에게는 해가되는 요충지를 이른다. 따라서 옛 지도상으로는 도미진의 정확한 위치의 판명이 곤란한 점이 있으나 모두 팔당 맞은편의 하남지역이라는 것은 판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려 때에는 광주(廣州)에 도미사(渡迷寺)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광주 도미사(渡迷寺)¹⁵⁾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민가가 잠기고 떠내려갔다’고하여 도미진 근처의 검단산(黔丹山)에 도미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도미’라는 도미나루 근처의 지명이 널리 알려져 사찰의 이름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도미설화와 관련이 있다고 내세우는 다른 지역의 나루 이름으로 ‘도미’라는 이름을 가진 나루는 하남 창우리의 도미나루 밖에 없다.

1447년 발간된 용비어천가 14장에 ‘渡迷 두미 津’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한자로 도미(渡迷)라 쓰고 한글로 ‘두미’라고 쓴 것인데 이는 현지에서 부르는 한글 이름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광진(廣津)을 ‘광나루’로 삼전도(三田渡)를 ‘삼밭개’ 등으로 표시한 것인데 도미진이 현지에서는 두미진으로 통용되었다는 기록으로 후에 도미(渡迷)라는 지명이 두미(斗迷, 斗尾, 豆尾, 豆美, 頭彌, 豆彌) 등으로 표기하게 된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미(都彌)라고 불리었던 장소이름이 도미(渡迷)로 표기되고 다음에 두미(斗迷)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도미설화의 발생 지역이므로 처음 도미나루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로 계속 우리말로 도미라고 불리어 오던 것을 처음 도미나루를 한자로 표시할 때 전설보다는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 우선 고려되는 지명의 표기전례에 따라 도미나루의 특성인 ‘건너는데 어지럽다’ 물살도 세고 너울도 많아 건너기 혼미하다는 의미의 도미(渡迷)를 나루이름에 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두미(斗迷)는 지역에서 이미 두미라고 통용되므로 도미(渡迷)와 같은 의미의 건너는데 크게 어지러운 뱃멀미 많이 나는 나루라는 의미로 두미(斗迷)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다음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한자를 도입하여 사용한 것인데 두미(斗尾) 등 꼬리미(尾)를 사용한 것은 도미나루 지점이 도미협(渡迷峽)의 끝 지점으로 강의 너울과 어지러움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의미와 함께 두미협(斗尾峽)의 맨 ‘아래’ 위치에 있는 나루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두미에서 두루미(彌)자를 사용한 것은 도미(都彌)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였거나 멀다는 의미의 미(彌)의 뜻으로 ‘건너는데 멀게 느껴지는 나루’라는 의미로 보여 진다.

한편 당초의 ‘도미(都彌)’라는 음이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두미(斗迷)로 바뀌었는데 민간에서

오랫동안 불리다 보면 도미-데미-되미-뒤미-두미로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도미나루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평의 양수리 두 물머리와와의 관계는 배알미 나루터에서 10리가 넘고 도미나루에서는 20리가 넘는 거리 차가 있어 두 물이 합치고 서로 바라다 보이는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두물머리 와의 관계는 연관성이 없음을 밝혀둔다. 굳이 배알미 나루터가 두물머리 라면 이는 가까운 경안천의 하류인 소내(牛川)와의 합수지점에서 가까워 두물머리 라고 하여야 하는데 기왕의 양수리 두물머리가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도 두물머리라는 지역명은 회피되었을 것으로 본다.

2) 하남 도미나루의 문헌 기록

도미나루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餘地志), 대동지지(大東地志),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 기록되어 있고 개인문집으로는 택당집(澤堂集),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동문선(東文選) 등에서 도미나루를 배경으로 한 시나 위치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남한산성도(南漢山城圖),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광주부전도(廣州府全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다.

도미나루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도미나루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종 때에는 원위전(院位田)책정에 관한 기록에서 도로의 등급에 따른 위전(位田)의 배분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광주 도미진(渡迷津)까지를 중로(中路)로하고 나머지 원(院)은 모두 소로(小路)로 한다고 하여 도미진에는 중로의 기준인 2결 50복의 원위전을 가지도록 하였으니 이는 서울에서 도미진까지로 하면서 도미원의 도로등급 기준을 정하였다는 것은 광주 도미원(渡迷院)이 도미나루와 인접한 장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선조 때에는 6차례의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오지 않자 장소를 옮겨 검단산 아래 도미진(渡迷津)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¹⁷⁾ 숙종 때에도 4차례나 도미나루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¹⁸⁾ 숙종 때에는 도제조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듣건대 광주 도미진(渡迷津) 위의 군기시(軍器寺) 시장(柴場)¹⁹⁾에 유황이 산출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마땅히 본營(本營)에 주어 캐서 쓰게 하소서’²⁰⁾하는 기록이 있으며 도미진 위의 시장은 검단산을 이르는 것인데 지금도 하남시 창우동의 ‘힐 타운’ 음식점 약수터에서는 유황냄새가 나는 샘물이 나온다고 한다.²¹⁾

도미진 남쪽으로는 검단산(黔丹山)으로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은데 도미진은 검단산 아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남은 옛 광주의 동부면과 서부면 그리고 중부면 일부지역으로 검단산은 예로부터 광주(廣州)의 진산(鎭山) 또는 주산(主山)이다.

조선 초 태종은 내시별감을 보내어 광주의 성황과 검단산 신에게 제사지냈고²²⁾ 한편 상왕과 함께 검단산에서 사냥을 즐겼다.²³⁾ 한편 검단산 아래에는 강무장(講武場)²⁴⁾이 있어 왕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었으며 성종 때에는 광주검단산에서 짐승을 쫓으면 비가 온다하여 사복(司僕: 사복시 관원)을 보내어 타위(打圍:사냥)하여 노루와 사슴을 잡아서 중국사신 연향에 쓰도록 성종이 지시하였으며,²⁵⁾ 인조 병자호란 때에는 강원 춘천영장 권정길(權井吉)이 병사를 거느리고 검단산에 도착하여 여러 차례 싸워 많이 이겼는데 적으로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봉화를 올려 서로 응하니 성안사람들이 바라보고 원병이 있음을 알고 모두 용동(聳動:두렵거나 놀라서 몸을 솟구쳐 뛰듯 움직임) 하여 기뻐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적의습격을 받고 패하였다.²⁶⁾

검단산의 기록은 동국여지지와 광주부지 산천조에서 검단산은 주 동북 십리 있는데 백제 승려의 이름이다. 즉 백제 승(僧) 검단선사(黔丹禪師)가 그 산에 있었다하여 검단산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검단산 남쪽 봉우리를 자봉(紫峰)이라 하는데 조선조의 허목(許穆)이 그 봉우리 아래에서 독서를 즐기던 곳²⁷⁾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1626년(인조2) 광주의 우천(牛川)²⁸⁾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²⁹⁾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전서체(篆書體)를 완성하였다.

자봉산(紫峯山)은 검단산의 남봉(南峰)인데 후에 자봉산(紫峯山)으로 불리었으며 하남시 은고개에서 동쪽,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봉우리로 해동지지도에서는 광악산(廣岳山) 도마산(刀馬山) 등으로 표기되었다가 현재의 지리서에는 용마봉(龍馬峰595.7m)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 밖의 지리지에는 전술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도미진과 도미천의 위치를 기록하였고 동국여지지에서 도미원과 도미천을 기록하였으며 여지도서 대동지지 광주부지 중정남한지 에서도 도미진을 기록하였는데 광주부지에서는 주의 북쪽 동부면에 있다고 기록하고²⁹⁻¹⁾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 산천조(山川條)에서 '도미진이 동부면에 있으니 속칭 두미(斗迷)라고도 쓴다. 곧 양근현의 대탄(大灘) 용진(龍津)의 하류로 그 북안(北岸)을 도미천(渡迷遷)이라 부르며 동으로 봉안역(奉安驛)을 향해 돌길이 7-8리나 뻗어 있으니²⁹⁻²⁾ 신라방언에 흔히 물가의 석로(石路)를 천(遷)이라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고 관방조(關防條)에서는 두미천(斗迷遷)이 '부의 북쪽으로 23리에 있으니 동서의 양쪽 산이 강을 끼고 벽처럼 마주 섰는데 울퉁불퉁한 길이 동쪽으로 봉안역을 가리키며 험준하게 십여 리를 뻗었는데 옛날에는 두미원(斗迷院)이 있었다고 하고 서울의 목이 되는 요해지지(要害之地)이니 신라방언에 물가의 좁은 길을 천(遷)이라 일컫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산조(物産條)에서는 금광초(金光草: 누런빛의 담배) 백당(白糖: 흰색 사탕) 이어(鯉魚: 잉어) 즉어(鯽魚, 일명 부어<鮒魚>: 붕어) 놀어(訥魚: 누치) 꺾어(鰈魚, 지금은 금린어<錦鱗魚>: 쏘가리) 은구어(銀口魚: 은어)가 도미(渡迷)에서 난다고 하였다.

증보문헌비고 산천조에서는 '서쪽을 경유하여 마점(麻站:마현 남양주시 능내리)을 경유 소천(昭川:소내)을 지나고 두미천과(斗迷遷)과 미음도(湍陰渡)를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왕산천(王山川:왕숙천)을 지나고 또 서쪽으로 흘러 광진(廣津:광나루) 송파도(松坡渡) 삼전도(三田渡)가 되

고 왼쪽으로 탄천(炭川) 양재천(良才川)을 지나 독도(禿島) 압구정(鴨鵝亭)을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중랑천(中浪川)을 지나 한강이 된다.’라고 하여 상류서부터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약용의 이방강역고(我邦疆域考) 위례고(慰禮考)에서는 백제의 하남위례성을 하남시 춘궁동에 비정하면서 ‘동쪽으로 높은 산에 의지했다(東據高岳:동거고악)고 한 것은 광주 고읍 동쪽 검단산을 말한 것이요 서쪽으로 큰 바다에 막혔다(西阻大海:서조대해)고 한 것은 열수(洑水)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인 행주(行州)어귀를 이른 것이며 남쪽으로 기름진 들을 바라본다(南望沃澤:남망옥택)는 고이왕9년 나라 사람에게 명령하여 벼 밭을 남쪽들에 개간했다는 둔골제(屯骨堤)를 이르며 북쪽으로 한수가 떠를 들렀다(北帶漢水:북대한수)함은 도미강(渡迷江)을 이른 것이다.³⁰⁾ 라고 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온조왕의 하남위례성 건국설화 중 북쪽의 한수(漢水)를 도미진이 위치한 도미강(渡迷江)에 비정한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전고조(典故條)에서는 1592년 임진년(선조25) 7월 왜(倭)가 광주를 함락시키자 섭주사(攝州事)박의(朴宜)는 소천(昭川)에서 두미진(斗迷津)으로 도망하였다. 9월 섭주사 어득해(魚得海)가 왜와 용진(龍津)에서 싸워 두미진까지 쫓았으나 결국 패하여 죽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3) 시문에 나타나는 하남 도미나루

(1) 서애집(西厓集: 류성룡): 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삼천리 인데 /

유악의 깊은 은혜는 사십년 동안이었네/ 도미(渡迷)에 발을 멈추고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종남산 빛은 아직도 그대로 있구려.

(2) 택당집 속집(澤堂集 續集: 이식)

두미호(斗迷湖)에 배를 대고 두소릉(杜少陵)의 운을 써서 밤경치를 읊다.

(3)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誌: 홍경모)

한수(韓脩: 고려 말 문신)의 도미진(渡迷津)

햇별이 움직이니 바람이 연하고 / 하늘그림자 멀리 머금으니 가는 듯 한가해/
머리를 돌이키며 삼각산 이별하니 / 달은 반도 안 되니 나는 마땅히 돌아갈세.

(4) 권우(權遇: 고려 말 조선초 문신)의 도미진(渡迷津)

산허리 서리서리 잔도(棧道)가 비졌는데/ 가고 또 가다보니 인가로 들어가네./
하늘은 차고 해는 저물고 바람은 부는데/ 머리 돌이키니 장강에는 물결이 꽃을 짓네.

(5) 박은(朴淵: 조선중기 학자)의 두미(斗迷)나루를 건너며

배가 두미나루 건너고자 하나/ 한 치 나아갔다 두 치 물러가니/
바람이 원망스럽구나./ 내 이제 어찌 돌아가리./ 어여차 밀어라 사공이 가없어라./
흰 모래 감돈 곳에 높은 바윗돌/ 협 속에 닳을 매니 오도가도 못 하누나.

(6) 김시습(金時習: 조선 초기 학자 문신)의 도미나루를 지나며

- 도미나루 물은 이끼보다 파란데/ 관동 가는 길 멀기도 멀 구나/
 등 뒤에 지팡이 비껴 메고 사람 돌아보지 않네./
 맑은 강 그림자 속에 부질없이 배회 하네/ 강물이며 강에 핀 꽃 눈에 아른거리고...
- (7) 속 동문선(續東文選: 신용개 김전 남공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시문집)
- 작별하고 배에 올라 저녁나절에 도미진(渡迷津)에 이르러 뇌우를 만났더니
 바로 개어서 달밤에 독포(禿浦)를 지나갔다.
 - 조금 있다 서로 돌아 도미(渡迷)에 들어가니 북풍이 휘몰아치고 구름이
 뭉게뭉게 뇌성이 와르릉 땅땅 장하구나. 빗방울이 차츰만하네.
 - 선창에 홀로 앉아 유하주(流霞酒)를 마시며 취중에 대탄(大灘)이
 가까워짐도 몰랐더니 이윽고 알리는 말이 물결하나 없단다.
 - 두미(斗迷)와 월계(月溪)에 또 마침 순풍부니 광릉(光陵)을 순식간에 지나왔구나.

(8) 다산 시문집(茶山詩文集 정약용)

- 소내에서 배를 타고 한양에 당도하다
 두미포(斗迷浦)라 골짜기에는 큰 배 많이 매였거나/
 저물녘에 달리다가 뱃전 쉽게 부러지리.
- 두미협(斗迷峽)의 고기구경
 수정물결만 구멍깊이 뚫린 곳/ 일천 길 쇠사슬이 가로 쳐져/
 날씨 추워 두건에 눈 쌓이고/ 햇살 쏘아 고기들 금빛 비추네.
- 상협(上峽)
 두미(斗迷) 산골짜기 동으로는 터져있고/ 서쪽 끝 장풍을 등에다 지고 있어/
 만경창과 유리알이 갑자기 깨지면서/ 얼음이 불쑥불쑥 갈고 갈리고 그런다네.
- 4월 23일 두미(斗迷)에 배 띄우고
 그물질 하였으나/ 중류에 둥둥 떠 그물을 건어 들고 돌아올 제/
 모두 빛나는 눈으로 오는 배만 쏘아보았지/
 이내 그물에 든 걸 다 거둬 높이 들어 올리니/
 아가미를 쫓만 한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요/ 불안하여 벌벌 떠는 모래무지만 있어라.

2. 다른 지역의 도미설화

1) 송파의 도미설화

송파의 도미설화는 하남의 도미설화와 다른 점으로 도미의 직업이 목수이며 도미부인의 이름이 아랑인데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는 송파강의 송파나루로 되어있다. 1939년 문장지에 박종화의 소설 '아랑의 정조'가 실린 이후 소설에서 전설의 내용이 보강되어 유포된 것으로 생각되며 하남의 도미나루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송파나루의 도미전

설은 구전에 의한 설화로서만 유지되고 있어 객관적 고증이 매우 빈약하며 아랑 또한 현대에 작명한 이름에 불과하여 박종화의 소설에 영향 받아 구성된 전설로 생각된다.

2)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도미설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의 도미설화는 오천면 소성리에 도미항(道美港)이 있고 도미부인이 남편을 그리던 상사봉(相思峰)이 있으며 미인도(美人島)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도미설화의 고장임을 부각하여 1991년 '보령의 도미설화'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고 1992년에는 도미부인의 정절각(貞節閣)을 세웠으며 1994년에는 도미부의 정절사(貞節祠)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도미부부 묘소까지 이장하고 조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근년에 와서 진행되었다.

보령의 도미부인 전설의 내용은 백제 개로왕 시대에 군용마를 기르는 전마들(戰馬坪:청소면 진북리의 늪은 들)에 왕이 자주 출행하였는데 왕이 이곳에 와서 들으니 도미라 하는 목수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천하일색(天下一色)이란 말을 듣고 왕은 욕심이 나서 도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내용을 전개시켜 도미가 살던 마을을 도미(都彌)마을 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 도미(都美)라고 하였는데 그 마을이 도미항(都美港:오천면 교성리)이고 도미의 아내가 성장한 현재 도미항 앞의 그림같이 예쁜 섬을 미인도(美人島)라 하며 뒷산은 도미의 아내가 올라가 남편을 생각하고 슬피 울었다 하여 현재의 오천면 선림사 앞에 위치한 산봉우리를 상사봉(相思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1983년 이고장의 향토사에 관심이 많은 허준³¹⁾씨가 새로운 지방 전설을 창작하여 만들어나 '내 고장 보령'이라는 책자로 발간한 것이 보령 도미설화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지역 역사의 사실성이나 근거에 상관없이 삼국사기 도미설화와 소설 아랑의 정조에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 설화를 집필한 허준 씨는 일제강점기 때 고향이 웅천인 역사학자 황의돈(黃義敦)씨와 서울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는데 한번은 도미설화를 알려주고 도미설화의 고장을 알 수가 없으니 자네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여 고향에 내려와 이곳저곳의 지명을 생각해보니 오성면 도미항 부근이 딱 맞아 떨어져 이야기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그것이 지역을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고자하는 당시의 시 관계자 및 지역지도자의 호응을 얻어서 예산으로 도미설화 지역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03년에는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 전해오는 성주도씨(星州都氏) 정승묘가 도미(都彌)의 묘로 성주도씨 종중에서 받들어 오고 있었는데 그 묘가 임해공단 개발지역으로 편입되기에 이르자 이장(移葬)이 불가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주도씨 종중과 보령시가 주축이 되어 2003년 6월 보령시 오천면 정절사 옆에 이장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보령시에서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묘 이장에 대한 검토결과 묘의 보령시 이장 안(移葬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미부인 선양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도미부부 묘의 이장을 강행하여 도미부인 정절사 경내에 지름 5m, 높이 2m의 거대한 백제고분형의 묘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성주도씨 족보에 의하면 도씨의 근원은 한(漢)나라 무제 때(BC110)의 계(稽)가 남월(南越)의 여가(呂嘉)가 일으킨 반란을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어 여가를 사로잡은 공으로 임채후(臨蔡侯)에 봉해지면서 도씨(都氏)의 성(姓)을 사성(賜姓)받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후손 도조(都祖)가 고구려로 건너와 유리왕(瑠璃王)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착한 이후 백제 개루왕 때 재상이던 미(彌)의 후손은 신라 진흥왕 때 도도(都刀)...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고려개국에 공을 세운 도진(都陳)이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지므로 성주도씨의 관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이렇듯 세계가 오래되고 불분명함으로 미루어 당초의 분묘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 보령으로 이장할 때 유물과 유구가 없어 관속에 도미부부의 이름을 돌로 새겨 넣었다는 보령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감안하더라도 진해시 청안동 소간산에 있었던 묘는 도미의 실제 묘라기보다는 도미의 신분이 백제의 '편호소민(編戶小民)'에서 '벼슬하는 조사(朝士)'로 변화한 조선 영조시대에 중간(重刊)된 삼강행실도 발간 이후에 성주도씨 문중에서 초혼장(招魂葬)³²⁻¹⁾으로 모셨던 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듯 보령의 도미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거나 지역의 전통적 전래 설화이기보다는 지역 홍보를 위한 창작 설화로 밝혀졌다. 따라서 보령 도미설화의 지역적 사실성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3) 진해시 청안동의 도미설화

전술한 도미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진해시 청안동에 있었는데 묘비에는 '백제정승 도미지묘 배 정열부인(百濟政丞都彌之墓配貞烈夫人)'이라는 묘비가 함께 있었다. 지금은 충남 보령의 도미부인 정절사(貞節祠) 옆으로 천장(遷葬)되었다. 이곳의 설화는 도미와 도미부인이 우연히 상륙한 섬이 천성도(泉城島)인데 천성도와 같은 음을 가진 천성(天城)마을이 주변에 있는데 이 마을은 부산광역시 천가동(天加洞) 천성(天城)마을로 가덕도(加德島)내에 있는 섬마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에 딸린 섬인데 천성(天城)은 이 섬 남서쪽에 있는 왜구(倭寇) 방어기지로써 천성진(天城鎭)이라고 부른 때가 있으며 단지 천성이라는 한글 음이 같을 따름이다. 그리고 도미부부가 망명한 고구려의 산산(蒜山)이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낙동강변에 있는 '마산(馬山)'을 모습이 마늘 닮았다 하여 '마늘 산'이라고 속칭하던 것을 한자로 훈차표기(訓借表記)하여 산산(蒜山)이라고 부르고 마늘의 머리글자만 가지고 '마산'이라 한 것을 한자로 마산(馬山)으로 쓰게 된 것으로 추정³³⁾ 하는 등 도미설화와의 유사점을 연결하고자 하였으나 원전의 백제 도성부근의 지역과 상충(相衝)되고 무덤이 있었던 지역과 산산(蒜山)은 동북으로 약 30km, 천성도는 약 5km가 떨어지는 등 지나친 견강부회(牽強附會)³⁴⁾의 설화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V. 도미부인이 기지(機智)로 탈출한 백제도성(百濟都城)은 어디인가?

1. 도미설화의 사실성

도미설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열전의 제 목은 김유신부터 을지문덕 궁에 견훤에 이르기 까지 모두 50편인데 주인공의 이름은 열전 제 5에 수록된 고구려의 '밀우(密友) 유유(紐由)' 전이 두 사람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총 51명이 된다. 그리고 열전의 주인공은 모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따라서 열전의 수록 목적이 명장 충신 열녀 등의 감동적 사실을 수록함으로써 전체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자하여 기록한 것이다.

도미설화도 군주(君主)의 선정(善政)과 부녀의 정절(貞節)을 강조하는 열녀(烈女)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발간 당시 고려의 열녀표상으로 도미부인을 선택하였던 것인데 삼국사기 발간 때까지 구전으로만 전하여 전승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도미설화에서 고구려의 간첩 도림의 기록이나 중심인물인 개로왕의 무능과 어리석음으로 폭로하고 한성백제를 상실하게 한 직접적 이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사기 발간당시 사서(史書)의 기록을 원용하여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³⁴⁻¹⁾가 있으며 그 사서의 원전을 704년(성덕왕 3년) 한산주 도독(당시에는 총관)에 임명되었던 신라의 성골 출신이면서 화랑가문으로 신라의 사학자인 김대문(金大問)이 집필한 한산기(漢山記)로 보는 주장³⁴⁻²⁾이 있는데 삼국사기 발간당시까지도 전하고 있었음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부연하여 김대문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한산주는 약 500여 년간 백제의 도성이 소재한 지역이므로 백제왕의 학정을 부각시킴으로서 백제왕실의 향수를 단절하고 신라에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두고 당시 한산주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도미의 실제이야기를 한산기(漢山記)에 수록하였을 것으로 믿어져 설화의 사실성을 객관화 시켜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적 강상윤리(綱常倫理)를 보급하는데 효열(孝烈)의 좋은 소재로 채택되었고 각종문헌에 여러 사례로 다루어 기재됨으로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기에 이른 것이며 이에 편승하여 춘향전과 같은 문학작품으로도 널리 활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도미전(都彌傳)이 사실성에 바탕 한 전기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도미부인의 탈출 정황

설화의 내용으로 보아 21대 근개루왕인 개로왕시대의 사건을 4대 개루왕시대의 이야기로 잘못기재하고 있음은 전술하였으며 도미나루가 하남시의 검단산 아래 창우동에 있는 나루라는 것은 각종 문헌과 지역 전설 및 경기대학교의 현지 실태조사결과 건축물과 유구 등이 확인됨으로서³⁵⁾ 입증되었다. 그러면 당시 백제도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도미부인이 하남의 도미나루로 도망을 왔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풍납동토성과 하남 춘궁동 두 곳을 비교

하여 생각해 본다.

1) 상황의 황급성

도미부인은 개로왕의 강제검탈을 모면하고자 기지를 발휘하여 도성을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안전하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였을 것이다. 그 방법 중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가고자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단시간 내에 우선 찾아갈 곳은 제일 가까운 나루터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대로 보면 개로왕의 행동으로 보아 저녁녘일 경우가 가장 높는데 아마도 밤을 도와 뱃길로 탈출을 시도하려 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창우리 나루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뱃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루터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나룻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곳으로 간 것이다. 만약 풍납토성에서 나왔다면 부근의 나루터 중 하류 쪽의 나루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향하였을 것이다. 어차피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가고자 하였으면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하류 쪽으로 가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2-30리 길을 걸어서 하남의 도미나루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다시 하류인 풍납동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하기 때문에 공연히 힘들이고 시간 허비하는 일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도성은 하남시 춘궁동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도성에서 나루터까지의 거리와 시간

하남의 도성에서 창우리 도미나루까지의 거리는 약 4km, 그러나 풍납토성에서의 거리는 12km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당시의 도로는 지금보다 더 멀었을 것이다.) 나루터까지는 어차피 걸어서 갔을 터이므로 하남도성에서 약 40분 풍납토성에서는 3시간 이상으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뱃길을 달려갈 이유가 없다. 특히 감시를 피하여 도망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만약 감옥에서 탈출한 상황이라면 시간보다는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의 명제가 된다. 따라서 그럴 때는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을 우회하여 갈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인척이 있다면 그곳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도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도미부인은 왕과의 약속에서 며칠 후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궁을 나섰기 때문에 누가 추격하거나 감시받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만 도미부인 마음속에만 탈출할 의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니 태연히 행동하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할 정황이 아니고 빨리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먼 곳으로 갈 이유는 없어 당시의 도성은 하남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하남의 도성소재 당위성

1) 하남에 백제도성이 있었던 이유

(1)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과 한성(漢城)은 한산(漢山)에 있었고 한산은 하남(河南省)에 있다.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BC18)조에 ‘마침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살만한 땅을 둘러보았다. 열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하남위례성에 도읍하였다고 하여 한산(漢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고, 온조왕13년(BC6) ‘가을 7월에 한산아래(漢山下)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기고 온조 14년(BC5) 봄 정월에 수도를 옮겼다’고 하였으며, 온조왕25년(7) ‘봄 2월에 한성(漢城)의 인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하였고, 근초고왕26년(371) ‘도읍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라고 하여 백제의 도읍이 한산을 떠난 때가 없었다.

그러면 한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산이라는 것인가? 하남에는 많은 절터가 있는데 대략 열거하면 동사(同, 桐寺) 천왕사(天王寺) 약정사(藥井寺) 자화사(慈化寺) 신복선사(神福禪寺) 봉수사(奉水寺) 선법사(禪法寺) 법화사(法華寺) 도미사(渡迷寺) 서양사(상사창동 샘골) 계두사 여가산 절 범굴절 사막골절 검단산절 등 상당히 많으며, 이들 중 약정사(藥井寺) 신복선사(神福禪寺) 봉수사(奉水寺)는 1530년(중종25)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불우조(佛宇條)에서 모두 한산(漢山)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약정사 재한산(藥井寺在漢山)’이라 하여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하였고, ‘신복선사 구재한산(神福禪寺俱在漢山)’이라 하여 ‘신복선사는 한산에 함께 있다’하였으며 ‘봉수사 구재한산(奉水寺俱在漢山)’이라 하여 ‘봉수사는 한산에 함께 있다’라고 사찰의 소재지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 세 사찰 모두 근자에 명문기와 출토 등으로 모두 하남시(河南省)에 있음이 확인되었다.³⁶⁾ 그러면 한산(漢山)은 하남시(河南省)에 있는 산이 명백하니 ‘한성백제(漢城百濟)의 도성(都城)이 한산(漢山)에 있었다.’ 함은 ‘한성백제의 도성이 하남시(河南省)에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한성백제 시대의 한산을 현재 남한산에서 하남시를 양쪽으로 병풍처럼 삼태기 또는 말굽형태로 두르고 있는 U자(字)형의 커다란 산 전체를 한산으로 지칭한다. 이는 이러한 U자형의 산에 유적 유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안에 광주의 치소(治所)인 광주관아(廣州官衙)가 있었으며 이는 백제 초기부터 1626년(인조4) 남한산성으로 관아가 이전하기까지 약1644년(1626+18)동안 옛 광주(廣州)의 중심도시에서 벗어난 때가 없었다. 따라서 한산(漢山)이 소재한 고을이기 때문에 한산주(漢山州)가 되었고 한산주의 진산은 인근의 검단산이며 광주향교가 하남시에 있음도 그 까닭이다. 옛 광주의 관아는 남한산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산이 있는 현재 하남시 춘궁동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성산성(二聖山城) 3차 발굴시 산성내의 제1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木簡)에 ‘무진년 정월십육일 봉 남한성 도사..(戊辰年正月十六日册南漢城道使..)’⁴⁰⁾라는 묵서명문(墨書明文)

은 도사(道使)⁴¹⁾라는 관직명으로 보아 고구려나 통일신라시대의 목간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목간이 출토된 위치가 저수지 바닥에서부터 1m 위의 쌓인 토사 속임을 상기할 때 토사가 1m까지 쌓이는 기간과 저수지를 사용할 때의 수시로 준설하는 관리 작업이 병행되었음을 감안 할 때 산성(山城)이나 저수지의 조성연대는 훨씬 그 이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명문내용이 이성산성은 남한성(南漢城) 또는 한성(漢城)으로 불리었다는 방증(傍證)으로 이 산성이 한산(漢山)에 있는 성이라는 뜻이므로 이곳이 한산(漢山)이었음을 간접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제가 현재의 하남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 도시가 형성된 것이요 그 도시가 유지 되었기에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 까지 지역중심도시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풍납토성이 도읍이었으면 당연히 그곳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을 것인데 풍납토성은 옛 광주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가 한 번도 없고 변방 한촌으로 있었기에 도시 발전 과정을 상기해 보아도 한성백제가 하남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2) 하남 춘궁동에는 '궁안(宮內) 등 마을이름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하남시에 백제궁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춘궁동에는 지금도 궁안(宮內)이라는 지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춘궁동(春宮洞)의 지명도 춘장리(春長里)와 궁내리(宮內里)가 합성되어 생긴 이름이며, 백제시대에 처음축조³⁷⁾된 이성산성(二聖山城)은 춘궁동에 소재하며 춘궁동을 중심으로 한 부근지역을 고골이라고 하여 '고읍 골' '옛 고을'이라는 지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하사창동(下司倉洞)은 골말(州村)이라고 부르는데 '고을 마을'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보고 있다.

(3) 백제 개로왕 시대의 기록인 연하수언(緣河樹堰)과 송산(崇山)은

하남에서만 고증이 가능하다.

삼국사기 권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조(蓋鹵王條)에 동왕(同王)21년 '연하수언 자사성지동 지승산지북(緣河樹堰自蛇城之東至崇山之北)'이라고 하여 '강을 따라 둑을 세워 사성 동쪽에서부터 송산 북쪽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제방은 고구려의 첩자 도림(道琳)이라는 승려가 장기와 바둑으로 개로왕에 접근하여 백제의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개로왕에게 제시한 네 가지 국책사업이 성곽정비사업, 왕궁신개축사업, 선왕의 능침조성사업, 제방축조사업인데 그 마지막 사업인 '강을 따라 제방을 쌓는(緣河樹堰)' 공사의 이유를 '백성지옥려루괴어하류(百姓之屋廬屢壞於河流)'라 하여 '백성들의 가옥과 농막은 변변히 강물에 허물어지니'로 매년 홍수를 방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성(蛇城)동쪽에서 송산(崇山)북쪽 까지라면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곳은 하남시 강변마을 망월동의 '장수동마을'에서 검단산 강가까지를 이르는 말이다. 사성이 있었던

마을은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 장수동 마을로 비정하는 까닭은 마을부근에 ‘뱅개’라는 포구가 있고 그 포구를 중심으로 그곳에 토성을 쌓았던 흔적이 완전한 구렁이 있으니³⁸⁾ 즉 한문으로 하면 사포(蛇浦)로 되며 또 장수동 마을 이름을 6-70년대 까지만 하여도 ‘장수구렁이’라 호칭하였는데 이는 ‘장사구렁이’에서 와전된 것으로 본다.

장사(長蛇)는 ‘긴 뱀’ 또는 ‘큰뱀’이라는 뜻이니 즉 ‘구렁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는 장사(長蛇)마을로 부르다가 구렁이라는 말이 더 따라붙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축구(蹴球)’를 ‘축구차다’고 한다거나 ‘역전(驛前)’을 ‘역전앞’으로 부르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한편 뱅개(蛇浦)를 두르고 있던 토성(土城)의 모양이 뱅개를 중심으로 큰 구렁이가 둥글게 꼬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연상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수동 마을에 살았던 지인에 의하면 5-60년 전만하여도 현재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남쪽 길이 길 다란 제방(둑)이었다 한다.³⁹⁾

특히 연하수언(緣河樹堰)의 축성목적이 홍수방지인 만큼 홍수가 걱정이 없는 지역은 둑을 쌓을 필요가 없으니 보통 성(城) 같으면 망월동 구산(龜山)으로부터 축성 하였을 것이나 구산으로부터 사성까지의 거리는 약 3-400m로 같은 한강변이라도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홍수의 위협이 없으므로 제방을 쌓지 않고 지대가 낮은 상습침수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사성 동쪽부터 둑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풍납토성근처에서 검단산 까지 연하수언을 축성하였다고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구역 한강변에는 산도 있고 전혀 홍수와 상관없는 고지대인 구암서원 부근에도 연하수언을 축성하였다는 이야기로 이는 축성목적에 도외시킨 군사적 방어성으로 착각하여 제시된 주장에 불과하다.

한편 당시의 연하수언(緣河樹堰)이 조선후기의 지도에 연하언(蓮河堰)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1725년 여지대전도의 광주부도(廣州府圖)를 비롯한 1735년 해동여지도의 광주부도, 1767년-1776년 사이에 발간된 광여도의 광주부도, 18세기 중엽 경기도지도의 광주부도, 18세기 중엽 여지도의 광주부도 등에서 백제시대 연하수언(緣河樹堰) 축조구간(築造區間)인 하남의 장수동마을(蛇城)에서 검단산(崇山) 구간에 연하언(蓮河堰)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조선 후기까지도 연하수언의 명맥이 이어져 왔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풍납토성에서 장수동마을 구간에는 표시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

그리고 검단산(黔丹山)을 숭산(崇山)으로 보는 이유는 검단산이라는 자체가 ‘신성한 제단이 있는 큰 산’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온조왕 원년(BC18) 5월에 동명왕의 사당인 동명묘(東明廟)가 세워졌던 산으로 지목함에 무리가 없으며 동명묘제단을 발견하였다는 학자가 있고 전술한 백제의 고승 검단선사의 이름을 차용하여 검단산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광주의 진산(鎭山:혹은 主山)으로 임금의 사냥터로 사용되고 그 사냥을 기우의 방편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나라의 기우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4) 하남시에는 도성근처에 대형 사찰이 있었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가을 7월에 진나라(晉)나라 호승(胡僧:서역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로부터 불교가 전승된 이후 침류왕2년(385) 봄 2월에는 한산에 가람을 창건하고 승려 열 명에게 도첩(度牒:승려의 신분증명서)을 주었으며 그 후 나라에서 불교를 육성하여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가서 불법을 전하고 일본사찰건립의 주역을 담당하였는데 그러면 도성 근처에는 신라나 일본처럼 왕실에서 운영하는 대사찰이 있어야 하는데 하남에는 백제시대의 사찰로 추정되는 두개의 큰 절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춘궁동 동사지(桐寺址)로 2010년 8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간한 ‘문화재 대관 사적 제1권’⁴⁴⁾에서 발굴된 백제 토기 및 와편 등을 근거로 백제시대 사찰의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경주 황룡사에 필적할 규모를 가졌던 사찰로 백제왕성으로 추정되는 이성산성(二聖山城) 정 남향 약 1km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하사창동의 천왕사지(天王寺址)로 2천여 평을 상회하는 대사찰로 이곳에서는 중앙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불(鐵佛)인 춘궁리 철조여래좌상(春宮里鐵造如來坐像)이 있었던 절터이며 석가모니 진신 사리를 소장하였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천왕사지는 교산동 건물지(校山洞建物址)의 정남향 약 1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有數)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천왕사의 발굴이 더 진행되면 370년대의 백제시대 사찰로 확인될 가능성이 짙은 사찰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교산동 건물지는 백제왕궁지(百濟王宮址)설과 객사(客舍)설이 상충되고 있다. 광주객사라는 주장의 근거는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는 것인데 다른 인근지역에서도 같은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혼동을 주고 있다. 또한 건물지 발굴결과 온돌시설이 없으며 객사로서는 너무 크고 관아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며 아홉 번이나 중건한 흔적이 있는 등 왕궁지(王宮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풍납토성이 백제도성이 아닌 이유

(1) 종합적 방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도성이다.

나라의 도성(都城)을 정 할 때는 나라가 외침으로부터 위급할 때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몇 가지 방어와 퇴로설정은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풍납동 토성은 한강이 해자의 역할을 하여주는 이점도 있으나 일단 방어선이 뚫렸을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려운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도성은 대개 자연적 산의 배치를 오히려 삼고 퇴로역시 산을 통하여 연결됨이 상식인데 풍납토성은 평지성(平地城)으로 포위와 공격당하기 쉬운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대가 낮아 상습적 홍수지역이며 풍납(風納)이라는 말처럼 북서풍이 세차게 들이치는 바람맞이 땅으로 도성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지역이다. 이는 백제의 유입경로를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세력과 결별하고 남하한 부여 계통의 나라이다. 고구려의 졸본성(卒本城)인 오녀산성(五女山城) 그리고 환도산성(丸都山城) 국내성(國內城) 그리고 백제가 475년 한성시대를 고구려와의 패전으로 마감하고 그 후 웅진성(熊津城:공주) 사비성(泗水城:부여) 등지로 천도하였는데 열거한 모든 도성은 산에 의지하여 있다. 이러한 북방민족의 방어이념이 충실한 도성선정 성향에 비추어 풍납토성은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평지에 고립된 작은 성으로 고대국가의 도성선택의 일반성에서 크게 벗어난 허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풍납토성은 주변에 산이 아예 없고 한산으로 지칭되는 남한산(南漢山)과 금암산(金岩山) 및 객산(客山) 등이 보이지 않고 숭산(崇山)으로 지칭되는 검단산도 볼 수 없어 이들 산과 연관된 백제사를 풀어내기 난감한 성이다.

(3) 풍납토성 주변에는 하남과 달리 삼국시대는 물론 그 이후의 사찰도 발견하기 지난하며 특히 대형 사찰지가 없다는 것은 도성의 존재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4) 풍납토성 하나를 가지고 고구려 군사 3만 대군이 7일 동안 밤낮으로 공격하여 함락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475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한성(漢城)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사로잡아 아차성(阿且城)아래로 끌고 가 죽였다. 고하였는데 일본서기(日本書紀)14 유라쿠(雄略:재위 456-479)천황 20년 조(條)에는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하여 '개로왕 을묘년 겨울에 박(伯:개라는 뜻으로 적국의 왕인 장수왕을 지칭)의 대군이 와서 대성(大城)을 7일 밤낮 동안 공격해 왕성이 함락되고 마침내 위례성을 잃었으며 국왕 및 대후 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3만 대군이 평지의 작은 성에 불과한 풍납토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할 대상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아무래도 하남의 이성산성(二聖山城)처럼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5) 왕성이라면 왕궁지(王宮址)가 있어야 하는데 풍납토성에는 왕궁지와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왕이 수백 년 거처하였다면 성안은 반드시 왕궁지가 있어야 한다.

왕궁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춧돌인데 주춧돌 없는 왕궁을 그것도 건축술에 있어서는 삼국 중 가장 발달한 백제가 주춧돌 하나 없는 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겠는가?

(6)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니고 온조왕이 한강 서북쪽에 쌓은 다용도 성(城)으로 봄이 타당하다.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14년(BC5)조(條) 봄 정월에 수도를 옮기고(한산 아래에)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 주민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고하였고 온조왕43년(25) 가을 9월에 큰 기러기 1백여 마리가 왕궁에 모여들었는데 일자(日者)⁴³⁾가 말하기를 '기러기는 백성의 형상이니 장차 멀리서부터 와서 의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남옥저(南沃沮)의 구파해(仇頗解) 등 20여 가(家)가 부양(斧壤)으로 와서 정성을 바쳐 복종해 오니 왕이 받아들여 한산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니 먼저 온조왕 14년에 한강서북쪽에 쌓은 성은 한강 서북쪽이라 하였으니 한강의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그해 1월에 한산 아래(漢山下)로 수도를 옮겨 왔으므로 옮긴 수도(한산)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한강가의 서북쪽을 뜻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정확히 하남에서 보아 풍납토성은 서북쪽이 된다. 만약 풍납토성에서 서북쪽의 한강가의 성으로 민가를 나누어 살만한 정도의 성이 존재 하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온조왕43년 남옥저(南沃沮)에서 귀순한 20여 가구의 백성을 한산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고하여 그 기준점을 도성이 소재한 한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한산의 서쪽이면 어디일까? 그것은 풍납토성을 떠 올릴 수 있다.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확실한 성향은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도성(都城)에 두는 것 보다는 도성과 그리 멀지 않은 풍납토성에 살게 하는 것이 왕실의 신변보호에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납토성은 온조왕 14년에 한강 서북쪽에 축조한 군사와 민생과 왕릉보호를 위한 복합용도의 성이라고 생각된다.

Ⅵ. 결론

도미설화는 삼국사기 열전에서 50편의 설화 중 백제인은 단 세편만 수록되었는데 계백 흑치상지 도미가 그 전부이다. 도미는 백제 개로왕 시대의 인물로 소개하여 놓고 내용은 개로왕시대를 배경으로 전개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개로왕을 근개루왕 이라고도 하였는데 개로왕 21년 기록에서는 승려 도림과의 내용에서 실제 ‘백제왕 근개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다’로 기재함으로써 개로왕과 근개루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미설화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천성도(泉城島)와 산산(蒜山)등의 지명이 제4대 왕 개로왕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제21대 개로왕의 성향 등을 반영한 설화라고 판단하여 개로왕 시대의 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도미부부가 우연히 만난 천성도(泉城島)를 여러 사료를 찾아 지금의 오두산성(鰲頭山城)으로 비정하였으며 고구려로 망명한 산산(蒜山)은 교하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금의 파주시와 교양시 근처의 지역으로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교하군의 영현(속현)인 산산현 역시 지역통솔과 행정편의 명령하달의 목적을 감안하면 주변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산산현이 덕원 원산 부근지역이라는 것에 대해 기록상의 하자를 제기하였다.

한편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터는 여러 문헌과 지리도 현지실태조사서 등을 제시하며 하남의 창우동에 소재한 도미나루가 유일한 곳으로 다른 지역 설화의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미설화는 백제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규정하였다. 도미설화가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 도미부인이 탈출한 백제도성은 당시의 사건상황으로 볼 때 하남시 춘궁동의 백제도성일 수밖에 없음을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다. 도미설화 이외에 하남에 백제도성이 존재하는 당위

성과 풍납토성의 도성존재의 허약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미나루의 주변 상황을 연구하면서 현재 사학계의 중심이론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하남의 한성백제 존재설은 반드시 회귀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하남지역이 풍납토성보다 연구할 소재나 발굴자원이 무궁하며 일찍이 하남을 백제의 중심도성으로 설파한 다산 정약용이나 증정 홍경모 등 선학(先學)들의 안목이 더 믿음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이며, 이를 기대케 하는 것이 역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기에 반드시 후학(後學)들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글이 진실을 밝히는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고 하남을 사랑하는 희망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3. 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5. 여지도서(輿地圖書)
6. 광주부지(廣州府誌)
7. 대동지지(大東地志)
8.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5.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6. 삼국사기 (이강래 옮김) 도서출판 한길사 1998
7. 하남 도미나루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하남시 2003
8. 도미설화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2009
9. 중정 남한지 하남 역사박물관 2005
10. 남한비사 구민회 광주문화원 2003
11. 아랑의 정조 박종화 하서출판사 2006
12. 역사 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 역사박물관 2003
13.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14. 하남의 문화유산 하남역사 박물관 2004
15. 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2011
16. 한국인의 족보 일신각 1977
17. 수원의 옛 지도 수원시 2000

주(註)

- 1) 이병도,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 2) 도수희, 2009 도미전설의 발원지를 찾아서
- 3)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11권 파주목條 파주를 액봉(額蓬) 파평(坡平) 봉성(峯城) 영평(鈴平) 술이홀(述爾忽) 서원(瑞原) 원평(原平) 곡성(曲城) 등으로 불림.
- 4) 두산백과 경기도양시 일대의 통일신라 행정구역 명.
- 4-1) 삼국사기 권 제 18 고구려본기 제6 광개토왕 즉위 원년 '백제 관미성 기성 사면초절 해수환요 (百濟關彌城其城四面峭絕海水環繞)'
-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가을 9월條
- 5)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으로 기록
- 6) 김윤우, 2003 도미사화(都彌史話)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찰
- 7) 김윤우, 2003 도미사화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찰
- 8) 도수희, 2009 도미전설의 발원지를 찾아서
- 9) 신라방언 다이수애석로칭천(新羅方言 多以水崖石路稱遷)
- 9-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산천조(山川條): 도미진(渡迷津)이 주 동쪽 10리, 양근군 대탄 용진(楊根郡 大灘 龍津)하류에 있으니 그 북쪽 언덕을 도미천(渡迷遷)이라한다.
동쪽으로 봉안역을 향하여 돌길이 7-8리나 빙 돌렸는데 신라방언에 흔히 물 언덕 돌길을 천(遷)이라고 불렀다.
- 10) 중앙 구민회 1956 남한비사 p38 풍납리 토성 10
- 11)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1985. 한강사, 11
- 12) 경기도 박물관, 2002. 한강 p438 환경과 삶 12
- 13) 남양주 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역사 p275 13
- 14) 세미길: 하남 창우리에서 동경주 샘재 안생재 골말을 통하여 사창(社倉)으로 가는 길을 일컬음, 14
- 15) 고려사 권제55 24장 우왕: 경진 광주 도미사 산정수용 표몰인가 (庚辰 廣州 渡迷寺 山頂水湧 漂沒人家) 15
- 16) 세종실록 세종27년 7월 13일
- 17) 선조실록 선조32년 5월 3일
- 18) 숙종실록 숙종21년 5월 11일, 23년 5월 16일, 27년 5월 18일, 30년 6월 26일.
- 19) 딸나무를 베는 일정한 장소
- 20) 숙종실록 숙종36년 11월 28일
- 21) 2003 하남 도미나루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하남시.
- 22) 태종14년 3월 18일
- 23) 태종14년 3월 19일, 임금이 친히 사슴 8마리를 쏘았다.
- 24) 태종 17년 1월 29일 강무장(講武場) 임금의 수렵, 군대의 무예연마장으로 쓰기위하여 일반 백성의 이용을 금지한 산림으로 세종2년(1420년) 광주(廣州) 양근(陽根) 철원(鐵原) 안협(安峽) 평강(平康) 이천(伊川) 횡성(橫城) 진보(珍寶) 등지로 결정함.
- 25) 성종1년 4월 23일
- 26) 인조14년 12월 26일, 정조4년 8월 9일
- 27) 검단산 재주동북 10리 백제승고명 기남봉자봉 본조허목 상독서기하 (黔丹山在州東北十里百濟僧故名其南峰紫峰本朝許穆當讀書其下)
- 28) 우천(牛川)은 광주시 남종면 우천리로 종전에는 퇴촌면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변경으로 남종면이 되었다. 경안천(京安川)과 한강이 만나는 경안천의 하류로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 소내섬이 넓게 자리하여 채소의 집산지로 유명하였다. 당초에는 소천(小川)으로 작은 내라는 뜻의 '소내'였으나 다시 한자로 표기하면서 우천(牛川)이 되었으니 뜻이 와전된 지명이다.
- 29) 자봉산(紫峯山)은 검단산의 남봉(南峰)인데 후에 자봉산(紫峯山)으로 불리었으며 하남시 은고개에서 동쪽,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봉우리로 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는 광악산(廣岳山)

도마산(刀馬山) 등으로 표기되었다가 현재의 지리서에는 용마봉(龍馬峰:595.7m)으로 통용되고 있다.

29-1) 廣州府誌 山川

29-2) 도미천이 도미진 으로부터 10리 가까이 동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 29-1

30) 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3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31) 송하순, 충남 보령지방 도미설화의 전개 (2009 도미설화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32) 1985 한국인의 족보 일신각

32-1) 招魂葬: 시체 없이 의관이나 지방 위패 등을 넣고 장사지냄.

33) 도미정승 무덤에 대한 고찰 (2009 도미설화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34) 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을 비유함

34-1)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2007.

한국사연구 50-51 합집 1985

선사와 고대 27집 2007

34-2) 이도학 '한산기의 세계, 허구를 통하여 되살아난 개로왕' 1996.

꿈에 담긴 한국 고대사 노트 (상) 일지사

35) 2003년 하남 도미나루 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총서 4집)

36) 두산백과

37) 최몽룡 고고학과 문헌으로 본 한성시대 백제 2011 (이성산성에 관한학술대회 하남문화원)

심정보 이성산성 축조기법에 대한 고찰 2011 (이성산성에 관한학술대회 하남문화원)

38) 중암(重庵) 구민회(具敏會) 남한비사(南漢秘史) p25 1956

39) 장혜자 씨의 증언

40) 하남의 문화유산 2004 하남 역사박물관 p98-117

41) 道使: 삼국시대에 확장된 지방의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지방관. (네이버 국어사전).

42) 추 칠월 축성 한강서북 분 한성 민(秋七月築城漢江西北分漢城民)

43) 日者: 삼국시대에 날의 길흉을 점치거나 천문관측을 맡아보던 관리 (네이버 국어사전)

44) 문화재 대관 사적 제1권 p324-329 문화재 관리국

특집 1

하남문화원 제5회 학술대회
백제 하남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기조발표

考古學으로 본 하남시의 歷史와 文化
崔 夢 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사고고학)

발표자 1

하남지역의 고대인들은 어디서 살았을까?
양 정 석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자 2

界線으로서 韓國史 속 百濟人들의 頭髮과 服飾
李 道 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학 학장)

발표자 3

하남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김 상 보 (대전보건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발표자 4

漢城百濟의 하이테크 기술
오 순 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여 백

특집 1

기조발표

考古學으로 본
河南省의 歷史와 文化

崔夢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사고고학)



考古學으로 본 河南省의 歷史와 文化

崔 夢 龍

한국고고학 편년은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조기: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 전기: 기원전 1500년-기원전 1000년, 중기: 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 후기: 기원전 600년-기원전 400년)-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철기시대 후기(삼국시대 전기 또는 삼한시대, 중래의 원삼국시대¹⁾: 서기 1년-서기 300년)-삼국시대 후기(서기 300년-서기 660/668년)-고려(서기 918년-서기 1392년)-조선시대(서기 1392년-서기 1910년)로 설정된다. 이러한 편년에 따르면 高句麗의 시작(기원전 37년)이나 신라의 건국연대인 기원전 57년과 같이 삼국시대 전기에 포함)은 삼국시대 전기에 속하며, 河南省 二聖山城의 축조(서기 371년, 13대 近肖古王 26년)는 삼국시대 후기 초에 속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의 文字를 차용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깊이 받은 韓國歷史考古學의 시작은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과 馬韓(기원전 3/2세기-서기 5세기 말/6세기 초)²⁾ 때부터이다. 그래서 철기시대 전기의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약

1) 원삼국시대란 용어를 삼국시대 전기(또는 철기시대 후기, 서기 1년-서기 300년)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자는 주장은 1987년부터이다(최몽룡 1987, 한국고고학의 시대구분에 대한 약간의 제언, 최영희 선생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서울: 탐구당, pp.783-788).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2009년 11월 3일(화)부터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을 포함한 古朝鮮을 인정하면 原三國時代대신 三國時代 前期라는 용어가 타당하며 현재 고고학과 역사학계는 그렇게 인식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기 2012년 2월 21일(화)에 열린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 한국사 시대구분론-외부전문가 초청포럼-학술대회에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호정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이행시기에 대한 역사서술과 연구방법론'에서 고대를 고조선(시대)-삼국시대-남북국시대 순으로 보고 있다(p.25).

2) 한국 고고학에 있어 馬韓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약간의 단편적인 文獻資料 이외에는 고고학적 자료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필자가 '전남지방 소재 지석묘의 형식과 분류' (최몽룡 1978), '고고학 측면에서 본 마한' (최몽룡 1986)과 '考古學上으로 본 馬韓의 研究' (최몽룡 1994)라는 글에서 "한국청동기·철기시대 土着人들의 支石墓社會는 鐵器시대가 해체되면서 점차 馬韓사회로 바뀌어 나갔다."는 요지를 처음 발표 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고고학계에서 '馬韓'이란 용어는 그리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고학적 유적 및 문화의 설명에 있어 지난 수십 년간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통용되어 오던 原三國時代란 용어가 '馬韓時代' 또는 '馬韓文化'란 용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마한을 포함한 三韓社

400년의 기간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移行期間인 原史時代로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해석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河南省은 한강에서 要衝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百濟, 高句麗, 新羅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위해 角逐戰을 벌여왔다. 백제는 13대 近肖古王(서기 346년-서기375년), 고구려는 19대 廣開土王(서기 391년-서기 413년)과 20대 長壽王(서기 413년-서기 491년), 그리고 신라는 24대 眞興王(서기 540-서기 576년 재위) 때 가장 활발한 영토 확장을 꾀한다. 신라는 眞興王 14년(서기 553년) 한강유역에 진출하여 新州를 형성한다(三國史記 百濟本紀 권 26 “聖王 三十一年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및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 4 眞興王 十四年 ...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武力爲軍主). 백제는 13대 近肖古王 때(서기 369년경) 천안 龍院里에 있던 馬韓의 目支國세력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북으로 평양에서 16대 故國原王을 戰死시킨다. 그 보복으로 고구려의 廣開土王-長壽王은 海路로 江華島 大龍里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華蓋山城을 서기 392년(廣開土王 2년)에 함락시키고 寅火里 分水嶺과 백제시대의 인천 영종도 퇴피재 토성을 거쳐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인 해발 119m, 길이 620m의 퇴피식 산성인 關彌城(사적 351호 坡州 烏頭山城 또는 華蓋山城으로 추정, 서기 392년 광개토왕 2년 고구려에 의해 함락됨)을 점수한다.

강화도 교동 대룡리 華蓋山城앞 갯벌에서 백제와 고구려시대의 유물이 발굴·조사되었으며, 이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제3, 16대 辰斯王 8년(阿莘王 元年 서기 392년, 고구려 廣開土王 2년) “冬十月高句麗攻拔關彌城”의 기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강화 교동 화개산성에서 파주 烏頭山城에 이르는 寅火里-分水嶺의 길목인 교동의 요지에 위치한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의 童城山城(해발 90-100m, 퇴피식 석성)도 앞으로 주목해야할 곳 중의 하나이다. 강화도 교동 대룡리 華蓋山城에서 寅火里-分水嶺에서 關彌城(坡州 烏頭山城)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면 고양 먹절산성(해발 30m, 궤산/藿山,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먹절마을, 경기도 기념물 제195호)과 幸州山城(사적 56호)을 지나면 風納土城(사적 11호)과 하남 二聖山城(사적 422

會 및 문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또 이를 뒷받침할만한 고고학 자료가 많아졌음에 따른 것이다. 지석묘사회의 해체 시기는 철기시대 전기로 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 사이에 속한다. 최근에 발굴 조사된 철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 전라남도 여수 화양면 화동리 안골과 영암 서호면 엄길리 지석묘를 들 수 있다. 여천 화양면 화동리 안골 지석묘는 기원전 480년-기원전 70년 사이에 축조되었다. 그리고 영암 엄길리의 경우 이중의 개석 구조를 가진 지석묘로 그 아래에서 흑토장경호가 나오고 있어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249호)의 경우도 청동기시대후기에서 철기시대 전기로 넘어오면서 마한사회로 이행이 되고 있다(최몽룡 2011, '부여 송국리 유적의 새로운 편년' 21세기의 한국고고학 IV, pp.211-226). 『三國史記』 溫祚王 27년(서기 9년) 4월 '마한의 두 성이 항복하자 그 곳의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이주시켰으며, 마침내 마한이 멸망하였다(... 馬韓遂滅...)'라는 기사는 한성백제와 당시 천안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던 마한과의 영역다툼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馬韓사회는 고고학 상으로 기원전 3/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5세기 말/서기 6세기 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한은 한국고고학 편년 상 철기시대 전기에서 삼국시대 후기(서기 300년-서기 660/668년)까지 걸치며, 百濟보다 앞서 나타나서 백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共存하다가 마지막에 백제에 행정적으로 흡수·통합되었다.

호)에 이르게 된다. 고구려군은 북으로 길을 택하면 임진강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육로로 漣川堂浦城(사적 468호), 隱堡里城(사적 469호), 瓠蘆古壘城(사적 467호), 왕징면 무등리(2보루, 장대봉), 파주 月籠山城과 德津山城을 거쳐 임진강과 한강을 관장하고 계속 남하하여 河南二聖山城(사적 422호)까지 다다른다. 한강은 경기도 양평군 兩水里(두물머리)를 기점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누어진다. 고구려군은 남한강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여 中原(충주: 고구려의 國原城) 高句麗碑(국보 205호, 長壽王 69년 481년), 정선 애산성지, 포항 냉수리, 경주 호우총(경주 호우총의 경우 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나와 고구려에서 얻어온 祭器가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十’이라는 명문은 慶州 金冠塚출토 環頭大刀의 아사지왕/奈斯智王의 이름과 함께 보인다)과 부산 福泉洞에 이른다. 그리고 신라 21대 炤知王 10년(서기 488년)에 月城(사적 16호)을 수리하고 大宮을 설치하여 궁궐을 옮긴 월성의 垓字 유적에서 고구려의 기와(숫막새)와 玄武와 力士像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土製方鼎이 발굴되었다. 이는 長壽王 69년(서기 481년)에 고구려가 경주부근에까지 진출하였다는 설을 뒷받침한다. 토제방정의 역사상은 순흥 於宿墓에서, 현무는 서기 427년 평양 천도 후 고구려 벽화분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다.

고구려의 묘제 중 석실묘는 연천 신답리(방사선 탄소연대는 서기 520/535년이 나옴), 연천 무등리, 여주 매룡리, 포항 냉수리와 춘천 천전리에서도 나타난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거나 고구려의 것으로 추측될지 모르는 것으로는 영풍 순흥 태장리(乙卯於宿墓述干墓, 서기 499/559년, 사적 238호)와 순흥 읍내리(사적 313호) 벽화분들을 들 수 있으며, 고구려 유물이 나온 곳은 맞줄임(귀죽임, 抹角藻井) 천장이 있는 두 기의 석실묘가 조사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성남시 판교 16지구, 경기도 이천 나정면 이치리, 대전 월평동산성, 화성 장안 3리, 서천 봉선리(사적 473호)와 홍천 두촌면 역내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등이 있다. 이곳들은 고구려가 가장 강하던 廣開土王(서기 391년-서기 413년)과 長壽王(서기 413년-서기 491년 재위)때의 남쪽 경계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서기 4세기-서기 5세기 때의 三國時代 後期(서기 300년-서기 660/668년)때의 일이다. 廣開土王과 長壽王 때 백제를 침공하기 위한 해로와 육로의 경유지를 살펴보면 선사시대 이래 형성된 羅濟通門과 같은 通商圈(interaction sphere) 또는 貿易路와도 부합한다. 주로 당시의 高速道路인 바다나 강을 이용한 水運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신라는 서기 553년 24대 眞興王(서기 540년-서기 576년)이 한강유역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 때 이란에는 메디아(Medes, 기원전 708년-기원전 550년), 아케메니드(Achemenid, 기원전 559년-기원전 331년), 파르티아(Parthia, 기원전 247년-서기 224년)를 지나 네 번째의 사산(Sassan, 서기 224년-서기 652년) 왕조가 들어서며 이를 통해 신라에 印文陶가 나타난다. 海外文物輸入의 窓口로서 漢江의 중요성이 부각된다.³⁾ 그리고 三國史記 百濟本紀에서 보이는 漢城時代 百濟(기원전 18년-서기 475년)의 都邑地 變遷은 河北慰禮城(溫祚王 元年, 기원전 18년, 중랑구 면목동

과 광진구 중곡동의 中浪川 一帶에 比定) → 河南慰禮城(은조왕 14년, 기원전 5년, 사적 11호 風納土城에 比定) → 漢山(13대 근초고왕 26년, 서기 371년, 사적 422호 二聖山城에 比定) → 漢城(17대 阿莘王 即位年, 辰斯王 7년, 서기 391년, 하남시 春宮里 일대에 比定)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원전 18년에서 백제 21대 蓋鹵王(서기 455년-서기 475년 재위)이 고구려 20대 長壽王(서기 413년-서기 491년 재위)에 의해 패해 한성시대의 백제가 없어지고 22대 文周王(서기 475년-서기 477년 재위)이 公州(雄津)로 遷都하는 서기 475년까지의 493년간의 漢城時代 百濟에 포함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중의 하나이다. 13대 근초고왕 26년 서기 371년에 築城된 河南 二聖山城은 백제의 漢산에 비정되는 漢江邊에 자리하는 軍事要衝地 겸 임시적으로 王都(수도, 도읍지)의 역할을 한 곳이다.

오늘날의 하남시를 대표하는 선사고고학과 역사고고학(佛教美術史) 유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선사고고학 유적

④ 河南省(옛 경기도 廣州읍 동부면 미사리) 漢沙里 先史遺蹟은 신석기에서 백제시대 초기에 걸치는 중요한 유적으로 서기 1979년 사적 제269호로 지정되었다. 서기 1987년-서기 1992년 까지 숭실대학교 박물관의 주관 하에 세 차례에 걸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 까지 層位를 이루는 모두 466기의 유구가 발굴되었다. 전체 8개 층으로 위에서부터 3-8까지가 文化層이다. 3층은 고려시대, 4층은 백제 경작유구와 서기 4세기경의 六角形의 집자리⁴⁾, 5층은 馬韓/三韓時代), 6·7층은 청동기시대, 8층은 신석기 시대에 속한다. 1) 신석기시대는 타원형 내지 원형의 野外爐址가 많으며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그물추(漁網錘), 화살촉(石鏃), 돌도끼(石斧)를 비롯한 생활도구와 불에 탄 도토리가 채집되었다. 신석기시대 층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 연대(C¹⁴)측정결과 기원전 3303±140년(5253±140 B.P.)으로 나타났다. 2) 住居址(집자리)와

3) 중국 서북 寧夏[Ningxia, 寧夏回族自治区/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NHAR)]는 비단길(Silk Road)에서 남쪽으로 오르도스(Ordos/Erdos, 鄂尔多斯沙漠, 河套/河南)一平城(大同)과 河西走(迴)廊 도시 중 甘肅省 武威일부인 涼州/涼州區로, 북쪽으로 長安(西安)一新疆(西安-敦煌-哈密-乌鲁木齐 또는 吐魯番)一西域으로 가는 天山(Tian Shan)北路와 西域北路(天山南路)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서기 3세기-서기 10세기 사이의 비잔티움(Byzantium), 페르시아의 사산(Sassan Persia, 서기 224년-서기 652년), 소그드(Sogd, 현재의 Tajikistan and Uzbekistan)시대에 속하는 彩陶戰士(Painted pottery figures of warriors, 北周, 서기 557년-서기 581년), 石碑(Fragment of a stone stele, 西夏, 서기 1032년-서기 1227년), 유리제품(Glass bowl, 北周 서기 557년-서기 581년), 목제조각품, 비단 천, 금속공예품, 교역 각국의 금제와 은제 화폐[비잔틴 동로마제국(서기 395/476년-서기 1453년)의 金貨와 페르시아의 銀貨도 포함]와 불교 유물 등 많은 고고학 자료를 100여점(北魏/서기 386년-서기 534년- 明/서기 1368년-서기 1644년)이 서기 1980년대 이후 30년간의 寧夏 涇源县 原州区(固原市)의 고분발굴에서 출토되어 'The Silk Road in Ningxia'라는 전시가 서기 2008 12월 3일-서기 2009년 3월 15일 까지 홍콩대학 박물관·미술관(the University Museum and Art Gallery, The University of Hong Kong)·涇源县博物館·寧夏回族自治区博物館과의 공동으로 홍콩에서 열렸다.

4)凸자형 구조를 가진 육각형의 충주 가금면 탐평리 주거지(1호) 백제유적에서 철제무기, 鉗子(집개), 물미, 낫, 도기 철촉, 작두와 낚시 바늘을 만들던 송풍관이 설치된 대장간과 같은 工房으로 연대는 서기 355년, 서기 365년, 서기 385년이 나 오며 이 연대는 百濟 13대 近肖古王(서기 346년-서기 375년), 14대 近仇首王(서기 375년-서기 384년)과 15대 枕流王

貯藏孔이며 주거지의 평면은 모두 細長方形과 長方形이다. 토기는 孔列土器(孔列文, 구멍무늬 토기)+口臂刻目土器(골아가리토기)가 중심이 되는 청동기시대 중기⁵⁾로 연대는 驪州郡 占東面 欣岩里유적과 비교해 볼 때 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이 중심이 될 것이다.

㉔ 廣岩洞 支石墓群은 모두 4기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3기는 거의 원형을 유지한 南方式이며 1기는 원위치에서 약간 이동된 것이다. 가장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1호 고인돌이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蓋石은 巨晶花崗岩으로 크기는 길이 270cm, 폭 196cm, 두께 60-88cm에 달한다. 개석의 윗면에 性穴(cup mark)이 6개가 나있다. 개석의 서쪽에는 '平岩洞'이라는 표지가 있으며 근처에서 숫돌(砥石)과 갈돌(石棒)이 支石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지석묘는 巨石文化⁶⁾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는 支石墓(고인돌)와 立石(선돌)의 두 가지가 보인다.

㉕ 하남 德豐洞 수리골 유적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굴하여 서기 2005년 보고한 하남시 덕풍

(서기 384년-서기 385년)에 해당한다. 백제초기의 유적은 이외에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백제초기 유적, 칠금동 탄금대 백제토성(철 생산 유적), 薔薇山城(사적 400호), 경기도 여주 언양 하거리, 충청북도 진천 석장리, 강원도 홍천 화화거리, 원주 법천리, 춘천 천전리, 화천군 하남 원천리에서 발견되고 있다.

5) 청동기시대 중기(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는 孔列土器+口臂刻目土器가 중심이 되며 지역적인 국한된 모습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현재로서는 以南地域)로 확산된다. 그리고 韓國化 된 同一性和 正體性(identity)도 이 시기부터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연대의 유적들은 驪州郡 占東面 欣岩里 선사유적(경기도 기념물 155호)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구 역삼동
강원도 강릉 입암동
강원도 속초 조양동(사적 제376호)
강원도 양구군 양구를 하리 및 고대리
강원도 정선 북면 여량 2리(아우라지, 기원전 970년)
강원도 영월 남면 연당 2리 피난굴(쌍굴, 공렬토기)
강원도 정선 신동읍 예미리
강원도 원주 가현동(국군병원) 및 태장동 4지구
강원도 춘성군 내평리[현 소양강댐 내 수물지구, 2930±60 B.P.(기원전 980년), 2590±60 B.P.(기원전 640년), 2290±60 B.P.(기원전 340년)]
강원도 춘천 거두리(1리 및 2리)
강원도 춘천 우두동 82번지 유치원 부지
강원도 춘천 신매리
강원도 춘천 울문리
강원도 춘천 하중도 D-E지구
강원도 춘천 천전리
강원도 화천 용암리
강원도 화천 하남 원천리(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도 화천 하남면 거례리
강원도 홍천 화촌면 외삼포리
강원도 홍천 화촌면 성산리
강원도 춘천 우두동 직업훈련원 진입도로(비파형동검)

강원도 춘천 삼천동
 경기도 하남시(옛 경기도 廣州읍 동부면 미사리) 漢沙里(사적 제269호)
 경기도 하남시 德豐 1洞 덕풍골(제사유구)
 경기도 하남시 望月洞 龜山
 경기도 가평 청평면(외서면) 대성리
 경기도 가평 설악면 신천리
 경기도 광주시 역동(비파형동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경기도 가평 설악면 신천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구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기도 여주 점동면 혼암리(경기도 기념물 155호)
 경기도 파주 교하읍 운정리
 경기도 하남시 덕풍골(종교 · 제사유적, 기원전 1065년~기원전 665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사적 제269호 옆)
 경기도 부천 고강동
 경기도 시흥 논곡동 목감중학교
 경기도 시흥 능곡동
 경기도 안성 공도 만정리
 경기도 안성 공도 마정리
 경기도 안양 관양동(1호 주거지: 기원전 1276~기원전 1047년, 기원전 1375년~기원전 945년/5호 주거지: 기원전 1185년~940년, 기원전 1255년~기원전 903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 ICD 부근(기원전 990년~기원전 870년)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대명콘도 앞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사포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기전문화재연구원 2001년 3월 26일 발굴회의, 공렬 및 구순각목토기 출토)
 경기도 연천 통현리 · 은대리 · 학곡리 지석묘
 경기도 연천 삼거리 주거지(기원전 1130년, 이중구연과 공렬이 한토기에 같이 나옴, 청동기시대 전기 말 중기 초)
 경기도 연천 군남면 강내리(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5리 현대아파트 및 어린이 공원 부지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년 3월 26일 및 12월 6일 발굴, 공렬 및 구순각목토기 출토)
 경기도 평택 지제동(기원전 830년, 기원전 789년)
 경기도 평택 토진 현곡동
 경기도 평택 서탄면 수월암리(북방식 지석묘)
 경기도 파주 옥석리 고인돌(기원전 640년경)
 경기도 화성 천천리(공렬토기가 나오는 7호주거지는 기원전 950년~기원전 820년에 속함,
 11호주거지는 기원전 1190년으로 연대가 가장 올라감)
 경기도 화성 동탄 동학산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환호, 소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문학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2지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 4지구(풍산 김씨 묘역)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지구(4구역)

충청북도 청주 용암동(기원전 1119년)

충청북도 충주 동량면 조동리(7호 기원전 750년)

충청북도 제원 양평리(홍도, 기원전 835±165년)

충청남도 천안 백석동(94-B: 기원전 900년-기원전 600년, 95-B: 기원전 890년-기원전 840년)

충청남도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충청남도 천안 운전리

충청남도 천안 입장리 1호 고속국도 IC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감나무골

충청남도 운산 여미리

충청남도 아산 명암리(기원전 1040-기원전 940년, 기원전 780-기원전 520년)

충청남도 아산 탕정면 LCD 단지 2지점

충청남도 아산 탕정면 제2 일반 지방산업단지 1지역 1지점

충청남도 아산 탕정면 용두리(기원전 11세기-기원전 10세기경)

충청남도 당진 석문면 통정리(기원전 11세기-기원전 10세기경)

충청남도 청양 학암리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 구룡리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 비래동 고인돌(기원전 825년, 기원전 795년, 기원전 685년)

충청남도 대전 유성구 관평동·용산동

충청남도 대전 유성구 서둔동·궁동·장대동

충청남도 유성구 자운동·추목동

충청남도 대전 동구 가오동·대성동 일원

충청남도 아산 신창면 남성리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기지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사적 제411호 옆)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대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경상북도 경주 川北洞 新堂里(황기덕, 1964, 우리나라 동북지방의 청동기시대 주민과 남녘의 주민과의 관계, 고고민속 64-1, pp.15-19)

경상북도 경주 내남면 월산동(기원전 1530-기원전 1070년, 기원전 970년-기원전 540년)

경상북도 경주 충효동 640번지와 100-41번지 일원(기원전 1010년-기원전 800년, 기원전 920년-기원전 810년)

경상북도 경주 덕천리

경상북도 경주 충효동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저수지, 관개수리시설, 절구 공이)

경북 영주시 가흥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경상북도 포항 호동

경상북도 흥해읍 북구 대련리

경상북도 청도 송읍리

경상북도 청도 화양 진라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환호가 있는 종교·제사유적)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동

경상남도 울산 두동면 천전리(국보 제147호), 언양 반구대(국보 제285호) 진입로

동 산 24-1번지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무문토기, 석기), 백제시대 土壙墓 2기(土器, 鐵斧, 鐵矛, 鐵刀子, 鐵鎌 등), 통일신라시대 石槨墓 5기(토기, 鈐帶衾具),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토광묘 29기(磁器, 棺釘, 靑銅匙箸)가 나왔다.

㉔ 경기도 하남시 望月洞 龜山 기슭은 미사리 선사유적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지와 청동기시대 중기(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의

경상남도 울주 검단리(사적 제332호)
 경상남도 밀양 상동 신안 고래리
 전라북도 군산 내흥동
 전라북도 진안 오라동
 전라북도 진안 모정리 여의곡
 전라북도 진안 삼락리 풍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 2 택지
 전라남도 고흥 과역 석복리
 전라남도 곡성 겸면 현정리
 전라남도 광양 원월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전라남도 승주 대곡리
 전라남도 승주 죽내리
 전라남도 여수 적량동
 전라남도 여수 봉계동 월암
 전라남도 여수 월내동
 전라남도 여천 화장동 화산
 전라남도 순천 우산리 내우 지석묘(비파형동검)와 곡천
 전라남도 해남 현산 분토리 836번지(공렬토기, 구순각목)
 제주도 남제주군 신천리 마장굴
 제주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제주시 삼화지구(비파형 동검편)
 제주시 삼양동

6) 우리나라의 거석문화는 지석묘(고인돌)와 입석(선돌)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그러나 기원전 4500년 전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석문화의 발생지로 여겨지는 구라파에서는 지석묘(dolmen), 입석(menhir), 스톤서클(stone circle: 영국의 Stonehenge가 대표), 열석(alignment, 불란서의 Carnac이 대표)과 집단묘(collective tomb: 가. 羨道<널길>가 있는 묘 passage grave(또는 access passage, 영국의 Maes Howe Chambered Barrow가 대표적임), 나. 연도가 없는 묘 gallery grave, 또는 allée couverte]의 크게 5종 여섯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 중 거친 활석으로 만들어지고 죽은 사람을 위한 무덤의 기능을 가진 지석묘는 우리나라에서만 약 29,000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기원전 1500년-기원전 1년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전기말까지 약 1,500년간 한반도에 살던 토 착인들의 무덤이다. 중국의 요녕성 절강성의 것들을 합하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남한의 고인돌은 北方式, 南方式과 蓋石式의 셋으로 구분하고 발달 순서도 북방식-남방식-개석식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석묘는 황주 침촌리와 연탄 오덕리의 두 형식으로 대별되고, 그 발달 순서도 변형의 침촌리식(황해도 황주 침촌리)에서 전형적인 오덕리(황해도 연탄 오덕리)식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개천 목방리식이 추가된다. 우리나라의 지석묘 사회는 청동기시대-철기시대 전기 토착 사회의 무덤으로 전문직의 발생, 재분배 경제, 조상 숭배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계급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석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하여는 연대와 형식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라파 쪽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다 '韓半島 自生說'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비해 한 장씩의 판석으로 짜 상자모양으로 만든 石槨墓 또는 돌널무덤(石

대표적인 孔列土器이다. 서기 2002년 세종대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細長方形 주거지 4기와 수혈유구(竪穴遺構) 1기를 확인하였으며, 공렬토기 이외에 土製漁網錘와 石鏃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초의 斷面 圓形的 粘土帶土器片도 한 점 확인되었다.

㉠ 하남시 德豐 1洞 덕풍골 구릉유적(해발 100-110m)은 서기 2005년 세종대 박물관에서 발굴했으며, 여기에서는 孔列土器(孔列文, 구멍무늬토기)+口脣刻目土器(골아가리토기)가 중심이 되는 청동기시대 중기(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의 長方形 주거지 2기(한 변 길이 10.28m), 삼국시대의 석곽 7기와 印文陶瓦가 나오는 신라시대의 橫口式 石室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精靈崇拜(animism)를 하던 청동기시대와 신라시대의 野外야의 자연 지형물을 이용하여 山川祭祀를 행하던 祭祀遺溝⁷⁾가 확인 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공렬토기시기에 행하던 중요한 宗教·祭祀 유적이다.

『後漢書』東夷傳[南北朝의 宋 范曄(서기 398년-서기 445년)이 씀], 『三國志』魏志 東夷傳[晉初 陳壽(서기 233년-서기 297년)가 씀]와 『晉書』四夷傳(唐 房玄齡/房喬 等撰)에 마한 사회의 정치적 우두머리인 族長인 渠帥(韓의 渠帥, 또는 將帥, 臣智, 邑借, 主帥)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족장의 격이나 다스리던 領域의 크기와 人口數의 규모에 따라 臣智, 險側, 樊濊, 殺奚와 邑借로 불리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沃沮의 三老(東沃沮의 將帥), 濊의 侯, 邑君, 三老, 그리고 挹婁의 大人, 肅慎의 君長(唐, 房喬 等撰 晉書 四夷傳)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行政的인 족장(chief)에 해당한다. 그러나 天君이 다스리는 종교적

箱墳)의 형식이 있다. 아마 이들은 처음 지석묘사회와 공존하다가 차츰 지석묘사회로 흡수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석관묘(석상분)와 지석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하여는 선후 문제, 문화 계통 등에 대해 아직 연구의 여지가 많다. 최근 고로우노프까 강변에서 발견된 안골스키문화(기원전 8세기-기원전 4세기)에서도 고인돌과 유사한 구조와 그 속에서 한반도에서 나오는 석검, 관옥 등 비슷한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7) 세계의 宗教를 통관하면 唯一神敎(monothelism, unitarianism)의 발생에 앞서 나타난 원시종교는 劣等自然敎와 高等自然敎로 나누며 이들을 각기 多靈敎期와 多神敎期로 칭하기도 한다. "그 중 열등자연교인 多靈敎는 神이라고 이름 할 수 없는 물건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여 그 本尊目的物로 하는 종교로, 魂魄崇拜 혹은 精靈崇拜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간에 길쭉 화복을 주는 힘이 있는 것으로 사람의 혼백과 같은 영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을 polydemonism이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을 多神敎(polytheism)라고 한다." (서경보, 1969) 열등자연교 또는 다령교에는 천연숭배, 주물숭배(fetishism), 정령숭배(animism), 토데미즘(totemism)과 원시적 유일신교 등이 속한다. 정령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주술의 유형은 呪物崇拜(fetishism), 巫敎/사마니즘(shamanism, 薩滿敎)과 민간주술(popular magic)의 셋으로 나뉜다. 주물숭배는 "不活性의 사물에도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힘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巫敎(사마니즘)는 "신에 들린 사람이 정령을 마음대로 다루는 힘을 갖게 되어 필요에 따라 정령을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몸 밖으로 빠져 나가게 한다." 그리고 민간주술은 "개인이나 집단에 정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 정령의 도움을 받기위한 것이며.....속죄 양, 풍요와 다산을 위한 생산주술 등이 포함된다." (노스저, 윤이홍역, 1986).

즉 종교는 劣等自然敎[多靈敎期: 精靈崇拜(animism)·토데미즘(totemism)·巫敎(shamanism)·祖上崇拜(ancestor worship)]→高等自然敎[多神敎, polytheism]→一神敎(monothelism)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 종교는 劣等自然敎[多靈敎期: 精靈崇拜(animism)→토데미즘(totemism)→巫敎(shamanism, 薩滿敎)→祖上崇拜(ancestor worship)]→高等自然敎[多神敎, polytheism]→一神敎(monothelism)로 발전 한다. 한국 고고학 자료도 신석기대의 精靈崇拜(animism)→청동기

시대의 토테미즘(totemism) → 철기시대의 巫敎(shamanism, 薩滿敎) → 祖上崇拜(ancestor worship)를 거쳐 철기시대 전기에는 환호를 중심으로 전문 제사장인 天君이 다스리는 蘇塗로 발전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급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종교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소도도 일종의 무교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의 전문가인 제사장 즉 天君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토광묘에서 나오는 청동방울, 거울과 세형동검을 비롯한 여러 巫具들로 보아 이 시기의 종교가 巫敎(shamanism, 薩滿敎)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사회진화에 관한 인류학계의 성과 중에서 엘만 서비스(Elman Service)의 경제와 기술이 아닌 조직과 구조에 의한 사회발전 모델에 따르면 인류사회는 군집사회(band society) → 부족사회(tribe society) → 족장사회(chiefdom society) → 고대국가(ancient state)로 발전해 나가는데, 서비스는 족장사회를 잉여생산에 기반을 둔 어느 정도 전문화된 세습지위들로 조직된 위계사회이며 재분배 체계를 경제의 근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족장사회와 국가는 같은 계급사회이면서도 혈연을 기반으로 하면 족장사회 그렇지 않으면 국가단계로 한 단계 높이 간주한다. 족장사회에서는 '부족사회의 기회가 될 때 임시로 갖는 특별한 의식(Ad hoc ritual)'을 계승한 전통적이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정기적인 의식행위(calendric ritual, ritual ceremony, ritualism)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식(ritualism)과 상징(symbolism)은 최근 후기/탈과정주의 고고학(post-processual archaeology)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한다. 국가단계 사회에 이르면, 이는 권력(military power)과 경제(economy)와 함께 종교형태를 띤 이념(ideology)으로 발전한다.

족장사회는 혈연 및 지역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족사회의 일면을 지나나 단순한 지도자(leader)가 아닌 지배자(ruler)의 지위가 존재하며 계급서열에 따른 불평등 사회라는 점에서는 국가 단계 사회의 일면도 아울러 지닌다. 족장사회는 하나의 정형화된 사회단계가 아니라 평등사회에서 국가사회로 나아가는 한 과정인 지역 정치체(regional polity)라는 유동적 형태로 파악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념물(monument)과 위세품(prestige goods)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Timothy Earle 1997).

최근 고고학 상으로 최근 발견 · 조사된 종교 · 제사유적은 종래 문헌에 의거한 제천의례, 시조묘제사와 산천의례제사의 분류와는 달리 고고학적 측면에서 시대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발견된 영세한 고고학 자료에 의거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분류체계를 얻기 위해서는 문화의 기원의 다원성과 다양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야외 자연 지형물을 이용한 산천제사: 精靈崇拜(animism)의 장소, 경기도 강화 삼산면 석모리 해골바위, 하남시 德豊 1洞 덕풍골(德豊谷), 화성 마도면 쌍송리, 서울 강남구 내곡동 대모산(산정 해발 150m 알바위)
2. 감각화: 多産기원의 주술적 聖所 또는 成年式(initiation ceremony)場, 고령 양전동(보물 605호), 울주 두동면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 이 중 書石은 신라 23대 法興王 12년(乙巳) 서기 525년 때부터의 기록임], 울주 언양 대곡리 반구대(국보 285호), 밀양 상동 신안 고래리의 경우 지석묘이면서 성년식의 장소로도 활용
3. 환상열석: 지석묘와 결합된 원형의 의식장소: 양평 신원리
4. 지석묘: 지석묘는 조상숭배(ancestor worship)의 성역화 장소, 창원 동면 덕천리, 마산 진동리(사적 472호), 사천 이금동, 보성 조성면 동촌리, 무안 성동리, 용담 여의곡, 광주 충효동 등
5. 환호: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 전기에 걸친다. 환호는 크기에 관계없이 시대가 떨어질수록 늘어나 셋까지 나타난다. 그들의 수로 하나에서 셋까지 발전해 나가는 편년을 잡을 수도 있겠다. 경기도 파주 탄현 갈현리, 안성 원곡 반제리, 부천 고강동, 화성 동탄 동학산, 화성 마도면 쌍송리, 강원도 강릉 사천 방동리, 부산 가장 일광면 청광리, 울산 북구 연암동, 진주 中川里(II-32호 수혈유구, 테라코타/Terra-cotta 人頭形 土器), 전라남도 순천 덕암동(蘇塗, 曲玉과 器臺), 충청남도 부여읍 논치리(제사유적, 철정, 남근상) 등
6. 건물지(신전): 철기시대 전기의 지석묘 단계부터 나타나며 대부분 삼국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경주 나정[蘿井, 사적 245호, 박혁거세의 신당(神堂), 또는 서술성묘의 신궁으로 추정되는 팔각(八角)형태의 건물], 경남 사천시 이금동, 하남시 이성산성(사적 422호), 광양 馬老山城(전남기념물 173호/사적 제492호로 승격), 안성 망이산성(경기도 기념물 138호) 등
7. 기타: 완도 장도 청해진유적(신라 제 42대 興德王 3년 서기 828년 설전, 신라 제 46대 文聖王 13년 서기 851년 폐지, 사적 308호) 매납유구, 제주도 용담시, 부안 죽막동 수성당(지방유형문화재 58호),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11호) 경당지구 등하남 덕풍골 유적에서 보이는 한국의 종교는 위의 보기 중 1항인 精靈崇拜(animism)에 해당한다.

別邑인 蘇塗는, 당시의 血緣을 기반으로 한 階級社會(clan based hierarchical society)⁸⁾인 單純·複合 族長社會(chiefdom)의 우두머리인 渠帥 격에 해당하나 규모에 따른 이름인 신지, 검축, 번예, 살계와 음차가 다스리는 세속적 영역과는 별개의 宗教인 것으로 보인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 나오는 王莽(新 서기 9년-서기 25년, 왕망은 서기 23년 사망)地皇 時(서기 20년-서기 23년) 辰韓의 右渠帥인 廉斯鎰가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이곳 덕풍동은 당시 別邑인 蘇塗와 비슷한 성격을 띠었으며 주인은 天君과 같은 專門 祭司長이었을 것이다.

나) 역사고고학 유적

필자는 서기 1985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본 백제초기의 영역고찰, -도성 및 영역문제를 중심으로 본 한성시대 백제의 성장과정-」이란 글을 통해 '高句麗의 積石塚을 만들던 사람들이 南下해 百濟를 건국하는 主體가 되었다'는 요지의 글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26년간 새로이 발굴·조사된 적석총들과 출토 유물들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의 견해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서기 2011년 「高句麗 積石塚과 百濟의 國家形成」이란 글을 발표하고 적석총 상한연대가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로 올라간다는 생각과 당시의 국제적인 관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三國史記』의 백제의 건국에 대한 초기기록과 부합된다. 즉 衛滿朝鮮 때부터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先史時代를 벗어나 世俗王權政治(secularism)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歷史時代가 시작되며 百濟의 건국은 高句麗, 新羅와 더불어 三國時代의 開始를 열고 있다. 積石塚이 백제의 국가형성에 미치는 考古學과 古代史的인 意味와 重要性을 찾을 수 있었다.

8) 族長社會와 國家는 階級社會이면서도 血緣의 기반에 의해 세분된다. Elman Service의 모델인 統合論(Integration theory)에서는 인류사회는 경제나 기술이 아닌 조직이나 구조에 기반을 두어 군집사회(band)-부족사회(tribe)-족장사회(chiefdom)-고대국가(ancient state)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기반을 둔 Morton Fried의 갈등론(Conflict theory)의 도식인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서열사회(ranked society)-계층사회(stratified society)-국가(state)라는 발전단계도 만들어진다. 서비스는 국가단계에 앞선 족장사회를 잉여생산에 기반을 둔 어느 정도 전문화된 세습지위들로 조직된 위계사회이며 재분배 체계를 경제의 근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족장사회에서는 부족사회 이래 계승된 전통적이며 정기적인 의식행위(calendric ritual, ritual ceremony, ritualism)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식(ritualism)과 상징(symbolism)은 최근 후기/탈과정주의 고고학(post-processual archaeology)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국가단계 사회에 이르면 권력(power), 경제(economy)와 함께 종교형태를 띤 이념(ideology)이 발전하게 된다. Timothy Earle은 국가를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체제의 존재와 힘/무력(power)·경제(economy)와 이념(ideology, 또는 religion)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화 되고 전문화된 정부제도'라 정의하였다. 한편 Kent Flannery는 '법률, 도시, 직업의 분화, 징병제도, 세금징수, 왕권과 사회신분의 계층화를 국가를 특징짓는 요소들로 추가로 하였다. Timothy Earle, Jonathan Haas와 Yale Ferguson과 같은 절충론(eclecticism)자들은 "경제·이념·무력의 중앙화, 그리고 새로운 영역(new territorial bounds)과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진화 발전상 뚜렷한 단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시(city, urban)는 Clyde Kluckhohn이 언급하듯이 약 5,000명 이상 주민, 문자와 기념비적인 종교 중심지 중 두 가지만 있어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그들 사이에 있어 노동의 분화, 복잡한 계급제도와 사회계층의 분화, 중앙집권화 된 정부구조, 기념비적인 건물의 존재, 그리고 문자가 없는 경우 부호화된 상징체계나 당시 흥미했던 미술양식과 지역 간의 교역의 존재"를 통해 찾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사회신분의 계층화를 비롯해 조세와 징병제도, 법률의 제정과 아울러 혈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왕의 존재와 왕권, 그의 집무소, 공공건물 등이 상징적으로 부가된다.

백제의 시작은 고구려로부터 온 溫祚王 일행과 그들의 묘제인 積石塚으로부터이다. 시체를 넣은 돌널 위를 봉토를 덮지 않고 돌만으로 쌓아올린 무덤을 적석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선사 시대부터 역사시대의 고구려·백제 초기에 나타나는 묘제 중의 하나이다. 선사시대의 것은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시체를 놓고 그 위에 흙 대신 돌을 덮는 가장 원시적인 묘제이다. 인천 矢島, 제원 청풍면 양평리, 춘천시 泉田洞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천전동의 경우 중심부에 2, 3개의 석곽이나 석관을 두고 커다란 石塊를 덮은 것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 전기에 걸쳐 나타난다. 고구려와 백제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적석총은 桓仁縣 高力子村, 자강도 시중 심귀리, 자성 조아리·서해리·법동리·송암리 등지의 압록강유역에서 보이는 것들과, 경기도 양평 문호리, 서울 석촌동, 강원도 춘천 중도, 충청북도 제천 청풍면 양평리·교리·도화리 등지의 남한강유역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고구려무덤은 석묘(돌무덤)와 토묘(흙무덤)로 나누어지며, 석묘는 적석묘(돌각담무덤, 적석총)와 봉석묘(돌간돌무덤)로, 그중 적석묘(적석총)는 무기단 적석총(계단상의 축조가 없는 것)과 기단식 적석총으로 분류된다. 그 각각의 명칭은 봉토석실분(돌간흙무덤), 적석총(돌각담무덤), 기단적석총(돌기단무덤), 봉석묘(돌간돌무덤)으로 불리 운다. 그리고 축조순서도 다곽식 무기단 적석총→이음식 적석총→기단식→계단(층단)식 적석총의 순서로 발전한다. 적석총을 석분(石墳)의 범주에 넣어 적석묘·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방단계단석실묘(方壇階段石室墓)·봉석석실묘(封石石室墓) 등으로도 세분하고 있다. 또는 무기단식·기단식·연도와 석실이 있는 기단식 적석총 등 셋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압록강과 한강유역에 보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돌무지무덤은 형태상 무기단식 적석총(돌각담무덤, 적석총)-다곽식 무기단식 적석총이다. 그런데 무기단식의 경우 기원전 3-기원전 1세기부터, 기단식은 서력 기원전후 부터 발생하며, 연도와 석실이 있는 기단식 적석총을 석실묘에로의 移行過程 樣式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적석총의 축조자들도 고구려를 세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적석총은 다음과 같다.

가. 양평 문호리(1974)

나. 제원 청풍면 양평리(1983)

다. 제원 청풍면 도화리(1983) 보고서의 하한연대는 서기 2세기나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로 연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함께 출토한 樂浪陶器와 함께 현재 유물은 청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

라. 연천 중면 삼곶리(1994) 1993년 12월 지도위원회 이음식 돌무지무덤과

제단. 桓仁 古力墓子村 M19와 유사

마. 연천 군남면 우정리(2001)

바. 연천 백학면 학곡리(2004)

사. 양평 양서면 신원리(2007)

아. 연천 중면 황산리(2009)

비록 이러한 적석총의 기원이 고구려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유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다.⁹⁾ 이들은 석촌동 3호분과 같이 고식으로 백제 건국자들이 남하했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石村洞 4호분의 경우 3단의 기단식 적석총으로 위에 석실과 형식상의 연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석실묘 이전의 단계로 적석총으로서는 가장 발전된 모습이다. 이것은 서기 475년(21대 蓋鹵王 21년) 백제의 개로왕이 郁里河(지금의 한강)에서 대석을 캐어 石槨을 만들고 아버지(昆有王, 서기 427년-서기 455년)를 묻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과도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축조 시기는 대개 서기 2세기-서기 4세기 정도로 여겨진다. 石村洞에서 제일 거대한 3호분은 방형 기단형식의 돌무덤으로, 계단은 3단까지 확인되었으며, 그 축조 시기는 서기 3세기-서기 4세기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촌동 4호분(石村洞百濟初期積石塚, 사적 제243호)은 방형으로 初層을 1면 세 개미만의 호석(護石, 받침돌, 보강제 등의 명칭)으로 받쳐놓아 將軍塚과 같은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 축조수법과 유사하다. 신라의 경우 31대 神文王陵(사적 181호)과 33대 聖德王陵(사적 28호)에서 이와 같은 호석들이 보여 주목된다.

석촌동 4호분의 연대는 서기 198년(10대 山上王 2년)에서 서기 313년(15대 美川王 14년) 사

9) 이와 같은 예로 고구려 벽화고분 중 三足鳥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최근 발견되는 고구려 관계 유적·유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고구려 벽화분의 해와 달을 상징하는 三足鳥와 두꺼비의 기원문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두꺼비(蟾蜍)와 토끼(玉兔)는 漢語大詞典에 '后用爲月亮的對稱', '傳說月中有蟾蜍, 因借指月亮', '指神話中月亮里的白兔'과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달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으로 보아도 된다. 그리고 三足鳥는 古代傳說中 神鳥로 '爲西王母取食之鳥', '日中有三足鳥', '태양을 실어 나르는 새'(爾雅) 등으로 언급되고 있어 태양(해)속에 있는 三足鳥와 태양은 불가분의 관계로 표현된다. 鳥夷족은 先秦時 중국 동부 근해에서 살던 사람들을 칭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史記 五帝本紀), 그들은 이 삼족오의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해와 달의 신앙은 중국 측의 기록에서 볼 때 삼황오제(伏羲, 神農, 女媧/燧人, 黃帝/少昊, 帝嚳, 顓頊, 堯, 舜) 때부터의 일이다. 중국신화에서 인류의 선조는伏羲와 女媧이며 西王母는 중국의 女仙人으로 長生不老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우리의 신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단지 고구려 廣開土王(서기 391-서기 412년)시 大使者(6품) 벼슬을 한 牟頭婁(또는 冉牟)墓의 묘지명에서 朱蒙(東明王)을 '日月之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五盔(塊)분 4호의伏羲와 女媧가 떠받치는 日月神像圖는 중국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고구려 고분벽화와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馬王堆 漢墓와도 약 500년간의 시차가 있다. 三皇五帝시절부터 내려오던 중국인의 神話와 來世觀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뚜렷하다. 그것은 馬王堆 漢墓중 신추의 1호와 3호 묘의 내관 덮개인 T자형 彩繪帛書에 나타난 해와 달의 모습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남으로써 한국문화의 기원이나 원류의 하나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분은 서기 1972년-서기 1974년에 湖南省 長沙市(漢나라 당시의 이름은 臨湘) 東郊 馬王堆路 馬王堆 省馬王堆漢墓發掘隊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곳에는 중국 前漢(기원전 206년-서기 8년) 장사국의 재상(長沙丞相)이며 700戶를 分封받은 초대 侯인 利蒼(2호, 呂后/呂雉 2년 기원전 186년에 죽음, 대후는 4대로 利蒼-利薺-利彭祖-利秩의 순으로 이어짐), 부인 辛追의 무덤(1호, 2대 대후인 利薺간인 기원전 160년경에 50세 전후로 죽음)과 그들의 아들의 무덤(3호, 30세가량의 利蒼과 辛追의 아들로 文帝 12년 기원전 168년에 죽음, 文帝 15년 기원전 165년에 죽은 2대 대후인 利薺의 동생으로 여겨짐)의 세 무덤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보고자들은 이 셋의 무덤이 기원전 186년에서 기원전 160년경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의 벽화에

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연대는 3호분과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적석총보다 앞선 시기부터 존재했을 토광묘와 판축기법을 가미하여 축조했기 때문에 순수 고구려 양식에서 약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적 11호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한-낙랑(漢-樂浪) 계통으로 보이는 기와 편이 많이 수습되었다. 이는 集安의 太王陵, 將軍塚과 千秋塚 등의 석실이 있는 계단식 적석총의 상부에서 발견된 건물터나 건물의 지붕에 얹은 기와 편들로부터 구조상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고구려의 적석총은 무덤(墓)인 동시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廟의 기능인 享堂의 구조를 무덤의 상부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羨道(널길)이 있는 석실/석곽을 가진 석촌동 4호분 적석총도 축조 연대만 문제가 될 뿐 고구려의 적석총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계통의 무덤 양식인 것이다. 석촌동 1호분의 경우 왕릉급의 대형 쌍분임이 확인되었다. 그 쌍분 전통은 압록강 유역의 환인현 고령묘자촌에 보이는 이음식 돌무지무덤과 연결되고 있어 백제 지배세력이 고구려와 관계가 깊다는 것에 또 하나의 증거를 보태준다.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집안 양민과 하치 등지의 고구려 초기의 무기단식 적석총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집안 통구 禹山下, 환도산성 하 洞溝와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등지의 기단식 적석총들은 서울 석촌동뿐만 아니라 남한강 및 북한강의 유역에

서 日月圖가 뚜렷이 보이는 것만도 현재 20여기나 되는데, 원래 고구려의 벽화고분의 축조시 처음부터 일월도가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馬王堆 漢墓의 T자형 彩繪帛畫에 나타난 것과 주제가 같은 태양과 달의 모습을 그린 고구려의 벽화고분들은 아래와 같다.

덕흥리 고분(서기 408년, 평남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
 안악 1호 고분(서기 4세기말,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무용총(서기 4세기 말-5세기 초, 길림성 집안)
 각저총(서기 4세기 말-서기 5세기 초, 길림성 집안)
 약수리 고분(서기 5세기 초,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성총(서기 5세기 중엽, 남포시 와우도구역 신령리)
 천왕지신총(서기 5세기 중엽,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
 장천 1호 고분(서기 5세기 중엽, 길림성 집안)
 수렵총(서기 5세기 말,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쌍영총 고분(서기 5세기 후반,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대안리 1호 고분(서기 5세기 후반,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
 덕화리 1호 고분(서기 5세기 말-서기 6세기 초,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덕화리 2호 고분(서기 6세기 전반,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개마총(서기 6세기, 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리)
 내리 1호(서기 6세기, 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리)
 진파리 4호 고분(서기 6세기,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진파리 7호 고분출토 금동보관장식(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사신총(서기 6세기, 길림성 집안)
 五蓋(塊)墳 4호 및 5호(서기 6세기 후반, 길림성 집안)
 강서 중묘 (서기 6세기 후반-서기 7세기 초,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

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제원 청풍면 도화리 적석총의 경우, 3단의 기단은 갖추어져 있으나 석촌동 4호분에서와 같이 연도와 석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원 도화리 적석총의 축조연대는 출토유물 중 樂浪陶器, 철제무기, 경질 무문토기 편¹⁰⁾들로 보아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로 추측된다. 적석총들은 특히 남·북한강 유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도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기 이전의 기간인 기원전 18년-서기 475년의 약 500년 동안으로, 한성(漢城)백제라는 지리적인 위치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 초기인 한성도읍시대의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시기에는 북부지역에서 고구려가 고대국가의 형태를 가지며, 자강도에 적석총이 축조되게 된다. 고구려 계통의 적석총이 남하하면서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적석총이 축조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연천 군남면 牛井里, 백학면 鶴谷里, 中面 橫山里와 三串里, 충북 堤原 淸風面 桃花里의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경에 축조된 적석총들을 들 수 있다.

이 적석총은 백제의 건국자는 朱蒙(高朱蒙/東明聖王)의 셋째 아들인 溫祚(기원전 18년-서기 28년 재위)의 南下神話와도 연결된다. 백제의 건국자는 朱蒙(高朱蒙/東明聖王)의 셋째 아들인 溫祚(기원전 18년-서기 28년 재위)이다. 그는 아버지인 주몽을 찾아 부여에서 내려온 瑠璃王子(고구려의 제 2대왕) 존재에 신분의 위협을 느껴 漢成帝 鴻嘉 3년(기원전 18년) 형인 沸流와 함께 남하하여 하북위례성(현 중랑천 근처이며, 온조왕 14년, 기원전 5년에 옮긴 하남위례성은 송파구에 위치한 사적 11호인 風納土城으로 추정됨)에 도읍을 정하고, 형인 비류는 彌鄒忽(인천)에 근거를 삼는다. 이들 형제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아들로(卞韓 百濟...謂溫祚之系, 出自東明故云耳...), 그리고 三國史記 百濟本紀 별전(권23)에는 그의 어머니인 召西奴가 처음 優台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주몽에게 개가하기 때문에 주몽의 셋째 아들로 기록된다. 온조는 天孫인 解慕漱, 용왕의 딸인 河伯女(柳花)의 신화적인 요소와,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탄생과 같은 난생설화가 없이, 처음부터 朱蒙-召西奴-優台라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인물들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백제에는 부여나 고구려다운 建國神話나 始祖神話가 없다. 이것이 백제가 아버지 나라인 고구려에 항상 열등의식을 지녀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온조왕 원년(기원전 18년)에 東明王廟, 17년(기원전 2년)에 어머니. 召西奴의 묘¹¹⁾를 세운 것이나, 백제 13대 근초고왕(서기 346년-서기 375년)이 서기 371년 평양으로 쳐들어

10) 백제의 건국연대가 三國史記의 기록대로 기원전 18년으로 올라간다. 이는 문화재연구소에서 서기 1999년 실시한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11호)의 성벽 발굴 최하층에서 확인한 제례용으로 埋納된 硬質無文土器의 연대는 三國史記 溫祚王 41년條(서기 23년)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이란 성벽(동벽과 서벽)의 축조연대와 함께 기원전 1세기-서기 1세기경으로 추측할 수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春川 中島의 硬質(槽質)無文土器도 기원전 15±90년(1935±90 B.P.)으로 경질무문토기의 하한은 늦어도 기원전 1세기-서기 1세기경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十五年春正月 作新宮室 儉而不侈 華而不侈.’라는 궁궐의 신축은 溫祚王 15년(기원전 4년) 이루어졌음도 믿을 수 있는 연대임을 알 수 있다.

가 고구려 16대 故國原王(서기 331년-서기 371년)을 사살하지만 평양을 백제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한성으로 되돌아오는 점 등에서 이해된다. 그래서 백제 왕실은 고구려 왕실에 대한 열등감의 극복과 아울러 왕실의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백제와의 관계는 朱蒙(東明聖王)과 溫祚王의 父子之間의 나라로 神話와 文獻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高句麗 出自의 百濟건국자들의 墓인 적석총을 통해 당시의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 樂浪(기원전 108년-서기 313년), 臨屯(漢武帝 元封 3년, 기원전 108년 설치-기원전 82년 臨屯을 파하여 玄菟에 합침), 馬韓(기원전 3/기원전 2세기-서기 5세기말/6세기초)과 訶路노프까(기원전 5세기-기원전 2세기, 北沃沮, 黑龍江省 東寧縣 團結村 團結문화), 靺鞨(기원전 7세기-기원전 4세기, 挹婁)사이의 國際關係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최초의 古代國家이었던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 위만-이름을 알 수 없는 아들-손자 右渠-太子 長의 3/4대 87년)의 멸망과 漢四郡의 설치[漢 7대 武帝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元封 3년]는 史記의 편찬자인 司馬遷(기원전 145년-기원전 87년)이 37세에 일어난 사건으로, 위만조선, 樂浪과 그 다음을 잇는 帶方의 존재들은 모두 歷史的 事實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衛滿朝鮮의 王儉城과 樂浪의 위치는 오늘날의 평양 일대로 보아야 당연하다. 이들 국제관계, 정치적 역할과 사회·경제·문화적 바탕은 모두 韓國考古學 編年上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에 형성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기원전 1500년부터 한국의 土著勢力을 형성하고 있던 支石墓社會가 해체되어 三韓社會로 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國際·政治的 力學關係위에서 나타난 것이 漢城時代 백제의 건국이며 이는 三國時代 前期(鐵器時代 後期, 서기 1년-서기 300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성시대 백제의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二聖山城의 初築은 서기 371년으로 三國時代 後期(서기 300년-서기 660/668년)때 나타난 중요한 歷史的 事件중의 하나이다.

④ 二聖山城(사적 제422호, (사적 422호, 서기 371년-서기 391년의 漢山시대, 백제 13대 近肖古王 26년 서기 371년 初築)은 C지구 貯水池¹²⁾ 7층 最下層과 C지구 건물지 시굴갱(트렌치) 1에서 출토한 유물에서 보면 孔列土器, 반월형석도, 마제석기, 紅陶가 나오는 청동기시대 중기(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와 철기시대 粘土帶土器시대의 高杯에서 발전한 豆形土器

11) 三國史記 百濟本紀 1에 溫祚王이 기원전 18년 나라를 세우고, 그해 5월 여름 아버지인 朱蒙을 위해 東明王廟(元年夏五月, 立東明王廟), 또 온조왕 17년(기원전 2년)에 어머니 召西奴의 묘를 세워(十七年夏四月, 立廟以祀國母) 제사 지내는 기록이 보인다.

12) 백제산성에서 발견되는 集水池/貯水池는 二聖山城(사적 422호)이외에도 공주 公山城(사적 12호), 佰嶺山城(갓고개, 서기 597년 丁巳년 27대 威德王이 쌓음, 충남 기념물 83호), 대전 鷄足山城(사적 355호), 대전 月坪洞山城(충남 기념물 7호), 이천 雪城山城(경기도 기념물 76호, 4차 조사 시의 가속질량연대분석(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은 서기 370년-서기 410년], 순천 檢丹山城(사적 418호), 여수 鼓樂山城(시도기념물 244호)과 광양 馬老山城(사적 492호) 등에서이며 기타 부여 관북리 궁궐터(사적 428호)에서도 볼 수 있다.

와 樂浪陶器(한양대 박물관 전시)¹³⁾가 나오는 鐵器時代 前期(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 粘土帶土器출토 시기)末경¹⁴⁾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漢武帝의 원정군에 망한 후 그 자리에 남아있던 衛滿朝鮮의 원주민과 중국 戰國時代(기원전 475년-기원전 221년)의 亂을 피해온 亡命人들인 戰國時代의 漢人(樂浪人)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고학 자료의 입증은 土墳墓, 花盆形(花盆形)토기, 細形銅劍(韓國式銅劍) 관계 일괄유물들과 漢나라 인들이 가져온 漢式陶器(樂浪陶器)들의 분포지 파악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적석총과 漢式陶器(樂浪陶器)와의 관계는 不可分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漢式陶器(樂浪陶器)¹⁵⁾가 나오는 유적은 풍납동토성(사적 11호), 경기도 漣川 硝城里와 鶴谷里, 加平 大成里, 達田 2리와 上面 德峴里, 楊州 兩水里 上石亭, 河南市 二聖山城(사적 422호), 華城 旗安里, 廣州市 牆枝洞, 강원도 江陵 安仁里와 柄山洞, 東海 松亭洞, 旌善 禮美里, 春川 牛頭洞과 栗文里, 충청남도 牙山 湯井 鳴岩里와 경상남도 泗川 勒島 등 십여 군데에 이른다. 주로 강원도(臨屯 기원전 108년-기원전 82년, 濊, 東濊 지역)와 경기도(樂浪 기원전 108년-서기 313년, 帶方지역)지역에 집중해서 樂浪陶器/漢式陶器가 나오고 있으며 이 점은 樂浪과 臨屯의 영향을 잘 보여 준다. 현재까지 樂浪陶器/漢式陶器가 나오는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 송파구 風納土城(사적 11호)

나. 경기도 연천 청산면 哨城里

다. 경기도 연천 백학면 鶴谷里

12) 백제산성에서 발견되는 集水池/貯水池는 二聖山城(사적 422호)이외에도 공주 公山城(사적 12호), 佰嶺山城(조개, 서기 597년 丁巳년 27대 威德王이 쌓음, 충남 기념물 83호), 대전 鷄足山城(사적 355호), 대전 月坪洞山城(충남 기념물 7호), 이천 雪城山城[경기도 기념물 76호, 4차 조사 시의 가속질량연대분석(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은 서기 370년-서기 410년], 순천 檢丹山城(사적 418호), 여수 鼓樂山城(시도기념물 244호)과 광양 馬老山城(사적 492호) 등에서이며 기타 부여 관북리 궁궐터(사적 428호)에서도 볼 수 있다.

13) 土器, 陶器류를 통칭하는 세라믹(ceramic)이란 말은 어원상 “불에 타버린 물질”을 뜻한다. Prudence M. Rice(1987, p.5)는 Terra-cotta(1000℃이하), Earthenware(폭넓게 900℃ -1200℃ 사이), China(1100℃-1200℃), Stoneware(약 1200℃-1350℃), Porcelain(1300℃-1450℃)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土器(500℃-850℃)-陶器(1100℃ 전후)-炆器(stoneware 1200℃ 전후)-磁器(1300℃ 전후)로 분류하며 無文土器, 樂浪陶器, 新羅炆器, 高麗靑瓷, 朝鮮白磁 등으로 부른다. 燒成度는 지붕이 없는 仰天窯(open kiln)에서 지붕이 있는 登窯(tunnel kiln, climbing oven)에 이르는 가마(窯)제작의 기술적인 발달과정에 따른다. 1100℃ 전후에서 구워져 한반도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 문화에 직수입 된 樂浪陶器는 경기도 하남시 二聖山城을 비롯해 송파구 풍납동토성, 경기도 양평 양수리 상석정, 연천 청산면 초성리, 가평 상면 덕현리, 화성 기안리, 가평 달전 2리와 대성리, 강원도 홍천 철정리, 정선 신동읍 예미리, 강릉 안인리와 병산동, 동해 송정동, 춘천 근화동, 울문리와 거두리 등지에서 출토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기전문화재연구소)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동 LCD 단지 지점(충남역사연구원) 등지에서 확인된 위만조선 계통의 화분형토기나 漢나라 또는 樂浪 계통의 陶器들은 당시의 토착사회인 무문토기 사회에 여과되지 않은 채 직수입 된 중국의 문물이 끼친 영향이 컸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14) 고구려사의 시작(기원전 37년)은 삼국시대 전기에 속하며, 이산성의 축조와 사용은 삼국시대 후기 초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고고학 시작은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 때부터이다. 그 중 철기시대 전기에 속하며 기원전

라. 경기도 가평 達田 2里(漢戟, 衛滿朝鮮土器)

마. 경기도 가평 청평면 大成里 驛舍(기전, 겨레에서 발굴)

바. 경기도 양평 兩水里 上石亭[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A10-S1(A-10 호주거지 중앙기둥)으로 2150 ± 60 B.P. 보정연대는 기원전 330년 또는 기원전 170년이 된다.]

사. 경기도 하남시 二聖山城(사적 422호)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은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이 시기에는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漢字를 알게 되고 國家가 형성되는 등 역사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도시·문명·국가가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이보다 늦은 철기시대 전기에 나타난다. 衛滿朝鮮은 漢나라 7대 武帝(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가 보낸 원정군에 의해 망한다. 이때는 『史記』의 저자인 사마천의 나이 37세이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평양 근처의 왕검성에 자리하던 위만조선이 문헌상에 뚜렷이 나타나는 한국 최초의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위만 조선은 衛滿-이름을 알 수 없는 아들-손자 右渠-太子 長을 거치는 4대(또는 3대도 가능) 87년간 존속하다가 중국 漢나라에 의해 망한다. 그리고 樂浪, 臨屯(漢 武帝 元封 3년 기원전 108년 설치-기원전 82년 임둔을 파하여 현도에 합침), 眞番(기원전 108년 설치-기원전 82년 진번을 폐하고 낙랑에 합침)과 玄菟(기원전 107년-기원전 75년 興京·老城지방으로 옮김)와 의 한사군이 들어서는데, 오늘날 평양 낙랑구역에 樂浪이, 그리고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에 帶方(처음 낙랑군에 속하다가 獻帝 建安 서기 196년-서기 220년 간 대방군이 됨)이 위치한다. 이들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부터 존재하고 있던 馬韓과 기원전 18년 마한의 바탕 위에 나라가 선 백제, 그리고 동쪽의 東穢, 남쪽의 辰韓과 弁韓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었다. 최근의 자료는 철기시대의 상한이 점토대토기의 출현과 관련이 있고 늦어도 기원전 5세기로 올라가고 있다. 최근의 가속질량연대분석(AMS)에 의한 결과 강릉 송림리 유적이 기원전 700년-기원전 400년경, 안성 원곡 반제리의 경우 기원전 875년-기원전 450년, 양양 지리의 경우 기원전 480년-기원전 420년(2430 ± 50 B.P., 2370 ± 50 B.P.),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기원전 800년-기원전 600년 그리고 홍천 두촌면 철정리(A-58호 단조 철편, 55호 단면 직사각형 점토대토기)의 경우 기원전 640년과 기원전 620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철기시대의 기원지로 연해주의 뽕제[搗糲]와 그로우노브끼[北沃沮, 團結]문화도 들 수 있다. 철기시대 문화의 기원은 청동기시대와 마찬가지로 多元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서기 1971년 5-6월에 있었던 강원도 춘성군 내평 2리의 발굴을 기반으로 하여 서기 2004년 12월 17일(금) 한양대 주최 <선사와 고대의 의례고고학>이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기조강연 부천 고강동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본 청기시대·철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새로운 연구방향」이란 글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早期의 새로운 편년 설정과 아울러 상한의 연대를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적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상한문제와 아울러, 앞선 전면 또는 부분 빗살문토기와 부분적으로 공반하는 돌대문토기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계승성문제도 새로운 연구방향이 되었다. 최근의 발굴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의 시작이 기원전 20세기-기원전 15세기를 오른다. 이는 청동기시대 전기(기원전 1500년-기원전 1000년)의 이중구연토기와 중기(기원전 1000년-기원전 600년)의 공렬토기에 앞서는 돌대문(덧띠새김무늬)토기가 강원도 춘천 천전리(기원전 1440년), 춘천 하중도 D-E지구, 춘성 내평, 정선 북면 여량 2리(아우라지, 기원전 1240년), 강릉시 초당동 391번지 하균·허난설헌 자료관 건립부지, 홍천 두촌면 철정리, 홍천 화촌면 외삼리, 경기도 가평 상면 연하리, 인천 계양구 동양동,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대전시 용산동(단사선문이 있는 돌대문토기로 조기 말), 경상남도 진주 남강댐 내 옥방 5지구(동아대·선문대 등 조사단 구역, 기원전 1590년-기원전 1310년, 기원전 1620년-기원전 1400년의 연대가 나왔으나 돌대문토기와 관련은 아직 부정확함)와 경주 충효동 유적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새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목돌대문(덧띠새김무늬)토기의 경우 中國 遼寧省 小珠山유적의 상층과 같거나 약간 앞서는 것으로 생각되는 大連市 郊區 石灰窯村, 遼東灣연안 交流島 蛤皮址, 長興島 三堂유적(기원전 2450년-기원전 1950년경으로 여겨짐), 吉林省 和龍縣 東城鄉 興城村 三社(早期 興城三期, 기원전 2050년-기원전 1750년), 그리고 연해주의 자이아노프카의 올레니와 시니가이유적(이상 기원전 3420년-기원전 1550년)에서 발견되고 있어 서쪽과 동쪽의 두 군데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들 유적들은 모두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에 속한다.

- 아. 경기도 화성 발안면 旗安里
- 자. 강원도 강릉시 安仁里와 柄山洞
- 차. 강원도 춘천 槿花洞(驛舍), 牛頭洞과 栗文里
- 카. 강원도 동해 松亭洞
- 타. 강원도 정선 禮美里
- 파. 충청북도 제원 청풍면 桃花里(사적 2호인 金海貝塚에서 나오는 회청색
樂浪陶器가 출토)
- 하. 경상남도 사천 勒島[史勿國, 半兩錢: 기원전 221년-기원전 118년,
7대 漢武帝 元狩 5년, 樂浪陶器와 彌生土器가 공존)

그리고 이후 백제 13대 近肖古王대의 석성의 축조 후 고구려 長壽王에 의한 한성백제의 쇠망[서기 475년, 初築의 성벽위에 다시 쌓은 2차 성벽으로 8차 조사 시 나타난 基壇石과 犬齒石(삼각형고임돌)이 고구려의 축성양식에 따라 축조된 고구려의 특징을 보여준다], 신라 24대 眞興王의 한강 진출(서기 553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출토되는 유물의 출토로 볼 때 統一新羅時代(서기 660/668년-서기 918년), 高麗(서기 918년-서기 1392년), 朝鮮(서기 1392년-서기 1910년)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계속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성산성을 둘러싼 一連의 歷史的 脈絡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단서들이다¹⁵⁾. 이 성은 風納土城(사적 11호), 夢村土城(사적 297호) 등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 본류와 南漢江·北漢江이 만나는 兩水里(두물머리)아래의 삼거리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한강 주변의 여러 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남쪽과 동쪽은 南漢山·檢斷山, 서쪽은 아산으로 겹겹이 막혀 있어 배후의 평야지역과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戰略的 要衝地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이성산성이 先史時代이래 계속되어온 時代 및 占有勢力을 달리하면서 장기간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즉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春宮洞과 초일동에 걸쳐 있는 금암산줄기의 정상(二聖山城, 해발 209.8m)에 위치한 석성이다. 산성은 S자 모양의 포곡형(包谷形) 산성으로 규모는 성벽 높이 4-5m 정도에 이르는데, 둘레 1,925m, 성 내부면적 약 155,025㎡이다. 그리고 8차 발굴에서 확인된 둘레 약 2km의 성벽을 옥수수 알처럼 다듬은 돌로 쌓은 점(3차 성벽)이 특이하다. 산성의 축조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토기와 개와 등의 유물로 볼 때 漢城時代 百濟의 後期에 축조되었으며, 삼국의 정치 및 군사적 상황에 따라 고구려와 신라에 의해 점유되면서 수백 년 동안 개축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그 효용가치가 점차 상실되어 廢城化될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여겨지나 성으로서의 기능은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15) 500℃-700℃(엄밀한 의미에서는 700℃-850℃)의 화도에서 소성된 무문토기 또는 경질토기로 이를 사용하던 철기 시대 전기의 주민들에게는 화도가 1000℃-1100℃에 이르는 樂浪陶器(china)는 상당한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축소되어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것 같다.

이성산성은 백제의 13대 近肖古王이 서기 371년(재위 26년)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천도를 단행했던 漢山에 비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사유구[천단(天壇)]로 추정되는 12각형의 건물지가 산성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건물지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1998년 조사한 순천시 성산리 檢丹山城(사적 제 418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검단산성이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12각형의 제사유구가 백제시대부터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8·9·10차 발굴에서 백제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등 이성산성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이성산성이 近肖古王이 서기 371년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천도해 20여 년 동안 한성백제의 도성이었던 漢山(서기 371년-서기 391년)일 개연성을 높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 할 수 있다. 한성백제 초기부터 축조되어 사용되어 오던 土城은 近肖古王의 활발한 정복사업과 고구려의 영향으로 石城으로 전환되었다고 여겨지는데, 토성에서 석성으로의 전환이 이성산성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懸門式 東門址에 대한 발굴은 한성시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21대 蓋鹵王(서기 455년-서기 475년 재위)이 이성산성에서 벌어진 고구려와의 전투에 패해 적군에게 잡혀 아차산성에서 처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즉, 이성산성이 한성시대 백제의 최후 격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성산성은 고구려 17대 小獸林王(서기 372년), 백제 15대 枕流王(서기 384년)과 신라 24대 法興王(서기 527년) 때 정치적 기반을 굳히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용한 산성이며 佛教의 수용과 전파를 통해 확대된다.

⑥ 광암동 고분은 서기 2005년 가을 하남 德風-감북 간 도로 확·포장구간 중 제 4차 구간인 하남시 廣岩洞 산 26-6번지 二聖山城(사적 422호)서쪽 산록 하에서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서기 4세기대의 橫穴式 石室墳(돌방무덤) 1, 2호에서 直口短頸壺와 廣口短頸壺가 출토되었는데 이들의 연대는 서기 3세기 말에서 서기 4세기 말에 속한다(하문식·황보경 2007, pp.195-225). 이 고분과 출토 백제토기들은 이성산성이 백제

16) 이는 충주시 칠금동 彈琴臺를 중심으로 하는 中原지역의 모습과 유사하다. 충주시는 남한강의 중심지로 백제·고구려와 신라의 철의 확보와 영토 확장에 대한 시발점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왕조의 개념이 포함된 古都文化圈이 아닌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교통과 지역의 중요성으로 삼국시대 百濟·高句麗와 新羅의 角逐場이 되었다. 여기에는 충주시 칠금동 彈琴臺토성에서 나오는 鐵(덩이쇠)과 충주시의 滑石이 이 지역의 확보에 대한 가속화를 부채질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를 기점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한강과 임진강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국고고학 편년 상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 중에 나타나는 한국 최초의 국가이며 역사시대의 시작이 되는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부터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무대가 된다. 특히 그 다음의 삼국시대가 되면 父子之間의 나라로 알려진 高句麗와 百濟의 각축전이 전개된다. 이러한 관계는 백제는 13대 近肖古王(서기 346년-서기 375년) 때, 고구려에서는 가장 강성한 왕인 19대 廣開土王(서기 391년-서기 413년)과 20대 長壽王(서기 413년-서기 491년), 그리고 신라는 서기 553년 24대 眞興王(서기 540년-서기 576년)이 한강유역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된다.

13대 近肖古王 26년(서기 371년)에 축조되었다는 설을 뒷받침해준다.

㉔ 하남 天王寺址는 서기 384년(백제 15대 枕流王 元年)이후 백제의 불교수용 초기 절터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성시대 백제의 경우 漢山시대(서기 371년-서기 391년) 중 서기 384년 최초로 지어진 절로 河南市 下司倉洞의 天王寺가 가장 유력하다. 이곳에는 현재 舍利孔이 보이는 木塔[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나 절터에서 발견된 二重蓮瓣이 표현된 막새는 25대 武寧王陵 출토 銅托銀蓋, 王興寺址 출토사리기의 문양과 서기 6세기 후반에서 서기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부여 金剛寺址 출토품에서 나타나 이 절의 初創이 늦어도 三國時代후기 서기 6세기 후반에서 서기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의 하부구조, 보물 제 322호 철불(鐵佛,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원래 놓였던 臺座로 추정되는 돌 구조물과 건물터 1동, 담장 및 배수시설 등 모두 9기의 유구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天王, 王寺, 官, 又且, 卍, 卍, 千의 銘文蓋瓦가 출토하여 왕실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절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㉕ 하남시 春宮里 5層石塔(보물 12호, 고려, 사적 352호 하남 춘궁동 桐寺址)

㉖ 하남시 春宮里 3層石塔(보물 13호, 통일신라, 사적 352호 하남시 春宮洞 桐寺址), 春宮里 五層石塔(보물 제12호, 고려초)

㉗ 하남시 校山洞 善法寺 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坐像(보물 981호 고려초 磨崖佛) 불상은 대좌 왼쪽에 “太平二年丁丑七月十九日賜以重修爲今上皇帝萬歲頌”이라 새겨져 서기 977년(5대 景宗 2년)에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처음 조성한 연대는 분명치 않다.

㉘ 春宮洞 鐵造釋迦如來坐像(보물 332호, 고려 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㉙ 하남시 校山洞 客舍(서기 7세기-서기 9세기로 추정)

다) 역사

하남시에 고려 초기 유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광주(廣州)의 大豪族으로 벼슬이 大匡(중1품, 제3등급, 武臣階級)이며, 왕실의 외척인 왕규(王規, ?~서기 945년,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太祖에게 賜姓을 받아 王씨가 됨)가 이곳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廣州院君, 太祖의 16妃에서 태어난 왕규의 외손자)을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해 ‘왕규의 난’을 일으킬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다. 왕규의 동태를 미리 알고 있던 3대 定宗이 2대 惠宗의 병이 위독하자 서경(西京: 평양)의 수비대장 왕식렴(王式廉: 태조의 사촌동생이며 정종의 堂叔)과 미리부터 연락을 해두어 왕규의 난이 무난히 수습되었다. 이는 고려 초 왕권이 미약한 데에서 발생한 고려 2대 惠宗 때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진다.

라) 설화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貞節을 지킨 것을 내용으로 한 烈女說話인 三國史記 卷 第四十八 列傳

第八의 都彌夫婦의 說話¹⁷⁾도 있다. 이 설화는 개루왕[蓋婁王, 백제 4대 왕으로 기루왕(己婁王: 재위 서기 77년-서기 128년)의 아들로 서기 128년 아버지 개루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의 일로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 개루왕 시대의 백제 주변엔 도미 설화에 나오는 지명 대부분이 개루왕 시대보다 훨씬 후에야 나타나는 지명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한다. 여기에 나오는 산산(蒜山)이 이란 지명은 개로왕 이전에는 한자 지명으로 불리지 않았고, 고유 지명인 매시달(買尸達)이란 이름으로 불렸었다. 즉 도미설화 중에 나오는 산산(蒜山)은 三國史記 권35 雜誌 제4 地理 2 新羅 條에서는 '산산현(蒜山縣)은 본래 고구려의 매시달현(買尸達縣)'으로 교하군(交河郡)의 전신인 '정천군(井泉郡)¹⁸⁾의 領縣/屬縣'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泉城島 일대를 파주시와 고양시구역으로, 도미부부가 상륙하였던 泉城島를 坡州 鰲頭山(關彌山城 일대)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하남시 배알미동 167번지에는 도미나루가 전해져 온다. 이 때문에 이 설화를 개로왕(蓋鹵王, 21대, 서기 415년-서기 475년, 재위: 서기 455년-서기 475년) 때의 이야기로 보고 있기도 하다.

說話는 神話を 낳고 신화에서 建國神話가 만들어지는데, 이 설화가 주류를 이루던 건국신화와 달리 三國史記 列傳에 실렸다는 것은 포악한 왕의 유혹과 탄압에도 부부의 의를 지킨 春香傳과 같은 烈女說話의 원형으로 당시 民衆의 긍정적인 인간관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글은 五倫行實圖[서기 1434년(4대 世宗 16년)에 설순(契循)이 지은 三綱行實圖와 서기 1518년(11대 中宗 13년)에 김안국(金安國)이 지은 二倫行實圖를 합해 22대 正祖의 왕명으로 서기 1797년(正祖 21)에 간행한 儒敎倫理를 담은 책]에도 실려 있으며 '우렁이 각시'와 제주도 '산방덕 전설'이 이와 비슷하다.

최근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발견되는 많은 수의 백제, 고구려와 신라 유적들은 고구려의 최남단 전진기지이자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로 백제, 고구려와 신라 간에 歷史的 脈絡을 살펴 균형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남한 내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백제사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이 지역에서 백제사 특히 漢城時代 百濟 연구는 불모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風

17) 〈都彌〉, 〈百濟〉人也. 雖編戶小民, 而頗知義理. 其妻美麗, 亦有節行, 爲時人所稱. 〈蓋婁王〉聞之, 召〈都彌〉與語曰:「凡婦人之德, 雖以貞潔爲先. 若在幽昏無人之處, 誘之以巧言, 則能不動心者, 鮮矣乎?」對曰:「人之情, 不可測也. 而若臣之妻者, 雖死無貳者也.」王欲試之, 留〈都彌〉以事, 使一近臣, 假王衣服馬從, 夜抵其家, 使人先報王來, 謂其婦曰:「我久聞爾好, 與〈都彌〉博得之. 來日入爾爲宮人, 自此後爾身吾所有也.」遂將亂之. 婦曰:「國王無妄語, 吾敢不順? 請大王先入室! 吾更衣乃進.」退而雜飾一婢子薦之. 王後知見欺, 大怒, 誣〈都彌〉以罪, 矐其兩眸子, 使人牽出之, 置小船泛之河上. 遂引其婦, 強欲淫之. 婦曰:「今良人已失, 單獨一身, 不能自持, 況爲王御, 豈敢相違? 今以月經, 渾身污穢, 請俟他日薰浴而後來.」王信而許之. 婦便逃至江口不能渡, 呼天慟哭. 忽見孤舟隨波而至, 乘至〈泉城島〉, 遇其夫未死, 掘草根以喫, 遂與同舟, 至〈高句麗〉(蒜山)之下. 〈麗〉人哀之, 丐以衣食, 遂苟活, 終於羈旅.

18)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取之, 〈景德王〉改名, 築炭項關門, 今〈湧州〉. 領縣三: 〈蒜山縣〉, 本〈高句麗〉(買尸達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松山縣〉, 本〈高句麗〉(夫斯達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幽居縣〉, 本〈高句麗〉(東墟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納土城(사적 11호), 夢村土城(사적 297호)과 二聖山城(사적 422호)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와 이웃 하남시 일대는 한성시대 백제 초기(삼국시대 전기)에는 首都(도읍지)로, 삼국시대 후기 이후에는 삼국의 한강유역 확보를 위한 쟁탈의 장으로서 한성시대 백제를 연구하는데 빼놓아서는 안 될 곳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유적 또는 성벽의 발굴 시 그 유적이 속하는 한 시기와 한 시대에 편중해 연구하지 말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有機體의인 解釋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복에 따라 행해지는 앞 시대에 만들어진 城內 건물지나 성벽 등 유구에 대한 철저한 파괴, 또는 이들의 再活用に 따른 改築과 補修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면에 백제사만을 강조한다면 그나마 제대로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연구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 유적의 연구는 초기 한성시대 백제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시킨 고구려 편향의 조사 연구결과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와 하남시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들을 통하여 衛滿朝鮮, 樂浪, 馬韓, 東濊, 挹婁, 肅慎, 百濟, 高句麗와 新羅사이의 歷史的 脈絡과 당시의 國際關係에 좀 더 신중히 고려하여 균형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臨津江과 南漢江 유역에 만들어진 고구려 유적의 주 대상(主敵)이 原三國時代가 아닌 歷史上的 實體인 百濟와 新羅로 이들은 三國時代 前期에 속한다. 그 중 고구려와 백제간의 끈임 없는 투쟁의 역사는 고구려 20대 長壽王과 백제 21대 蓋鹵王 사이에 일어난 한성시대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그 해가 서기 475 년이었다. 그리고 中原지방에서 나타나는 유적들과 자료들의 고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三國史記』의 기록대로 백제·고구려·신라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엮물려있어 한 치의 어긋남도 있을 수 없다. 鐵生産과 確保라는 三國의 치열한 角逐의 결과로 만들어진 中原文化의 예에서 보다시피 漢江邊 軍事要衝地인 河南市에서도 三國時代 前期와 後期에 ‘漢江의 支配力’을 확보하기 위한 백제,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각축하고 이의 결과로 삼국문화가 중첩·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歷史的 脈絡에서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오늘날 河南市가 가지는 歷史와 文化의 중요성이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굴되는 考古學的 資料의 증가에 의해 補完·強調될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문화재연구원

2005 하남 德豊洞 수리굴 유적 -시기지 우회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내 시 · 발굴조사-, 학술조사보고 제59책
노윤상

2012 河南 天王寺址 出土 二重蓮瓣 帛새의 제작시기 檢討, 新羅文化 第39輯, pp.207-237

미사리 선사유적발굴조사단 ·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1994 미사리 1-5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0 평택 지제동 유적

2001 하남 미사동 선사유적 주변지역 시굴조사

2002 하남 망월동

2005 하남 덕풍굴 유적 -청동기시대 집터 · 제의유적 및 고분조사-

2006 하남 덕풍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서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하남 덕풍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서울: 세종대학교박물관

심정보

2012 이성산성 축조시기에 대한 검토, 위례문화 15호, 하남시: 하남문화원, pp.35-64

梁起錫

1986 三國史記 都彌列傳 小考, 李元淳教授華甲論叢, 서울: 教學社, pp.3-20

최몽룡

1978 전남지방소재 지석묘의 형식과 분류, 역사학보 78, pp.1-50

1986 고고학 측면에서 본 마한, 마한 · 백제문화 9집,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pp.5-15

1991 마한목지국의 제 문제, 백제사의 이해(최몽룡 · 심정보 편), 서울: 학연문화사

1994 고고학 상으로 본 마한의 연구,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엄, pp.71-98 및 문산

김삼룡 박사 고회기념논총: 마한 · 백제문화와 미륵사상(논총간행위원회 편),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pp.91-98

2009 남한강 중원문화와 고구려-탄금대의 철 생산과 삼국의 각축-,

최몽룡 편저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ol. II, 서울: 주류성, pp.13-40

2009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지도서, 21세기의 한국 고고학 II, 최몽룡 편저, , 서울: 주류성, pp.27-130

2009 호남고고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철기시대 전 · 후기와 마한, 제 17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5월 8일, 금),

호남고고학에서 바라본 생산과 유통, pp.9-50

2009 馬韓研究의 새로운 方向과 課題, 전주박물관 마한전시회 도록, 마한-숨 쉬는 기록, 서울: 통천문화사, pp.4-19

및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문화, 세계문화,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pp.30-74

2010 韓國 文化起源의 多元性-구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동아시아의 諸 文化 · 文明으로부터 傳播-,

동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제 40회 동양학 국제학술대회, pp.1-45 및 2011

韓國 文化起源의 多元性-구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동아시아의 제 문화 · 문명으로부터 전승,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원 역음, 동아시아 문명교류사 1,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학연문화사, pp.21-88(ISBN 9-788955-082500)

2010 扶餘 松菊里 遺蹟의 새로운 編年, 3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10월 1일, 금), 부여 송국리로 본

한국 청동기시대, pp.7-14 및 2011 부여 송국리 유적의 새로운 편년, 최몽룡 편저,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ol. IV, 서울: 주류성 pp.211-226

2010 호남의 고고학-철기시대 전 · 후기와 마한-, 최몽룡 편저,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ol. III, 서울: 주류성, pp.19-87

2010 고고학으로 본 중원문화, 중원 문화재 발굴 100년 회고와 전망, 한국고대학회 · 충주대학교 박물관, pp.29-46

2011 二聖山城과 百濟, 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하남시 문화원 제 3회 학술대회 (10월 7일, 금), pp.11-37 및

위례문화 15호, 하남시: 하남문화원, pp.89-118

2011 창원 성산패총 발굴의 회고, 전망과 재평가, "동 · 철산지인 창원의 역사적 배경"

(아철제례의 학술세미나) (7월 1일), 창원시 · 창원문화원, pp.1-16 및 2011 韓國 考古學 研究의 諸 問題,

- 서울: 주류성, pp.225-248
- 2011 한국에서 토기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전망('자연과학에서의 대형웅관 제작법'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제 3회 고대웅관연구 학술대회 pp.9-25
- 2011 韓國 考古學 研究의 諸 問題, 서울: 주류성
- 2011 韓國 文化起源의 多元性—구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동아시아의 제 문화·문명으로부터 전승,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원, 동아시아 문명교류사 1, pp.1-45 및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서울: 학연문화사, pp.21-88(ISBN 9-788955-082500)
- 2011 청동기·철기시대와 한국문화,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제 41회 동양학 국제학술대회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pp.1-28 및 2012 청동기·철기시대와 한국문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엮음, 동아시아 문명교류사 2,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서울: 학연문화사, pp.147-185(ISBN 978-89-5508-287-6 94910)
- 2011 인류문명발달사(4판), 서울: 주류성
- 2012 강과 문명—인류문명발달사—, 전상인·박양호 공편, 강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신서 1624, pp. 81-115
- 2012 스키타이, 흉노와 한국고대문화—한국문화기원의 다양성—, 국립중앙박물관·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pp.7-31
- 2012 한국고고학·고대사에서 종교·제사유적의 의의—환호와 암각화—, 제 4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pp.7-43 및 하남문화원 제 4회 학술대회,
한국의 고대신앙과 백제불교, 하남시 문화원, pp.1-38(하남시 문화원, 위례문화, 2012, 15호, pp.79-118)
- 2012 중원문화와 철—철 생산과 삼국의 각축—,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중원의
제철문화 학술대회, pp.9-22
- 2012 강과 문명—인류문명발달사—, 전상인 박양호 공편, 강과 한국인의 삶, 나남신서 1624, 서울: 나남, pp.81-115
- 2012 스키타이, 흉노와 한국고대문화—한국문화기원의 다양성—, 국립중앙박물관·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pp. 7-31
- 2012 한국고고학·고대사에서 종교·제사유적의 의의—환호와 암각화—, 제 4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pp.7-43 및 하남문화원 제 4회 학술대회,
한국의 고대신앙과 백제불교, 하남시 문화원, pp.1-38(하남시 문화원, 위례문화, 2012, 15호, pp.79-118)
- 2012 중원문화와 철—철 생산과 삼국의 각축—,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중원의 제철문화 학술대회,
pp.9-22
- 2013 한국선사고고학의 연구동향, 겨레 창간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pp.7-37
- 최몽룡·권오영
- 1985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본 백제 초기의 영역고찰—도성 및 영역문제를 중심으로 본 한성시대 백제의 성장과정—,
천관우 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 논총, 서울: 정음문화사, pp.83-120 및 최몽룡 1987,
『한국고대사의 제 문제』(유인물), 관악사, pp.151-187)
- 崔夢龍·白種伍
- 2011 高句麗 積石塚과 百濟의 國家形成, 최몽룡 편저,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 pp.1-41
- 최몽룡·신숙정·이동영
- 1994 미사리 유적의 지질과 출토 토기의 분석, 미사리 1 및 고고학과 자연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227-338
- 최몽룡·심정보
- 1991 백제사의 이해, 서울: 학연문화사
- 최몽룡·이선복·안승모·박순발
- 1993 한강유역사, 서울: 민음사
- 하문식·황보경
- 2007 하남 광암동 백제 돌방무덤연구, 최몽룡 편저, 경기도의 고고학, 서울: 주류성 pp.195-222
- 황보경

-
- 2011 한강유역 신라고분의 구조적 특징과 성곽과의 관계, 최몽룡 편저, 21세기의 한국고고학 IV, 서울: 주류성,
pp.589-645
- 니오라페(Geong Nioradze) · 李弘植 역
1976 시베리아 제 민족의 원시종교, 서울: 신구문화사
- J. B. Noss(노스, 윤이흠 역)
1986 세계종교사(상), 서울: 현음사
- Jonathan Haas(조나단 하스 · 최몽룡 옮김)
1989 원시국가의 진화, 서울: 민음사

특집 1

발표자 1

하남지역의 고대인은 어디서 살았을까?

양 정 석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하남지역의 고대인은 어디서 살았을까?

양 정 석

1. 머리말

최근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인문학의 한분야인 역사에도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지구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인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유행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조금은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하는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하남지역에 살았던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역사에서 인간이 정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포함하여 삶을 영위하는 공간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역사에서 주로 다루었던 문헌을 통해서만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공간에 간접적이고 한정적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각종 발굴조사를 통해 증가하고 있어 비록 과거 공간의 흔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의 형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같은 자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거지 등과 같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거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주거지¹⁾, 취락²⁾, 마을³⁾,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생활이라는⁴⁾ 주제로 과거 인간의 삶을 살펴 볼 수 있는 고고학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하남의

1) 李健茂, 1994, 「先史時代 住居址考古學現況」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2) 추연식, 1997, 「취락고고학의 세계적 연구경향」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 학연문화사.

3) 權鶴洙, 1994, 「역사시대 마을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4) 박승규, 2000, 생활고고학의 연구성과와 과제, 고고학의 새로운 지향, 제4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회.

미사리유적은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삶을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글은 발굴조사를 통해 하남의 고대인들이 삶을 영위하였던 공간임을 알게 된 미사리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다만 하남지역에서 최근 새롭게 확인된 신라 주거지들을 여기에 같이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하남지역 고대문화에 대한 논의가 백제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시기인 신라에도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부분만을 더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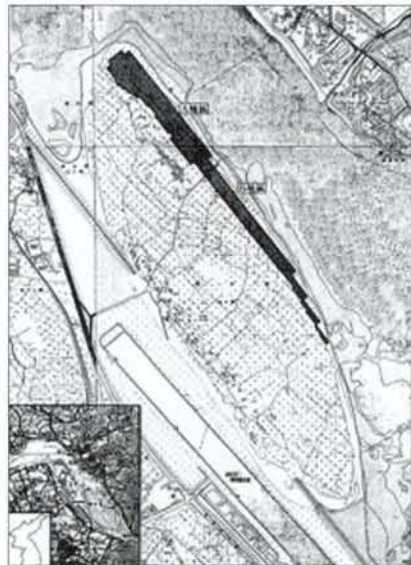
2. 미사리유적 주거지의 조사 성과

미사리유적은 1960년에 김원룡에 의해 섬의 북쪽 단애면에 드러난 퇴적층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와 간석기를 학계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미사리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몇차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198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등 4개 대학에서 섬의 동북편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신석기~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층위를 확인하였다.⁵⁾ 1987~1993년까지 숭실대학교 박물관등 8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총 3차에 걸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⁶⁾

그 결과 우리는 원삼국시기부터 백제시기에 이르는 대규모의 취락유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⁷⁾

우선 서울대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유구는 총 3층(상층, 중층, 하층)에 걸쳐서 확인되는데 상층에서는 발유구, 중층과 하층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한 저장공, 고상건물지등이 확인된다.

백제시대의 수혈주거지는 육각형의 평면에 방형의 출입구가 달린 것과 타원형 평면의 두 종류가 있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북동벽에 연해 있는 화덕아궁이 시설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중층과 하층에서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는데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두 주거지 사이에 시간차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거지 규모가 크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다양성 및 구조로



[그림 1] 하남 미사리유적

5) 윤세영, 1981, 「미사리 주거지」, 『사촌』 25.

6)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1994, 『미사리』 제2권 - 성균관대학교 발굴조사단.

한양대학교발굴조사단; 제3권- 숭실대학교 박물관, 제4권- 서울대학교 박물관; 제5권 -고려대학교발굴조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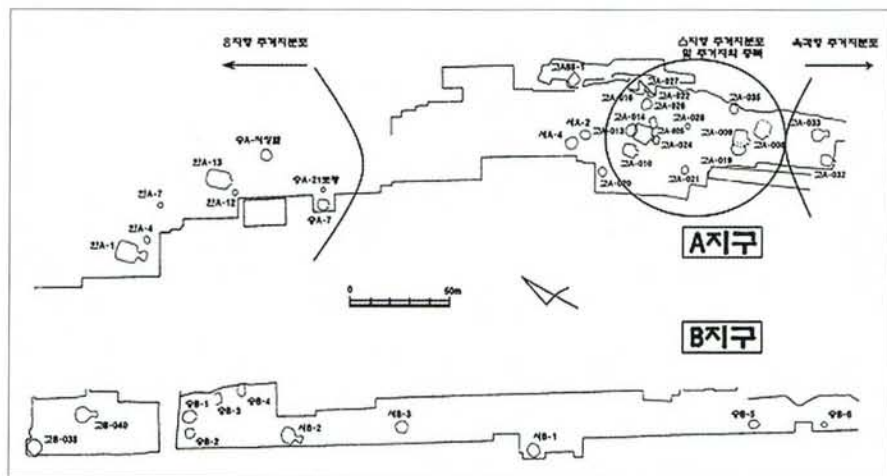
7)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한성백제고고자료집 하』.

보아 주거지의 기능 차이로 추정하고 있다. 숭실대 조사지역에서는 확인된 백제시대 유구는 B지구에서 주거지 6기, 저장공 33기, 도랑 21기, 지하가옥 7동, 경작유구 2개소, 이형유구 2기, 소형 토광 13기외에 다수의 주혈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형태는 육각형, 철자형, 장방형, 장타원형, 타원형, 말각방형으로 각 1기씩 확인되며 부뚜막시설은 모두 ‘—’자형으로 6호주거지를 제외하고는 5기가 북동쪽 또는 동쪽에 달려있다. 또한 출입구 시설은 3기에서만 확인되는데 이를 주거지 배치 등으로 판단 할 때 출입구 유무에 따라 주거용과 작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고려대 조사지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백제시대 주거지는 14기정도이며 평면형태는 방형 2기, ‘凸’자형 4기, 원형 1기, 타원형 5기, 육각형 2기이다. 부뚜막 시설은 7기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일자형으로 88-1호의 주거지의 경우 부석형 노지의 폐기이후 부뚜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B지구 40호 주거지에서는 2개의 부뚜막이 북벽과 서벽에서 각각 확인된다.

한양대 조사지역에서는 ‘呂’자형과 ‘凸’자형 주거지가 1기씩 확인된다. 1호 주거지의 경우 화재주거지로서 출입구 시설은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ㄱ’자형 터널식 노지가 북동쪽 장벽에서 나타난다. 아궁이 바닥에는 지각으로 쓰인 석재가 나타나며 배연부는 나무를 사용하였고 연도부는 판석조 구들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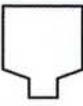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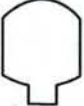


[그림 2] 미사리유적 기관별 조사 유구배치도

3. 미사리 주거지 이해를 위한 백제주거지 연구 검토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거지들은 당시 하남지역 사람들의 일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특히 이들 주거지는 ‘呂’자형, ‘凸’자형, 그리고 육각형 등 이전에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어 주목되었다. 게다가 유구배치

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 지역에 따라 중심이 되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출입구시설이 돌출된 구조라는 가장 특징적인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구분	출입구 시설 있음			출입구 시설 없음
	A_ 방형	B_ 오각형	C_ 육각형	D_ 원형·방형
a				
b				

[그림 3] 주거지 평면형태 분류 (박중국, 2011)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평면구조의 차이점이 단순히 동일한 시기의 공간적인 차별성이 아니라 이들 주거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변화하여 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주거지 평면형태가 시간성을 나타낸다는 견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백흥기, 1992) 출입구를 제외한 평면형태를 통해 주거지의 출입구쪽 벽면과 출입구 반대편 벽면의 속성을 분리해서 순서배열한 변화상을 도출한 견해(송만영, 1999)는 주거지 평면의 차이가 갖는 시간성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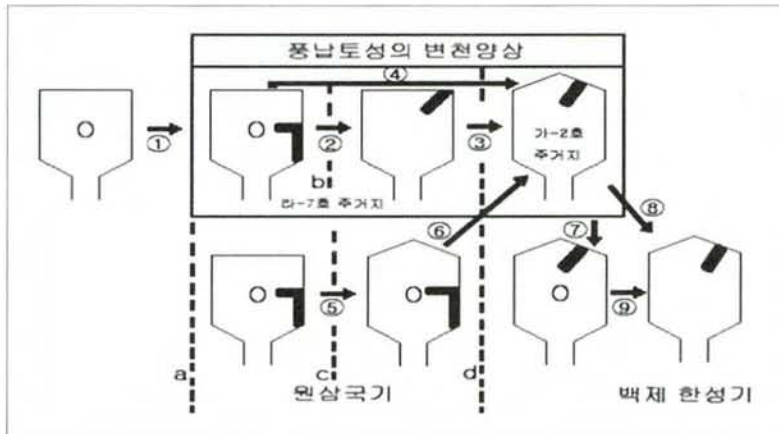
이후 많은 연구(宋滿榮 2010, 박중국 2011, 홍지운 2012)를 통해 원삼국시대부터 한성백제시대의 주거지 축조의 기본변천방향은 방형 → 오각형 → 육각형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운데 육각형 주거지의 경우 풍납동식주거지로 명명하여 백제주거지로 보는 견해(신희권, 2001)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형태는 백제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 원삼국후반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송만영, 2003)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지의 변화 말기에는 소형의 출입구 시설 돌출 없는 방형주거지(李盛周 2011)가 출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평면구조를 가진 주거지는 더불어 그 내부 공간에 또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즉 내부에 취사 및 난방시설이 단순히 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에서 볼 때 우측에 ‘ㄱ’자형 쪽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출입구 반대쪽 벽면으로 ‘|’자형 쪽구들이 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⁸⁾

8) 박중국, 2011, 「원삼국기~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몸자형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고고학』 10-1.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취사시설도 변화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즉 노지 → 노지+‘ㄱ’자형 쪽구들 → ‘ㄱ’자형 쪽구들 → ‘1’자형 쪽구들이라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박중국 2011, 홍지운 2012)

이러한 흐름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편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우선 ‘ㄱ’자형 쪽구들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주류이고 타날문토기는 호류만 출토된다고 한다. 반면에 ‘1’형 쪽구들 주거지에서는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타날문 시루 등과 같이 타날문 자비용기가 공반되며, 뚜껑, 직구단경호, 고배 등과 같이 백제토기로 이야기되는 토기가 함께 나온다. 이러한 토기의 변화상과 쪽구들이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ㄱ’ 자형 주거지 변천과정 모식도(박중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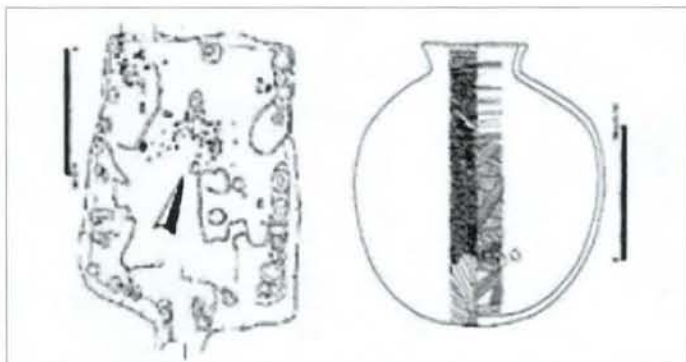
다만 육각형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원삼국기에는 ‘ㄱ’자형, 백제시기는 ‘1’자형으로 구분지는 견해(박중국, 2011)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원삼국 후기에는 ‘1’자형 쪽구들이 노지와 함께 이미 등장한다고 보는 견해(이병훈, 2011)도 있어 시기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미사리 주거지에 대한 이해의 현단계

1) 시기적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

하남 미사리유적의 경우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흐름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가옥구조의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가 있는데⁹⁾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지만 사용되는 출입구 둔각인 오각형 평면의 고려대-014호 주거지를 1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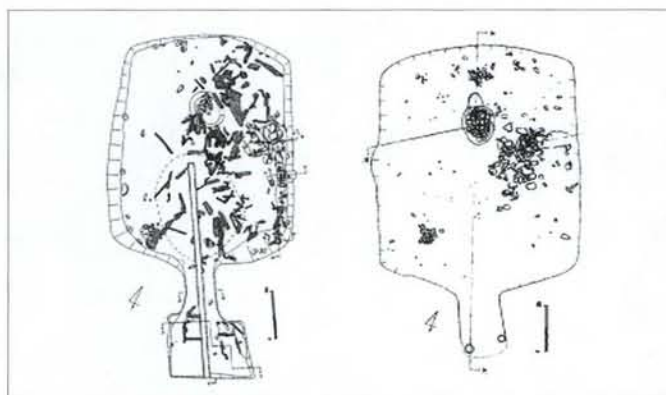
9) 한지선, 2013, 「한성백제기 취락과 토기유물군의 변천양상」, 『중앙고고연구』 12.



[그림 5] 고0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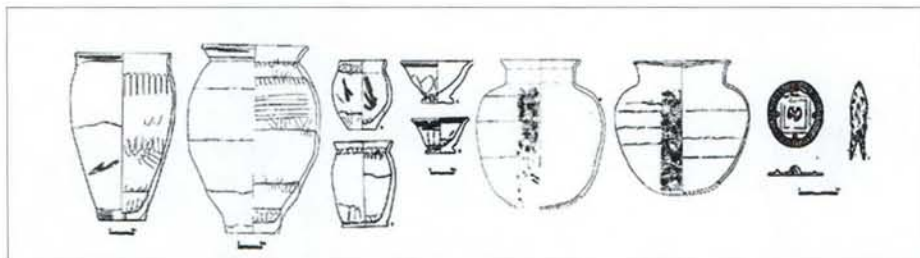
[그림 6] 고014호 출토 토기

2단계는 내부에 ‘T’자형 쪽구들+노지(Ⅱ-1)를 가지고 있는 평면 오각형 내지 둔각이 뚜렷하지 않는 평면형태를 한 한양대 A-1호, A-13호 주거지로 이해하고 있다. 한양대 A-1호에서는 원삼국Ⅱ기 (A.D. 200, 박순발, 2009)로 이해되는 경질무문토기와 격자타날 호류가 함께 확인된다. 더불어 이 주거지에서 확인된 방제경의 연대를 바탕으로 2세기 후반에서 2세기말로 보거나(박순발, 1998), 방제경을 제외한 토기를 바탕으로 3세기대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한지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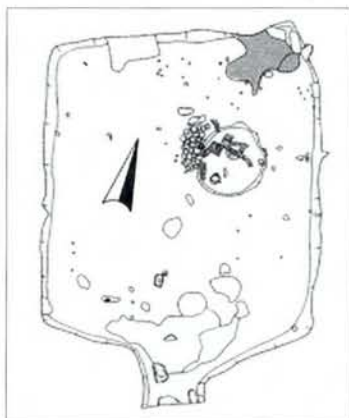


[그림 7] 한 A1호

[그림 8] 한 A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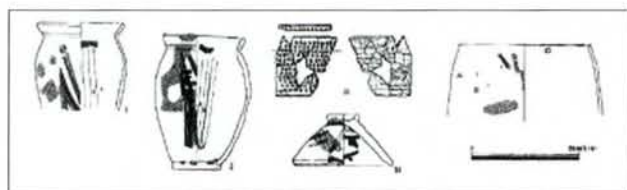


[그림 9] 한 A1호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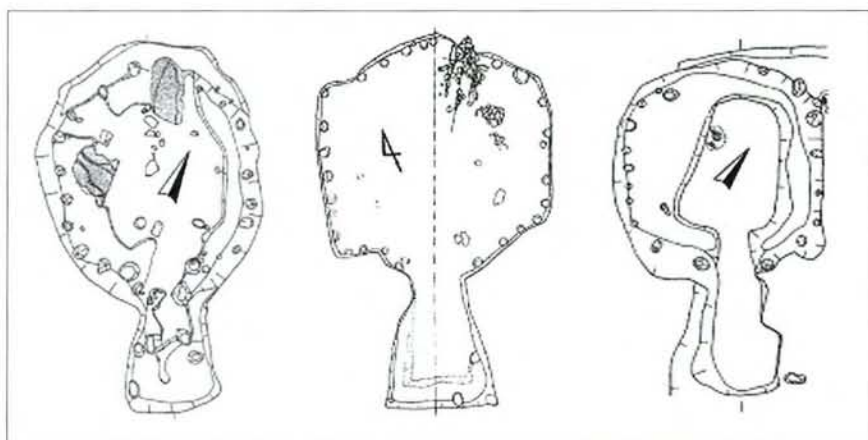
[그림 10] 고 010호 주거지

한편 3단계로는 일자형 부뚜막+노지(Ⅱ-2) 취사시설이 있는 평면 오각형 내지 둔각이 뚜렷하지 않는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려대 010호 주거지를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림 11] 고 010호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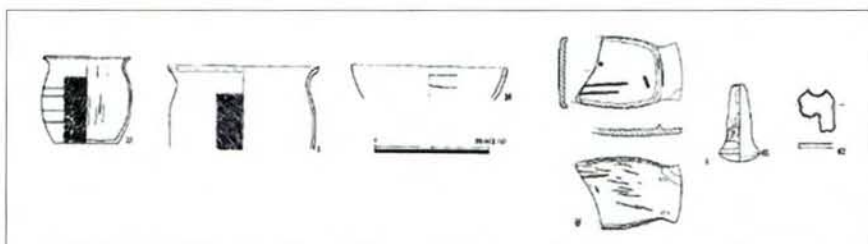
미사리유적에서도 육각형 평면에 일자형 쪽구들이 설치된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고려대 040호 주거지에서는 심발과 장란형 토기, 완류와 더불어 전달린 접시가 출토되는데, 이에 대하여 동진대 탄반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4세기 후반 이후 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한지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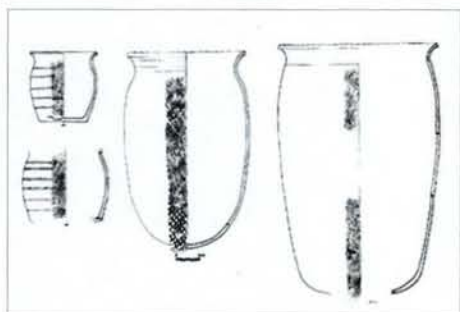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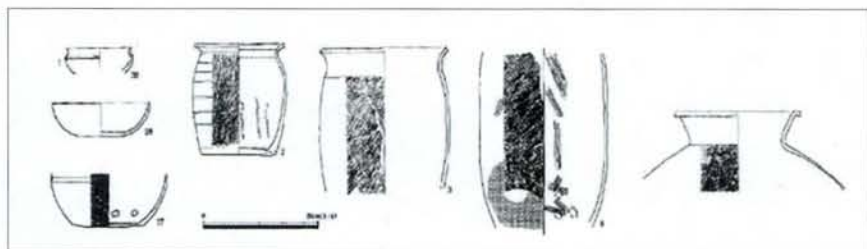


[그림 12] 고 0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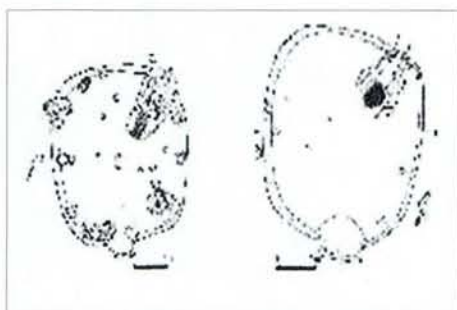
[그림 13] 서 B2호

[그림 14] 고 0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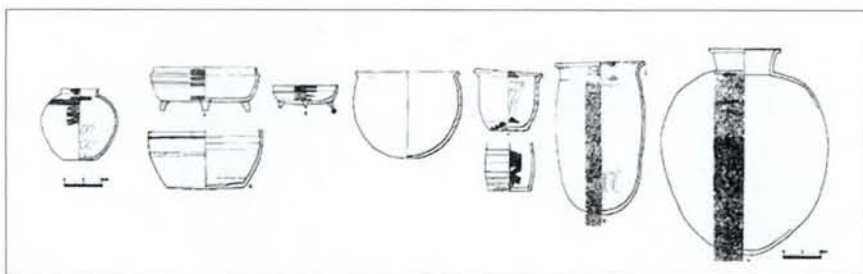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송실대 B2호나 송실대 B5호 주거지와 같이 출입구 시설이 돌출된 소형의 주거지에서는 이전보다 늦은 토기군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는 앞에서 보았던 주거지와는 시기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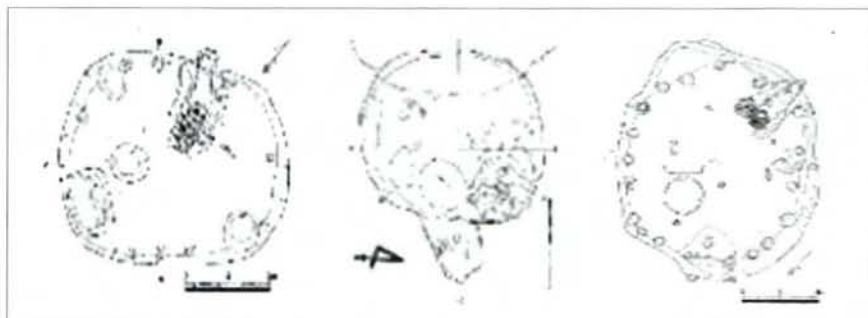
[그림 18] 송 B2호

[그림 19] 송 B5호



[그림 20] 송 B2호 주거지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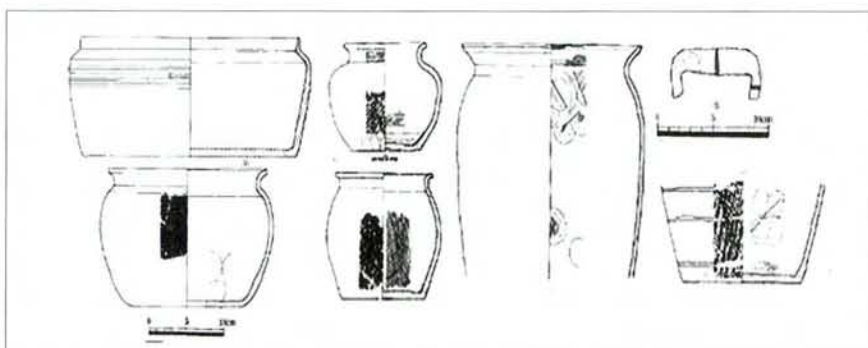
송실대 B4호, B1호 주거지나 서울대 A2호 주거지는 출입구가 돌출되지 않아 역시 유사한 위의 사례와 비슷한 시기로 이해된다.



[그림 21] 송 B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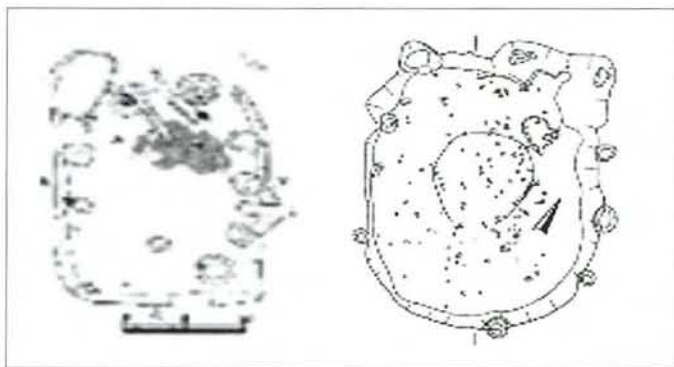
[그림 22] 서 A2호

[그림 23] 송 B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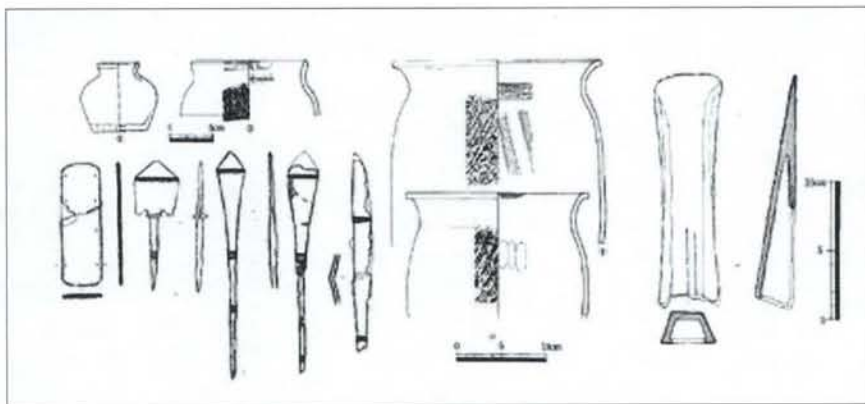
[그림 24] 송 B4호 출토 유물

한편 송실대 B3호 주거지와 고려대 032호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병의 존재나, 반원형투공의 시루의 존재 등으로 보아 이 보다 좀 더 늦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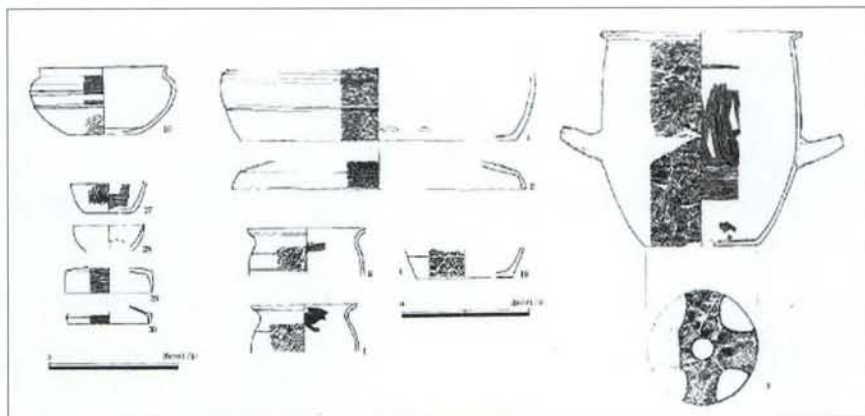


[그림 25] 송 B3호

[그림 26] 고 032호



[그림 27] 송 B3출토 유물



[그림 28] 고 032호 출토 유물

이렇게 하남 미사리유적의 주거지는 그 평면구조나 취사시설의 형태에 따라 몇 개의 유형화가 가능한데, 이를 공반되는 토기 등 유물과 연결하여 이해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게 된다.(한지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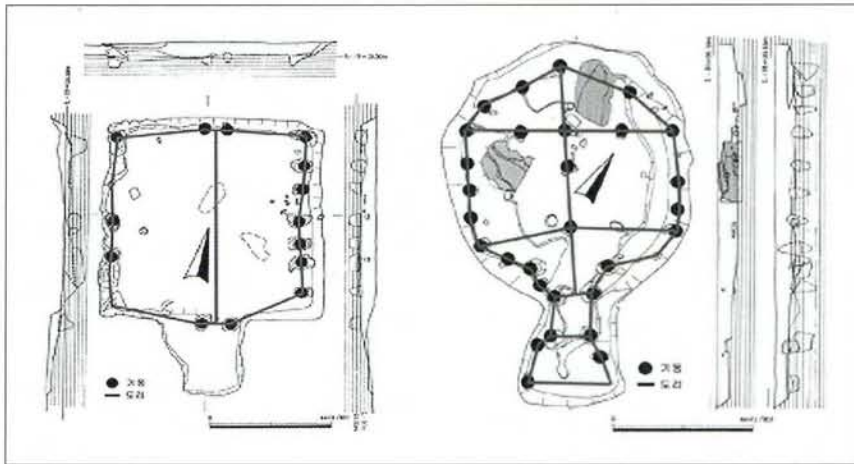
즉 1단계는 노지만 사용되는 출입구 둔각인 오각형 평면을 가진 고려대-014호 주거지를 대표로 한다. 2단계는 ‘ㄱ’자형 쪽구들+노지(Ⅱ-1)와 평면 오각형 내지 둔각이 뚜렷하지 않는 평면형태를 가진 한양대 A-1호나 A-13호 주거지 등이며, 3단계는 일자형 부뚜막+노지(Ⅱ-2) 취사시설과 평면 오각형 내지 둔각이 뚜렷하지 않는 평면형태를 가진 고려대 010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육각형 평면에 일자형 부뚜막(Ⅲ)이 설치된 유구는 4단계, 마지막으로 출입구 시설이 돌출된 소형의 주거지나, 출입구 시설이 돌출되지 않은 소형 주거지를 5단계로 편년하였다.

분기	연년	토기유물군 특징	주거지평면·취사시설	유적별 단계
원상국 I	2C중후반	경질무문토기 종과 발	노제(Ⅰ) 방형(A) 내지 오각형(Ba)	미사리 1단계
원상국 II-1	3C전반	경질무문토기 종과 발, 타날문 단경호 세트 격자문 대호, 경질무문토기 시루+타날문단경호 결합	~"자형 복구돌+노지(Ⅰ-1) 오각형(Ba)	
원상국 II-2	3C중반	경질무문토기 종과 발에 격자문 타날 적용, 유경호 격자문 대호와 대호 발달, 건부 장식	일자형 부뚜막+노지(Ⅰ-1) 오각형(Ba), 육각형(Ca)	미사리 2단계
원상국 II-3	3C후반	송문타날 심발, 원지형 타날문 시루와 장란형토기 등 타날문 취사용기 출현. 상하구분 타날문 단경호, 낙랑계토기, 격자문 대호	일자형 부뚜막+노지(Ⅰ-1) 일자형 부뚜막+노지(Ⅰ-2) 오각형(Ba, Bb), 육각형(Ca)	미사리 3단계
한성백제 I	3C말~4C초	무늬식 두경, 합(A식), 직구호, 환형원 완, 심발, 장란형토기, 대호, 직구호. 직구장경호(직구유경호), 건부 지문 대호.	일자형 부뚜막(Ⅱ) 오각형(Ba, Bb), 육각형(Ca)	미사리 4단계
한성백제 II	4C전~후반	고배, 삼족기, 전문 외양, 환형원토기, 직구단경호, 합(B식), 환형형기대, 부뚜막틀, 대합(A식), 직구소호, 광구장경호	일자형 부뚜막(Ⅱ) 오각형(Ba, Bb), 육각형(Ca)	
한성백제 III	4C말~5C전반	합(C1, C2식)형, 삼족대합, 대합(B식), 가배, 환형형기대	일자형 부뚜막(Ⅱ) 육각형(Ca)	미사리 5단계
한성백제 IV	5C전중반~475년	상합하광형기대, 세·대합(B식), 파수부발, 전달원 완 경질직구단경호, 합(D식), 수면문·연화문·초화문외양	일자형 부뚜막(Ⅱ) 육각형(Ca), 원형(Da), 방형(Db)	

[그림 29] 미사리유적의 분기 (한지선, 2013)

2) 주거지 복원에 대한 이해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주거지들이 어떤 형태로 복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¹⁰⁾ 여기서는 우선 평면 형태와 규모, 기둥구멍의 위치 등 주거지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평면의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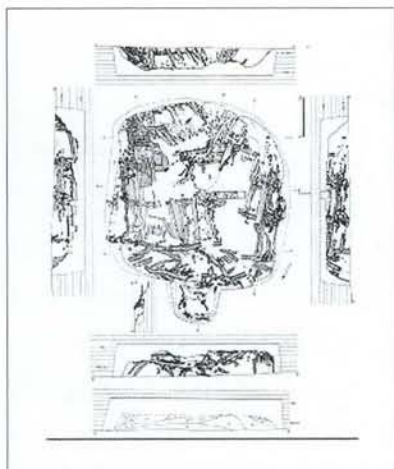


[그림 30] 고 009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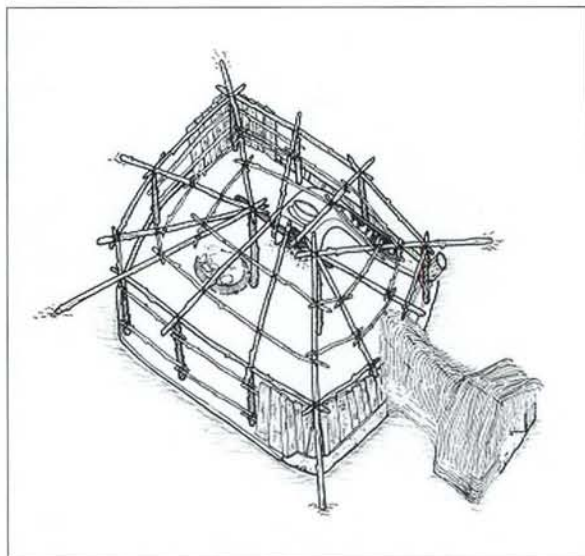
[그림 31] 고 040호 주거지

나아가 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소토 및 탄화목재의 잔존 상태를 통해 본 구조바닥 처리나 출입구 시설, 벽체의 구성 등을 정리하였다.

10) 이승연, 2007, 「철기시대凸자형·모자형 및 한성백제기 육각형 주거지의 평면과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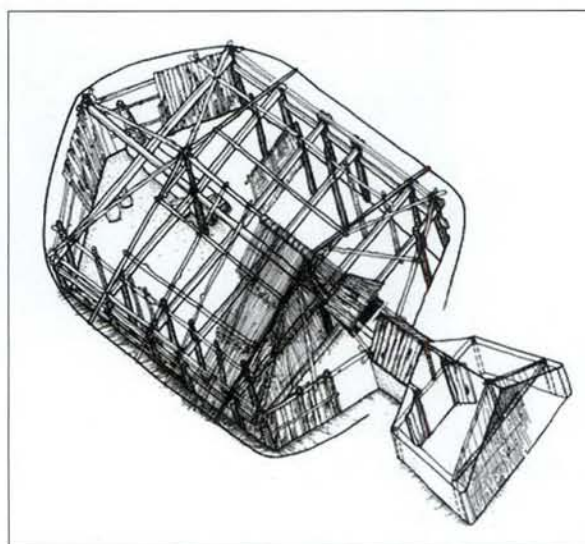
[그림 32] 송 A7호 주거지



[그림 33] 'ㄱ' 자형 쪽구들 + 오각형 주거지(한 A2호) (장경호 안)

이를 통해 상부 구조와 지붕과 세부 목재 결구 수법 등을 추론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주거지의 기본적인 특징이 내부에 기둥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넓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지의 평면 형태를 조정하였고, 주거지 전면부(단벽 방향, 남, 동남, 서남)의 변화 및 출입구의 위치 고정과 관련하여 채광 및 구조적 보완을 일구어 낸 것으로 이해하였다. 더불어 구조 형식에 따라 기둥과 판재의 배열 및 조합 방식을 다르게 하여 각 면이 받는 하중을 조절하였으며, 구조 형식은 크게 내력벽식 구조, 원시적인 가구식(천두식·보식구조) 구조와 이들이 조합된 형식으로 복원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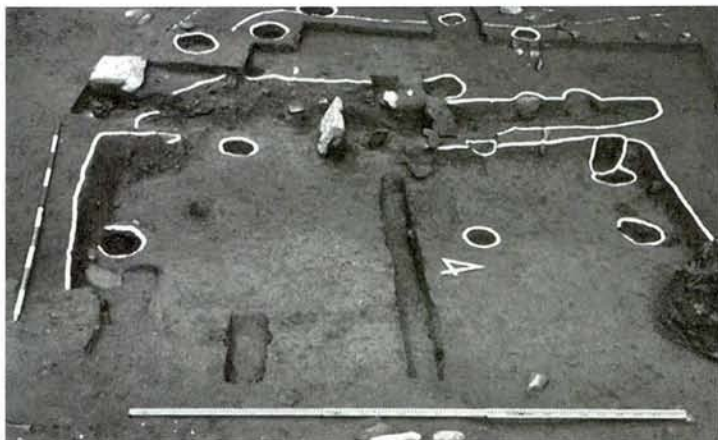
[그림 34] 'I' 자형 쪽구들 + 육각형 주거지 복원도 (이승연 안)

그러나 내력벽식 구조나 천두식 구조가 많은 양의 목재가 소요되고 매우 폐쇄적인 공간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유동성 있는 공간과 여러 채로 구성되는 군체건축을 추구하게 되는 한국 목조 건축의 흐름 속에서 이들 주거지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소멸하였다고 한다.

5. 미사리 그 이후 하남의 주거지

고대 하남의 주거지는 한동안 미사리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확인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통일신라의 말기로 편년되는 교산동 건물지와 같은 건축물 유구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삶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백제 이후의 신라시기에 만들어진 주거지와 이들 주거지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유적이 용인, 화성, 오산, 서울 금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하남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이 중간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유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곳은 이성산성이다. 이곳은 이미 지난 11차례에 걸쳐 많은 조사성과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성산성의 성격과 시기와 관련하여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이루어진 12차 조사에서 수혈 주거지가 확인된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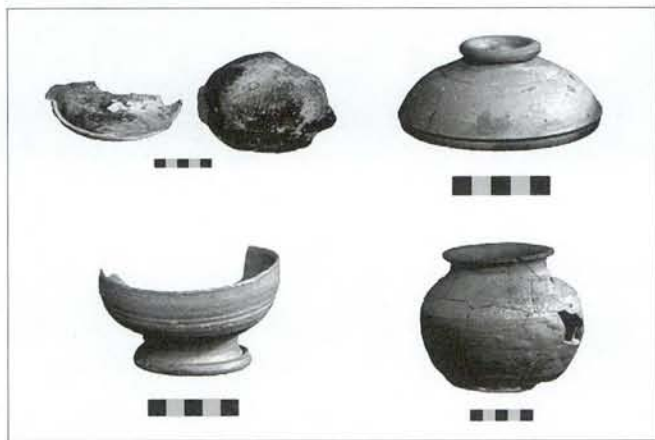


[그림 35] 이성산성 내 신라 수혈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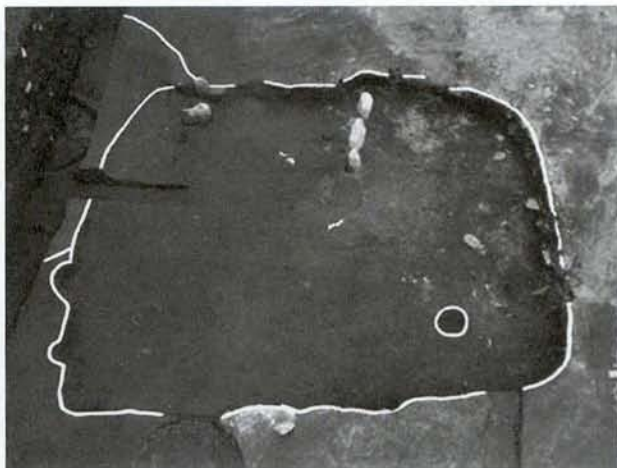
주거지의 잔존 규모는 북동-남서 440cm, 북서-남동 254cm 정도로 남동편이 일부 유실된 상태였지만 내부시설로 아궁이, 구들시설과 내부수혈 등이 확인되어 그 대략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궁이는 주거지 북벽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아궁이의 우측으로 생활공간과 구들 사이의 고래둑이 조성되어 있었다. 구들시설은 ‘ㄱ’자형태로 폭 26cm 길이 220cm이며, 이궁이와 연결되어 북동쪽으로 주거지의 북벽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다. 연도부는 고래의 바닥면이 고래의 진행 향인 북편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어 고래의 끝단이 연도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11) 한양대학교, 2012, 『이성산성 12차 발굴조사보고서』.

이와 같이 이성산성 내 수혈주거지는 ‘ㄱ’자형 외줄고래의 구들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ㄱ’자형 외줄고래 형태의 주거지는 내부 출토유물로 보아 대개 8세기 초엽에서 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성산성 수혈주거지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것으로 조사담당자들은 파악하였다. 수혈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된 고배, 토甕, 호, 연질 완등을 통해 볼 때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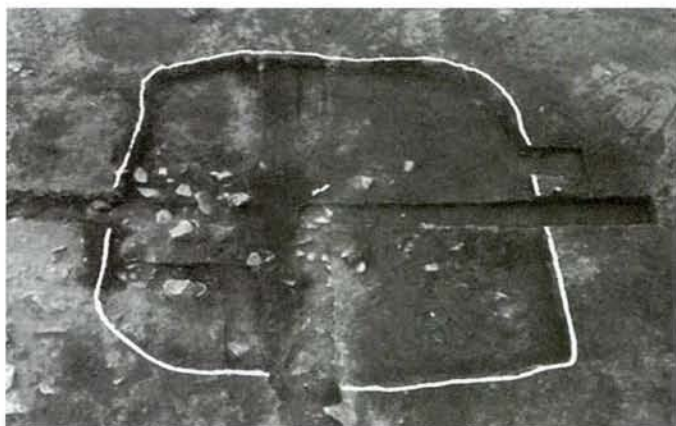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이성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戊辰년(608)명 목간과의 관련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수혈주거지는 이성산성에서 조사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하사창동 64-2, 344번지 유적에서도 2012년말에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었다.¹²⁾



[그림 40] 주거지 1 조사 후 전경

1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11, 『하남 하사창동 64-2, 344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그림 41] 주거지 3 조사후 전경

여기에서는 모두 3기의 신라 수혈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주거지 1호의 경우 구들은 주거지의 남동쪽벽에 인접하여 확인되었는데, 아궁이와 연도부의 일부만 이 잔존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ㄱ'자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107cm, 너비62cm 정도이다. 아궁이는 할석과 수키와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할석 사이와 할석과 수키와 사이는 점토를 발랐다. 아궁이의 바닥은 타원형에 가깝고, 주거지 바닥면보다 약 5cm 정도 낮게 확인 되었으며, 목탄과 소토가 확인되었다. 고래독은 20~30cm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열만 잔존하고 있다. 주거지 3호의 내부에서도 구들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는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유구의 북동벽에 인접하여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1호·2호와 마찬가지로 할석과 수키와를 세워서 시설하였다. 잔존상태로 보아 구들시설은 'ㄱ' 형태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2012년 11월에는 춘궁동 277-1번 지유적에서도 수혈주거지의 일부가 확인되었다.¹³⁾



13) 하남역사박물관, 2012. 11. 『하남시 춘궁동 277-1번지 건축물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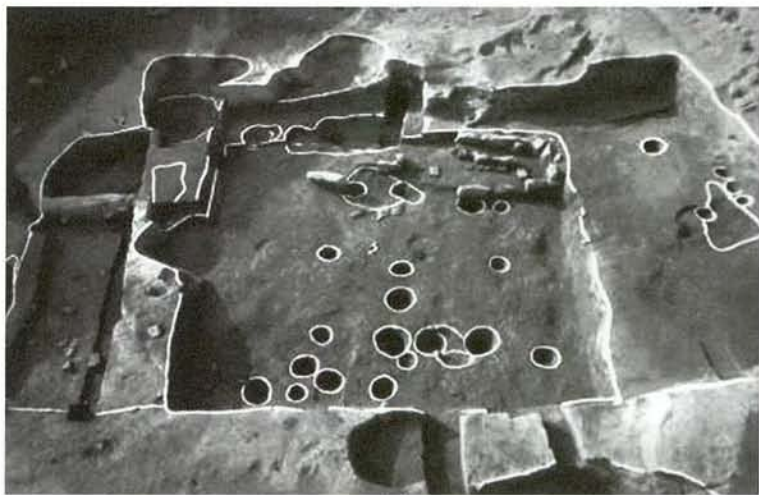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동편과 북편이 유실되어 확인하기 어려우나, 방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상면은 암갈색사질점토를 정지하여 이용하였으며, 고래는 이 상면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고래의 길이는 154cm, 너비는 30cm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다. 유물은 총 19점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 내부에서 토기구연부, 저부편, 와편 등 8점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주변에서 토기구연부편, 시루편, 완 등 11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춘궁동유적은 이성산성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전에 이성산성 내부에서 조사되었던 수혈주거지와 비교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2013년에도 멀지 않은 지역인 춘궁동 267-5번지 유적에서 일군의 신라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약보고서에 따르면 2문화층에서 주거지는 9동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주거지 간 또는 다른 유구와의 복잡한 중복관계를 보인다. 특히 2·3·4·5·6호 주거지가 중첩되어 확인되었는데, 각 주거지간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6호→5호→4호→3호→2호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7호와 8호도 중첩되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7호가 8호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거지 5호에서 확인되는 T자형 구들이다. 주거지 5호는 주거지 4호의 서벽을 훼손하고 조성되었으며, 중복된 5동의 주거지 중 가장 위치한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N-10^{\circ}-W$)이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보인다. 규모는 길이 572cm, 너비 554cm, 잔존깊이 72cm 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일부분에 점토다짐을 한 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주거지의 북쪽 벽을 따라 'T'자형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크기는 길이 270cm, 너비 120cm로서 구들이 위치하는 부분은 주거지 바닥면보다 높게 단을 두었다. 아궁이를 중심으로 동쪽은 2열의 고래가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서쪽은 주거지 3호가 조성되면서 훼손되어 석재 1매만 확인되었다. 구들은 10~55cm 크기의 활석을 사용하여 고래둑을 만들었으며, 고래 바닥은 주거지의 동쪽으로 경사져 올라가는 양상이다. 아궁이는 붓돌이 놓였

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아궁이 내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약 5cm 정도 깔려 있었다. 주거지 내부 바닥에는 전면에 걸쳐 주혈 또는 저장공으로 보이는 내부 수혈이 18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그림 44] 주거지 5호 조사 후 전경

6. 맺음말

여기에서는 하남지역 백제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미사리유적을 중심으로 백제 주거지의 기본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인식,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남 미사리유적의 편년연구,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복원안에 대한 소개를 해보았다. 이를 통해 하남 미사리유적이 백제인들의 삶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곳 하남지역에는 백제인의 삶을 보여주는 미사리 주거지유적과 더불어 백제 이후 이곳을 차지하게 된 신라의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유적도 같이 확인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는 최근 들어 하남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신라의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백제 이후 한동안 공백기로 보였던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하남지역의 고대인들이 원삼국시대와 백제시대를 거쳐 신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집 1

발표자 2

界線으로서 韓國史 속 百濟人들의 頭髮과 服飾

李道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학 학장)

1. 머리말
2. 한국사에서의 辮髮 문제
3. 백제의 服飾
 - 1) 服飾의 정체성
 - 2) 삼국시대의 冠帽와 衣服
4. 맺음말

界線으로서 韓國史 속 百濟人들의 頭髮과 服飾

李道學

1. 머리말

人間の 頭髮 형태는 種族마다 차이가 있어 왔다. 그리고 두발의 본래 형태를 후대까지 보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두발 형태는 종족의 정체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다른 종족과 구분 짓는 要諦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주족이 건국한 淸이 중국대륙의 漢族들에게 자신들의 剃頭辮髮을 강요하였다. 두발의 통일을 통한 동질화와 더불어 정복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 한국인 남자들이 상투를 틀었던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그 이전 시기 한국인의 두발에 대해서도 문헌에서 보인다. 그런데 고조선 시기의 두발의 형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었다. 다만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의 기록에 보이는 “魑結蠻夷服”을 ‘복상투’로 해석하여 조선시대인들의 상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두발 문제는 백제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살펴 보고자하는 것이다. 백제인들의 두발에 대해서도 당위론적인 상상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백제의 복장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기에 언어와 풍속에서 유사함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여인과 고구려인들은 氣質과 의복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¹⁾ 이러한 기록은 두발과 더불어

1) 『三國志』 권 30, 東夷傳 高句麗 條.

2) 『三國志』 권 30, 濊 條.

3) 김달수·진순신·시바료타로, 『역사의 교차로에서』 책과함께, 2004, 105~106쪽.

4) 『자치통감』 권 101, 興寧 3년 조.

복장이 지닌 종족의 정체성을 대별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고조선의 두발에 대한 검토에 이어 삼국시대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런 후에 백제인들의 두발과 복식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들의 종족적 계통과 정체성을 구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끝으로 한국사 전반에서 頭髮과 復飾이 지닌 정체성 문제를 領域의 界線이 지닌 고구려 千里長城 축조 動機와 결부지어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2. 한국사에서의 辮髮 문제

한국은 역사시대 이래로 응당 상투를 틀었을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의심없이 그렇게 간주하는 의식의 저변에는 소위 箕子東來로 인한 중국 문명의 세례와 小中華 의식이 가세한 것이었다. 가령 『三國志』 滅條에 적혀 있는 "옛적에 箕子가 朝鮮에 가서 8條의 敎를 만들어 가르치자 문을 닫지 않아도 백성들이 도둑질 하지 않았다"²⁾라는 구절도 한 사례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변발 가능성을 최초로 지적한 이가 일본의 국민작가였던 故 司馬遼太郎이었다. 그는 좌담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저는 고대의 한국,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에는 변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요컨대 중국 중심부 이외에는 전부 변발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식 상투는 머리 앞 부분을 밀어요. 그것이 변발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여기 계시는 陳舜臣 선생의 공적이지요. 진 선생과 아우되시는 분이 함께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도쿠가와 쇼군을 비롯하여 다이묘도 모두 앞머리를 깎고 상투를 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 선생님이로 말하자면 변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³⁾

司馬遼太郎은 고대 한국인들이 변발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종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게 頭髮에 대한 풍속이다. 유목민족의 경우 剃頭辮髮을 하고 있다. 가령 禿髮氏의 경우 氏名을 통해 剃頭임을 알 수 있다. 실제 365년에 "선비족 禿髮椎斤이 죽었다"⁴⁾는 기사에 보듯이 독발씨는 선비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史記』 朝鮮傳의 다음 기사가 주목을 요한다.

燕王 盧綰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亡命했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북상투 [魑結]에 蠻夷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遼東의] 요새를 나와 涇水를 건너 秦의 옛空地인 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眞番과 朝鮮의 蠻夷 및 옛 燕·齊의 亡命者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王이 되었으며 王險에 도읍을 정했다.⁵⁾

5) 『史記』 권 115, 朝鮮傳

6) 李丙巖,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80쪽.

위의 기사에 보면 衛滿이 고조선으로 망명할 때 “魑結蠻夷服”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斗溪 李丙巖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衛滿이 중국인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차원에서 “魑結蠻夷服”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과 같은 두계 이병도의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注意할 事項이 있다. 滿이 朝鮮에 入國할 때에 ‘魑結蠻夷服’하고 왔다는 史記의 記事가 그것이다. 漢書 朝鮮傳에는 魑結을 椎結로 書하였으나, 실상은 마찬가지로, 古代朝鮮人의 男子結髮인 ‘상투’를 말한 것이니, ‘상투’의 樣式이 中國과 倭의 그것과는 달라, 특히 方帽(椎)와 같이 髻죽하다 하여, 魑結 혹은 椎結이라 한 것이다. 時代는 뒤떨어지지만, 魏志 東夷傳 韓條에 馬韓人의 男子結髮을 評하여 ‘魁頭露紒’(冠帽를 쓰지 아니한 ‘날상투’를 말한 것)라 한 것을 보면, 우리 古代社會의 南北의 結髮이 대개 같았음을 알 수 있다. 東亞에 있어서의 椎結民族은 古來로 우리 나라와 苗族(南越)뿐이었으니, 위의 ‘魑結蠻夷服’은 확실히 朝鮮式의 結髮(상투)과 衣服을 指稱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魏略의 胡服云云도 이를 簡單히 表現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衛滿一黨이 그러한 結髮과 服飾을 하고 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서 나는 그가 純粹한 漢人系統의 燕人이 아님을 주장하고 싶다. 혹은 그가 純粹한 漢人으로서 朝鮮人의 歡迎을 받기 위하여 朝鮮의 習俗(服飾)을 假裝하고 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疑心도 나지만, 그보다도 나는 그가 본시 朝鮮人系統의 子孫으로서 燕王의 亡命과 漢(官)軍의 征討로 인한 燕領內의 動搖를 契機로 하여 즉 그 틈을 타서, 本然의 姿態로 장식하고 集團의으로 무리를 이끌고 母國에 들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自然스럽고 合理的인 解釋일 것이다.⁶⁾

조선 仁祖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할 때 淸國 복장을 하였다. 의복 하사를 비롯한 정치적 행위에 보이는 의복은 자고로 복속 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위만이 망명할 때의 “魑結蠻夷服”은 歸巢本能이 아니라 고조선에 복속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병도는 망명시 衛滿의 頭髮을 가리켜 “方帽(椎)와 같이 髻죽하다 하여, 魑結 혹은 椎結이라 한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魑結’을 『漢書』 朝鮮傳에서는 ‘椎結’로 적었다. 그리고 ‘魑結’은 동일한 『史記』에서 남월왕 趙他를 비롯하여 西南夷傳(권 116)과 貨殖傳(권 129)에서도 보인다. 흉노에 항복한 李陵의 경우도 ‘胡服椎結’이었다.⁷⁾ 蒙古와 滿洲에서 정수리에만 손바닥만큼 머리를

7) 『漢書』 권 54. 李廣蘇建傳.

8)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 59. 盛葉記 6.

9) 民衆書林編輯局, 『全面改訂增補版 漢韓大字典』 2007, 2323쪽.

10) 동아출판사, 『동아 새국어사전』 1995, 940쪽.

11) 李道學, 『韓國史의 擴大過程과 女眞史의 歸屬 問題』 『한민족연구』 13, 2012, 179~200쪽.

12) 권태원, 『백제의 의복과 장신구』 주류성, 2004, 81쪽.

남겨 뒤로 땀아 드리웠다. 이것을 뒤에서 보면 마치 올챙이 같은데, 올챙이 모양이 방망이[椎]와 비슷하였기에 ‘椎髻’라고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⁸⁾ 어쨌거나 위만의 ‘魃結’은 중국 漢族과 구분되는 고조선인들의 두발 풍모였음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랬기에 ‘蠻夷服’과 併記된 것이라고 하겠다.

망명할 때 위만의 두발을 가리키는 ‘魃結’의 ‘魃’는 ‘몽치머리(추)’이다. ‘魃結’의 意味는 “머리를 뒤로 늘어 땀은 몽치 모양의 머리⁹⁾”라고 한다. 몽치는 ‘단단하고 짧막한 몽둥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魃’에는 ‘복상투’의 뜻이 있다. 복상투는 “아무렇게나 튼 상투/ 함부로 몽쳐 튼 여자 머리¹⁰⁾”를 가리킨다. 여기서 위만의 두발인 ‘魃’는 복상투가 아니라 머리를 뒤로 늘어 땀은 辮髮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조선시대 문헌에서 箕子의 敎化和 관련해 운위되는 ‘編髮’이야말로 변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위만이 틀었던 ‘魃’는 고조선의 두발 형태로서 여진의 두발과 부합한다. 여진의 조상이 고조선 시기의 肅慎이다. 종족의 정체성을 반영해 주는 게 頭髮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조선은 숙신과의 연관성이 엿보인다. 女眞史를 한국사에 편제시켜야 하는 근원적인 요인이기도 하다.¹¹⁾ 아울러 고조선의 종족적 계통은 물론이고 문화적 기반 역시 漢族과는 판이하게 구분됨을 가리킨다. 이 점에 있어서 衛滿의 “魃結蠻夷服” 기사가 응축한 정보는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백제의 두발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백제금동대향로에 보면 5인의 주악상 머리 모습은 禿頭에다가 오른쪽 귀언저리에 머리채를 끌어 모아 묶은 형식[兩角髻]에 속한다.¹²⁾ 즉 이같은 두발 양식은 剃頭辮髮에 속하는 것으로 역시 유목민족 사회의 두발 형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백제와 유목민족 사회와의 연관성이 방증되어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관련 근거들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우선 靺鞨吉支라는 백제왕의 호칭을 비롯하여 左·右賢王制에 이르기까지 북방 유목적인 요소들이 백제에서 확인되었다. 문헌적인 근거 외에 유물이 가세하였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4세기 후반~5세기대 귀고리나 마구류 가운데 모용선비계가 확인되었다. 위신재와 마구류에 있어서 鮮卑系가 확인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백제가 최소한 4세기 후반 이전부터 모용선비와 접촉했음을 뜻하는 동시에 兩者間의 지리적 인접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이와 관련해 청주 일원에서 출토된 선비계의 馬鐸 2점은 중국의 요녕성 북표시 西溝에서 출토된 마탁과 동일한 계통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청주 신봉동 고분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하는 鐵鍬의 존재였다. 동북과 철북은 한반도에서는 모두 5개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평양의 낙랑 유적에서 1개, 김해에서 3개, 그리고 청주에서 1개인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동북 2개는 부여족의 이동과 결부지어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도 했다. 반면 선비계의 북방적인 문화 요소는 백제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청주 지역에서 출토된 馬鐸과 鐵鍬의 존재는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戰士團의 墓地로 불릴 정도로

13) 『삼국지』 권 30, 동이전, 부여 조.

14)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조선전사』 3, 1979, 380쪽.

군사적인 성격의 부장품이 유달리 많았던 신봉동 고분의 성격과 결부지어 볼 수 있었다. 즉 청주 일원에서 확인된 북방적인 선비계 유물은 백제가 남방 경영과 관련해 이곳을 중시했음을 뜻한다. 교통의 要路인 천안에서도 선비계 마구류가 출토되는 현상과 결부지어 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문헌이나 유물을 통해 백제는 선비를 비롯한 북방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백제의 북방적 요소는 어느 면에서는 고구려와도 크게 구별되는 사안이기에 확실히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백제 사신이 중국을 방문한 근거로 남겨진 「양직공도」를 비롯한 모두 3종의 백제인 모습에는 체두변발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금동대향로에 보이는 오악사의 두 발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백제의 기원이 될 뿐 아니라 의복에 있어서 연관성이 확인되는 부여의 다음과 같은 사례가 도움이 된다.

국내에 있을 때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축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수놓은 옷·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그 위에다가 여우·살팽이·원숭이·검고 흰 담비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으며, 또 金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¹³⁾

위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여인들은 국내와 국외에 행차했을 때 복장이 서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백제인들의 氏는 扶餘氏·沙宅氏하듯이 본디 複姓이었다. 그런데 중국 사서에서 백제 王氏는 單姓으로 기재되었다. 그 이유는 백제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외교 목적일 때는 單字 氏를 사용했음을 뜻한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複姓은 이민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인 반면 單姓은 중국의 성씨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에 複姓에서 중국처럼 單姓으로 표기한 결과 扶餘氏가 餘氏로 기재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양직공도」 등과 같은 사신도의 두발과 금동대향로 오악사의 두발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물론 백제에서 체두변발이 주류는 아니었겠지만 종족의 기원과 관련한 두발로서 보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頭髮과 관련하여 고구려에서 부녀자들은 머리를 올렸고, 처녀들은 머리를 내렸다고 한다.¹⁴⁾ 백제에서도 처녀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을 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렸다.¹⁵⁾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婦人은 “땅아 내려진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올린다”¹⁶⁾고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던 우리 나라 여성들의 두발 풍습이 아닐 수 없다.

15) 『隋書』 권 81, 百濟條.

16) 『隋書』 권 81, 新羅國條.

17) 『三國史記』 권 5, 진덕왕 3년 조

3. 백제의 服飾

1) 服飾의 정체성

服飾은 그 종족이 처한 기후나 자연 환경을 비롯하여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체이기도 하다. 의복은 신분의 지표인 동시에 타 공동체와 구분 짓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言語와 諸事は 夫餘와 더불어 동일한 게 많다. 그 性氣와 衣服은 차이가 있다(고구려 조)”거나 “언어와 법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더불어 동일하나 의복은 다름이 있다(濊條)”라는 기사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증주고구려비문」에 보면 고구려가 신라왕과 그 신료들에게 의복을 하사하고 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복속 의례와도 관련 있는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신라 진덕여왕이 복속 의례로서 독자 연호를 폐기하고 당의 연호와 관복을 수용한 것처럼¹⁷⁾ 의복 자체의 성격은 그 국가와 종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제를 비롯한 삼국의 관모와 의복의 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족지적인 성격을 지닌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 관모와 의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국내에 있을 때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수놓은 옷·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그 위에다가 여우·살팽이·원숭이·검고 흰 담비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으며, 또 金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부여 조).

* 言語와 諸事は 夫餘와 더불어 동일한 게 많다. 그 性氣와 衣服은 차이가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국중 대회를 이름하여 동맹이라고 한다. 그 公會에서는 모두 수를 놓은 비단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大加와 主簿는 머리에 幘을 쓰는데, (중국의) 幘과 같지만 뒷면이 없다. 그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형태가 고깔과 같다(고구려 조).

* 언어와 법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더불어 동일하나 의복은 다름이 있다. 남녀 옷은 모두 曲領을 입고, 남자들은 넓이가 數寸이나 되는 銀花를 매어 장식을 한다(濊條).

* 그곳 사람들의 성질은 강인하고 용감하다. 머리카락을 틀어 묶고 상투를 밖에 드러내어 마치 예리한 兵器 같다. 옷은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발을 약간 높이 들어서 걷는다(韓條).

* 州胡가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언어도 韓

18) 『三國史記』 권 24, 고이왕 28년 조.

19) 『三國史記』 권 24, 고이왕 27년 조.

20) 이 부분의 서술은 李道學, 「三國의 相互關係를 통해 본 高句麗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2004 ;

『광개토왕릉비문연구』 서경문화사, 2006, 150~152쪽에 의하였다.

21) 『三國志』 권 30, 東夷傳, 夫餘條

과 같지 않다. 모두 鮮卑처럼 머리를 삭발하였으며, 옷은 오직 가죽으로 해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옷은 上衣만 입고 下衣는 없기 때문에 거의 나체와 같다(韓 條).

* 의복과 居處는 진한과 같다. ...의복은 청결하며, 머리카락은 길다(변진 조).

*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드러내고, 무명으로 머리를 묶었다. 그 옷은 넓은 폭으로 된 옷감을 다만 서로 연결하여 묶는데, 꿰메지는 않았다. 부인들도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거나 말아서 뒤로 묶었으며, 옷을 만드는 것이 단피(홀이불)와 같은데, 그 중앙을 뚫고 그곳으로 머리를 넣어 입는다(왜인 조).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부여에서 출원했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부여와의 풍속을 비롯한 문화 전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가령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조에서는 “言語와 諸事는 夫餘와 더불어 동일한 게 많지만, 그 性氣와 衣服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실제 부여에서 “金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고 하였지만, 고구려에서는 “大加와 主簿는 머리에 幘을 쓰는데, (중국의) 幘과 같지만 뒷면이 없다. 그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형태가 고깔과 같다”라고 하였다. 양국간에 있어서 관모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부여인들의 경우는 성정이 온유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고구려인들의 경우는 일도양단식의 급하고도 엄격한 면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衣服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어서 말한다면 부여와 고구려는 冠帽에서 차이가 보인다. 반면 夫餘의 金銀 冠飾은 백제의 金銀花 冠飾과 연결되고 있다. 金花飾烏羅冠을 착용한¹⁸⁾ 백제왕 冠帽의 金花飾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백제에서 6품 이상의 官人は 銀花冠飾을 착용하였다.¹⁹⁾ 실제 왕릉을 비롯한 백제 고분에서 金銀花 冠飾이 출토된 바 있다. 물론 고구려도 7세기대에는 관련 기록이 보이지만, 백제는 신분의 지표로서 상징성이 지대

22) 『隋書』 권 81, 高麗 條.

23) 『高句麗』 『李白集校注』 권 6

24) 『舊唐書』 권 199, 百濟 條.

25)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1999, 68쪽.

26) 『高麗史』 권 94, 姜邯讚傳.

27) 『隋書』 권 81, 高麗 條.

28) 『周書』 권 49, 百濟 條.

29) 리광희, 「고구려의 금속제 관모와 관모 장식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27, 2003, 21쪽.

30) 리광희, 「고구려의 금속제 관모와 관모 장식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27, 2003, 21~25쪽.

31) 이용범, 「高句麗의 遼西 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1959, 78~79쪽.

32) 猪熊兼勝, 「百濟・陵寺 출토 香爐의 디자인과 성격」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百濟 金銅大香爐와 古代東亞細亞』 국립부여박물관, 2003, 148쪽.

33) 『三國志』 권 30, 동이전, 부여 조.

34) 백제금동대향로의 인물상은 오악사 외에도 대부분 禿頭였다. 그리고 원편 얼굴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편의 머리채를 제대로 살피기는 어렵다.

한 冠帽과 관련해 계통적으로 부여와 연결된다.

2) 삼국시대의 冠帽과 衣服

백제를 비롯한 삼국의 관모와 의복의 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²⁰⁾ 우선 부여에서는 “金銀으로써 관모를 장식하였다”²¹⁾고 했다. 고구려에서도 “귀인은 冠에 紫色 비단을 사용하고 金銀으로써 장식한다”²²⁾라고 하여 귀인의 관모에 金銀으로 장식했다고 한다. 唐의 저명한 시인 李白이 지은 고구려 춤을 소재로 한 詩句 가운데 ‘金花折風帽’²³⁾라고하여 折風 관모에 장식한 金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백제왕은 “烏羅冠에 金銀으로 장식한다”²⁴⁾고 했다. 백제 무녕왕릉과 충청남도 부여 · 논산과 남원 · 나주 등지의 백제 고분에서 각각 출토된 金銀製 冠飾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²⁵⁾ 이렇듯 부여에서 비롯하여 고구려 · 백제 모두 지배층 신분의 관모에 金銀으로 장식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 현종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姜邯讚 장군의 머리에 金花 8가지를 꽂아 준 사실이 상기된다.²⁶⁾

여기서 머리 곧 관모에 金花를 꽂아 준 것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한편 고구려인들은 모자에 鳥羽를 꽂는다고 했다.²⁷⁾ 백제에서도 “그 冠의 양 곁에는 꼬리 긴 깃털을 꽂는다”²⁸⁾라고하여 고구려처럼 관모 양 곁에 새깃을 꽂는 풍속이 존재했었다. 신라에서도 깃털을 관모의 양 곁에 꽂았다고 한다.²⁹⁾ 의성 탑리 고분 · 천마총 ·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 등등에서 출토된 관모는 고구려의 영향과 그 연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고구려 관모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³⁰⁾ 고구려 고분인 龍神塚 벽화에 의하면 銳角三角形이 3개 연결된 관모 착용한 여인상이 보인다. 이러한 관모는 알타이 고분이나 돌궐을 비롯한 유목문화의 移入 흔적으로 볼 수 있다.³¹⁾

백제금동대향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긴 소매[長袖]의 큰 겹옷[大袍]을 입었다.³²⁾ 이러한 의복은 부여에서의 “白布大袂袍袴”³³⁾와 연결되고 있다. 즉 백제금동대향로의 인물들 복장은 부여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은 사비성으로 천도한 백제가 ‘부여’로 改號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찾고자 한 흐름과 연관된다.³⁴⁾ 그리고 고구려와 차이가 있다는 부여의 복장은 “白布大袂袍袴履革鞜”라고 하였다. 고이왕의 복장을 “紫大袖袍”에 ‘烏韋履’라고 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衣服은 부여와 부합하고 있다. 「양직공도」에 보이는 백제 사신은 左衽의 커다란 도포를

35) 李道學, 「梁職貢圖의 百濟 使臣圖와 題記」, 『百濟文化 海外調査報告書』 6, 국립공주박물관, 2008. ;

『백제 한성 · 웅진성시대 연구』 一志社, 2010, 452쪽.

36) 『周書』 권 49, 百濟 條.

37) 『隋書』 권 81, 百濟 條.

38) 『隋書』 권 81, 新羅國 條.

39) 『隋書』 권 81, 新羅國 條.

40) 『三國志』 권 30, 東夷傳, 夫餘 條.

41) 耿鐵華, 『中國 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2, 47쪽.

무릎을 약간 덮을 만큼 착용하였다. 관모 앞 부분은 지워져서 자세히 살필 수는 없으나 銀花 장식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포 밑에는 바지 부리가 넓은 開口袴를 입었다.³⁵⁾ 이러한 복장 역시 부여와 부합한다. 의복에 있어서 백제왕은 보라색 옷을 착용했다. 즉위를 나타내는 登極의 極은 北極을 가리킨다.

칠성신앙과 관련해 보라색 옷을 至高한 색깔로 간주하여 백제왕은 이러한 色服을 착용한 것이다. 반면 일반인들은 “그(백제)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려와 동일하다”³⁶⁾, “그(백제) 의복은 고려와 더불어 대략 동일하다”³⁷⁾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服制上 고려와 백제간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도 “의복은 대략 고려·백제와 더불어 같다”³⁸⁾라고 했으므로 삼국은 의복 체계가 거의 동일했던 것 같다. 그러한 신라에서 “色服은 흰색을 숭상했다”³⁹⁾고 하였다. 신라 박혁거세와 김알지의 출생과 관련한 동물이 각각 ‘白馬’와 ‘白鷄’인 데서도 그러한 정서가 엿보여진다. 이는 부여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한다. 부여에서는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옷은 흰색을 숭상했는데, 白布大袂·袍·袴가 있다”⁴⁰⁾고 했듯이 백색을 숭상했기 때문이다. 한국 민족을 ‘백의민족’으로 일컫는 것은 적어도 부여 이래의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白袍와 袴를 입은 이들이 눈에 많이 띈다고 한다.⁴¹⁾

한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騎馬人의 上衣은 다양한 여밈새를 하고 있다. 바지는 上衣의 통수에 어울리는 그리 좁지 않은 통으로 했고, 바지 부리를 좁혀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러한 복식은 기마인 외에 고구려 일반인들도 모두 입고 있는 것으로, 전국시대에 북방 민족이 입은 통이 좁은 고슴이나 三國·兩晉·南北朝時代의 袴褶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북방 민족처럼 모든 계층이 동일한 성격의 의복을 일률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다. 성별과 신분 및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저총 벽화에서는 주인공과 시녀들의 袍와 襦는 모두 左衽直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쌍영총 벽화에서 여자 주인공과 시중군이 함께 右衽直領의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衽形이 사회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준다.

약수리 고분벽화에서는 기마인과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살펴 볼 때 동일한 의복에서 좌임과 우임이 자연스럽게 혼용되었다. 이들 복장에서는 북방 호복 계통의 窄袖와 細袴는 보이지 않으며 삼국·양진·남북조시대 袴褶의 모양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구려 기마인과 수렵인의 복식 역시 북방계 호복 형태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장천 1호 고분벽화를 볼 때 고구려인들이 帶를 묶는 방향과 매듭의 모양이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스러웠지만, 帶의 넓이는 신분에 따라 달랐다. 또 고구려 복식에서는 袍나 襦에 帶를 매기도 하고, 매지 않기도 했다. 이는 북방 계통의 호복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帶를 착용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衽形에서는 좌임과

42) 박선희, 『한국 고대 복식—그 원형과 정체』, 2002, 308~519쪽.

43) 『三國史記』 권 20, 영류왕 14년 조.

44)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6, 319쪽, 註 6.

우임을 자유롭게 혼용하고 있어, 임형은 신분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밖에 삼실층 벽화에서는 주인공 부부의 襦나 袍의 소매 모양과 바지통이 모두 廣袖와 寬袴였다. 시중군들의 경우도 소매는 약간 좁으나 바지의 폭은 역시 寬袴로 북방 계통의 細袴나 窄袖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 삼국에서 모두 大口袴가 확인되고 있으며, 금동 신발 바닥에 釘을 달았는데, 이러한 신발은 중국이나 북방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⁴²⁾

4. 맺음말

두발과 의복은 종족의 정체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두발과 의복은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가 631년(영류왕 14)부터 16년간에 걸쳐 축조한 千里長城이 지닌 의미를 상기하고자 한다. 즉 "2월에 왕이 백성을 동원하여 長城을 쌓되 東北은 扶餘城에서 西南은 바다에까지 이르니 길이가 千餘里요, 통히 16년만에 준공되었다"⁴³⁾고 했다. 이러한 천리장성 축조의 동기를 "唐이 고구려 所立의 京觀을 헐었으므로, 王은 唐(唐이) 自國을 칠까 두려워하여 西境 방비의 目的으로 시작한 것이니"⁴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극히 현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당태종 이전인 통일제국 隋代 이래 중국인들은 遼東지역이 당초 중국 영역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곧 탈환해야 할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소위 四郡 지역이 그러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 唐은 고구려 영역 가운데 과거 한사군의 영역과 魏代 이후의 요동군을 수복지로 지목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구려는 自國의 世界 내지는 圈域 설정 개념으로 천리장성 축조를 단행한 것이다. 요컨대 중국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훗날 華와 夷의 界線이 되었던 것처럼 고구려 천리장성도 중국과 고구려를 구분 짓는 界線이라는 의미로 축조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아야만이 唐의 침공시 고구려 천리장성이 방어적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고구려 천리장성은 고구려 세계와 권역의 설정으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고, 唐의 침공 動機에 對應한다는 차원에서 그 築造 동기를 살펴야 맞을 것 같다.

이 같은 國境 의식과 마찬가지로 頭髮과 服飾 역시 종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뜻하는 일종의 界線 역할을 하였다. 또 그러한 두발과 복식이라는 遺制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조선의 두발 형태는 망명하는 위만의 “魑結蠻夷服”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 기사의 魑結을 복상투로 간주하였지만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었다. ‘魑結’로도 적혀 있는 이러한 두발은 올챙이 머리로서 剃頭辮髮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고조선인들은 중국인과는 구분되는 두발과 복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전통은 후대에도 계승되었다고 본다.

백제의 경우는 백제금동대향로의 五樂師는 禿頭에다가 오른쪽 귀언저리에 머리채를 끌어 모아 묶은 형식[兩角髻]에 속한다. 즉 이같은 두발 양식은 剃頭辮髮에 속하는 것으로 역시 유목민

족 사회의 두발 형태가 된다. 백제 건국세력의 정체성을 암시해주는 근거라고 하겠다. 실제 백제에서는 左·右賢王制를 비롯하여 물적 자료로도 북방적인 요소가 상당히 확인되고 있다. 복장에 있어서 백제는 부여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확인되었다. 백제 건국 세력이 부여에서 남하했음을 알려주는 물적 증거인 것이다.

특집 1

발표자 3

하남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김 상 보

(대전보건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하남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김 상 보

1. 들어가며

한성백제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식생활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33년에 시작한 논농사와 연계하여 쌀이 주식이 되어 지면서 형성되는 부식의 전개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생활문화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문헌적 자료가 없는 한 2000년 전의 실태를 유추해 낸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있는 문헌 자료를 최대한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를 볼 것이다.

2 전기(B.C 18~260)

1) 수전도작(水田稻作)과 식해(食醢)

다루왕 6년(33) 국남(國南)의 주와 군에 영을 내려 도전(稻田)을 만들게 하였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육도(陸稻)와 소형의 수전도작이 병행되던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전도작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수확량이 적은 육도가 잡곡이고 주식이 좁쌀이었던 청동기시대와 달리 수확량이 많은 수도(水稻)가 점차 주식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후 백제한성시대는 조세(租稅)로서 쌀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수확량이 많다 하더라도 현재 수확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보리콩·기장·조·호밀·밀·팥·녹두·삼·들깨 등도 여전히 중요한 작물로 재배되고 있었다.

수전도작이란 논농사이다. 이곳은 호수나 하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수전에서는 담수어업이 발전하여 식해와 젓갈가공이 병행되는 역사를 지닌다. 목축농경문화가 빵·버터·치즈라면 수전 농경문화는 쌀밥·식해·젓갈이라고 보아도 좋다. 백제전기의 식해는 한반도로부터 수전도작과 함께 일본으로 전해졌다.

2) 냉식(김치·젓갈·육포·어포·육회·어회·된장 등)

수전도작이 국가차원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쌀 재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넓은 평야는 논농사 뿐 만 아니라 밭농사도 발달하였음을 뜻한다. 조세로 거두어들이는 쌀은 잉여농산물이 되어 곧 부와 연결되었다. 중국의 사서가 백제에서만 특히 강조한 ‘토(土)·전(田)이 비옥하고 오곡·잡과(雜果)·채소·주례(酒醴)·효찬(肴饌)·약품 등이 많다. 화식하지 않는다’는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다. 화식(火食)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식(冷食) 즉 발효음식과 회를 먹었음을 뜻한다. 백제사회는 이미 초기부터 유교문화 속에 있었다. 밥과 한 조가 되는 발효음식을 「예기」 「내칙」으로 기준하여 보면 김치류인 저(菹)와 식해·젓갈 그리고 육회(肉膾)와 어회(魚膾)이며, 더 덧붙인다면 육포와 어포도 들 수 있다.

「예기」 속의 육장(肉醬)에 속하는 해(醢)는 한반도에서는 어장(魚醬)인 젓갈이 육장을 대신하여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이족이 만들어 먹은, 생선에 소금만을 넣고 발효시킨 어장에 대한 기록이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있다.

옛날 한 무제가 오랑캐를 쫓아 해변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향기가 나서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하였더니 어부가 구덩이에다 어장을 만들고 있었다. 흙을 덮어 밀봉한 후 향기가 올라오면 먹는데 맛이 있었다. 오랑캐를 쫓다가 얻게 되었으므로 축이란 이름을 붙였다. 생선 내장으로 만든 장이다. 조기·상어·숭어 세 종류의 위와 장 및 알집을 깨끗이 씻어 약간 짭 정도로 흰 소금만을 뿌려 그릇에 넣고 밀봉하여 햇빛에 놓는다. 여름에는 20일, 봄·가을에는 50일, 겨울에는 100일이면 익는다. 먹을 때는 생강·초 등을 넣는다.

한 무제가 동쪽의 오랑캐인 동이(東夷)를 쫓다가 동이가 만들어 먹었던 조기·상어·숭어 등의 내장에 소금을 넣고 발효시킨 젓갈을 먹어보고 「축이(鮓鯢)」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이야기이다. (생선내장+소금)으로 발효시킨 젓갈을 축이라고 한 것은 동이가 중국민족이 먹는 해와는 다른 특별한 해를 먹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축이에서 보여주는 단순 소금 절임에 의한 발효는 당시 동이족집단의 보편적인 식품가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축이」가 (생선내장+소금)이었듯이, 저류(菹類, 김치류) 또한 (채소+소금)이었을 것이다.

「축이」는 「예기」 「내칙」에서의 육장이 어장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 어장 젓갈은 백제가 건국되기 이전의 선주민이었던 마한 사회에서 또는 훨씬 그 이전부터 이미 먹고 있었을 것이며 유교의 유입과 함께 어장 젓갈이 반찬의 한 종류로서 정례화 될 때 우리는 ‘해(醢)’하면 ‘어장(魚醬)’을 지칭하게 되었다.

「축이」가 이러하다면 동이족들이 먹었던 김치류는 염저(鹽菹, 채소+소금)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민요술」이 쓰일 당시 저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단순 소금 절임인 「염저」 다른 하나는 소금에 곡물을 첨가한 「곡물저」, 또 다른 하나는 「초절염저」이다. 「제민요술」은 소금에 곡물을 첨가한 저에 대하여 축인(蜀人)이 담가 먹던 방법을 채택한 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축의 갓을 재료로 하여 담근 축개합저법(蜀芥鹹菹法)과 오이를 재료로 하여 담근 축인장과법(蜀人藏瓜法)을 기술하고 있다. (생선+소금+쌀밥)으로 구성된 것이 식해(食醢)인 자(鮓)라면, (채소+소금+곡물)로 만든 것은 「축개합저」이다. 다시 말하면 주재료에 소금과 곡물을 넣어 발효시킨 「축개합저」와 「자」는 중국 남쪽의 문화이며, 그 문화의 중심센터는 축개합저법과 축인장과법으로 유추했을 때 축(蜀)의 중심지였던 사천(四川)이다. 사천에서 「축개합저」와 「축인의 장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이 화북 황토지대의 밀 재배지인 분식(粉食)을 위주로 하는 지역과 달리 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는 입식(粒食) 지역인 것에 기인된다. 입식인 밥이 차지하는 부식의 개념과 분식이 차지하는 부식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밥과 국이 한 조가 되고 있었던 시대의 밥 반찬으로서 발달한 것이 「축개합저」와 「축인의 장과」이며,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은 축시대 때 활발한 교류로 산동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훨씬 그 이전부터 사천에서는 갓과 오이로 김치류인 저를 만들어 먹고 있었다. 『제민요술』의 「축개합저」와 「축인의 장과」는 축시대 훨씬 이전부터 교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사천, 사천·동북아시아로 교류한 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한랭한 기후지역이 재배 적지가 되어 이곳에서 재배화·식량화된 배추·순무는 만주일대에서 패자로서 존재해 있었던 고조선·부여인들의 식량으로서 활용되었다. 이들은 냉혹한 북방 기후 조건에 순응해 살면서 각종 저장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견뎌낸 저장 가공 식품이 발달한 동이족이다. 조와 보리를 주 작물로 하여 입식(粒食)을 먹었던 고조선·부여인들이 부식으로서 배추·순무로 담가 먹던 김치류 저(菹)는 축이가 (생선내장+소금)이었듯이 저(菹) 또한 (배추 또는 순무+소금)이었을 것이며, 곧 『제민요술』속의 「염저」이다.

사천의 「곡물저」와 동북아시아의 것으로 보이는 「염저」 그리고 중국인들의 「초절염저」가 함께 기록된 『제민요술』의 저는 당시 활발했던 인구이동과 문화교류에 의하여 탄생된 김치문화 산물이다. 곧 당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동이족은 『제민요술』의 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김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제민요술』속의 저 중의 하나가 일본에 전해졌는데, 이것에 백제 사람인 수수허리(須須許利)란 이름이 붙어져, 수수보리지(須須保利漬)가 되었다. 수수보리지는 다름 아닌 축인이 담가 먹었던 것과 같은 유형의 「곡물저」이다.

3) 시루와 떡·술

쌀의 풍양을 위해 사슴을 잡아 제사지낼 때 쌀로 지은 음식도 예축음식으로서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시루라는 용기를 이용한 지에밥(蒸飯) 또는 떡이다. 시루는 제기(祭器)의 용도로서 출발한 조리기구이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 시루가 사용되었다. 육도를 재배했던 이 시기에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날을 위하여, 시루라고 하는 찜기를 이용하여 지에밥을 찌서, 지에밥은 시루채신에게 올려지는 공물(供物)이 되거나 특별한 날에는 밥·떡 혹은 술의 재료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곡식에 비해 맛이 탁월한 옥도는 수확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가치가 상승되어 진중되었다. 마한 사회에 들어서면서 옥도와 수도가 병행되어, 전 시기보다는 쌀의 수확량은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은 아니었다. 옥도와 수도에서 생산된 쌀 모두는 영적(靈的)인 음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찹쌀은 시루에 찌면 찰밥지에밥이고, 이것을 절구공이 또는 떡메로 치면 현재의 인절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시루를 사용했던 청동기시대에 이미 인절미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옥도와 수도가 전부 가능했던 마한 사회에서는 시루에 찌서 시루채 공물(供物)이 되거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찹쌀떡 혹은 시루떡이 곧 공물이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수전도작과 함께 보급된 멍쌀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제분이 필수적이다. 한대(漢代)에는 멧돌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진(秦)·한대에 제분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달한 견직물인 사(紗)로 만든 체와 함께 한대의 멧돌은 상류계급의 전용물이었다. 멧돌과 체가 백제 전기에 유입되었을 것이지만 절구와 절구공이도 청동기시대 이후 여전히 곡물 제분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멍쌀가루를 시루에 담아 찌면 시루떡이 되거나, 시루 떡을 다시 떡메로 치면 절편과 가래떡을 만들 수 있다. 신라 유리이사금 원년(24)의 ‘떡을 깨물어 잇자국으로 이 빨의 수를 헤아려 우리가 왕위에 올랐다’에서의 떡은 인절미 또는 절편류로 설명이 가능하다. 완성된 인절미일 경우 서로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절미용 고물의 재료는 기루왕 23년(99)의 ‘운상추숙(隕霜秋菽)’에서 나타나듯이, 지대한 관심 속에 등장하는 콩이다.

한편 시루를 사용해서 찐 지에밥은 술의 원료가 된다. 백제는 주례효찬(酒醴肴饌)이 많다고 하였다. 다루왕 11년(38)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성이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하였다. 국가의 금주령에 의하여 술 빚는 것이 규제 받을 정도로 백제사회는 초기에 이미 보편적으로 술을 빚고 있었다.

다루왕 6년 이후 수전도작의 보급·확대에 따라 이 시기에 자비(煮沸)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벽면을 따라 판석을 터널형식으로 잇대어 연도를 만든 형태의 안정된 부뚜막이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다. 부뚜막의 보급에 따라 시루 또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풍납토성에서 발견되는 시루의 밑 지름은 15cm에서 23cm의 비교적 큰 찜기이다. 구연부가 넓은 발(鉢)형의 경질무문토기인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이다. 영산강유역이나 낙동강유역의 시루보다 기능이 향상된 형태인데, 이때 시루 밑에 붙여 물 끓이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는 장란형(長卵形)의 항아리였다.

4) 세시음식

백제한성시대에는 역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이왕(234~298) 때 이후로는 정월로 제사시기를 고정하여 대단(大壇)을 쌓고 천지와 산천에 제사지냈다. 이렇듯 정월이 세시(歲時)가 되었

다는 것은 동지·하지·춘·하·추·동과 같은 천체의 운동을 추산하여 세시를 정하였으며, 각 절기마다 합당한 생활의례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의례에서는 각 의례의 성격에 맞는 음식이 공존하였을 것이다.

씻나락 담그기, 묘판 만들기, 씻나락 뿌리기, 모내기과 같은 파종의례와 농신제(農神祭)·꽃굿·기우제와 같은 성장의례, 수확이 끝난 다음의 제천의식인 수확의례 및 세말(歲末)부터 정월상원(上元)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예축 의례에서, 거두어들인 시절 음식을 사용하여 신께 감사드리고 음복하는 것에서 세시음식이 생겨났다. 수전도작의 전개와 더불어 더욱더 풍성한 세시음식문화가 전개되었다.

5) 식자재

이 시기에는 기장·조·보리·콩·벼·호밀·밀·팥·녹두·삼·들깨·대추·밤·잣·배·복숭아·오얏·호두·도토리·가래·살구·산머루·참외·다래·오이·말·소·돼지·개·사슴·멧돼지·닭·꿩·까마귀·오리·기러기·도미·피·뽕·고동·참돔·숭어·가물치·잉어·넙치·가오리·거북·자라·수달·굴·재첩·작은 말 조개 및 건어물 등의 어염(魚鹽)이 활발한 상거래에 의하여 식자재가 되었다.

3 후기(A,D 261~475)

1) 차 생활

백제 한성시대 후기에 이르면 서진(西晉, 265~317) 및 동진(東晉, 317~420)과의 공적 교섭이 본격화된다. 근초고왕 때에는 황색 깃발을 사용하여 열병할 정도로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한다.

근초고왕 8년(353) 무렵에 담로제가 성립되었다. 담로의 각 수장들을 포함한 귀족층들은 서진(西晉)과 동진(東晉)에서 수입한 중국제 기용(器用)들을 생활용기로 사용하였다. 서진의 청동제 초두(鑪斗)·청자소완·반구호(盤口壺)·이부호(耳附壺)·옹(甕)·완(盃)·계수호(鷄首壺)·타호(唾壺)·양형기(羊形器)·연(硯) 등이 한성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들은 백제 귀족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것들인데, 기종 구성은 중국의 육조 도성 지역의 황족이나 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도자기 한 조에 해당된다. 이들 한 조가 백제지역의 단일 무덤에 전부 부장되고 있다. 백제 한성시대 후기의 귀족들은 중국 귀족에 버금가는 화려한 음식 생활 문화를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의례에서 신성한 물로 상징되는 차[茶]는 다게(茶僞)로 알려진 다공양(茶供養)이 수반된다. 그럼으로 차는 불교의 번성과 더불어 항상 불교의례와 함께 존재하였다. 기록에 의존하면 백제 불교는 침류왕 원년(384) 호승(胡僧) 마라난타가 동진으로부터 들어온 이후 왕실불교로

시작된다. 왕은 이듬해인 385년 10명의 승려를 출가시켜 득도케 할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장려하였다.

한편 동진 때 왕실 및 귀족들의 기호로서 차를 마시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찻잎과 쌀풀을 섞어 다병(茶餅)을 만들고, 차를 마실 때는 붉은색이 나도록 다병을 볶은 다음 빵아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瓷器)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파·생강·굴 등을 곁들여 다갱(茶羹)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다경(茶經)』에 나오는 낙양집시(洛陽集市)의 다병과 차죽(茶粥)일지도 모른다.

서진에서의 차 생활이 동진에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술이 깨고 정신을 맑아지게 하기 위하여 다갱을 마셨다. 이 다갱은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 계수호(鷄首壺)라고 하는 병에 담아 따라 마셨는데, 이 계수호가 백제의 담로지역 수장(首長)에 해당하는 고분군에서 발굴되었다.

2) 철제술 등장과 끓여 조리하는 밥 등장, 된장의 상식

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흙 술이고, 다른 하나는 철제 술(鐵釜)이다. 철제 술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점차 자비용기로 대체되었다. 장란형 토기의 기능을 계승한 철제 술은 시루와 결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자비용기로, 토기로 조리할 때보다는 열전달 효율이 뛰어난 조리기구이기 때문에 대량의 식품을 훨씬 쉽게 조리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찜·볶음·튀김·삶음·조림·취반(끓여서 조리하는 밥)과 같은 다양한 찬품(饌品)이 가능한 만능조리기구로서 대량화·신속화가 가능하여 한성시대 전기보다 단채급식이 훨씬 쉽게 이루어졌다. 조리할 때 덜 수고롭게 됨에 따라 음식의 가짓수도 다양화 되었을 것이다. 시루 역시 발전하여 회청색 경질의 경도를 갖게 되었다. 또 심발형 토기는 잔발화로 진행하였다. 그래서 심발형 토기는 자비용기보다는 식기가 되어 완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백제의 사료는 아니지만 고구려 무용총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글인 '된장'에 관한 글로 미루어 백제사회 역시 메주발효 보다도 더 복잡한 술을 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주발효와 이를 이용한 된장제조기술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나오는 글

33년(다루왕6)에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논농사는 이후 조세로서 쌀을 거둬 만큼 주식으로 쌀밥이 되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주식이 쌀밥, 부식이 젓갈·식해·육회·어회·육포·어포·김치로 구성된 식생활이 이루어졌는데, 김치와 젓갈은 (채소+소금) (생선+소금)이라는 단순 소금 절임에 의한 가공음식으로, 이러한 가공방법은 기존에 중국에서만 들어 먹던 가공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한편 청동기시대부터 출토하기 시작하는 시루라는 용기는 찹쌀지에밥·술·인절미·절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리 기구였다. 시루는 한성백제 전기(前期)에 와서도 여전히 이들 찬품들을 널리 보급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월을 세시(歲時)로 하는 역법(歷法)이 사용됨에 따라 시루를 이용하여 각종 떡 등을 만들어 명절음식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성백제 후기에 이르면 철제 솥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시루에 찌서 해먹는 밥(지에밥) 대신 철제 솥에 쌀과 물을 넣고 끓여 조려서 해먹는 소위 취반 형태의 밥 짓기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 된장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백제 역시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된장을 상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서진 및 동진과의 적극적인 교류는, 이들 지역 귀족들이 사용하던 당시의 고가 기용들이 수입되었고, 고가의 기용 속에는 차와 관련된 계수호라는 병도 있기 때문에, 백제 고위 관료들도 불교와 연계하여 차 생활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상보, 『제민요술』 김치의 계보적 연구, 『四川文化』 四川研究會, 2006
- 김상보,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 광문각, 1997
- 김상보, 『조선왕조훈례연향음식문화』, 신광출판사, 2003
- 김성남, 「백제한성기남방영역의 변천」, 『백제의변경』,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5
- 노중국, 「금강유역의 백제 영역화와 문화적 변화」 『4·5세기 금강유역의 백제문화와 공주 수춘리유적』,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2005
- 박경신, 「한반도 선사 및 고대취사도구의 구성과 변화」, 『선사고대의 생업경제』, 복천박물관, 2005
- 박순발, 「공주 수춘리 고분군 출토 중국자기와 교차연대문제」 『4~5세기 금강유역의 백제문화와 공주수춘리 유적』, 충청남도역시문화원, 2005
- 복천박물관, 『선사고대의 요리』, 2005
- 신희권, 「풍납동 백제왕성 백제토기의 형성과 발전」 『서울 풍납동 백제왕성연구 국제학술세미나』, 동양고고학연구소, 2003
- 서정록, 『백제 금동대향로』, 학고재, 2001
- 이성우, 〈중·한·일에서 저채류의 변천과 교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논문집》 9, 1975
- 조유진, 「풍납토성과 하남위례성」 『서울 풍납토성 백제왕성연구 국제학술세미나』, 동양고고학연구소, 2003
- 『周書』
- 『地史』
- 『漢書』
- 『後漢書』
- 『梁書』
- 『三國志』
- 『隋書』
- 『三國史記』
- 原田信男, 『コメを選んだ日本の歴史』, 文化新書, 2006
- 石手直道, 『魚醬となれずしの研究』, 岩波新書, 1990.

특집 1

발표자 4

漢城百濟의 하이테크 기술

오 순 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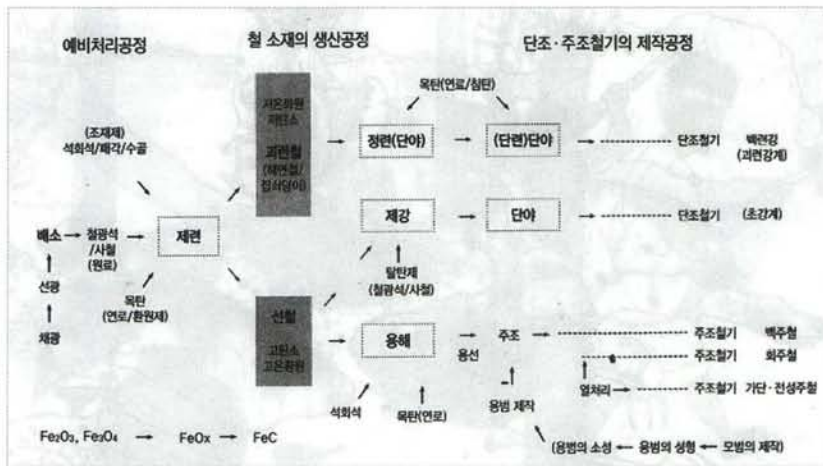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界線으로서 韓國史 속 百濟人들의 頭髮과 服飾

오 순 제

1. 타타라제강법과 초강의 제조기술

일본에 제철기술이 전해진 것은 王仁박사와 함께간 卓素¹⁾라는 인물이다.²⁾ 백제의 제철기술을 타타라(たたら)제강법라고 부르고 있다. 강철을 얻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제철로에서 녹여 선철을 얻고 이것을 정연로에서 다시 녹여 강철을 얻어냈던 2가지의 공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번의 공정으로써 沙鐵에서 玉鋼이라고 부르는 강철의 덩어리를 얻어내는 놀라운 하



[그림 1] 製鐵과 製鋼의 프로세스(『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11)

1) 진시황 당시 조나라가 멸망 당한후 사천으로 끌려간 卓氏는 임공산의 철을 캐어 부자가 되었다고 하며 노나라의 程鄭도 철강주조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현재 燕나라의 제철기술은 中山國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중산국은 동이족의 일파이며 동이족의 수장이었던 蚩尤가 銅頭鐵額이었다는 사실과 鐵의 옛글자가 “동이족이 썼던 금속”을 나타내는 “鐵”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卓氏 또한 조나라에 점령당한 중산국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아울러 백제의 卓素는 이러한 탁씨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윤적이 지은 『東史年表』(보문관, 1915)에는 마한의 첫 번째 왕이 卓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들은 연나라에서 망명한 衛蕢에게 쫓겨서 한강이남으로 들어온 것이기에 이러한 개연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테크 기술이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맥이 끊어졌으나 김익홍, 오순제, 노태천의 연구에 힘입어 한정옥이 복원시켰다.³⁾

특히 백제가 왜왕에게 하사한 칠지도가 현재 일본의 石上神宮에 보관되어있는데 나라문화재 연구소에서 七支刀에 대한 정밀한 물리적 조사를 행한 결과 沙鐵을 원료로 했으며 Ti를 함유한 양질의 철로 제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⁴⁾ 이것 또한 타타라제강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일본도는 사철을 이용한 타타라제강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칠지도가 제작된 지역은 필자는 사철이 풍부한 서산군 지곡면 도성리의 쇠팅이 일대였음을 밝혔으며 이곳은 한성백제시기 부장리고분군의 주인공이 서산과 태안지역의 풍부한 사철과 소금을 관장하던 담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와 노태천 교수가 이곳을 조사해보니 간척이 많이되어 없어지긴 하였어도 현재도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 사철을 채취할 수 있었다.⁵⁾

고 분 번 호	유물 이름	길 이	Ti 함유량
2호분 7호 토광묘	목병대도	50.8cm	1.00%
2호분 7호 토광묘	목병대도	50.8cm	0.72%
4호분 5호 토광묘	목병대도	62.0cm	1.00%
5호분 1호 토광묘	삼엽문환두대도	74.0cm	0.46%
10호분 1호 토광묘	소환두대도	79.0cm	0.69%
12호분 1호 토광묘	삼엽문환두대도	77.4cm	0.75%
5호분 1호 토광묘	철모	31.4cm	0.76%

〈표 1〉 부장리고분에서 출토된 철기의 Ti 함유량 (손은아, 2011)

〈표 1〉에서 보듯이 서산과 태안지역을 장악하여 다스렸던 서산 부장리 백제고분에서 나온 6자루의 大刀에서 Ti가 1.00%~0.46%가 나왔고 鐵矛에서는 0.76%가 나와 이것들이 모두 沙鐵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⁶⁾

Ti를 함유하고 있는 사철은 연천 古南山⁷⁾의 산사철을 비롯하여 서해안의 소연평도⁸⁾에서 해

2) 『古事記』中卷, 應神天皇 16年'百濟国主.... 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又 貢上手人韓鍛, 名卓素, 亦吳服西素二人也。

3) 한정옥·노태천·오순제·김선호 공저, 『칼과 철』, 시몽, 2010. 7.

4) 鈴木勉·河内國平 편저, 『復元 七支刀-古代アジアの鉄・象嵌・文字』, 雄山閣, 2006. 29쪽.

5) 오순제, 「칠지도의 곡나철산과 한성백제시기 서산지역의 담로」, 『서산의 문화』 제24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2012. 12.

6) 손은아, 「서산부장리유적 백제 분구묘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학 위논문, 2011.

7) 조진동 외, 「京畿 連川 古南山地域 티탄 鐵鋼에 對한 磁力探査 研究」, 『조사연구보고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0

부호	유역명	출토 위치	유물 명칭	추정 연대	진철분 (Total Fe)	금속철 (Metal Fe)	산화 제1형 (FeO)	산화 제2형 (Fe ₂ O ₃)	산화 규소 (SiO ₂)	산화 루미늄 (Al ₂ O ₃)	산화 칼슘 (CaO)	산화 마그네슘 (MgO)	산화 나트륨 (Na ₂ O)	산화 칼륨 (K ₂ O)	산화 인산 (P ₂ O ₅)	산화 티탄 (TiO ₂)	산화 크롬 (Cr ₂ O ₃)	유황 (S)	인산염 (PO ₄)	탄소 (C)	바나듐 (V)	동 (Cu)	아연 (Zn)	비소 (As)	조제 성분	조제 성분	TiO ₂	주
14호	가평대성리유적	19호 주거지	철제	A1000 후반	46.16	0.09	50.08	10.21	26.16	5.34	0.93	0.74	1.62	0.70	0.05	0.26	0.04	0.048	0.49	0.19	0.01	0.01	0.01	(0.001)	35.49	0.769	0.006	1
14호	가평대성리유적	가평대성리유적	철제	A1000 후반	44.58	0.32	49.68	8.07	17.08	5.03	3.59	0.98	0.64	0.12	0.26	0.24	0.5	0.05	1.07	0.29	0.01	0.01	-	0.001	27.44	0.616	0.005	2
14호	가평대성리유적	가평대성리유적	철제	A1000 후반	54.50	0.77	45.39	26.38	13.68	3.92	4.95	0.64	1.10	0.39	0.07	0.26	0.01	0.03	0.444	0.08	0.01	0.005	-	-	24.69	0.453	0.005	3
14호	가평대성리유적	가평대성리유적	철제	A1000 후반	71.53	0.01	77.35	16.29	2.54	1.02	0.69	0.69	0.11	0.03	0.11	0.05	0.07	0.01	0.06	-	0.01	0.01	-	(0.001)	5.08	0.071	0.001	4
14호	가평대성리유적	가평대성리유적	철제	A1000 후반	49.74	0.14	28.81	38.90	3.48	3.66	0.04	3.70	0.02	(0.01)	0.38	18.51	0.07	0.002	0.04	0.01	0.29	0.01	(0.01)	-	10.90	0.219	0.372	5

《표 2》 시료의 조성표(大澤正己, 『가평 대성리유적』, 기전문화재연구소, 2009)

변사철이 확인되고 있고, 가락동 주민들에 의하면 어릴 적에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부근 탄천변의 모래에서 자석으로 사철을 채취하였던 것을 전해주고 있어 한성백제가 이들 지역에서 山砂鐵, 江砂鐵⁹⁾, 海邊砂鐵 등을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풍납토성에서 발굴된 釘과 용인수지지구에서 발굴된 鎌, 有蓋斧, 鏃 등에서 Ti가 나와 사철을 원료로 사용했음이 밝혀지고 있어¹⁰⁾ 필자는 이들이 그 부근의 炭川 변에서 나온 사철을 채취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 더구나 최근에 연천 삼꽃리유적에서 대규모의 제철관련유적이 나오고 있다. 노시설 6기와 정연단야로 1기와 단야로 9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노벽편, 모루, 단조박편, 슬래그, 철괴, 목탄 등이 확인되고 있어¹²⁾ 연천 고남산의 산사철 또는 그곳에서 흘러내린 사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제를 건국한 온조집단이 출발한 줄본부여 지역이 이미 중국 한나라로부터 제철 및 철강기술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는데, 최근 김포 윤양동에서 나온 12호분에서 나오는 금제이식과 이조돌대주조철부가 우수 노하심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하며, 가평대성리유적의 이조돌대주조철부와 더불어 환두도와 철침은 우수노하심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¹³⁾으로 보고있으며 특히 수혈 44호와 4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소찰은 우수노하심 M67호묘에서 출토된 찰갑의 소찰과 가장 흡사하다.¹⁴⁾ 이것은 백제의 제철기술이 부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장호완, 「소연평도 및 고남산 지역에 나타나는 함티탄 자철 광상들의 지화학적 특징 및 광상학적 성인연구」,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 과학기술부, 1985

9) 남한강변 구릉에 자리잡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대성리유적(김원룡 외, 『양평 대성리유적 발굴보고』, 『八堂·昭陽 墨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4)에서도 쇠로 만든 도끼가 4점, 호미편 1점, 화살촉 7점과 많은 양의 슬래그(鐵滓)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초기철기~원삼국시대(백제초기)에 이르는 冶鐵址로 그 부근에는 많은 사철이 분포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 나오는 江砂鐵을 원료로 冶鐵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반정천변의 앞은 구릉에 있는 화성시 반월동의 백제시대유적에서 철괴 2점이 나왔는데 분석 결과 TiO₂ 0.27%, ZrO₂ 0.11% 등이 나와 沙鐵을 원료로 이용하여 철을 제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화성 반월동유적』,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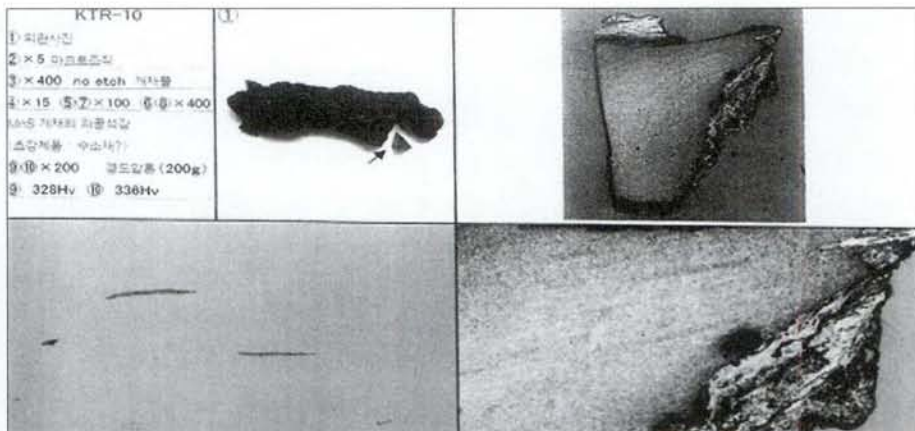
10) 신경환 외, 『백제철기 제조공법의 특성』,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제』대의 정치적 함의, 학연문화사, 2008)

11) 오순제, 앞글, 2012, 12.

12) 『연천 삼꽃리유적』,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0, 5.

13) 김일규, 『한반도 중부지역 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5.

14) 『가평 대성리유적』, 경기문화재연구소, 2009, 3.



[그림 2] 초강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평대성리유적(2~3세기) 출토 철괴(KTR-10)

더구나 가평의 대성리유적에서 출토된 철괴(KTR-10)가 초강이었음이 大澤正己에 의해 확인되었다.¹⁵⁾ [그림 2]는 그가 확인한 가평대성리유적에서 출토된 철괴의 현미경조직 사진이다. 이 유적은 한성백제 초기인 AD2~3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곳 가평대성리유적에서 출토된 12점의 철관련 유물을 조사한 大澤正己는 “금번에 조사했던 12점의 제공된 시료에서는 저온환원제철법에 근거한 괴련철의 발견은 전무하였으며, 대성리유적의 단야조업은 주로 주조철부의 파손품을 원료철로 하였다. 이들 주조철부는 ①저온지속가열(annealing, 설담금) 탈탄품: 가단주철(二條突帶斧: 村上 1998 III식)과 ②비탈탄품(梯形斧團含范: 村上 II식)의 2종류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분석한 철괴(KTR-10)의 매크로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Photo.9의 ②로 나타낸다. 단면의 탄소 분포는 대단히 균등해서 전면 펄라이트정출공석강(0.77%C) 이상의 급이다. 또 대형 개재물은 존재하지 않는 매우 청정한 강철인데, 고온환원제철법에 근거한 강철로 상정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노태천은 여기에서 ‘고온환원제철법에 근거한 강철’이 바로炒鋼임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大澤正己는 KTR-10에 대한 현미경조직 사진 자료(Photo 9)에서 ‘⑥⑧x400 MnS 개재의 과공석강(초강제품: 수소재)’라고 하였다.¹⁶⁾ 이것에 대해 노태천은 가평대성리에서 출토된 철괴(KTR-10)의 현미경조직은 비금속개재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포함된 비금속개재물도 단타로 길게 늘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炒鋼으로 판단하였다.¹⁷⁾

이와 아울러 한성백제시기에 해당하는 오산 수청동고분군에서 출토된 3세기 말부터 5세기 전반대에 해당하는 6점의 환두대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炒鋼¹⁸⁾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이 중에서 3세기말의 이른시기에 제작된 4지점 2호 목관묘에서 나온 환두대도만이 반복적 겹침단

15) 大澤正己, 「가평대성리유적 출토철관련유물의 금속학적조사」, 앞책, 2009, 304~345쪽.

16) 大澤正己, 앞글, 2009.

17) 노태천, 「한 · 중고대 제철기술의 전개과정」, 『한국고대의 철기문화』, 포항종합제철소, 2013년 12월 발간예정.

18) 중국 한나라에서 개발된炒鋼法은 선철탈탄강법으로 2%이상의 탄소함량이 높은 鎔鉄을 휘저어 공기와 반응시키면서 철광석 알갱이를 투입하여 2%이하로 탄소함량을 낮추어 양질의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조와 같은 일반적인 대도의 제작기술에 의해 제작된 것이고 나머지 5점은 재질이 불균일한 초강을 소대로 대략적인 성형단조를 하여 부장용 환두대도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 되었다. 이것은 백제가 3세기 후반에 침탄과 반복단접단련 그리고 담금질 처리를 통해 실용적인 환두대도에 대한 제작기술체계를 이미 완성하였고, 그이후 부장용 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모양이나 장식에 비중을 둔 대도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분묘에 매납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강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초강 생산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풍부한 강소개를 사용하여 다양한 성질을 가진 철기를 대량으로 제작할수 있는 고대의 철기문화 단계로 발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¹⁹⁾



〈사진 1〉 오산 수청동 백제고분의 환두대도 (신경환, 앞글)

2. 천왕사목탑과 동사목탑

백제는 한성시기의 침류왕 원년에 인도의 승려인 마라난타가 양자강 이남에 자리잡고 있었던 동진을 거쳐 해로로 백제의 수도에 도착하여 하남위례성의 남쪽에 자리잡은 한산에 사찰을 지었다²⁰⁾고 전한다. 이 당시 왕궁의 원찰로 추정되는 천왕사지가 백제문화연구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필자가 고려시대 최대의 철불인 광주철불이 이 사찰에 있었던 불상이었던 것과 고려 왕건에 의해 원종국사가 주지로 있었음²¹⁾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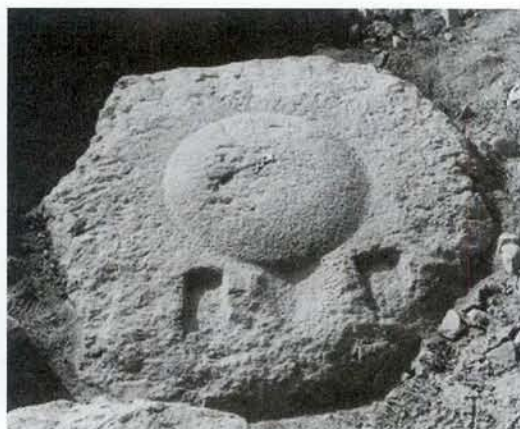
이 절터를 발굴하여 목탑의 심초석이 상,하로 발굴되었고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와당과 요지가 출토되었다. 상부의 목탑심초석은 사리공이 있지만 하부의 목탑심초석은 사리공이 없고 중심기둥을 세울때 사용한 보조기둥을 받치기 위한 홈이 옆구리에 두 개가 파여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목탑심초석들은 대부분 사리공을 구비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발굴된 고구려 주몽의 능사였던 정릉사 목탑심초석은 사리공이 없다. 이것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주몽의 재궁을 국내성에서 옮겨 능을 구축하면서 같이 만든 절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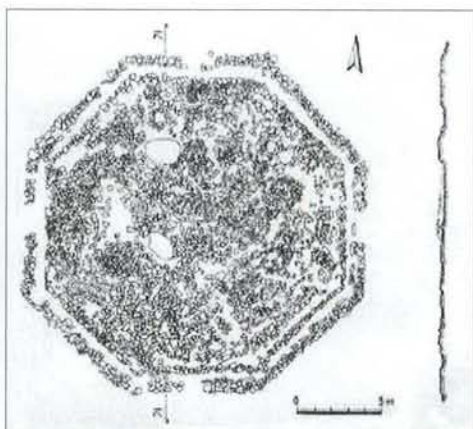
19) 신경환, 이남규 외, 「오산 수청동 분묘군 출토 환두대도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연구」, 『오산 수청동 백제 분묘군 V』,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2.12.

2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枕流王 卽位年 9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王迎之致宮內禮敬焉佛法; 2年 2月 創佛寺於漢山度僧十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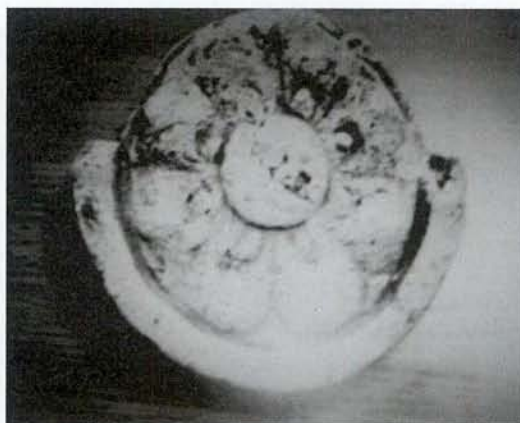
21) 『麗州 高達院 元宗大師惠眞塔碑文』 (李智冠, 『校勘譯註 麗代高僧碑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太祖大王大王以大師玄道周行法身圓對苾芻請廣州天王寺遂從之住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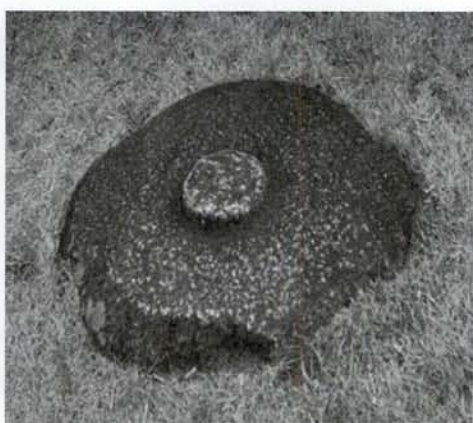
〈사진 2〉 천왕사 하부 목탑심초석



〔그림 3〕 정릉사 목탑심초석



〈사진 3〉 천왕사의 백제시대 와당



〈사진 4〉 백제사의 돌출된 내진용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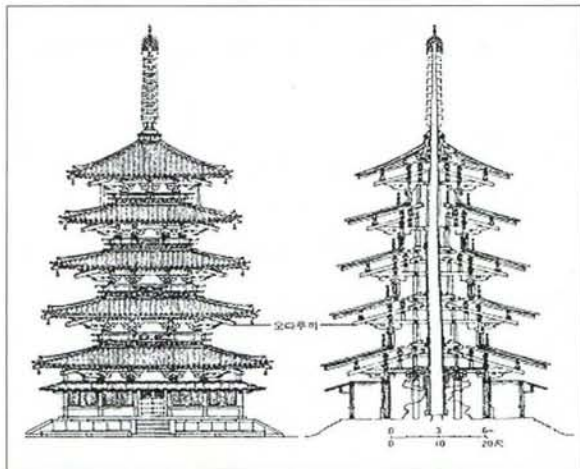
이곳 천왕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보면 공민왕 당시 신돈이 천왕사의 탑에 모셔져있었던 불사리를 개경으로 모셔갔다²²⁾는 기록이 나오고, 세종실록에도 천왕사탑의 불사리를 왕궁으로 모셔갔다²³⁾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불사리는 자장율사가 모셔온 불사리를 나누어 모신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암,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양산 통도사 등의 5대 적멸보궁이 있고 최근 선산의 도리사에서 신라에 불교를 전해준 고구려 아도스님이 모시고 온 불사리가 발견되어 모셔져 있다. 그 외에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의 비슬산의 용연사에 있는 불사리는 임진왜란 때에 양산 통도사, 금강산, 치악산 각림사를 거쳐 용연사에 모셔지게 되었다. 건봉사에는 진신치아사리 3과를 모셔져 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이 끝난후 일본에 사신으로 간 사명대사가 그들이 훔쳐간 불사리를 찾아와 모신 것이다.

22) 『高麗史』 卷132, 列傳 46, 叛逆 6, 辛旽: 旽與宰樞迎廣州天王寺舍利于王輪寺王率百官往觀.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 15年 4月條: 辛旽與宰樞迎廣州天王寺佛舍利置之王輪寺.

23) 『世宗實錄』 卷第112, 28年 4月 23日 庚申條: 納廣州天王寺舍利十枚于內.

이렇게 볼때 천왕사 모셔져있던 불사리는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를 떠나올 때부터 모시고온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불사리로서 이러한 불사리를 모시위해 백제의 왕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탑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탑 기술이 불교로 건너가 세계 최고의 목조건물인 법륜사 목탑으로 남아있게된 것이다.



[그림 4] 일본 나라의 法隆寺 5층목탑



<사진 5> 백제건축회사 금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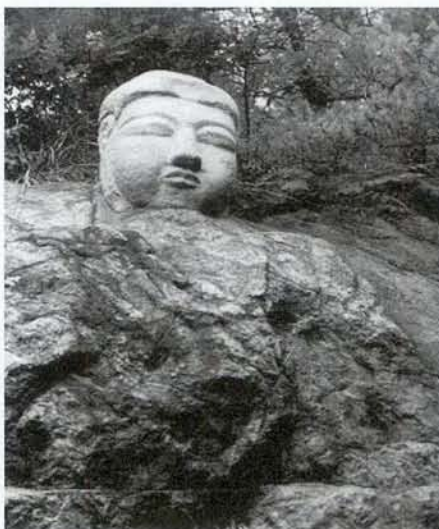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1500여년을 견뎌온 백제의 건축기술을 실로 놀라운 일이며 신라인들이 황룡사 목탑을 지을때에 아버지라는 백제 기술자를 초빙하였고 불국사 석탑을 지을 때에도 아사달이라는 백제의 기술자를 불렀다는 것은 그당시 고구려,신라,가야인들이 가지지 못한 하이테크를 백제만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구나 필자가 大阪府 枚方市 中宮의 백제사 발굴현장을 답사했을 때에 초석의 가운데에 축을 만든 초석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지진을 견디기 위한 내진설계로 보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석에서 기둥이 미끄러지는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 또한 처음으로 보는 백제인들의 하이테크의 건축기술이었다. 그당시 일본에 파견된 기술자 중에 露盤博士는 탑을 만들던 사람들로 그들이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였던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은 寺博士,瓦博士와 함께 사원을 조성하던 최고의 기술집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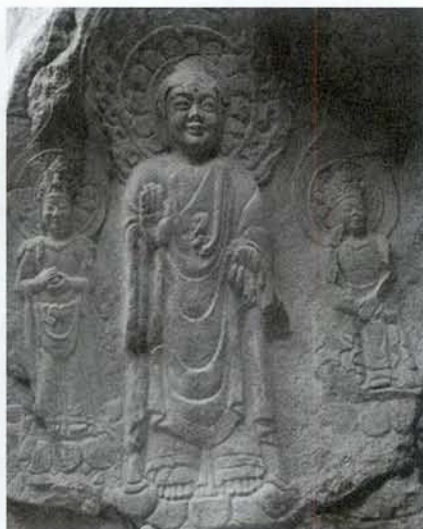
특히 일본의 아스카문화를 주도하였던 聖德太子는 AD593년에 백제의 金剛重光(한국이름 柳重光)을 초빙하여 오사카에 四天王寺를 지고 이절의 유지보수를 그의 집안에 맡겨 그의 후손들이 1500여년 이어져 金剛組라는 건설회사로 70대의 사장이 金剛利隆으로 사천왕사와 200여m 거리에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고건축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백제시대의 고건축기술의 하이테크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3. 금암산마애불과 서산마애불, 태안마애불, 예산사면석불

東國大學校의 발굴보고서에서는 磨崖佛의 머리와 팔이 파괴되긴 했지만 그 모습이 장중하며 옷주름이 U자형으로 매우 굵게 되어 있어 百濟의 泰安磨崖佛과 흡사하다고 하였다.²⁴⁾ 또 바위 절터(岩寺)나 禮山의 四面石佛과 같이 바위에 잔돌을 깔았으며 百濟시대의 와편이 나온다고 하였다. 고골 저수지 서북쪽, 二聖山城 남쪽의 金岩山 줄기의 끝자락에는 磨崖佛이 있는데 머리부



〈사진 6〉 금암산마애불



〈사진 7〉 백제시대의 서산마애삼존불



〈사진 8〉 태안마애삼존불



〈사진 9〉 예산사면석불

24) 文明大, 「광주 춘궁리 동사지발굴조사 보고」,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8, pp.113~114.

분과 팔아래 하부가 몹시 파괴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 장중하며 옷주름이 U자형으로 매우 굽게 나있어 百濟時代의 泰安磨崖佛을 연상하게 한다.²⁵⁾ 그 바닥에는 잔돌이 깔려 있으며 마애불 바로 밑에는 柱礎石이 두 개 있어 前室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階段址도 확인이 되었다.²⁶⁾

이 마애불은 금암산과 이성산이 이어지는 향교고개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백제시대에 교통로로 쓰였던 덜미재의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의 추정왕궁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마애불과 같이 가슴에 U자형을 가지고 있는 서산마애불, 태안마애불, 예산사면석불 등이 웅진시기에 예산, 서산, 태안 등을 거쳐 중국으로 가던 교통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한강변의 몽촌토성에서 직선으로 들어오던 덜미재를 수호하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한성백제시대의 마애불로서 이들 석불의 연원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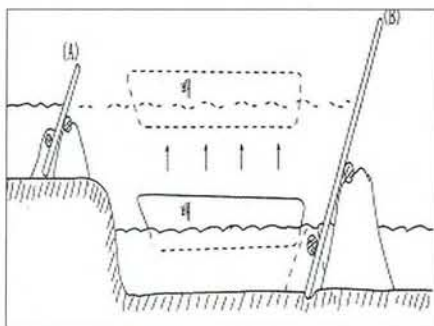
4. 덕풍천의 운하유적

백제의 한성시대의 수도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시 고골일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인 덕풍천에서도 수문, 수로, 다리 등 운하의 유적이 발견되어 백제시대에도 운하가 건설되었음을 알수 있다. 즉 경기도 하남시 고골에 남아있는 백제의 한성시대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교산동토성 서쪽을 직선으로 흐르던 물의 흐름을 왕궁의 남문지 부근에서 돌려서 그 흐름을 죽이고 그곳에 갑문을 설치하여 배가 다닐 수 있게하는 동시에 이곳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내릴수 있도록 하였다.

덕풍천의 준설공사 중에 갑문의 물이 세지 않도록 진흙뿔층이 드러났으며 특히 이곳에서는 배가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배를 매어 놓던 홈이 파진 바위가 발견되었는데 한쪽으로만 홈이 파져있었다.²⁷⁾



[그림 5] 백제시대의 운하 갑문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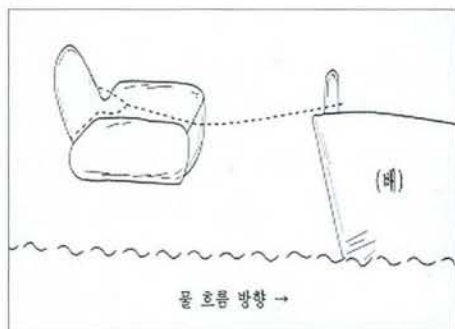


[그림 6] 갑문시설의 개념도

25) 『南漢秘史』 (광주문화사업협회, 1956)에서도 후방산 기슭 석벽에 큰 불상을 조각한 것이 있는데 일제시대 도리이 (鳥居龍藏)도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았다.

26) 文明大, 앞글, 1988.

27) 한종섭, 『위례성백제시2』, 집문당, 2004. 오순제, 『한성백제의 도성체제연구』, 학연문화사, 2005



[그림 7] 백제 운하의 배를 매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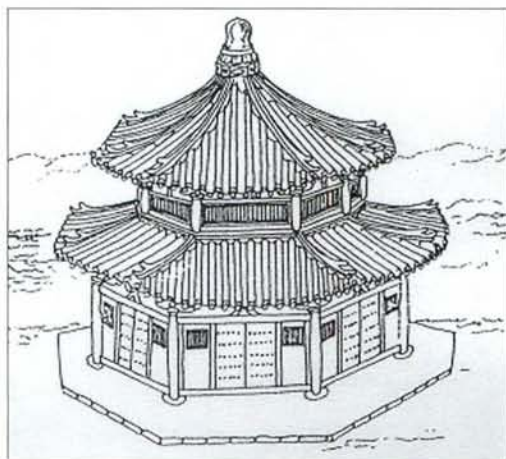
〈사진 10〉 뱃줄을 맺던 바위

그리고 야산에서 돌출된 산자락 바닥부분은 주변보다 높은 암반지대로 이것을 계단식으로 물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암반의 틈을 댐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물의 수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갑문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부근에서는 배를 맺던 석물뿐만 아니라 가공한 석물들이 15개나 발굴되었다. 이러한 운하를 만들던 하이테크를 가진 백제인들은 일본에 건너가 난파(難波)의 굴강(掘江), 고시대구(古市大溝)와 단비대구(丹比大溝), 비조천(飛鳥川)의 광심거(狂心渠) 등을 건설하였다.²⁸⁾

5. 이성산성 9각형 건물지와 8각, 12각 건물지²⁹⁾

이성산성은 현재 발굴자들에 의해 신라시대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는 백제시대의 성곽, 유물 등이 드러나고 있어 끝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8각, 9각, 12각 등의 다각형건물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중에 8각형건물은 백제계의 이천의 설봉산성, 일본에 있는 백제계의 鞠池城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구려의 환도산성 왕궁지, 신라 경주의 나정유적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2각형건물지는 순천의 점단산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각형 건물지로 현재까지는 신라, 고구려, 가야 등에서 나온적이 없는 매우 특수한 건물지로 이성산성에서는 가장 동쪽 높은곳에 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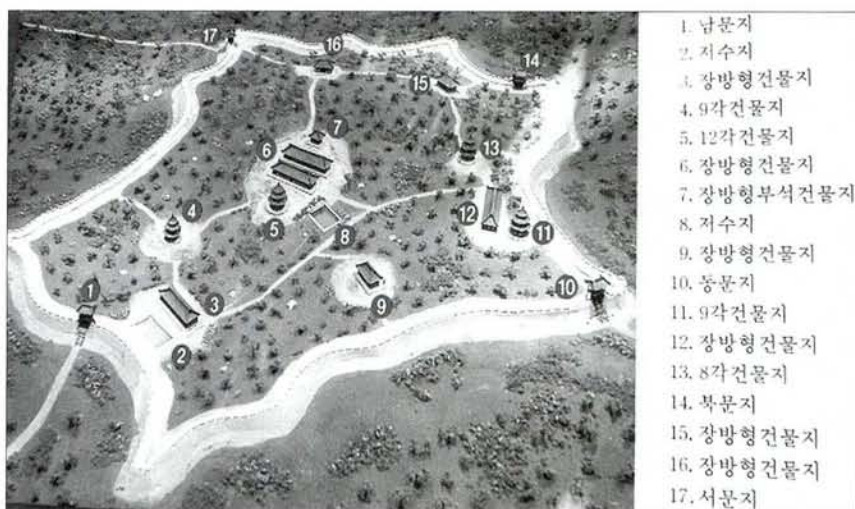


[그림 8] 9각형건물지(김동현)

28) 오순제, 「고대 운하에 대한 연구」, 『한복사학』 제6집, 한복사학회, 2009, 11.

29) 오순제, 「이성산성 건축유구의 성격 분석」, 『위례문화』 14호, 하남문화원, 2011, 12.

있고 가장 낮은 저수지 옆에 또 하나가 있다. 필자는 동쪽 높은 곳에 있는 것을 天壇, 가장 낮은 저수지 부근에 있는 9각형을 川壇으로 추정하였다. 천단은 백제의 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점단산 정상에 동명묘와 일치하고 있으며 川壇은 이성산성 정상부의 용바위 부근에서 흘러 내리는 물줄기가 9각형 옆을 지나 흘러나가거나 저수지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관련된 숫자인 9로 상징화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의 도성 옆을 흐르는 하천들이 漢川, 漢江, 漢水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어 天漢水라는 銀河水 사상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림 9] 이성산성의 유적 배치도

이러한 다각형건물 중에서도 9각형은 현재에도 작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건물로 그 당시 백제 건축의 하이테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산물이라 하겠다.

6. 남한산성 백제왕궁지의 대형기와³⁰⁾

남한산성이 자리잡은 청량산은 백제시기에 漢山으로 불리워졌던 중요한 곳으로 그 당시 하남 위례성이 자리잡은 하남시 고골의 배후 피난성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백제 근초고왕 당시에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이고 그들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산성인 이곳으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적들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평지성인 국내성에서 피난성인 환도산성으로 천도하였던 것과 같은 개념이다.

近肖古王은 한강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에서 중국의 황제가 쓰는 黃色 깃발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고구려를 제압하고 신라, 가야를 능가하여 천하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30) 오순제, 「河南市 고골의 漢城百濟時代 平地都城과 南漢山城의 推定 王宮址에 대한 研究」,

『산성논집』 2집, 2008, 11.



〈사진 11〉 남한산성의 근초고왕의 왕궁지



〈사진 12〉 백제왕궁지의 대형기와

고 천명한 것으로 이러한 물증이 남한산성 백제왕궁지에서 나온 “天主”라는 명문기와이다.

현재 남한산성 행궁의 하궐지에서 나온 대형건물지에서는 19kg이나 되는 대형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그곳에서 출토된 조선시대의 기와가 4kg 정도로 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 이곳을 발굴한 토지박물관에서는 신라시대의 건물지로 확정짓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기와가 신라시대 것이라면 경주지역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백제가 최대의 국력을 과시하였던 근초고왕 때의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이러한 대형기와를 버티기 위해서는 벽체가 2m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형건물지를 발굴기관은 신라시대의 무기고라고 주장하고 있다.³¹⁾ 그런데 이렇게 두터운 벽을 하고 있는 신라무기고는 본적이 없으며 또 당당히 최변방인 이곳에 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백제의 왕궁이라면 공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게 된다.

7. 용봉사상과 용봉문금동관, 금동용봉대향로, 용봉환두대도

동양인이 신성시 하는 용은 언제, 어디서 출현한 것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중국 요녕성 查海유적의 8,000년전 龍유적이 가장 오래돼 그 시원지로 보고있다. 중국 요녕성 부신에서 동북으로 20km 떨어진 사해유적지는 우리민족의 활동 무대였는데 서쪽은 대릉하, 동쪽은 요하로 이어져 발해만으로 연결되고 북쪽은 내몽고 초원 지대와 접해 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는 물이 풍부해 사람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곳에는 이미 8,000여년 전부터 신석기인들이 거주한 집단촌이 형성 되어있는데, 중국에서는 요하문명에 속하는 8,000여년전의 신석기 문화인 홍룡와유적과 함께 이 곳을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고 해서 中華第一村이라 명하고 하문명을 이룬 근거지로 보고 있다.

31) 『남한산성 제7, 8차 발굴조사 보고서』, 토지박물관, 2010.



〈사진 13〉 8000년전 사해유적의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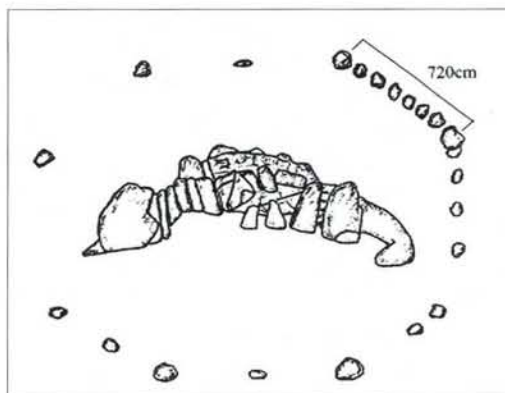


〈사진 14〉 조보구유적의 봉황

이 집단 거주지가 발견되어 查海文化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 유적지에는 100여 가구가 집단을 이루어 온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마을 가운데 용 모양의 조형물이 발견 되어 중국 학계를 떠들썩 하게했다. 이른바 石龍으로 지금의 용 모양과 흡사 하다.

주먹 보다 조금 큰 돌을 쌓아서 용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19.7m, 폭이 넓은 곳은 2m, 좁은 곳은 1m이다.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中華第一村, 中華第一龍'이라 호칭 하고있다. 이 곳 사해가 중국 용의 시원지라는 것이다. 사해문화의 용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湖北省 陳村의 7,000년전의 석룡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장강유역 제일용'이라 칭하면서 중국 용의 발상지로 여겼다. 또 6,000년 전의 신석기 무덤인 河南省 西水坡 45호 무덤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를 쌓아 만든 용 형상으로 미루어, 中原을 수천년 이어온 용 문화의 고향으로 인식했다.³²⁾

이러한 용사상은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시 고골의 이성산성 정상부에서 용바위라는 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팔각형으로 두른 속에 바위들을 모아 용의 형상을 만든 것이다.



[그림 10] 이성산성 정상의 용바위 (한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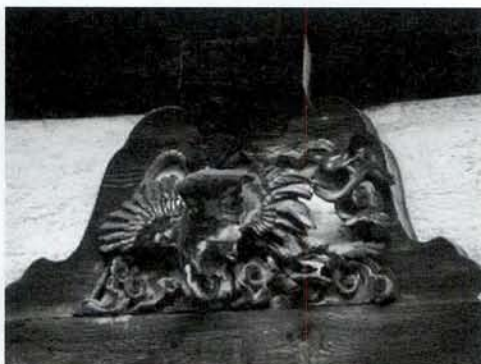
〈사진 15〉 금동용봉환두대도 (용원리유적)

32) 우실하,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200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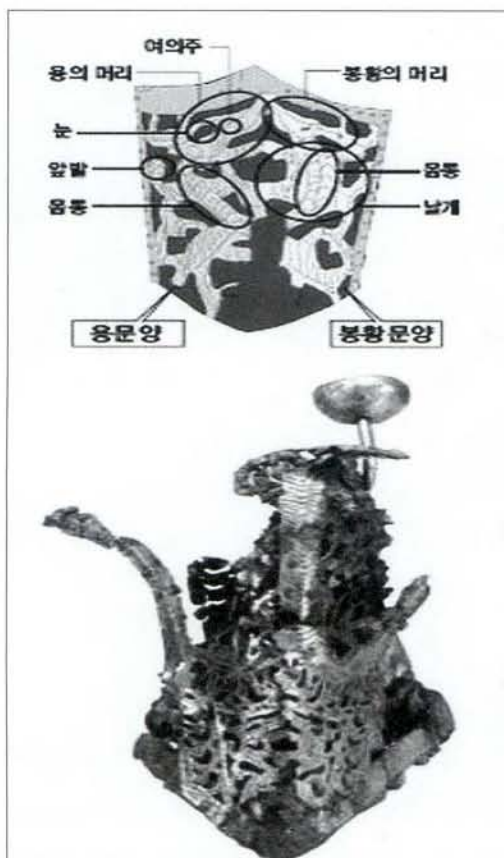
그리고 鳳凰은 내몽고의 BC5000~4400년의 조보구문화에서 토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중국 최초의 봉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BC4500~3000년 홍산문화의 우하량유적에서도 옥으로 만든 봉황이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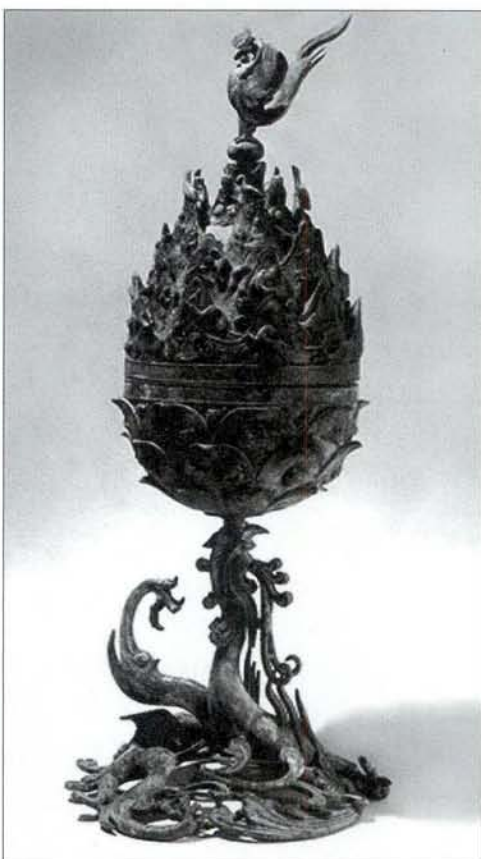
〈사진 16〉 홍산문화의 옥봉황



〈사진 17〉 교토의 광릉사 봉황



〈사진 18〉 수춘리금동관의 용봉문



〈사진 19〉 부여 능사지의 금동용봉대향로



〈사진 20〉 남한산성 북쪽계곡의 봉황바위 (한종섭, 앞책, 2004)

이러한 봉황은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시 고골의 남쪽 남한산성 북쪽 사면에서 발견된 봉황바위와 더불어 용봉문화가 한성백제시기에 존재했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주 수촌리 4호분과 서산 부장리 1호분에서도 용과 봉황이 같이 새겨져 있는 한성백제시대의 金銅冠이 출토되었으며³³⁾ 4세기 중반기의 천안 용원리유적에서는 龍鳳環頭大刀가 출토되었고, 사비시대 왕들의 무덤인 능산리 고분군에 왕능을 수호하던 사찰인 능사지에서도 金銅龍鳳大香爐가 출토되었고 백제는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용봉문화를 고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계의 절터 중에 東近江市 百濟寺町에 있는 백제사, 교토의 광릉사와 금각사 등에서도 본전건물의 처마에 봉황이 새겨져 있다. 특히 高槻市 大塚町에 있는 大塚神社에는 봉황과 용이 같이 새겨져 있는데 봉황의 발아래에 용이 배치되어있어 금동용봉대향로와 같은 개념과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 신사는 백제왕경복을 위한 신사로 그는 백제의 義慈王—百濟王善光—百濟昌成—百濟王郎虞—百濟王敬福으로 이어지는 가계로 의자왕의 고손자로서 일본에 남아있었던 백제의 정통왕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백제계신사에는 봉황들이 새겨져 있음을 알수있는데 그중에서도 의자왕의 고손자인 백제왕경복을 모신 대충신사에만 봉황과 용이 같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볼때 귀족층에서는 봉황이 성행하였는데 비해 백제의 王室만은 龍鳳文化를 고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삼산, 오방과 칠성신앙 및 칠지도

중국의 사상체계가 2, 4, 6, 8, 10, 12, 24, 48, 64로 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 3, 5, 7, 9, 21, 49, 81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상은 몽골³⁴⁾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환웅신화에 풍백,

33) 이한상, 「백제의 금속제 冠 문화」, 『백제의 冠』, 국립공주박물관, 20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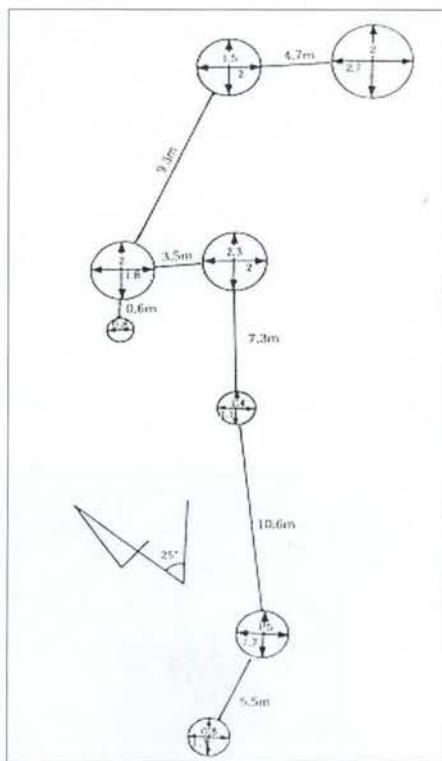


〈사진 21〉 교산동 연못의 삼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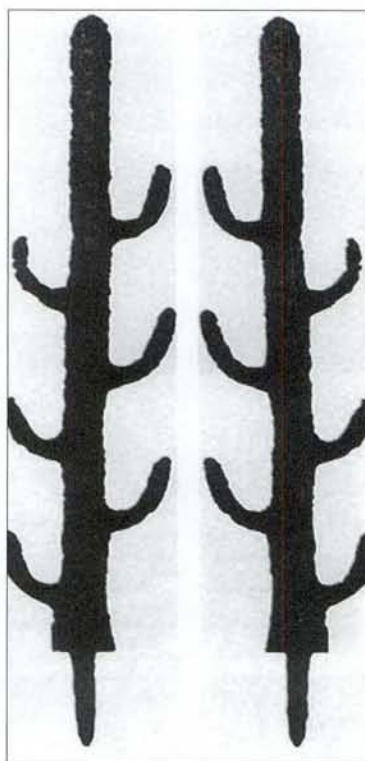


〈사진 22〉 일본 飛鳥池의 삼신산

우사, 운사의 3백5가제도에서 시작하여 고조선의 3한5가 제도를 거쳐 부여의 5가제도와 사출도, 고구려의 5가, 백제의 5방 사상에 이르고 있다.³⁵⁾



[그림 11] 교산동토성의 칠성바위



〈사진 23〉 칠지도

34) 몽골은 삼台星의 3은 삶을 나타내고 北斗七星의 7은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생을 주관하는 三神할머니, 사람이 죽으면 七星版에 눕혀서 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35) 오순제, 『시베리아 바이칼호, 몽골, 만주, 한반도를 통해 본 한민족의 시원문화』, 『신인류문화』 창간호, 국제신인류문화학회, 2013. 4.

이러한 사상은 사비시대와 일본의 나라시대의 3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연원은 백제의 한 성시대의 三山인 송산, 한산, 부산 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崇山은 김단산, 漢山은 청량산, 釜山은 금암산으로 비정되고 있다. 왕궁지도 지목받고 있는 교산동토성의 왕궁지에서 발굴된 방형의 연못 안에는 三神山을 상징화하는 돌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아스카의 飛鳥池유적의 연못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칠성사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삼태성과 북두칠성이 그려있는데 二聖山城 안에서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3군데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 중에 맨위에 있는 바위는 거북이 형태의 바위로 그 등위에 三台星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파여진 구멍의 크기는 별들의 한 밝기에 따라 다르다. 그 아래 쪽에 있는 바위에는 큰개자리와 작은개자리로 보이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으며, 이와더불어 하남시 고골의 교산동토성 안에 칠성바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 건너간 백제 성왕의 아들 琳聖太子가 칠성사상인 妙見信仰을 전해준 것을 보면 백제에 칠성사상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볼수있다. 이와 더불어 백제가 七支刀와 칠자경 등을 만들어 왜왕에게 준 것 또한 이러한 칠성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여의 사출도를 도식화한 옷판의 모습이 北斗七星에서 연원이 된 것³⁶⁾ 또한 5방사상과 칠성사상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산물이라 하겠다.

9. 조족문토기와 원통형토기

한성백제시기인 4세기중엽부터 鳥足文土器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연결된 하늘 숭배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의 첫 조상인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에 그



[그림 12] 맥죽과 적석총의 분포



〈사진 24〉 내몽골 임서의 병아리바위 (정형진)

36) 김일권, 『우리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원, 200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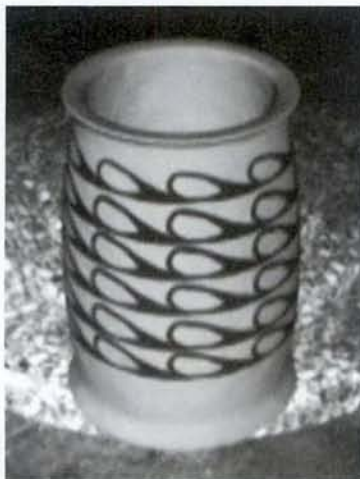
〈사진 25〉 김단산 동명묘제단의 새머리



〈사진 26〉 조죽문토기

의 뒤를 이은 왕들은 “해”를 상징하는 성을 써서 해모수, 해부루 등으로 불리웠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새와 연관이 된 알에서 탄생했다는 난생신화를 가져 동명, 주몽, 석탈해, 김수로, 김알지 등이 알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 청나라를 세운 누루하치 까지도 이러한 영향권에 들어있다. 백제는 일본부여의 마지막왕의 공주인 소서노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국가로 일본부여를 세운 東明의 전통을 이은 국가이다.

그는 알에서 탄생한 신화를 가진 사람으로 그가 알에서 태어난 고리국의 유적이 서요하의 상류지역인 시라무렌유역 내몽골 파림좌기 林西 지역에 병아리바위가 남아있다.³⁷⁾ 그리하기에 백제인들은 하남시 김단산 정상에 동명묘제단을 만들어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단 또한 새머리를 형상화 시킨 것으로 이와같이 새와 관련된 새발자국을 토기에 도식화 하여 사용한 것이다.



〈사진 27〉 홍산문화 천단의 원통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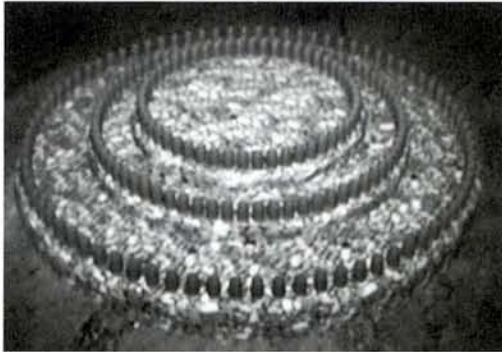
〈사진 28〉 몽촌토성의 원통형토기



〈사진 29〉 원통형하니와

37) 오순제, 앞글, 2013.

원통형토기는 일본의 왕능인 전방후원분의 초기무덤에 원통형하니와로 그 둘레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이 우리민족이 만든 홍산문화의 천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있는 토기를 그 둘레에 꽂았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의미³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 백제의 몽촌토성에서 원통형토기로 출토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전방후원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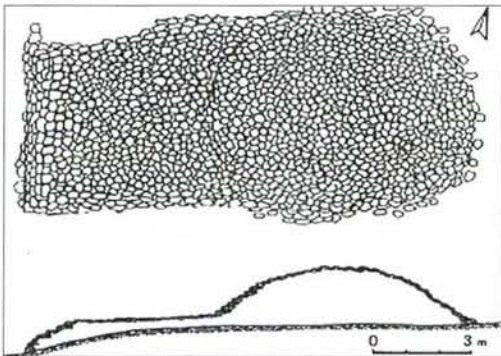
[그림 13] 홍산문화 천단의 원통형토기



[사진 30] 전방후원분과 원통형하니와

10. 압록강, 두만강, 한강변의 전방후원분³⁹⁾

일본에서는 백제계 최초의 천황인 응신천황을 비롯하여 인덕천황능 등 천황들의 무덤이 대부분 대형의 전방후원분을 하고 있다. 강인구⁴⁰⁾는 전방후원분의 연원에 대하여 중국 강남지역의



[그림 14] 압록강의 송학리 33호분



[사진 31] 임진강 학곡리적석총

38) 홍산문화에서 출토된 옥으로 만든 상투꼭지(玉箍)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민족은 머리를 하늘로 생각하였고 그 위에 상투를 틀어 하늘을 향하게 하였기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39) 오순제, 『요서지역 홍산문화의 전방후원분 발생과 출분부여, 백제, 일본 등의 전방후원분에 대한 관련성 연구』, 『한북사학』 제4집, 2007, 11.

40) 강인구, 『삼국시대 분구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1.

토돈묘에서 서해바다를 건너 들어왔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필자는 백제가 출발한 졸본부여에서 그 연원을 찾고자 한다. 즉 그들의 영역에 속했던 압록강변 초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방후원분식의 적석층에 연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방후원분식 적석층이 임진강변의 횡산리, 삼곶리, 학곡리, 동이리 등에 분포되어있으며 이들을 발굴한 결과 백제초기의 것임이 밝혀졌다.

필자는 이들을 온조와 함께 졸본부여에서 이동해 온 세력으로 북부지역을 다스렸던 解氏들의 무덤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무덤들이 선주민인 마한의 토광묘, 주구묘 등과 결합하면서 흙으로 만든 전방후원분이 나타나고 아울러 그 둘레를 해자로 두르게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유적이 강동구의 능골과 민동산, 하남시 황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하남시와 강동구의 전방후원분



〈사진 32〉 하남시의 민동산 전방후원분

11. 腰鼓와 木造人面假面

이성산성에서는 漢陽大學校의 8次發掘調査에 의해 腰鼓가 출토되었는데⁴¹⁾ 요고통의 길이는 42.8cm, 북면지름은 오른쪽이 17.5cm, 왼쪽이 17cm, 조롱목 부분의 길이는 7cm, 북면의 두께는 5.5~0.8cm, 조롱목 부분의 두께는 1.1~1.7cm 이다. 발굴당시에 철 부식물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북은 북면에 가죽을 대기 위해 장치하는 鈎鐵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

41) 김병모, 유태용, 『二聖山城 第8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사진 33〉 이성산성의 요고(한양대 발굴)

로 추정된다. 요고는 장구의 원형에 해당하는 악기로 인도에서 발생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구차, 소록, 고창, 강국 등의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요고는 高句麗의 古墳壁畫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악기이다.⁴²⁾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백제에서도 祭典에 요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古爾王 때에 天地에 대한 제사에서 鼓吹(북과 피리)가 사용되었다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사원에서 공연된 기악무의 소편성 악대에서는 腰鼓라는 북, 笛라는 피리, 鉦 등이 사용되었다고⁴³⁾ 하여 백제 당시에 味摩之에 의해 전해진 백제음악의 원류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백제유민들에 의해 전해진 九州 宮崎縣 南郷村에서 행해지는 백제 정가왕 일가를 위한 마쓰리에서도 북과 피리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성산성에서 나오는 요고는 돈황석굴에서 나오는 요고나 집안 오회분 4호묘 벽화의 비천상에서 나오는 요고와 매우 흡사하다.⁴⁴⁾ 이러한 요고의 원형은 BC4000년경의 홍산문화유적에서

로 추정된다. 요고는 장구의 원형에 해당하는 악기로 인도에서 발생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구차, 소록, 고창, 강국 등의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요고는 高句麗의 古墳壁畫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악기이다.⁴²⁾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백제에서도 祭典에 요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古爾王 때에 天地에 대한 제사에서 鼓吹(북과 피리)가 사용되었다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사원에서 공연된 기악무의 소편성 악대에서는 腰鼓라는 북, 笛라는 피리, 鉦 등이 사용되었다고⁴³⁾ 하여 백제 당시에 味摩之에 의해 전해진 백제음악의 원류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백제유민들에 의해 전해진 九州 宮崎縣 南郷村에서 행해지는 백제 정가왕 일가를 위한 마쓰리에서도 북과 피리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성산성에서 나오는 요고는 돈황석굴에서 나오는 요고나 집안 오회분 4호묘 벽화의 비천상에서 나오는 요고와 매우 흡사하다.⁴⁴⁾ 이러한 요고의 원형은 BC4000년경의 홍산문화유적에서



〈사진 34〉 日本 九州 宮崎縣 南郷村의 백제 정가왕의 제례에 사용하는 장구와 피리

42) 신명숙, 「고구려 고분벽화의 요고연구」, 『한국무용사학』 7집, 한국무용사학회, 2007, 10.

43) 安辺成雄, 『天平のひびき—正倉院の樂器』, 音楽之友社, 1985, 58쪽

44) 신명숙, 앞글, 2007, 10.



〈사진 35〉 이성산성의 목제인면상



〈사진 36〉 백제가 전한 일본 정창원의 伎楽面

나오는 彩陶筒形器⁴⁵⁾로 이것은 고분의 주위를 둘러 열을 지어 꽃은 것으로 아래와 위가 뚫려⁴⁶⁾ 있다. 이것은 제례에 사용한 악기로 보고있는데 세워놓고 위쪽만 가죽을 씌워 북으로 사용하는 것과 옆으로 눕혀 놓고 양쪽을 가죽을 씌워 양쪽을 두드리는 장고와 같이 사용한 陶鼓⁴⁷⁾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이 제례에 장고를 사용한 것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笛라 불리우던 피리는 청동기시대의 서포항유적에서 이미 찌로로 만든 17.3cm의 피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악기로 백제 능사에서 출토된 금동용봉향로에서도 피리를 부는 악사가 표현되어있다.

그당시 음악이란 왕권의 권위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史記』卷12, 『孝武帝本紀』第12에 “옛날 天地에 祭祀할 때에는 모두 音樂이 있었는데 그래야 天神과 地神에 대한 禮節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同書 卷24, 『樂書』第2에는 “大樂은 天地와 조화를 같이 하고 大禮는 천지와 절도를 같이 한다. 調和하기 때문에 만물은 그 본성을 잃음이 없이 天地間에 생성하고 節度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祭祀 지내고 땅에 제사 지내어 尊卑의 질서를 밝힌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祭祀에 따르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와 아울러 백제에는 지금까지 가사와 함께 전하는 것은 薯童謠, 井邑詞를 비롯하여 『高麗

45) 1973년에 요령성 부신현 호도구유지의 묘지에서 11개, 1979년에 객좌현 동산취 유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완형은 2개이며, 능원현 성자산유지에서 27개가 나왔는데 완형은 4개이다. 그리고 1983~1985년에 우하량 1호, 2호, 3호 적석총에서 파편들이 다량으로 나왔다. 큰 것은 높이가 50cm, 직경은 30cm이고 작은 것은 높이가 20cm이다.

46)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전방후원분인 광주 명화동고분의 발굴(광주박물관, 2010)에서 고분의 하단부에 원통형토기가 열을 지어 있는 것과 일본의 전방후원분 둘레에 꽃혀있는 圓筒形土器는 같은 형태로 홍산문화유적이 그 시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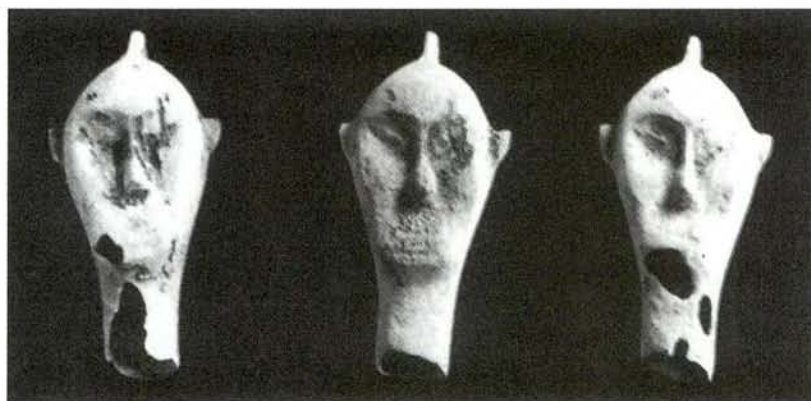
47) 李伯謙, 「崧澤文化大型墓葬의 啓示」, 『歷史研究』 6期, 北京大学 中国考古学研究中心, 2010.



〈사진 37〉 백제의 味摩之가 전해준 伎樂舞

史』樂志에 유래와 곡명만 전하는 禪雲山歌, 無等山歌, 智理山歌, 方等山曲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에서도 널리 음악을 즐겼던 나라로 그당시 북과 피리는 매우 중요한 악기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성산성 4차발굴⁴⁸⁾에서 2차저수지 북서쪽에서 출토된 목제인물조각상은 그 크기가 13cm 정도가 되는 얼굴모양으로 이것은 백제 무왕 13년(612)에 味摩之가 일본으로 건너가 사쿠라이(櫻井)에서 살면서 제자 가르쳐 일본에 전해준 가면무인 伎樂舞에 쓰이던 假面들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奈良의 法隆寺와 東大寺의 正倉院, 春日大社 등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飛鳥시대부터 奈良시대의 유품이다. 그중에 正倉院의 가면은 天平勝寶 당시의 것으로 동대사 대불의 開眼法要式



〈사진 38〉 부여의 왕도인 길림시 모아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인물상

48) 김병모, 김아관, 『이성산성 제4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2.



〈사진 39〉 이성산성의
목조인물입상



〈사진 40〉 집안 우산하 2110호분의
청동인물입상



〈사진 41〉 우하량의
옥인상

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가면은 治道, 獅子, 獅子兒, 吳王, 金剛, 迦樓羅, 吳女, 崑崙, 力士, 波羅門, 大孤父, 大孤兒, 醉胡王, 醉胡從 등 14개의 종류가 있다. 그런데 법륜사와 동대사는 백제인들 의해 건설된 것이므로 이 가면들은 백제시대에 이곳에서 행해졌던 종교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금도 백제의 음악과 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宮崎縣 南郷村의 시와스마쓰리(師走祭)에서도 가면무를 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성산성 3차발굴⁴⁹⁾에서 2차저수지에서 발견된 목제인물입상은 높이가 17.2cm, 폭은 4.84cm, 두께는 2.5cm이다. 이것 또한 부여 왕도인 길림시의 모아산고분군에서 발굴된 인물상⁵⁰⁾, 고구려 왕도였던 집안의 우산하고분군의 2110호분⁵¹⁾에서 나온 인물상 등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부여적 신앙전통⁵²⁾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홍산문화의 옥으로 만든 인물상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다.

49) 김병모, 심광주, 『이성산성 제3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1991.

50) 國家文物局 主編,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1993.

51)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2004.

52) 이러한 형태는 遼寧省 凌源縣 牛河梁 16지점 1호묘에서 출토된 BC3500년경 紅山文化의 玉人和 매우 닮아있어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善(선)과 惡(악)

황 용 수

(인간경영연구소 소장
경영학 박사)

인간이 태어나서 부터 善과 惡이라는 굴레 속에서 삶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깊은 고민을 갖게 한다. 인간의 본성은 善할 것인가 惡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의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동양학에서 바라본 선과 악에 관한 학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孟子(맹자)의 性善說(성선설)과 荀子(순자)의 性惡說(성악설) 그리고 告子(고자)의 性無善惡說(성무선악설)이다. 孟子(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주장으로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환경에 의해 옳지 않은 일에 물들어 나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좋은 면을 강조하여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荀子(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이다.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告子(고자)는 "인간의 본래 성품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에 의해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교육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변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적인 서양의 철학자들도 告子(고자)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kant immanule)도 도덕상의 선과 악이 개인의 의지 외에 어떤 것에 속하



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선과 악에 대한 능력이 동시에 있다고 하였고 미국의 철학자 듀이(dewey john)도 인간의 본질에는 선악이 없고 환경과 사회생활 속에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rocke john)는 인간의 마음은 하얀 종이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쉘이란 올바르게 착하며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회질서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惡이라는 것은 예의와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여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孟子(맹자)의 性善說(성선설)과 荀子(순자)의 性惡說(성악설)은 함께 존재하여야만 의미가 있다. 東洋學(동양학)의 기본인 陰陽(음양)의 이치와 같다. 우주공간에서 음과 양은 동시에 서로 반목하면서 상생하는 관계이다. 우주 속의 작은 행성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도 음양이 존재하며 음양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악이 없으면 선은 의미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선이 없으면 악도 의미가 없어진다. 선과 악은 항상 같이 붙어 있을 때 존재감이 있으며 확실한 의미도 생긴다.

다시 말하면 악이 존재하므로 선의 중요함을 알게 되며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답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 보이지만 동서양의 모든 학자들의 학설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와 '태어나지 않는다'와는 별개로 성

장에 따른 환경과 교육에 의해 선과 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을 잘 모르는 유년 시절에는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과 악의 마음을 갖는 갈림길이 되는 시기이지만 자신의 독립적, 독단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학교나 가정교육으로도 다루기 어려운 시기이다. 이시기에는 선과 악의 판단이 심리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하면서 선과 악이 혼재한 사회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하게 된다. 장년기에 접어들면 혼자만의 사고와 기준에 의해 선과 악에 부딪쳐야만 살아갈 수 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하여야 하며 자신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선과 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인 갈등 속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노년기가 되면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이거나 이루지 못한 사람일 지라도 선과 악의 틀에서 벗어나는 시기이다. 욕망이 강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년층은 많은 경험에 의해 선과 악의 구별은 욕심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 되는지 악한 사람이 되는지는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생각한다. 동서양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학설인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에 의한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필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선과 악이란 구분이 모호하다. 라고 생각한다.

악한 마음과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절제에 의해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 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거나 법을 어길 경우 과연 악한 사람일까?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여 예의범절이나 법규를 잘 이행 할 수 있다면 이는 표면적으로는 착한사람이 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는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과 악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탐욕스러운 욕망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예의범절과 사회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의 자기와 만나 다시 꿈꾸게 하는 ‘글쓰기’

이 혜 선

(시인, 문학박사)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갈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길의 선택

우리 삶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위의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Frost: 1874-1963)의 「가지 않은 길」로 인생길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은 길'이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자기 인생길을 선택한다. 처음엔 힘들지만 가다 보면 보람 있고 행복한 길, 처음에 쉽게 가지만 가면 갈수록 힘만 들고 기쁨이나 보람이 없는 길... 우리 삶은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1회성이기 때문에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더라도 가다가 잘 못 갔다고 다시 돌아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 아주 드물게, 한참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꽤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또 삶을 영위해야 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한다. 그러나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여 인생 2모작이니 3모작이니 하고 은퇴 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여 성공하는 삶을 많이 볼 수 있다. 젊어서부터 글쓰기 즉 문예창작을 열심히 하여 시를 쓰거나 소설 혹은 수필을 써서 삶의 보람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노년에 만나는 글과의 사랑은 더욱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흔히 여성에게만 갱년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다고 한다. 남녀 모두 가족을 위하여 돈벌이를 해야 하고 살림을 해야 하고, 명예를 위하여 지위를 얻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인생 후반기에 이르게 된다. 그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전에 느끼지 못한 회의가 스멀거리기 시작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왔지?’ 혹은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 2의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자기 삶의 잃어버린 의미를 새삼스레 찾아보게 된다. 그토록 애지중지, 전심전력으로 키워낸 자식들은 다 커서 부모를 떠나거나 혹은 자기 생활에 바빠서 부모의 외로움을 헤아릴 여유가 없고, 텅 빈 혼자만의 뜰에 서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보이고 몸에는 전과 같지 않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누구에게나 몸의 변화는 오게 마련이고 앞서 걸어간 선배의 뒤를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모님이 곁을 떠나는 이별은 당연한 것이지만, 드물게는 가까운 친구의 죽음도 겪게 되는데 그 때 우리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것은 바로 ‘인생무상’이라는 네 글자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가슴을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은 얼마나 남은 것일까?’

몸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몸으로 하는 일은 힘들기도 하려니와 언젠가는 없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열망을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정신적인 충족감

인생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의 선택이 필요하다. 중년 이후에 맞이하는 제 2의 선택은 '정신적인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현시욕(顯示欲)이 있고 자신의 생명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처음단계는 자기 속에서 이야기를 꺼 올려 그것을 글로 써내는 작업이다. '자기 속의 자기, 자신도 모르던 자기'와의 만남의 장이 글쓰기의 장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남에게 내보이는 작업으로 현시욕을 충족시키고 카타르시스(Catharsis:정화작용)를 느끼게 하여, 실컷 울고 난 뒤처럼 후련함을 맛보게 한다. 평소에는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고요한 수면을 흔들어 놓으면 물 아래 가라앉았던 여러 가지 부유물이 수면으로 떠오르듯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가라앉았던 여러 가지 체험이나 감정들도 시적詩的인 사고를 계속하여 꾸준히 훈련을 쌓으면 무의식 속에서 의식으로 떠올라 좋은 글로 다듬어질 수 있다. 그 때 떠오르는 것은 그리움이기도 하고 첫사랑과의 이별이기도 하고, 아픔이나 섭섭함 회한 등 여러 가지 감정일 것이다.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년의 자기와 만나 화해하고 청년의 자기와 만나 그 때 이루지 못했던 꿈과 해후하고 '다시 꿈꾸기'를 이룰 수 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쌓여 있고 나름대로의 인생철학도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퍼내어 자녀에게 혹은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을 펼치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가, 한 편의 시로 수필로 다듬어져서 발표되었을 때 그 글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글쓴이로서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글쓰기는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

현대인의 삶은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운전하기이다.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자는 앞차들이 달리면 따라서 달리게 된다. 그것이 옳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옆집이 아파트 평소를 늘려서 이사 가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친구가 좋은 모피코트를 사면 무리해서라도 나도 사야하고, 친구가 아이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면 내 아이도 지면 안 되고, 이처럼 우리를 앞만 보고 위만 보고 달리게 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 않고 뇌물도 주는 대로 받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는 전복만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자동차에는 계기판이 있어서 과속하다가도 슬그머니 속도를 낮출 수 있지만 인생에는 숫자로 표시되는 계기판이 없으니 자신의 가치관에

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전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휴게소에 들러 차도 한 잔 마시고 하늘도 한 번 쳐다보고 열기를 식히는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서 이처럼 고속도로의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것이 ‘글쓰기’이며 ‘글읽기’이며 문화를 향유하는 일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고 싶기는 한데 엄두를 못 내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G20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겠지만,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도시마다 지방마다 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복한 시대가 되었다.

지방마다 문화원이나 동洞의 문화센터에는 여러 가지 강좌가 거의 무료로 개설되어 있어서 국민의 문화생활과 행복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마음만 먹고 문만 두드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젊은이의 선택도 반기지만 특히 인생 후반기의 무료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여 의미 있는 제 2의 인생을 원하는 이들은 정신적인 충족감과 보람을 위해서 필수로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이렇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고 있는데도 혼자만의 울타리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글쓰기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노래하거나 악기연주도 좋고 춤추기도 좋다. 무엇이든 배우면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보람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길에 동참하기를 권한다. 그리되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전체에 더욱 밝고 행복한 기운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나’, 즉 개인의 행복과 보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혜선 약력 :

1981년 월간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 문학박사
한국 문인협회 및 국제 펜 한국본부 이사. 한국 문학비평가협회 부회장.
시집 『神 한 마리』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 『바람 한 분 만나시거든』
평론집 『문학과 꿈의 변용』 『이혜선의 명시산책』
한국 현대시인상, 한국 자유문학상, 동국문학상, 문학비평가협회상(평론부문) 등 수상
동국대 외래교수, 하남문화원 문예창작반 지도교수

장미산성(薔薇山城)에서

우 재 정

중원의 장미산(薔薇山)에 깃발을 꽂는다
겨울의 결박에서 풀려난 연초록의 봄
동, 서, 남, 북 정상부 성벽외연을 따라 남한강이 열리는 곳
산, 들, 강과 우주와 함께 호흡을 한다

중원의 장미산산성에서 불러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氣)와 주름진 여명의 노래

아침의 서광에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무한한 공상
예나 지금이나 푸르고 기찬 풍광인데
무릉도원의 세상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파란화폭에 그려진 욕망이란 단어
산성 건너편의 애간을 태우던 탄금대 가야금탄주
안타까운 의문으로 울컥 가슴이 저려온다

삼국시대의 민족문화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통일신라의 중원탑평리칠층석탑(中原塔坪里七層石),
탄금대(彈琴臺)의 향유로
마음은 증발 해 버린 구름 한 조각되어
가지와 가지사이를 건너고
스치는 바람으로
세속을 벗어난 마음을 열어본다

하나 되기 위한 중원의 나부끼는 깃발 같은 마음에
내 마음의 물길도 따라 흐른다

* 장미산성(薔薇山城) 소재지: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찬리 산77-1에 소재



하남문예창작교실

영혼의 모음 2013

- ◆ 불이 不二, 매꽃 - 이해선(문예창작교실 강사)
- ◆ 긴 의자 - 류정호
- ◆ 해녀의 터전 - 박옥임
- ◆ 제왕 절개 - 신찬옥
- ◆ 공동묘지 - 송 희
- ◆ 마늘심기 - 서병국
- ◆ 사랑의 영월 소나무 - 정순왕후 - 안인자
- ◆ 아! 난 설현 - 양길자
- ◆ 마지막 여행 - 양승중
- ◆ 이팝 꽃이 피면 - 백창희
- ◆ 수필) 동해의 서정을 따라 - 남궁복실
- 바닷가에서 - 오세영



불이 不二, 메꽃

이 혜 선 (문예창작교실 강사)

비 갠 초여름 오후
후배시인이 메꽃을 보내왔다
송파둔덕에서 방금 찍었다고,
이슬방울 맺혀있는 해맑은 모습이
손전화로 날아왔다

너의 어린 눈동자를
내 일찍이 알고 있지
학교 갔다 돌아오는 고갯길에
책가방 나 몰라라 던져놓고
비알밭 둔덕에 엎드려 꼬챙이로 해집어 캐먹던 그 메꽃뿌리

그 때 잘린 줄기가 50년 지난 아직도 살아남아서
말간 꽃눈으로,
하얀,
달짝지근한 진액을 묻힌 채
흙 묻은 그 때 내 입술 보고 손 내민다

연분홍꽃잎이 서울 매연에 닳고 닳아서
하얗게 얹어진 입술로
사람들 독한 내음에 견디느라
실핏줄 보이는 윗맥으로
손을 내민다 그래도 반갑다고,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너, 자아와 타자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사상

긴 의자

류 정 호

긴 의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마음 한쪽을 비워 두었습니다
당신이 찾아올 때
언제라도 쉬어 갈 수 있도록

노란 장미꽃 한 송이
시원한 물 한 컵을
나직하고 감미로운 노래를

파스한 내 마음 꾸러미
당신 오시는 날 매듭을 풀고
아직도 나의 온기를 느끼신다면

언제라도 쉬어 가시게
긴 의자를 윤나게 닦아 놓겠습니다



해녀의 터전

박 옥 임

그 많던 별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푸르죽한 물결 모래밭에
테구르 부서져 메밀꽃 피는
어수선했던 바닷가

허름한 물웃에
금이 간 물안경
오리발 공중으로 버둥거리다
바닷물 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
보물을 찾아 해매는 시간
수궁에 남은 전복 소라 몇 개
그물망에 담긴 해산물
너울대는 바위에 앉아 갈무리 하는
해녀 인생

저승에 가 물질하여
이승의 자식 먹여 살린 엄마 해녀



제왕 절개

신 찬 옥

나무 가지에 걸쳐 있는 어스름한 달빛 아래
쌍둥이 임신부가 초록 원피스 입고

콩 나무 가지에 단단히 매어놓은 그네 위에
살래살래 젖는 몸짓
소근 대는 이랑마다
슬픈 사랑이 울고 있다

아직 예정일은 남아있는데

추석
송편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제왕 절개시킨다
모태의 생명이 팔삭둥이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심장 경음악 소리 들으며
꽤 채운 그날 자연 분만을,

흉으로 돌아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공동묘지

송 희

전설의 맥박이 뛰는
이곳에

햇살로 지붕 엮고
사계절 향기로 울타리 엮으며
자연의 품에서
한 세기를 이끌어 가는 저들이 있다.

조밀한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금자리
수 백 채

입주할 때
서글픔은 아득해 지는 듯
초승달 조명 아래서 속살인다.

“송 시인 잘 있었는가.”
“예 ~ 문 가수님도 잘 계셨지요.”

모두가 예술인으로
다시금 피어오르는
민속촌 마을이 병글어 지고 있다.

마늘 심기

서 병 국

이랑마다 구멍을 내어 마늘 한쪽씩 깊이 넣어
흙을 두껍게 덮어 다져준다
얇게 심으면 가뭄타고 겨울 지나 눈 녹으면
겨우내 뻗은 뿌리가 봄비에 씻겨 밖으로 나온다

날 어두워지고 달이 산등성이 숲속에 깊이 숨었다
조명등 밝혀가며 새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깊이 심는다

수많은 별들과 조각구름이 몰려온다

뜻을 심는 싸늘한 가을 밤 얼마큼 남았을까
등불 밝혀 뒤돌아 본다
하늘에 별들만큼 추운겨울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노란 새싹의 꿈
하늘땅 얼어붙고 흰 눈 쌓이면 겨우내 꿈이 차다
두꺼운 흙 이불 덮고 겨울 꿈꾸는 마늘밭

사릉의 영월 소나무

- 정순왕후 -

안 인 자

호젓한 소나무 숲길 들어서는데
가녀린 슬픔이 밀려듭니다

어린 나이에 국모가 되어
지아비 섬김도 하기 전에
영도교(永渡橋)를 지나신 님

그 길이 마지막일 줄이야 짐작이나 했을까요
동대문 밖 초막에서
매일 동망봉에 올라 영월 땅 바라보며
통곡으로 그리움 달래던 낮과 밤

이제 우리는
64년의 한 서린 삶과
저절로 자줏물이 들었다는 자주동천
오갈 수 없는 영도교의 사연을
가슴에 담아 기억합니다

늦게나마 영월 소나무 만나시어
그 우듬지에 님의 영혼 지켜주심에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아! 난 설현

양 길 자

외로움을 자근자근 씹으며 시와 함께 살다가
신선 되어 갔다는 여인
죽어서도 남편 옆자리 마다하고
애면글면 그리운 자식 옆에 누워있다

무덤 앞 시비詩碑엔
먼저 보낸 어린 자식 그리는 애절한 시 한 수
그녀가 흘린 피 눈물 지금도 번져 나온다

석축 밑 조릿대 속에 홀로 핀 진달래
무리 중 으뜸가는 고운 자태
붉은 빛이 바래져 창백한 그녀가 웃고 있다

뛰어난 문장과 슬기로움
아름다운 미모와 정갈한 성품이
조선의 딸을 칭칭 읊아매었지

이제는 굴레 벗고 훨훨 날아올라
무덤 앞 고속도로 뽕뽕 달리는 차들보다
더 빨리 더 먼 곳까지 자유롭게 누비며
이 시대 여인의 삶을 박수치며 격려한다

마지막 여행

양 승 중

올레길에서 비를 만나 나무 밑에 멈춰서니
신발코에 내려앉은 낙엽 한 잎
머리채 들어 올려다 본다

‘더 이상의 추락은 싫어요’
‘날 버리지 말아요’

바람도 햇살도
아궁이도 무서워요
누군가가 밟고 간 이별도 두려워요
잠시라도 내 곁에 머무시면 안 되나요?

가실 때엔 엄마뿌리 나를 내려주고
아프지 않게 밟고 가요
봄부터 키워준 엄마나무 그늘에서
유기질 비료로 산화되어
오는 봄 새 잎새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팝 꽃이 피면

백 창 희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밥만 먹기 지겹다고
투정부리는 도현이
시장 다녀 온 엄마에게
오늘은 라면 끓여 달라 생떼를 쓴다

아침, 점심, 저녁
쫄쫄 끓고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졸라맨 영식이
유모차에 폐지 챙겨 모아오신 할아버지께
언제쯤 라면이라도 끓여 줄까 눈치를 본다

100원 하면
아프리카 한 가족
한 끼 식사가 된다는데
만원 한 장이면
르완다 친구 한 명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데,

오늘도 영식은
고픈 배를 움켜잡고 아팝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이팝 꽃 한 장 두 장 책갈피에 끼우며
해질녘 할아버지 그림자만 기다린다

동해의 서정을 따라

남궁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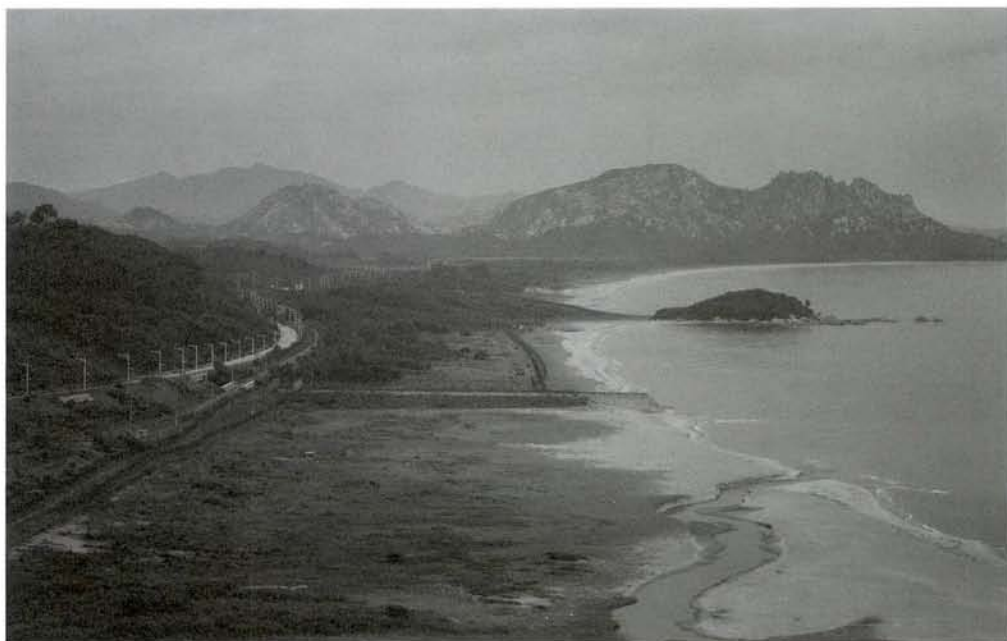
과제물처럼 주어진 일상을 내려놓고,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교보문고에서 공동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 『동해의 서정을 따라서』 나는 답사단의 일원으로 길을 나섰다. 집결지인 중앙도서관 앞에 모여 김밥과 여행 자료를 받고 1, 2호 차에 나눠 오르니 이번 여행에 동행한 문태준 시인의 강연 녹화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설악권 문학'은 큰 산이 등지를 틀고 있어 명사찰이 많아 불교에 관련된 문학이 많다고 했다. 설악시인으로는 한용운, 이성선, 이상국, 조오현, 오세영 시인을 꼽았다. 시는 가슴속에 맺힌 것이 고여 있다가 터져 나오면 저절로 시가 된다고 했다. 조선시대여류시인 이복봉의 몽혼 夢魂(꿈속의 넋)이라는 漢詩를 소개했다.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달 비친 사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꿈속에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앞의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임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이 시에 배어있었다 달리는 차창으로 비친 호수 같은 하늘에는 알프스 목동들이 양들을 죄다 몰고 오는지 몽실몽실한 양 떼들이 줄지어 온다. 길옆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니 소싯적 친구들과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설렌다. 장장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첫 방문지는 고성의 금강산 건봉사(乾鳳寺)이다

乾鳳寺에 이르면 머리엔 땀을 쓰고 손엔 도솔지팡이를 들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입담 좋은 해설사가 나와 "여러분은, 지금 금강산 건봉사에 오셨습니다". 하며 우리 일행을 안내했다 이곳 건봉사는 조선후기에는 전국 4대 사찰 중 하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6,000명이나 되는 승병을 양성하였다고 한다.

또 동행한 이상국 시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절이 하도 커서 이곳에 와서 아침에 응가하면 저녁에 떨어졌다" 하여 한동안 배짱을 잡고 웃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출입금지구역으로 통제되



어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해 그대로 보존 되어 있었다. 건봉사를 둘러보고 거진항에 있는 활어식당에 들어서니 동해의 맛 난 꽃게 해물탕이 점심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여행길에 올라 허기진 배를 채우려 허겁지겁 입안에 넣은 미더덕이 갑자기 굉음을 울리며 그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바람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에게 미더덕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뿐... 간신히 식사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동해 최북단에 위치한 '화진포' 이곳 '화진포'에는 몽돌몽돌하고 매끈한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김일성별당과 마주한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었다. 호젓한 산책로와 호수를 감싸 안고 있는 쪽빛바다의 풍광은 당연 압권이다.

호수를 따라 걸으니 아직도 지지 못한 해당화가 발그레한 미소를 건네며 우리일행을 반겼다 김일성 별장에 올라서서 해안선을 둘러싼 철조망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니 전쟁의 아픔과 분단에 마음이 찢히다. 버스는 해안선을 따라 관동팔경 중 하나인 청간정에 멈춰 섰다. 아름답기 해송으로 둘러싼 정자에 걸터앉아 바닷가 모래펄위에 웅기종기 내려앉은 백구(갈매기)와 갯바위에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의 풍광에 눈 맛을 즐기는데 동행한 문 시인은 오세영의 '바닷가에 서'를 읊어주었다.

바닷가에서

오 세 영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하락)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아래로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속에도 아름다운 수평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청간정 또한 인적이 드문 깊숙한 한가로움이 태고의 고요를 간직하다 못해 고절한 느낌이 든다.

저녁 무렵이 되니 차는 다음 목적지인 '영금정'(靈琴亭)으로 향했다. 속초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영금정에 오르니 동해의 바다는 남성미 넘치는 파도와 장쾌함이 일망무제(一望無際)로 답답한 일상 속가슴이 뽕 뚫린다. 드디어 숙소인 '설악리조트'에서 저녁을 먹고 여장을 풀니 리조트 대강당에 강연과 공연이 시작되었다.

문 시인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듯 소박한 생활자세로 생각도 줄이면 맑은 마음으로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에 가면 재래시장에 꼭 들르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말들을 들을 수 있고 툭툭 튀어 나오는 말이 일상에서의 귀가 열려 얻어진다고 겸허히 자세를 낮추었다. 이상국 시인은 소탈한 성격에 이 고장의 한사람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향토시인 같았다. 고장지명을 소재로 한 詩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석 시의 노래와 낭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낙산사’를 찾아갔다.

2005년, 천년의 사찰이 산불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애써 외면하며 지냈던 낙산사이다. 동종도 녹아내린 화마의 상흔을 말끔히 단장한 낙산사에 들어서니 산책길을 잘 가꾼 정원을 산책하듯 발걸음이 가볍다.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안녕을 기원하는 해수관음상의 아름다운 미소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마음을 씻는 물로 때 문은 일상을 지우고 발걸음을 옮겨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노송과 의상대를 만났다. 휘몰아치는 세찬 해풍에도 굳건히 서있는 노송과 어우러져 낙산사의 백미로 꼽히는 의상대! 화마의 아픔을 오봉산 자락에 묻고 마지막 여정지인 진전사지(陣田寺地)에 다달랐다. 진전사지는 동해바다와 마주한 설악산의 부드러운 능선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다. 덩그러니 국보급의 석탑과 부도만 남아 수천 년의 세월에 향기가 한없는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폐사된 이후 다시 복원되어 새로 지은 진전사 뒤뜰에서 행시백일장 시상행사를 갖기로 했다. '길 위의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해 준 친구에게 감사하며 문화원 문예 창작반 에서 갈고닦은 기량으로 밤새 머리를 쥐어짜내 전날 나눠 준 종이에 긴 행시를 지어 제출했지만 쟁쟁한 실력자들이 있어 약간 주눅은 들었다. 발표를 한다가에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장원이요" 하며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상품을 받고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나니 일행은 운을 띄워주고 그 운을 따라 내가 쓴 긴 행시를 낭송하니 박수와 함께 "와~우!" ~~일행들로부터 많은 축하인사를 받으니 여행의 기쁨이 배가되었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서두르지 않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마음의 짐을 하나씩 비우며 벗어나기 위해 떠나는 일이다. 설령 일상으로 돌아와 그 짐을 다시 짊어지더라도 수시로 자신을 비워내는 여행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여정이다.



2013

하남문화원 문화 사업 활동기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 활동기 :

- 하남문화원 전문강사 파견 어르신 문화학교 '나도 플로리스트!' 사업을 마치고
최진연 (영락경로원 사회복지사)

어르신 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

- 사물놀이 어르신! 살아 있는 굿판에 취하고 즐겨 보세요
조혜정

K-POP Silver Dancer!

이미옥 (하남문화원 스포츠댄스 강사)

문화유적 답사 활동기

- 춘계답사기 : 충주 "백제역사의 흔적을 찾아"
차영섭 (시인, 하남문화원 해금교실 반대표)
- 추계답사기 : 전주, 후백제의 자취를 찾아서
강신숙 (하남한성백제연구회 회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하남문화원 전문강사 파견 어르신문화학교 나도 플로리스트! 꽃꽂이 문화학교 진행을 마치고 - 꽃보다 할매

최진연

(영락정로원 사회복지사)

작년에는 뜻밖의 행운으로 어르신들과 꽃꽂이 문화학교를 진행하면서 태교를 했다. 꽃이 노인들에게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힐링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꽃꽂이 문화학교를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애가 너무 어려 문화학교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후에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과 비슷하게 어르신들도 대부분 참여 하셨으나 몇 분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 왜 하지 않으시는지 문자 건강이 허락지 않아 참여가 힘들다고 하셨다.

새롭게 입소하신 어르신과 작년에 참여를 원했으나 인원이 꽉 차 못했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셨다. 나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는데 걱정은 기우였다.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아는 안동분 선생님과 이유미 선생님, 정주경 선생님, 방미옥 선생님이 너무도 잘 진행해 주고 계셨다. 작년처럼 시작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하며 애를 먹었던 어르신들이 올해는 먼저 “꽃꽂이 언제 하나?”고 물어보실 정도이니 말이다.

이제 꽃을 꽂으신지 2년차로 접어들면서 안동분 선생님이 꽃의 형태를 이야기 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척척 꽂으시고 안동분 선생님의 확인을 기다리고 계셨다. 어르신들이 꽂으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안동분 선생님이 만지면 꽃이 달라지니 괜히 선생님이 아니냐고 하신다. 그래서 인지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저마다 땀을 내신다. 선생님의 “어머~! 정○○어르신 너무 잘 꽂으셨다” 한마디면 어깨를 으쓱대며 내 것이 제일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고 이○○어르신은 “선생님 내건 어때요?”하고 재차 물으신다. 선생님이 “당연히 이쁘지요”라고 하시면 얼굴을 붉히시며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신다. 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난다.



올해는 31명으로 시작하여 중간에 이○○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건강하시던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을 안아프고 죽는 것도 복이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슬퍼하시는 꽃꽂이 선생님들을 보고 선생님들에게 어르신들은 그저 수강생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죽음 후 변함없이 어르신들에게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다리골절로 아직까지 병원에 계신 최고령 황○○어르신과 건강 때문에 잦은 입원을 반복해야 했던 열혈수강생 최○○어르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병원외래는 늘 프로그램에 변수였지만 그래도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먼저 “오늘 꽃 하지?”하고 물어보시는 어르신이 있기에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꽃을 심어 경로원을 꾸미고, 일일찾집 때 테이블을 장식할 멋진 꽃꽂이도 진행해 주시고 경로원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특히 작년에 이은 꽃꽂이 전시회는 호황을 이루어 어르신들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만들었다. 하남 시장님이 “정말 어르신들이 꽃으신거 맞냐?”고 물어보시자 화를 낼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지면을 빌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백영옥 사무국장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하남문화원께 감사를 드리며, 프로그램 진행을 해주신 안동분 선생님, 이유미, 방미옥, 정주경 선생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도 이 즐거움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어르신 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

어르신! 살아 있는 굿판에 취하고 즐겨 보세요

조 혜 정

정말이지 신명나고 재미난 일이다.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 그것은 정말 짜릿하니 재미난 일이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도 재미나고, 이래저래 풍물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재미나고, 있던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도 재미나고, 그 중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난 일이다.

어떤 인연이 닿아서 인지 하남문화원과 인연이 닿게 되었다. 처음 하남 문화원에서 어르신들을 뵈면서 그 분들에게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갈증을 보았다. 어르신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어느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기대나 열정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눈을 마주친 그 찰라의 순간 정말이지 2013년이 재미난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렘다. 그 재미에 대한 기대감이 일산에서 하남까지 대중교통 왕복 5시간이라는 시간을 감내하게 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4월 동장군이 물러난 따뜻한 봄날부터 동장군이 다시 찾아온 11월까지 하남문화원에서의 8개월은 정말 어린 아기가 몸을 뒤집고, 걷고, 언어를 습득하듯이 느리지만 자연스럽게 풍물이라는 몸짓과 언어를 풀어내는 기간이었다. 수업을 통해 내가 전해드린 것은 단순히 가락이나 악기치는 방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신명풀이와 인생의 활력을 찾아드리는 것이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과연 8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동안 어르신들이 가락을 익히고 연주해 내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많이 조급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풍물악기가 무엇이 있는지 장구의 구조부터 시작해 장구채를 잡는 방법부터 '덩 쿵 따'의 타법을 익히기 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어르신들이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던 것이 어르신들은 느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열심히 따라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기우임을 알게 되었다. 중간 중간 어려운 가락을 배울실 때에도 포기하시기 보다는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으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빠른 시간에 가락을 학습하고 습득하지 못하지만, 어르신들의 방법으로 옛것에 대한 신명과 활력을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는 신비한 재주를 가지신 것 같다. 저를 비롯 젊은이들은 서양음악 중심의 교육을 받고 주위 환경 또한 전통 환경이 아닌 서구 산업화된 사회에서 성장해 왔기에 전통문화를 학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학습 없이도 전통음악을 풀어내는 방법이 세포 하나하나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태중에서부터, 일상속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항상 함께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릴적 마을사람들과 푸지고 넉넉하게 논뚜렁 밭뚜렁에서 신명나게 가락을 치면서 뛰어 놀고 마을사람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음악을 몸으로 습득하는 일상을 살아왔기에 악기 다루는 법만 알려드리면 그대로 장단의 기운을 느끼고 춤을 추시고 노래 부르고 신비한 재주를 풀어 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남 웃다리 풍물수업을 통해 나는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였다. 악기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르신들보다 내가 잘하지만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옛 전통 음악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것은 내가 감히 범접치 못하는 부분이며 부러움이며 내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다.

2013년 11월 발표회를 보면서 정말 어르신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날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그날의 연주는 그 어떤 연주보다 훌륭했고 그 연주를 보신 분들은 그분들의 열정에 감동했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를 살아가실길 바랍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분들에게...

서정록의 인디언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다.

- 노인들은 과거세대와 우리를 잇는 가교다.

마치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세대를 잇듯이 노인들은 생명의

원 고리를 완성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

어르신 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

K-Pop Silver Dancer! 강좌를 진행하며...

이 미 옥

(하남문화원 스포츠댄스 강사)

벌써 올해로 마지막달인 12월이 되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 였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잊지 못 할 일은 문화원에서 지원해 준 K-POP 댄스 동아리 활동이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다. 내 생각엔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라 하시다가 도중에 그만두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한 스텝 한 스텝씩 천천히 걸음마 수준으로 지도해 나갔다. 음악도 젊은 이들 음악에다가 동작도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동작들을 하려하니 몸은 굳어있고 민첩성, 순발력도 없고 정말 너무 난감하였다. 이렇게 하다간 언제 제대로 된 작품 하나를 완성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씩 연습한 것들이 모여 나중엔 스텝이 연결되고 조금씩 모양이 잡혀나갔다. 어떤 분은 “보기엔 별거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일이 커지네요. 호호호” 하며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 웃으셨다. 이분들의 열정에 걱정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한 잘 안 되는 동작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력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은 집에서 두 시간 연습했다고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동영상을 찍어 가시는 분, 음악을 다운받아 계속 듣겠다고 하시는 분. 와우! 이런 열정이 있을 줄이야! 드디어 한 곡이 완성되었다. 모두들 발표회를 기대하면서 동대문 시장을 몇 시간 돌아다니며 발표회 때 입을 옷을 구입 했을 땐 모두들 20대 아가씨가 된 듯 기뻐하였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회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사실 K-POP 댄스는 유산소 운동은 물론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운동과 민첩성, 순발력도 키워준다. 또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물론 마음까지 행복해진다. 한마디로 노화방지에 최고의 효과가 있는 운동이다.

K-POP 댄스 동아리를 통해 정말 큰 보람을 느낀 한해였다.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신 문화원에게 감사드리고 동아리가 아닌 정식 K-POP 반이 생겨 계속 지속되길 모두들 바라고 있다.

춘계 유적지 답사

충주 '백제역사의 흔적을 찾아'

차 영 섭

(시인, 하남문화원 해금교실)

봄, 가을 일 년에 두 번씩 문화원 행사로 전국의 유적지를 답사하며 선조의 얼을 약간이나마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일이다. 문화원장도 공석인 터에 사무국장이 꾸준히 잊지 않고 이런 기회를 주니 원생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다. 원생들의 학구열은 오히려 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어서 많은 사람이 충주지역 답사에 참여하였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더니 점점 완연한 봄의 얼굴을 보인다. 나뭇잎들이 꽃보다 싱그럽게 연록의 옷을 입고 있다.

첫 걸음, 장미산성에 다다라서...

장미산성 입구에 장미마을이 있고, 그 앞에서 일행은 차에서 내렸다. 하남에서 불과 1시간여 거리이니 그리 멀지는 않는 거리다. 버스 2대다. 장미라는 입석에 글을 보며 장미꽃을 연상하면서 40분 남짓 걸어 오르며 충주 문화원에서 나온 안내원에게 왜 장미산성인지를 물어봤다. 원래는 봉황산이었는데 같은 이름이 보령에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2008년도에 장미산으로 개명했다 한다. 그리고선 장미산성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장미산성과 가까운 곳에 보련산성이 있었는데, 어떤 장사 집안의 아들은 장미산성을 쌓고 딸은 보련산성을 쌓았다 한다. 한 집안에 장사가 둘이면 한 사람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서 어머니는 결국 성을 쌓아 겨루기로 하였다. 흠여머니가 보기에 아들이 먼저 쌓기를 바라는 마음이 꿀떡 같았으리라. 그러나 딸의 진도가 빠른 듯하여 어머니는 새참을 만들어서 딸에게 가져다주어 먹게 하고 아들이 부지런히 쌓기를 독려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장미산성을 완성하고 뒤늦은 딸은 멀리 떠나보냈다 한다.

여기는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와 가흥리, 하구암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과 동쪽, 북쪽의 삼면이 강물로 둘러져 있어서 천연장애물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남한강의 물길

과 계림령길, 새재길, 멀리는 죽령길 등 소백산성을 넘는 고갯길이 이어진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 목 진지를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대단히 우위였다. 남한강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굽었다가 서쪽으로 흐르는 만곡부 중심에서 사방을 전망하기에 좋은 위치다.

남쪽에서 서울로 진출하려면 문경새재를 넘어서 충주평야를 지나 남한강을 따라 북상해야 하는데, 이때 장미산성이 충주 평야를 감제관측하는데 제일의 위치였다. 이 지형은 맨 처음에 한성도읍기(BC 18-AD 475년) 말기인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무렵에 백제가 점령했던 곳이다. 그 후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펼쳐 이곳 충주를 비롯하여 남한강 유역까지 고구려 세력이 펼치었던 땅이며 그 후 신라가 점령해서 삼국의 각축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산성의 둘레는 932m이며 높이 340m이다. 성벽은 비탈면을 최대 이용하여 할석을 대강 다듬어 네모난 면을 바깥으로 쌓아 올렸다. 말 발굽형으로 된 지형이 인상적이었으며 사방으로 두루 관측이 용이하여 군사적 요충지이었다. 강을 연한 지형은 급경사이고 후방은 은폐엄폐가 용이하였다. 한강을 이용한 군수물자나 병력 수송을 통제 가능하고 아군이 이용하기에 편리했다. 축성은 겹축과 내탁을 혼용하고 있다.

겹축부에서는 암반을 정리하여 쌓아 올리고 연약지반에서는 점토로 다져 올린 다음 기단석을 놓고 그 위에 체성을 쌓아 올렸다. 내탁부에서는 성벽 외측에서 석축하여 올리면서 뒷채움하였는데 내측 바닥면과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외측의 성벽과 함께 내측으로 막돌과 점토를 다져서 쌓아 올렸다.

다음 걸음,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시관 입구에 맨 처음 고구려 벽화가 있는데 '견우와 직녀 이야기'로서 전래 동화로 엮여져 있다. 세계 최초의 벽화이며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 한다. 이어서 우마차 벽화가 있다. 소는 여자만 타고 말은 남자만 탄다는 풍습이다. 고구려에서는 시조 동명성왕을 '해와 달의 아들이며, 하백(물의 신)의 외손'으로 믿었으므로 고구려인들은 하늘 세계의 가족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고구려인들에게 해와 달은 고구려의 정체성과 연관된 천체였으며, 각종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거의 빠짐없이 해와 달이 그려져 있다. 해는 흔히 원륜 안에서 세 발 까마귀가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달은 원륜 안에 두꺼비, 옥토끼, 계수나무 등이 들어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고구려의 전성기와 관련한 여러가지 전시물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개마무사(갑옷 개 鎧+말 마 馬)로 고구려의 주력 부대가 편성되었다. 개마란 기병이 타는 말에 갑옷을 입힌 것을 말하며 개마에 탄 기병을 개마무사라 불렀다. 개마무사들은 공격시 적진을 돌파하는 돌격대였고 방어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호벽이었다. 개마무사들은 화살이나 창으로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개마무사는 광개토대

왕이 벌인 정복 사업의 주력이었으며 당시 개마무사만 5만명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고분 벽화의 행렬도를 보면 왕과 귀족의 수레 가까이에 개마무사들이 열을 지어 행진하고 있어 전투시나 행군시 개마무사들이 항상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마무사를 기병으로 활용한 것은 고구려가 질 좋은 철을 많이 생산했고 뛰어난 제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까지 철로 된 장비로 무장시켰다는 것은 고구려가 최강의 전투력을 소유했다는 증거이다.

고구려비의 공식 명칭은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이지만, 일반적으로 신라 시대 충주의 옛 지명에서 비롯된 ‘중원고구려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구려의 석비(石碑)로 1979년에 조사되어 알려졌다. 1981년 3월 18일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었으며, 원본은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에 위치한 충주고구려비 전시관에 보존되어 있다. 높이 203cm, 폭 55cm, 두께 33cm이며, 커다란 자연석을 다듬어 그대로 비면(碑面)으로 삼고 있다. 4면에 모두 예서체로 글을 새겼지만 뒷면과 우측면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모되었고, 앞면과 좌측면 일부의 내용만 확인된다. 글자 하나의 지름은 3~5cm로 앞면에 23자씩 10줄, 좌측면에 23자씩 7줄이 있으며, 우측면에는 6줄, 뒷면에 9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가 세워진 시기에 대해서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5세기 장수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에서는 고구려 왕을 ‘고려대왕(高麗大王)’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 등의 표현에서 고구려군이 신라의 영토에 주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외에 고모루성(古牟婁城), 대사자(大使者) 등 당시의 지명과 관직명도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중원고구려비는 5세기 고구려의 남진(南進)과 신라와의 관계를 알려주어 사료(史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고구려의 금석문(金石文)은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 등 매우 일부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석비는 한반도의 중부 지역인 남한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된다.

고구려의 무덤, 충주 고구려비와 탁본(拓本), 비석(碑石), 벽화(壁畵) 등 다양한 자료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백제 신라의 자료가 함께 전시되고 있어 충주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최전선(最前線)으로 지리적(地理的) 중요한 요충(要衝) 지대(地帶)임을 다시 말해 주는 것 같다. 이 비는 고구려(高句麗)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 발견 이후로 가장 큰 고구려비(高句麗碑) 발견이라는 점과 당시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비석이라는 점에 큰 의의(意義)가 있다. 더구나 고구려의 금석문(金石文)이 남아 있는 것은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 등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이곳 중원지방(中原地方)에 완전한 돌비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큰 수확(收穫)이다. 글씨나 글에 고구려인의 독자성(獨自性)이 잘 나타나 있으며, 비가 만들어진 연대는 423년 장수왕 때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이 비석이 고구려비인 증거는 비석 문구 자체가 고구려 관직이고 광개토대왕비와 유사하다는 점에 있다.

이어서, 충주 중앙탑 답사

국보 제6호(1962. 12. 20. 지정)인 충주탑평리칠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9세기 중엽)때 세워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흔히 중앙탑이라고 불린다. 다만 일제강점기인 1916년 작성된 탑의 수리에 관한 문서를 보면 모두 '중앙탑'이란 명칭을 쓰고 있고 충주지역의 주민들은 중앙탑으로 애칭하고 있다. 이 문서 말미에 "구비로 전함에 의하면 중앙탑의 명칭은 조선의 중앙지라고 전설하였다는데 유함이라"고 하여 건탑 유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라 원성왕대(785~798)에 세워졌다는 전설이 있는 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중 가장 키가 큰 높이 14.5m의 유일한 7층 석탑이다. 2층 기단 일반형 석탑으로 탑신에 비해 기단부의 너비가 넓다. 기단은 각부를 거형석으로 조립하였고 상하층 기단이 모두 면석에 4개의 탱주로 세워놓았다. 탑신부도 거형석으로 구성하였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며 중첩되었다. 그리고 옥개석 받침은 각층이 모두 5단으로 옥개석 각층마다 낙수 홈이 파여져 있다. 상륜부는 이중 노반으로 포개어 그 위에 복발 양화만이 남아있다.

탑 조형술과 세부상세기법의 단순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약식과 섬약이 표출된다. 탑 형상은 높이와 너비의 비례가 상대적으로 수직상향성이 두드러져 웅대함보다는 하늘로 솟구치려는 상승감을 강조하고 있다. 탑이 하늘을 향한 초점경관이며 동으로 백두대간 산악의 점진적 중첩경관과 구릉지와 시가지경관, 남으로 점단산의 능선과 팔송산의 차경, 서로 상진대와 황금산의 산림경관, 북으로 장미산의 산림경관과 산성의 조망경관이 배경을 이루고 있어 산수의 위요경관이 조화롭다. 탑 주변에는 '문화재와 호반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조각 작품 26점을 전시한 충북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과 시민위락시설이 있고 호반 같은 강물에 조정경기장시설과 술박물관이 연담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끝으로, 탄금대에 이르러

오늘 하루 날씨가 좋더니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구슬비가 소록소록 내린데도 불구하고 원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자 답사를 즐기니 보기에 아주 아름답다. 옛 시절을 그대로 보여주고파 옛 모습으로 단장한 소나무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안내하니 기쁘지 않을소냐. 탄금대(명승제42호)는 대문산으로 부른 야산으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며 울창한 송림으로 경치가 좋다. 신라 진흥왕 때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탄금대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륵은 가실왕 당시의 가야 사람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귀화하였다. 진흥왕이 기뻐하며 우륵을 충주에 거주케 하고 신라 청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곳은 국민관광지로 탄금대비와 신립장군 순절비, 조웅장군 기적비, 악성 우륵선생 추모비, 충혼탑, 감자꽃 노래비, 궁도장과 대홍사 그리고 충주문화원과 야외음악당, 조각공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입구에는 신립장군과 우륵을 노래한 탄금대자연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탄금정 굽이 돌아 흘러가는 한강수야 신립장군 배수진이 여기인가요
열무대 굽이치는 강물도 목메는데 그님은 어디가고 물새만이 슬피우나
송림이 우거져서 산새도 우는가요 가야금이 울었다고 탄금인가요
우륵이 풍류유했던 대문산 가는 허리 노을진 남한강에 님 부르는 탄금아가씨'
곶전을 스치는 바람이 스산하다.

충혼탑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글씨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다. 1955년에 광복 이후 전몰한 충주 중원지역의 장병과 경찰관 군노무자 2,838 위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으로, 제일 꼭대기 첨탑부분은 그때 시대상을 형상화한 총알 모양이고 색이 틀린 기단부분은 2005년 충주시에서 호국영령의 위패안치실을 건립하여 그 위에 탑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세운 것으로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행사를 지낸다.

남한강이 절벽을 따라 휘감아 돌고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대에서 조망되는 남한강과 계명산, 남산 및 충주 시가지와 넓은 평야지대가 그림같이 펼쳐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537), 가야국(伽倻國)의 우륵(于勒)이라는 악사(樂師)가 그 나라의 멸망을 예측하고 신라에 귀화하였다. 그는 이곳을 우거지(寓居地)로 삼고 풍치를 상미하며 산상대석(山上臺石)에 앉아 가야금을 타니, 그 미묘한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 부락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로 연유하여 이곳을 탄금대라 부르고 있다. 또한 이곳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砬) 장군(將軍)이 8,000여명의 군졸을 거느리고 이곳에 와 배수진을 치고 왜장(倭將) 가토(加藤) 기요마사와(清正) 고니시(小西) 유키나가(行長)의 군대를 맞아 격전을 한 전적지이기도 하다. 신립장군은 전세가 불리하여 패하게 되자 천추의 씻지 못할 한을 품고 강에 투신 자살하였다.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슬픈 역사의 장소다. 지금에 와서 공원으로 말끔히 단장된 탄금대는 많은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신라의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켜면서 망국의 한을 달랜 곳이자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순국의 현장이며, 현대로 넘어와서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숨겨진 넋들을 기리는 충혼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장중한 남한강 물줄기가 내려다볼 수 있는 칠금동 대문산 기슭의 탄금대. 1,400년 전인 신라 진흥왕 때 가야국의 우륵이라고 하는 악사는 조국의 멸망 후에 이곳에 강제로 이주당한 수많은 가야인들 중 한사람이었다. 당시

우륵은 탄금대 절벽바위를 주거지로 삼고 풍광을 감상한 경우라면서 가야금을 타는 것이라서 소일했던 것이다. 그 오묘한 음률에 젖어 들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부락을 이루고 그곳을 탄금대라 명명했던 것이다.

조선조로 넘어와서 임진왜란을 맞아 탄금대는 감상의 장소가 아니라도 치열한 격전지로 변모한다. 신립장군의 가슴 아픈 패전이 이곳에서 기록된 것이다. 선조 25년(1592) 4월 14일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가 이끄는 15만 명의 왜군이 거침없이 서울을 향해 쳐들어가자 신립장군은 도순변사가 되어버려 충주 방면을 지키게 된 것이다. 신립장군은 지형을 정찰한 뒤 조령에 진지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군사들의 훈련이 부족해 사지에 몰아넣지 않으면 투지를 드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판단, 28일 새벽 8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다.

그러나 신립 장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천추의 한을 품고 남한강에 투신자살, 패장의 불명예를 쓰고 만다. 탄금정 정자에서 북방향으로 충계를 따라 내려가면 열두대라는 충암절벽이 기다린다. 왜군과의 격전 당시 장군이 열두번이나 오르내리면서 활줄을 강물에 식히고 병사들을 독려하였다 해서 열두대라는 것이다.

충주의 지리적 고찰

충주 지역은 남한강 물길이 지나가고 계림령 길이나 새재길, 멀리는 죽령길 등 소백산맥을 잇는 고갯길이 있어 나라 전체로 보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목과 같은 중요지형이다. 삼국시대에는 맨 먼저 백제의 땅이었으나 5세기 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펴면서 고구려 땅이 되어 국원성으로 불렸다. 고구려는 충주를 비롯한 남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남방 경계선이 장차 남방 진출의 거점이 될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이 중원 고구려비이다.

6세기 중엽 충주는 신라 영토가 되었다. 진흥왕 18년 신라는 전략상의 요지이며 수로교통이 편리한 이곳을 중원소경으로 삼고 가야의 귀족과 6부의 호민들을 이주시켰다. 남방 세력의 북진정책과 북방세력의 남진정책이 충돌하는 요충지가 바로 충주의 지리적 특성인 것이다. 그 외에도 충주는 철의 생산지이며 내륙의 항구도시로서 면목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두며
역사의 넓

임진강 유역을 가나
경주 일원을 도나

충주 지역을 보나
우리 문화원생은
삼국시대 백제에 주안을 두지만,

백제를 만지면서
고구려와 신라를 느끼고
삼국 이전 우리 옛 선조들의
정성 어린 나라 사랑에 눈물 젖나니,

우리가 오늘에 삶은
아아, 선조의 넋에 감사하고
그 넋을 이어받아
후손에게 영광을 돌려줘야 겠다고
소명감을 느끼노라!

우리의 일상이 강물처럼
이어져온 빛나는 투혼의 결정이요
이 일상을 더욱 갈고 닦아
보석처럼 빛나는 영원한
조국정신으로 이어가라!



추계 유적지 답사

전주를 다녀와서...

강 신 숙

백제시대 관련 문화유적답사의 일환으로 후백제의 자취를 찾아서 전주답사를 간다. 전주는 두루 갖춘 곳이라는 의미로 우리말로는(온 고을)로 풀이 된다. 이는 전주가 사람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임을 말해준다.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태조의 고조부 목조 이안사가 삼척을 거쳐 동북면으로 이주해 갈 때 까지 그 선대들이 살았던 곳이다. 전주는 조선 건국과 함께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풍패지향(건국자의 본향을 높여 부르는 말)이 되어 위상이 격상되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고 여기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전주는 조선왕실의 고향이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경기전을 비롯하여 조경묘(전주이씨 시조인 이한공과 시조비 경주김씨의 위패를 모신사당), 조경단(전주이씨 시조이한의 묘소로 건지산에 있다), 오목대(태조이성계가 고려우왕 6년(1380년)에 운봉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황산대첩을 거둔후 귀경길에 전주에 들러 일가친척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던 곳), 이목대(태조의 5대조 목조이안사의 출생지로 전해지며 전주를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등 많은 왕실유적이 있다.

아침 7시 문화원 앞에서 출발하여 10시 40분에 전주의 동고산성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해설사 분을 만나 안내를 받으며 10분정도 오르니 파란 덮개를 쓰고 있는 무너진 성벽 옆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원성이 보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

동고산성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 25번지. 승암산(해발 306m)에 위치하며 면적은 167,597평방미터, 둘레 약1,588m, 높이 약4m이다. 계곡을 끼고 산꼭대기를 둘러 성벽을 쌓았다. 승암산 절벽에 의지해 서북쪽으로 수구를 뚫었으며 남북으로 날개모양의 익성을 설치한 독특한 형식이다. 북쪽익성의 길이는 112m, 남쪽익성의 길이는 123m이다. 현재 동, 서, 남문터와 배수구 문, 건물터 시설이 성내부에 남아 있다. 서문 터에서 문기둥 밑에 박았던 화금(신쇠)이 출토되었다. 서문 터는 동고산성의 정문으로 추정된다. 대형건물터의 방향이 서향이고 북

문 터는 어긋문, 동문 터는 현문(다락문)으로 암문(비밀리 출입하는 문)인 점에서 그러하다. 전주도성의 일부이자 전쟁 시 피난할 수 있는 배후산성으로 견훤의 정치와 군사가 살아 있던 곳이다. 동고산성은 예로부터 후백제를 세운 견훤왕의 궁성 터라는 말이 전해 왔다. 900년(효공왕4년)에 완산주를 점령하고 이곳에 도읍을 정해 37년간 존속한다. 기와 편에 전주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산성이 지어질 당시에는 전주성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20여분을 더 올라가니 건물지가 나온다. 정면 22칸, 측면 4칸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건물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고구려의 안악궁은 정면 11칸, 측면 4칸이다. 건물 지를 끼고 오솔길을 가니 북문 터가 나온다. 성벽의 흔적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안내판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건물 지를 지나 와서 다리가 아프거나 힘든 사람은 성을 내려가라는 안내가 있었고 나머지는 승암산 전망대로 가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주 시내를 보고 사진을 찍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올라올 때와 달리 하산길이 가파르고 험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풍남문으로 갔다. 풍남문은 고려 때 세운 것으로 정유재란 때 파괴되어 영조10년(1734년)에 성곽과 성문을 다시 지으면서 명건루라 불렀다. 영조 43년(1767년)에 불타서 영조 44년(1768년)전라감사 홍락인이 다시 세우면서 풍남문이라 하였다. 풍패의 남쪽이란 뜻으로 풍패는 한나라 고조가 태어난 곳으로 조선왕조의 발원지인 전주를 그 곳에 비유한 것이다. 풍남문은 팔작지붕이며 지붕에 잡상도 있다. 성문위에 세운 누각위층의 기둥이 아래층의 기둥과 하나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동, 서, 남, 북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풍남문만 남아있다. 경기전으로 가는 길에 전주비빔밥축제현수막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체험현장도 있으며 밤에는 공연도 한다고 한다.

경기전 앞의 하마비는 한 쌍의 해태기단위에 좌대와 비신의 형상으로 광해군 6년(1614년)에



세웠으며 현종7년(1856)년 중각(글씨를 다시새김)하였다. 경기전(慶基殿)은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의미이며, 홍살문, 외삼문, 내삼문, 정전과 제사를 지내는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있다. 정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하였는데 정유재란 때 불탔으나 광해군 6년(1614년)에 다시 세웠으며, 회랑을 두어 최고의 사당임을 나타내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등 난이 일어났을 때 어진을 아산, 묘향산, 적상산 등으로 옮겨졌던 것을 1614년 경기전이 중건되면서 다시 돌아왔다가 동학혁명 때 위봉산성으로 옮겨져 화를 면했으며 현재 경기전에 모셔져있는 어진은 1872년 서울 영희전의 영정을 모본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 현존하는 어진은 태조, 영조, 철종 어진 뿐이며, 세종, 정조 어진은 기록으로 전해지는 모습과 그 후손들의 골격을 토대로 후대에 그린 표준영정(국가공인 영정)이다.

단풍이 아름다운 배롱나무를 지나 작은 문으로 나가니 예종태실 및 비가 있다. 선조 11년(1578)에 건립하였고 거북모양의 받침돌과 뿔없는 용의 모습을 새긴 머릿돌이 돋보이는 비석이다. 태실 주위에 난간석이 있으면 왕의 태실이다. 뒤뜰에 조선왕조실록을 끝까지 보존해 준 전주사고가 그 임무를 다하고 쓸쓸히 서있다.

전동성당은 조선시대 천주교도 순교 터에 그 뜻을 기리고자 1908년 프랑스신부 모두네가 성당건물을 착수, 1914년에 완공한 성당이다. 포근하면서 웅장하고 화려한 로마네스크 복고양식의 건물이다. 성당 옆의 골목을 지나 간판이 예쁜 “모란네 부엌” 식당을 지나 강암(송성용)서예관에 들러 묵향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하였다. 전시관 가운데 할아버지가 글씨를 쓰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흥내 내는 모습이 익살스럽다.

또한 “덕이 재주를 앞서야한다(德勝才)”는 세상의 가르침이 되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개천을 따라 걷는데 청연루 근처의 갈대가 아름답다. 잠시 더 가니 전주향교의 입구에 하마비가 보이고 정문인 萬化樓(공자의 도로 만물을 교화 한다는 글에서 유래)가 나온다. 전주향교는 고려 말에 창건되었고, 경기전이 세워지면서 옮기고 임진왜란 때 불타 선조36년(1603)에 재건하면서 현재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름다운정원이 보이고 대성전이 있다. 이곳은 대성전이 앞에 있고 명륜당이 뒤에 있는 전묘 후학건물의 배치이다.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아름답고 듬직하게 지키고 있다. 대성전에는 중앙에 공자초상과 신주가 정면에, 좌우에는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중국의 4성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있다.

향교를 나와 골목으로 가니 양사재가 나온다. 양사재(養士齋)는 원래 생원, 진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머무는 향교의 부속 건물로 1897년 전북공립소학교(현 전주초등학교)로 사용된 신학문의 요람이다. 그리고 가람 이병기(1891~1968)선생이 집필활동을 한 장소로 유명하다. 뒤채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소박하고 정감이 가는 정원이 보인다. 양사재를 끝으로 답사를 마치고 골목길을 따라 한옥마을로 들어서니 오목대길에 오목정이 보인다. 전주는 비빔밥축제 중이며 모든 걸 잊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리는 아름다운 밤이 될 것이지만, 이곳에 마음만 두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하남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2013

하남문화원 하남문화대학

원고모집 - 2014년 위례문화 원고 모집 안내
하남문화원 주요 사업 및 강좌 안내



『위례문화』 제17호 원고보집

2014년도에 발행될 『위례문화』 제17호에 수록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하남시 문화발전의 꿈을 가진 이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내 용

- ◆ 시, 수필, 콩트 및 문예작품
- ◆ 향토문화 시론 및 논단
- ◆ 우리고장 역사 문화자료 : 문화유적 및 유물, 설화, 민속놀이 등
발굴자료 및 연구자료<관련사진 첨부>
- ◆ 우리고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 ◆ 우리고장의 문화계 소식

원고접수

- ◆ 접수기간 : 연간 수시접수
- ◆ 필자의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 보낼곳 : (우) 465-800 하남시 덕풍동로 12
하남문화원

하남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 ◆ 접수기간 :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 강좌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28일까지
- ◆ 접수시간 및 장소
 평일 : 오전 10시~ 오후 6시, 1층 로비
- ◆ 수강료 : 회원 3개월 30,000원
 65세이상 : 3개월 15,000원
- ◆ 접수문의 : 하남문화원 사무국(031-795-1020)
- ◆ 유의사항 :
 - ① 각 강좌는 선착순 마감됩니다.
 - ② 수강 인원이 최저인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합니다.
 - ③ 강좌의 변경, 환불은 행정상 개강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 ④ 회원의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회원자격 : 신청일로부터 1년
 회원은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년 1만원)를 납부하면 문화대학 회원자격 부여
- ◆ 회원 예우 : 문화원 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 행사에 초대합니다.
 문화원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보내 드립니다.





하남문화대학 요일별 강좌안내

요일	강 의 시 간	강 좌 명
월	10:00 ~ 12:00	한글 서예 (초급반 및 중급반 이상)
	10:00 ~ 12:00	수지침 교실
	10:00 ~ 12:00	민화 교실
	14:00 ~ 16:00	경기 민요
	15:00 ~ 16:00	생활공예(클레이점토)1부
	16:00 ~ 17:00	생활공예(클레이점토)2부
화	10:00 ~ 12:00	사군자를 기반으로 한 한지 공예
	10:00 ~ 12:00	해금 교실
	10:00 ~ 12:00	서양화B (유화)
	13:00 ~ 14:00	생활 명리학(초급)
	14:00 ~ 15:00	생활 명리학(중급)
	15:30 ~ 17:30	남도 민요(판소리)
수	10:00 ~ 12:00	서양화A (스케치, 수채화)
	10:00 ~ 12:00	문인화
	10:00 ~ 12:00	문예창작교실
	13:00 ~ 15:00	풍수지리학
	15:00 ~ 17:00	추억의 하모니카
목	10:00 ~ 12:00	한국화
	10:00 ~ 12:00	디지털카메라 & 포토샵
	10:00 ~ 11:30	스포츠 댄스
금	10:00 ~ 12:00	한문 서예
	10:00 ~ 12:00	꽃꽂이
	15:00 ~ 16:30	가요교실
	15:00 ~ 17:00	사물놀이

ISSN 2092-6499

위례문화 제16호 | 2013

발행인	유병기 (하남문화원 원장)
편집인	이상범 (하남문화원 사무국장)
편집기획	김혜연, 윤재민 (하남문화원 간사)
인쇄처	케이컴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처	하남문화원 (465-800)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2 TEL. 031-795-1020 FAX. 031-795-1065
홈페이지	www.hanamcenter.or.kr
E-mail	cc465hn@kccf.or.kr

본 책자는 하남시 문화사업 보조금 및 하남시 의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비매품]

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Hanam Cultural Center



하남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열악한 문화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하남시의 문화를 이끌어 갈 뜻있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화에 관심을 갖고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시민 모든 분을 문화원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 회원자격 : 만 19세 이상의 남녀 시민
- ◎ 단 체 : 문화예술 분야 및 건전한 취미 동아리의 단체가입도 가능함.
- ◎ 회원특전 : ① 본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자료의 무료제공.
② 본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에 우선 초청
- ◎ 회 비 : 회비 년10만원
- ◎ 가입방법 : 직접 방문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전화로 신청시 가입원서를 보내드립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문화원에 금전 기타 재산출연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글서체
가무근
한글서체



하남문화원

(465-800)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2

TEL. 031-795-1020

FAX. 031-795-1065

홈페이지 : www.hanamcenter.or.kr